

인문대 여성모임연대

2003

여름 성매매 세미나

인문대 여성모임연대

2003 여름 성매매 세미나

유진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원미혜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1. 무엇이 문제인가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은폐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전부하리 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은폐를 바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賣春)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찌겠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도 해 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들.

사실 다른 성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바빌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망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뻐건 등이 커진 사창가뿐 아니라 이발소, 여관, 목욕탕, 술집, 산 고 속도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촌 굴목마다 방치된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빛과 착취의 늪, 인신 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는 신종 상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은 한계점을 잃은 듯 새로운 자극과 해소의 방식을 발기시키는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다방에서도, 전화방에서도, 매체에서도 성을 끼워 판다. 한층 더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이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성매매 현상을 접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 1) 예를 들어 뉴기니아의 한 부족(Etoro)은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아이에게 성인 남성(대부분 친척)의 성기를 펠라티오(fellatio)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습은 근친 상간, 어린이와의 성관계, 동성애 등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섹스'가 아닌 '아이 기르기'의 범주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섹스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Shrage, 1989, 350~351쪽).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수없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놓인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적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현상의 실태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짜는 데 '관점'의 정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앞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억압적인가'라는 질문을 여성 내부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를 문제로 다루어 온 연구물이나 사회적 시각은 매춘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된 전통적인 물음들은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빈약한 성과학자나 범죄심리학자는 그 답을 매춘부들이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속성에서 찾았으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경제적·심리적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매춘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각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야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갖기

1) 용어 읽기: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매매음(賣買音)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²⁾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

2) 예를 들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가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폭동, 광주 사태 등으로 불렸던 시대에 그 의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중요했고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로 나타났듯이, '성매매'의 용어 또한 현재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저(L. Shrage, 1989, 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때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굳이 '봄(春)'이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春'자는 춘화(春畵), 회춘(回春) 등 일반적으로 성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을 고정 불변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성을 봄에 비유하게 되었을까? 춘정(春情),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돌아나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띄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 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賣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하고 싶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자체로 기존의 인식을 깨는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산업 종사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의미로 '매춘 여성·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앞서 열거한 정치적 의미를 약화시키지만, '성산업 종사자'의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란 말을 사용하면 의미는 잘 전달되나 서술적이고 너무 길어 지칭어로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어가 모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모순적이기는 해도 매춘 여성 또는 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매춘 여성에 대비되는 말로 성을 사는 '매춘 남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공간에서 손님과 종사자간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아무튼 이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대안적인 용어를 함께 고민해 보자.

2) 성매매에 대한 환상 벗기

가.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들의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들의 발기된 성욕을 해소하는 장(場)이고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성적 행동의 한 측면으로만 파악되고, 남성의 성충동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상의 문제는 성매매를 단지 생물학적인 결정 요인만으로 설명하고 성매매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를 무시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다른 사악한 요구들(예를 들어 살인, 지배, 폭력의 욕구 등)을 욕구 자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성매매에 대한 욕구 역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의 사회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그 역기능을 간과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남성의 성욕을 식욕과 마찬가지로 욕구의 필연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페이트만(C. Pateman, 1988, 197~199쪽)은 음식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섹스의 필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성매매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한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밝혀진 적이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 사이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통념의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제하는 국가의 성범죄 비율은 성매매가 적은 국가에 비해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그 반대이다. 법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와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폭력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성매매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모른 채 갖게 되는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른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S. Wynter, 1992, 269쪽) 남성에게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안드레아 드워킨, 1989)이라면, 성매매는 돈을 주고 행하는 '연습 게임'이 되는 셈이다.

나. 성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기생 관광, 태국의 매춘 관광, 어린이 매매 등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은 경제적 부를 위해 성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성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 개발 국가의 경우, 그 사회가 치르는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으로 국내 성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남성들은 예사로 사창가를 찾는 문화가 만연되었다. 또한 국내 성산업의 발전은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으로부터 여성의 유입을 증가시켰다.

특히 에이즈는 전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성산업 중심의 관광 산업 발전으로 사창가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어디에서나 에이즈가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아무 학교 학생에게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학생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이다. 태국은 성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성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성산업, 성매매의 발전은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향락 산업에도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인력 수급이 불균형한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연령층이 20대 또는 10대라는 사실을 헤아려 볼 때, 이런 여성들은 기술이나 다른 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 또는 비슷한 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매매가 향락 산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산업 종사자들은 향락 산업을 통해 알코올, 마약, 약물, 노름 따위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치료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사회 비용 또한 엄청나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사회적으로 폐기 처분된 폐인이나 병자로 남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막대한 국가 인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성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여성 노동력의 유출, 인력 수급의 불균형, 재사회화 비용, 성병 및 에이즈, 가치관의 혼돈 등-을 사회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성산업으로 얻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산업의 발전은 경제 발전에서 '밀려진 독'의 역할을 한다.

최근 성산업이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각국에서는 '성산업 없이도 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활발히 나오고 있다.

다. 매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성매매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하며 고개를 돌려 버린다. 도대체 왜 성매매에서 야기되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창가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한 경찰관은 이런 말도 한다. "스스로 자기를 상품화해 가지고... 어느 문호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한다, 그런 말을 제가 언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4) 한편, 사람들은 성매매를 예정 없이 육체적으로만 만족하는 섹스, 프리섹스(free sex)의 하나로 취급하려고 한다. 프리섹스는 상호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불평등한 금전 관계를 매개로 상대를 성적으로 지배/피지배하는 구조를 갖는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은 남성의 만족을 위해 여성의 몸이 일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며, 여기서 매춘부의 쾌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와 프리섹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의 경우엔 그런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깐...”⁵⁾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매춘 여성들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파괴를 경험하면서 쾌락을 얻는 존재가 되고 만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므로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는 또한 그 자체로 선택되어 버린 것이 된다.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사람은 인격도 최소한의 시민권도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매춘 여성은 강도나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때도 “한 번 당하나 여러 번 당하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고까지 하느냐”고 경찰로부터 모욕을 받는다.⁶⁾

매춘 여성에게도 인권이란 것이 있는가? 매춘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성매매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매춘 여성들에게로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이유도,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착취 등의 인권 문제도, 모두 다 매춘 여성의 피학적인 취미로 인해 ‘선택’된 것이라는 논리다. 성매매에서 여성의 자발성 논의가 추상적이며 극단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 매춘 여성의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구성하는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춘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비생산적인 물음이 아니라, ‘여성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매춘 여성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매춘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만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특정한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사회 조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의 집점을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고 한데,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여성의 실제, 성매매의 실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매춘부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는 성차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제한이나 그로 인한 가난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 특히 가난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깊은 늪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성매매에는 팔릴 수 있는 여성의 몸이 있다는 사실과 성별에 따른 부(富)의 불균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가 축적되면 성산업이 팽창하고 성매매가 증가한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직업보다 수입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입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불황일 때 매춘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경제적 호황을 누릴 때 성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가 위축되고 IMF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이 늘어났다. 여성들은 일차적인 감원 대상이 되어 노동 시장에서 퇴장당했다. 신문에는 ‘생계형 매춘’의 증가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았다. 전국 사창가의 보건 관리를 맡고 있는 한 관리자는 “현재 사창가는 성을 사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경제 위기의 실태를 설명했다. 전쟁 중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5)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56~57). 서울 M지역의 사창가 주변에 있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 경찰의 말이다. 그는 M지역 사창가가 얼마나 한국의 관광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지로 강조하면서(‘홍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특히 일본인에게 관광 홍보가 잘 된 것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6)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76쪽).

이렇듯 경제가 호황일 때 온갖 종류의 성산업과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성산업으로의 여성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제적 혜택의 첫 번째 대상이 남성이며, 피해의 우선 순위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가의 부와 여성의 부가 갖는 상관성은 남성보다 낮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경제적 부의 정도와 성매매 발생의 상관성이 적다는 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성매매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남자 남성에게 여성의 몸은 상 권리를 주었는가?

많은 매춘 여성이 개인적으로는 가정 폭력, 가난, 강간 등으로 돌아갈 가족이 없거나 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유입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논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매춘 여성은 대안이 있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성매매의 구조이다.

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은 기동 서방, 포주, 알선자들에 의해 사적인 관계나 빚, 폭력으로 얽매어 있는데 특히 포주에 의해 통제되어 오랜 시간 성적으로 이용되는 매춘 여성은 자포자기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여성이 매춘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는 폭력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성산업의 구조 속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닌가의 논의는 성매매 자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노예 노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가 스스로 노예 되기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예제는 엄연히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위반이다. 특히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노예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을 경우가 많은데, 행위자의 자발성으로 노예 제도가 옹호될 수 없듯이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가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일’이라고 여기는지 간에,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과 성매매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생산 중심의 ‘노동’ 개념에서 벗어나 보면 성매매는 여성의 다른 노동과 변별성을 갖기보다는 더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노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이란 개념에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윤리’, ‘억압’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등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목적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노동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예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처럼

매춘 여성의 성노동은 흔히 '노예 노동', '임금 노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어떻게 노예 노동과 비슷한지를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살펴보자.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남성 손님과 매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성매매의 공간에서 매춘 여성을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가를 보도록 하자.

먼저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체위, 콘돔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춘 여성은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임으로써 성병이나 에이즈 등 각종 성질환에 무력하게 노출되고 있다. 매춘 여성이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콘돔 기피로 인해 매춘 여성 가운데 14%만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1993, 54쪽). 그러나 남성 손님이 성매매에서 콘돔을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내버려두고라도 콘돔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남성 손님이 결정하고 매춘 여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춘 여성이 단순히 제한된 '성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보호권을 전적으로 남성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콘돔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손님은 화대 지불을 빌미로 굴욕적인 성체위나 폭력 따위를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주나 포주가 매춘 여성의 화대를 직접 분배하는 경우 업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화대를 못 받을 때는 매춘 여성 자신이 포주나 펌프에게 분배액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화대를 받기 위해 손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흔히 매춘 여성에게 '매춘(賣春)'은 단지 신체의 일부인 성기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노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매춘 여성이 자신과 상품화된 성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을 '손님'으로, 성행위를 돈을 받는 '일'로 취급하려 하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제한과 금기(예를 들어 키스 거부, 굴욕적인 체위 거부 등)를 만든다. 그러나 성행위를 경제 행위로 취급하려는 매춘 여성은 화대를 받지 못한 '강간' 때문에 이러한 금기를 지킬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들이 '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한·금기의 장치가 파기된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손상, 즉 자아에 대한 훼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매춘 여성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제한이나 금기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성매매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흔히 남성은 많은 화대로 또는 위압적인 폭력으로 금기나 제한을 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학대에 보상이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성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체적 손상조차 그것이 대가가 '지불된 것' 이면 '성매매'의 성적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학대나 그 사용은 특별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성매매의 문제는 매혈이나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임의로 일정 기간 사용(폭행을 하거나 사용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등)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도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케페스(Dr. Kepes)는 신체가 인간 권리의 기본 토대이고 이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는데, 신체에 자행되는 폭력은 자아를 뺏고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성매매 행위는 매춘 여성이 자신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키고 단편화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임의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강간의 특성과 같은 것인데, 매춘 여성에게 강간이나 폭력은 '화대 지불'의 유무에서 차이가 날 뿐 성매매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강제적인 성행위 후 '돈을 못 받는 경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매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인데, 성매매와 강간은 '행동'이 아닌 화대 지불의 유무로 구별될 뿐, 남성이 사는 성은 비인간화된 육체인 여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강간의 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⁸⁾

한편 성매매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용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 '성기'라는 점에서 훨씬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만약 성매매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매춘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현재와 같은 무게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기 접촉을 비롯한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이 놓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필요로 하는 성행위는 생물학적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성기 접촉'에 있지 않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매춘 여성의 연령과 수입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⁹⁾ 성매매가 단순히 성기 사용만이 요구되는 행위라면 매춘 여성의 나이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산업에서 업주나 남성 손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성의 '몸'이고 이를 사용하는 성적 서비스이다. 그렇다면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가학적 심리를 포함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매춘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놀이의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모든 가학적 행위는 '화대 지불'로 무마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술자리를

7) Suzanne Kepes(1989), "The Repercussions of the Condition of Prostitutes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stitution, 61, Barry, 27쪽 재인용

8) '화대 지불'이 매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매춘 여성의 구술사를 보면 이들은 강간을 단지 '손님이 성행위 뒤에 화대 지불을 거부하거나 돈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Barry, 1995, 36~38쪽)

9)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춘 여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른 직종과는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 산업에 오래 있을수록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은, 1994, 63쪽). 매춘 여성의 수입은 성매매의 유형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매매춘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남성의 성적 서비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세가 넘으면 흔히 '퇴계'라고 불리면서 상품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중시하는 직업 문화, 군대 문화가 일반화된 남성 문화로 자리잡혀 있는데 여기서 성매매는 남성이 남성성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성교'가 아니라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춘 여성은 남성의 유흥과 친목을 돈우기 위한 오락물로 전락하고 남성은 자신의 권력(위압, 돈 등)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지배를 즐긴다.

남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성이며 여성의 몸, 몸짓이다. 따라서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는 비하적 행위들은 의도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매매는 이러한 남성의 가학적 심리가 내재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고 매춘 여성은 화대 지불을 대가로 자아를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용·통제권을 일정 시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 비하에 있는 한, 매춘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가해지는 남성 손님의 폭력은 소멸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는 권력 관계에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2) 익명적 성 :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비밀 보장'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전제는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성격과 매춘 여성의 삶의 유형을 구성한다. 남성이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이유는 익명의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는 음성적 상태로 온존·유지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구매력을 자극하는 원동력인데 이러한 현상은 매춘 여성의 잦은 이동을 유발한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업주는 남성의 익명성과 새로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끊임없이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매춘 여성은 현재 일차적으로 그들이 유지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주변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매매의 익명성과 매춘 여성의 잦은 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산업의 업주가 남성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익명의 공간에서 남성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성매매의 경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한다.

그들이 유지해 온 정체성에서의 분리는 성매매 세계의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 매춘 여성 개인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낙인을 의식하고 자신이 익명으로 성산업의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거주지나 업소 등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흔히 의료 보험이나 의 신분기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기피하고, 익명적 공간인 성매매의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한다.

그들은 업주나 알선자들이 만들어 주는 가짜 신분증이나 보건증을 사용하고 가명을 사

용하며 요구에 따라 유흥을 즐기는 존재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성의 상품화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으로 인해 성매매 공간에는 성적 대상으로서 가장된 여성의 정체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익명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미끼가 된다. 매춘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¹⁰⁾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매춘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출과 순결 상실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¹¹⁾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알선자들과 쉽게 친밀감을 가지는 미끼가 되고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매춘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하는 전략을 펴낸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매춘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익명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여성들에 대한 손님과 포주의 통제, 착취를 더욱 쉽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익명적 공간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과거와 정체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 남성과 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 성매매와 성산업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알선 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매춘 여성이 남성 손님과 일 대 일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은 포주집부터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남성 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 소개소나 보도 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매춘 여성이 생활하는 형태는 나이와 경력, 미모, 강제성 등에 따라 감금 형식에서, 숙식하는 여성, 출퇴근하는 여성,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하다. 여성이 이들 업소에서 인신매매나 감금에 의해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통제와 착취는 극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매춘 여성 개인에게 그 동기가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성산업은 여성을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산업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묶아매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선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10) 매춘 여성 대부분이(91.6%)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은정, 1994, 61쪽) 이러한 경험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장 활동가 '가'의 조사에 따르면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강간을 경험한 매춘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근친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매춘 여성의 가출 동기 중 39%가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남자 친구로부터 순결 상실이나 근친 강간 또는 강간이 24%에 이르렀으며, 가정 불화는 20%로 나타났다.(김기원, 1996, 10쪽) 이와 같이 가출한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을 유혹하는 성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인 '숙식 제공'은 여전이 중요한 미끼가 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업주와 매춘 여성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상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고용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춘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매춘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화대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나 업소에서 부과하는 벌금,¹²⁾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비가시적인 착취 형식을 갖는다. 또한 업주와 알선 업자가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훨씬 쉽게 하는 것은 빚과 그에 따르는 이자이다. 매춘 여성들이 빚을 지는 첫 번째 이유는 가출 등으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잦은 이동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포주나 업주 등이 이들에게 쉽게 빚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춘 여성들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커다란 구속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미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매춘 여성은 탈매춘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을 빚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빚이란 매춘 여성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업주가 매춘 여성을 효율적으로 묶어 놓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¹³⁾

(그 동안 돈 좀 모았어요?)

돈을 모아? 몸뚱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겠어? 거긴 돈 못 모아. 모을 수가 없어.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빚을 지게 되거든, 집 나온 애들이 뭐가 있어. 빈 몸뿐이지. 방세, 가구, 옷..... 다 빚이지. 매달 이자 물어야지. 빚에 묶여 있어 완전히 매인 몸이니 주인이 매일 따라 다니는 거지. 그러니 누가 주인한테 따져 따지긴,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¹⁴⁾

빚은 여성을 자발적으로 성산업 공간에 묶어 두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장치일 뿐 아니라, 감금이나 업주간의 인신 매매 같은 폭력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 소개업자의 말을 들어보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 별명이 '짱가'라는 아가씨였는데, 노름에 빠진 거야. 노름에 빠진 니깐 피곤해서 다방에도 잘 못 나가고, 일을 못 나가니까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지. 노름빚에, 다방 주인에게 빚져 쓴 돈 있지. 일 아나가서 소개소에도 빚이 있지..... 해서 700만원 정도 빚을 진 거야. 그런데 도망을 간 거야. 애들을 물어서 찾게 했지. 한 달만에 찾았어. 찾아

12) 예를 들어 티켓 다방의 경우, 여성과 다방 업주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이 하루 결근할 경우 15-2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업주와 계약한 월급은 100만원에서 160만 원이지만, 성실한 사람이라도 15시간(오전 8시-오후 11시)의 노동을 30일 동안 하기는 힘들다. 몸이 아프거나 미용실, 목욕탕을 가야 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이 3-4일은 대가를 치르고 선다.(원미혜, 1997, 43쪽)

13) 한 현장 활동가(M 지역에서 3년 동안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해 온 30대 중반의 여성) '다'에 따르면, 빚이 많은 여성은 다른 매춘 여성과 서로 '연대 보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한 여성이 일이 힘들어 도망을 치게 되면 연대 보증을 선 여성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잡히면 업주는 찾는 데 든 비용으로 보통 하루당 10만 원 이상의 빚을 부과한다고 한다.

14)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강간을 당한 뒤 가출하여 클럽의 댄서, 사창가, 유흥 업소를 거치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44쪽)

놓고 보니 안됐더라. 근데 어떡해? 빚이 있으니..... 할 수 없이 강원도 00에 갔다 주었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의 경우는 거의 감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곳은 아가씨들이 많이 딸리거든..... 그렇게 도망친 아이를 잡아 온 경우에는 소개업자가 화가 나서 화풀이로 '너 한 번 고생 좀 해라'고 비싸게 돈을 붙여 넘기지.¹⁵⁾

빚 때문에 산간 벽지나 섬으로 매매된 여성의 경우 탈매춘은 거의 불가능한데, 팔려온 가격이 빚이 되어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곳의 경찰과 지방 유지들이 결탁해 있어 탈출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 매매나 빚에 의한 감금과 같은 생활은 매춘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구조들이며 이러한 폭력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성매매 시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매춘 여성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¹⁶⁾ 이는 성산업의 구조가 얼마나 착취적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빚과 그 이자는 그 자체로 착취적인 뿐 아니라 매춘 여성을 강제하고 탈매춘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예화하는 가장 극악한 수단인 것이다.

매춘 여성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착취하는 집단은 포주나 업주, 알선업자 등에 국한되지만 매춘 여성의 존재와 수입에 기생하여 이를 착취하는 집단은 유흥업소의 마담이나 웨이터에서 주변의 시장, 목욕탕, 옷가게, 화장품 가게, 세탁소, 약국, 미용실, 음식점, 포장마차, 커피숍이나 카페, 호텔, 여관에서 점집, 여행사, 주점, 택시, 고리 대금 업자들까지 확장된다. 한편 매춘 여성들의 수입에 공생하는 집단은 범죄 조직뿐 아니라 경찰, 구청 직원, 보건소 등으로 이들에게 포주 등이 상납하는 돈은 매춘 여성의 부채로 돌아온다. 이들은 매춘 여성이 성산업에 이용되는 데 기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매춘 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하는 데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매춘 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부추기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쉽게 성산업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고리 대금 업자나 소비를 부추기는 이들 주변의 상권은 여성의 경제성을 더욱 소비적인 성향으로 길들여 실제 다른 경제적 대안이 없는 그들을 묶어 놓는 역할을 한다. 매춘 여성이 일단 성산업 시장에서 통용되는 씬 씬이에 길들여지면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매춘 여성은 유흥업소, 사창가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산업의 특성상 마약이나 약물¹⁷⁾뿐 아니라 노름이나 술을 쉽게 접하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이나 약물은

15)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가정 불화로 고등학교 때 기출하여 경기도 지역의 유흥 업소, 티켓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이들 업소에 여성을 알선해 주는 직업 소개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45쪽).

16) 매매춘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18.7%가 빚을 지고 있는 반면, 1년~3년인 집단은 27.1%, 5년 이상 된 집단에서는 27.5%가 빚을 지고 있었다. (박정은, 1994, 63쪽)

17) 매춘 여성의 습관성 중독성 약물 사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진해 거담제,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본드, 가스 등에 의한 습관적 중독의 비율은 매매춘에 종사한 지 오래될수록 사용률과 남용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은, 1994, 64쪽). 서구의 경우, 포주에 의한 통제나 착취가 없고 남성 손님의 통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리의 매춘(street-prostitution)여성들의 경우, 화대는 그날의 코카인 값으로 결정되기도 하며 마약 거래상과 이를 연결하는 주변의 폭력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이다.(Miller, 1995, 427~452쪽).

주로 주변의 폭력 조직이나 업주로부터 얻기 때문에 약물, 마약 중독은 매춘 여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매춘 여성이 일단 습관성 약물이나 노름, 술, 마약 등에 빠지면 경제적 독립이나 미래에 대해 더욱 무력하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무절제한 낭비에 빠지는 것이다.

성산업의 비가시적인 착취 구조 때문에 매춘 여성은 가시적으로 버는 돈에 비해 착취되는 돈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 둔감해지면서 오히려 쉽게 탈매춘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특히 성산업 주변의 먹이사슬은 매춘 여성을 '미모'에 대한 투로나 퇴폐 문화에 쉽게 젖어들게 하여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산업에 길들여지게 함으로써 더욱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산업은 여성의 유입 동기(자발적/비자발적 선택)와는 별개로 매춘 여성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많은 매춘 여성들이 그 생활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빛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이므로 매춘 여성은 포주에게 진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매춘 여성들이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 지식의 부재나 처벌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포주나 중간 매개자와 폭력 또는 의리나 정으로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 관계는 매춘 여성이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가시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매춘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화대에 대한 분배와 별칭, 빚과 이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매춘 여성에게 지우는 빚과 이자는 경제적 착취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인신 구속과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한편 성산업 주변에 형성된 먹이사슬은 매춘 여성이 성산업에 이용되는 것에 기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매춘 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하는 데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착취 구조를 무마할 수 있는 것은 착취자들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매춘 여성의 심리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성매매 반대의 정치학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매춘 여성은 돈을 주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춘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 일단 남성은 성욕의 '대상'이나 성적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다. 남성의 정체성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구성되지 신체적 기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대상화된 육체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력이나 성적 욕망은 오히려 당연시되거나 장려된다. 이와 더불어 남성은 지배적인 역할에 적합하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여성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되기에 앞서 신체적 기능에 따라 '여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여성'이란 남성에 의해 점유되고 취득, 소유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중 규범의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성의 성교는 '따먹는다', '갖는다'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을

쟁취하고 소유하고 침범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남성에 의한 성교가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남성과 성교는 여성 존재에 대한 침범으로 읽힐 수 있다.

게리(Ann Garry)의 지적처럼 남성들은 성을 '여성을 침범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적 역할은 해를 입는 대상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여성의 성은 남성과는 달리 '지배당함', '자기 파괴'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욕구에 지배되는 대상이 됨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는 강간 신화의 논리이다. 그러한 신화 속에서 공식적으로 기꺼이 강간을 대신 당하는 존재가 '매춘 여성'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춘 여성의 존재는 아무런 인격적 의미를 갖지 않는,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가 남성을 위한 '성적 대상'인 셈이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매춘 여성의 존재를 '웃는 질구멍'에 비유하기도 했다. 남성들은 서로의 의사 소통과 단합을 위해 집단 강간과 성매매를 통해 여성의 육체를 사용한다. 여기서 여성들의 존재는 남성성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어느 곳에서도 매춘 여성은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매춘 여성은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자체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우리 중 누가 또는 어떠한 집단이 우리를 아무 것도 아닌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 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냥 스쳐간다고 생각해 보라. 매춘 여성들에게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다.

성매매가 잘못된 것은 여성의 순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성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다. 성산업에서 매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만도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여성이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신념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레스비언 관계는 매춘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지만 그 자체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재와 같이 열악한 매춘 여성의 지위는 지켜야 할 순결을 상실한 집단에게 떨어지는 단순한 낙인이 아니다. 그녀의 지위는 화대 지불로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 다.

돈을 받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며 성적 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매춘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의 지위는 별개의 토대 위에 놓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매춘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될 때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며 매춘 여성에 대한 성희롱, 강간, 살인, 폭력, 인신 구속과 매매는 여성이 성적 대상화라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남성들은 생물학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몸을 사 왔다. 남성들은 결코 매춘부처럼 자신의 몸을 파는 형식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파는 것, 그 행위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로 해명될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가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92). 성매매를 통해 모든 여성들은 물건처럼 취급되는 경험을 한다. 그

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위에 서 있다. 성매매는 남성이 지배적인 권력의 혈통을 이어 나가려는 수단이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실제로 매춘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이익을 본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잘 조직된 사회적 행위이다. 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 어떠한 개인적 이유와 의도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든지간에 성매매를 하는 것은 결국 지배적인 가부장적 논리에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려는 논리는 남성에게 의해 강요되어 온 서비스를 팔으로써 여성이 다른 영역에서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은 '여성'의 주변화 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전제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성애화 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킨다. 이로써 여성을 사회적 권력과 역사로부터 내몰고 주변화함으로써 이를 모든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여성이 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으로서 '여성'이 된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대안적 노동이 될 수 있거나 평등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성매매에 대한 가치와 규범 만들기

법이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법이란 경찰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간의 관계와 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관이다(Wassila Tamzali, 1993).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도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의미하고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처벌주의(penalization),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규제주의(regulation), 인신 매매나 중간 착취 구조는 처벌하되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는 폐지주의(abolition)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시대의 공창이 폐지되고 1961년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표면상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962년 4월에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에 따르는 해악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공동 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인신 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90쪽)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1989년 4월이 되어서야 퇴폐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한 남자 손님 두 명이 입건되었을 뿐이다.('동아일보', 1989년 4월 26일자)

성매매를 범죄화한 후, 매춘 여성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고,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었다.¹⁸⁾ 특히 여성들은 선도 보호, 사회 복귀라는 명목아래 10개월 이상 열악한 보호소에 갇

게 입소되었다.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요보호자'라는 특수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여 실제 취업의 가능성의 없는 기술 교육, 연장 가능한 수용 기간, 군·대식 훈련과 강요된 예배 등의 열악한 환경과 구타와 기합, 독방 감금 등의 인권 침해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5년 10월 원생들의 방화로 석창살에 감금되어 있던 원생 40여명이 사망, 12명이 부상한 '경기도 여자 기술 학원 방화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62년 내무부, 보사부, 법무부 등은 합동으로 전국 104개소에 특정 지역(기지촌, 사창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¹⁹⁾, 공중 보건이란 명목으로 강제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 지금도 매춘 여성에게만 국한된 성병 검진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 검진에서 실격된 여성들은 무조건 감금되어 치료를 받지만 여성들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남성들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특히 미군의 경우)들에게는 매춘 여성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들 지역에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게 깨끗한 성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야말로 '성적 대상'인 것이다.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 매춘 여성은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가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홍보하지 않으며, 에이즈 예방에 콘돔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매춘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매매를 그만두는 일이라고 교육하지 않는다. 남성 손님과 가족, 미군을 위해 감염된 매춘 여성을 색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매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전제했듯이 성매매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내용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것은 '도대체 이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가능한 것은 규제, 폐지, 금지라는 법 자체의 속성에 있기보다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일반인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되었던 정책들은 그 실행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전쟁이 매춘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국이 성매매 현장을 덮칠 때 그 곳에 있는 남성의 신원을 기록하여 공공 빌딩의 외곽이나 공장의 게시판에 눈에 띄게 붙였다. 또한 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미국 당국은 유곽을 폐쇄하고 성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춘부 검진에서 군인 검진으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니 벨로, 1992, 427쪽) 이처럼 성매매를 단속하는 정책에서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매춘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규제, 처벌이 철폐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에 대한 규제 폐지를 통해 성산업에서 매춘 여성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성매매는 이미 고도의 성산업화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과 매춘 여성의 대부분이 펌프 등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펌프가 없이 자신의 성을 거래하는 매춘 여성들이(특히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폭력배나 마약상들에 의한 권력 관

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 1994년 국가의 공식 집계 따르면 기지촌 및 성매매 집결 지역의 수는 56지역, 여기에 있는 여성들의 수는 5022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 1994).

18) 1996년 개정법은 성을 팔고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명시했고 남성 손님

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J. Miller, 1995).

배리(K. Barry)는 성매매가 금지되는 영역뿐 아니라 비범죄화된 영역에서도 펌프의 교묘한 변화와 가부장적인 법률에 의해 매춘 여성들이 착취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매매이 완전한 합법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매춘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 Barry, 1995, 236쪽) 이들은 매춘 여성에 대한 범죄화나 규제가 폐지되어야 하고, 남성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지배하려는 손님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차별적 범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매튜(R. Matthews)는 성매매를 탈범죄화하는 것은 대규모의 성산업을 창출하고 열악한 여성을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속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인 정책과는 다른 '급진적 규제주의(radical regulationism)'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²⁰⁾

매춘에서 수익성과 성산업을 통제하는 이러한 대안적 규제 체계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강압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매춘 여성의 파트너뿐 아니라 법적 제도로부터 가해지는 추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L. Shrage, 1994, 82~87쪽).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매춘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매매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매춘 여성을 지원한 성공 사례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매춘 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 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말모(Malmö)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1977~1983년)는 매춘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에 대한 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상담과 의료 서비스, 펌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매춘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탈매춘을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는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 두었는데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고,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여성은 겨우 60명이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가 된다는 기본적 전제 아래 매춘 여성을 갈보, 창녀로 전락시키는 성산업의 합리화를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Barry, 1995, 248~249쪽)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사회 복지 정책이나 성문화가 우리 나라와는 다른 '스웨덴'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벨기에 장관의 말대로, "문제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와 양립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양쪽 끝에

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단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 자신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6. 맺는 말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래왔듯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 여성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어딘가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옥아매는 것은 '빛과 폭력'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빛과 폭력이다. 그러나 빛을 탐감할 대안이나 도움을 구할 곳도, 그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력과 대안의 가능성을 접할 기회를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일 수 있다.

한 현장 활동가는 매춘 여성은 사회의 소외 계층이 아니라 단절 계층이라고 지적한다. 철저하게 봉쇄된 그들 내부에 폭력이 난무하고 성매매의 비가시성 자체가 행사하는 폭력은 매춘 여성과 여성들에게 그대로 행사되고 있다.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대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동시대인으로서 갖는 의무적인 또는 호기심에 불과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매춘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를 '여성으로 분류하는 인식'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매춘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폭력 남편이 지배하는 가정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듯이 성매매 공간 또한 그러하다. 폭력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한 폭력을 이유 없이 타인에게 행사하지 않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자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폭력이 사회가 격리된 '사적 관계'로 행사되는 것처럼 업소 여성들과 포주, 폭력배의 관계는 잘 짜여진 사적인 통제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창가의 입구에는 어김없이 저택의 수위실처럼 파출소가 세워져 있고 잘 구조화된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육체에 대한 학대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드레아 드워킨의 말은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들의 몸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계속해서 반복, 반복될 때의 느낌을 느끼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성매매의 실체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92).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

20) 그는 사회적 정책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원칙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성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만연된 남성의 전제에 대한 각성. 둘째, 공공적인 소란이나 추행 소탕, 셋째, 착취나 억압에 대한 처벌. 넷째, 성산업화의 감소.

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것은 곧 힘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신중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좀 먹는 성매매, 그 가부장제의 비겟덩이가 우리의 몸 속에 누적되어 숨통을 막게 될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매매 반대는 인권을 향한 첫걸음이며 그 자체가 힘이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각자 선 자리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문제달기의 첫걸음으로 주변의 사창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3~4명 정도가 한 조가 되면 좋다. 지나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오빠, 동생, 애인, 아버지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지를,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지를 느껴 보자. 성매매라는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성과 매춘 여성의 성은 뭐가 다른지, 성매매가 더 이상 혐오와 공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안아 보자.

5월 공개 세미나

주 제 : 한국 매매춘 실태

관 련 자 료

1. 성산업의 현실과 매춘여성의 삶

: 변리나

2. IMF이후 산업형 매매춘에 진입한 여성 사례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3. 매춘여성의 탈매춘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과 어려움

: 정연순 (변호사, 열린 전화 자문위원)

성산업의 현실과 매춘여성의 삶

변 리 나

1. 배경과 목적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매춘여성¹⁾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매춘 여성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매춘여성을 정형화시켜 한가지 모습, 즉 몸을 파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규정한다. 다만 매춘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유입동기의 자발성 여부에 의해 성폭력이나 가난 등에 의한 '타의에 의한 매춘'인가 혹은 스스로 매춘지역을 찾은 '자의에 의한 매춘'인가를 구분하는 정도일 것이다. 즉 팔자가 드센 불쌍한

<1>2) 매매춘이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 매춘(賣春)여성이란 성을 파는 여성을 말하며, 매춘(買春)남성이란 성을 사는 남성 즉 '손님'으로서의 남성을 의미한다.

매춘여성, 쉽게 살려고 향락을 찾는 타락한 매춘여성이라는 또 다른 이분화이다. 이런 시각은 매매춘 문제를 유입 동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매매춘 문제의 근본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부 매춘과 직장여성 매춘은 자의에 의한 매춘, 즉 타락한 매춘여성으로 분류되어 매매춘 문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성들의 매춘 유입 동기와 매매춘 환경의 문제점을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형태의 매매춘이 있고 매춘여성이 처한 환경에 따라 문제점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매춘여성의 다양성 안에서 업소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생활 형태와 매춘여성의 억압 그리고 매춘여성이 갖고 있는 인식 등을 통해 매매춘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탈매춘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매춘여성들과 생활을 하며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기초로 한다.

2. 성산업의 현실과 매춘여성의 삶

가. 매매춘 유형의 다양성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매춘여성이란 술집 등의 유흥업소나 매매춘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춘 여성은 그 여성이 어떤 유형의 업소에서 어떤 형태로 일하는가는 상관없이 매춘여성(또는 창녀, 윤락여성)으로 불리워진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가 바라보는 매춘여성의 모습과 이름일 뿐 실제 매춘여성들은 다양한 매매춘 환경과 다양한 이름 그리고 생활 방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스스로를 '매춘여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매춘여성 스스로는 자신들을 차별화시켜, 몸싸롱이나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데스'(호스데스)나 '파순이', 또는 '댄서'라고 말하고 매매춘 밀집 지역에서의 매춘 여성들을 '창녀'라고 부른다. 한식집이나 요정에서 일하는 매춘여성들은 스스로를 '기생'이라고 부르며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오봉순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매춘여성 집단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매춘여성 집단의 이름이 이렇듯 다양하다는 것은 곧 각각의 집단을 찾는 매춘 남성 집단도 다양하며, 매매춘 구조를 둘러싼 착취의 형태와 구조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여성들이 이렇듯 서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불리는 것은 매춘문화에도 다양성과 위계질서가 있음을 말해 준다. 전체적 매매춘 문화 안에서 매춘여성들은 이름이 다른 매춘여성과 권력 다름을 하고 집단의식으로 차별화하고 있으며 타 집단을 배척하는 경향도 있다.

한 여성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매춘을 하느냐는 그 여

성의 미래를 바꿀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매춘을 구분할 때 여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활방식에 따라 간략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나. 매춘 유형에 따른 매춘여성의 생활

매춘여성의 생활형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숙소 생활을 하는 형태와 출퇴근하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매춘여성이 숙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업주와의 채무관계와 잦은 지역 이동 때문이다. 업주(또는 소개소)와 채무관계가 있는 매춘여성은 상품적 가치에 의해 타 지역으로 매매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된 집을 갖지 못하고 업주가 마련해 주는 숙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숙소 생활이 지방일수록 더 많은 것은 매춘 남성이 적은 소도시에서 매춘여성은 쉽게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매춘 남성이 많은 지역으로 잦은 이동을 하며 수입을 늘리는 매춘여성이 있긴 하지만 소수이다. 돈을 모으기 위하여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 또한 극히 드물다. 숙소 생활은 업주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출퇴근이 자유로운 생활 형태의 매춘여성은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는 경우인데 업주에 의해 가끔 지방으로 매매(賣買)되어 일을 다니며 숙소생활을 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매춘 생활을 하면서 숙소 생활과 자유로운 생활형태를 반복한다. 숙소생활을 한다는 것은 업주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숙소 생활을 거부한다.

1) 품싸롱 /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의 경우 나이트클럽 직영으로 매춘여성들을 고용하는 경우와 멤버(품싸롱의 경우 웨이터나 큰마담)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

멤버는 투자되는 것 없이 이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그 지역의 건달들이 한다. 멤버는 월급제로 마담을 고용하고 마담은 매춘여성들을 고용한다. 매춘여성들의 대부분은 빚이 있기 때문에 멤버는 사채업자를 마담과 연결을 시켜주어 매춘여성을 모으는데 이자는 월 10%가 대부분이다.

나이트클럽 매춘여성의 수입은 보통 월 200만 원 정도이다. 지출을 살펴보면, 매춘여성은 팀과 매매 수입의 10%를 멤버에게 주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멤버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멤버에게 준다. 그리고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 숙소비로 2-30만 원을 준다. 마담의 경우 월급으로 멤버에게 1-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나이트클럽의 경우 지정된 의상은 특별히 없지만 마담과 멤버는 고역의 의상을 요구한다. 그 외 지각비와 결근비

등 많은 착취가 있음에도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닫힌 공간이 아닌 넓은 공간(나이트클럽 손님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남성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고 육체적 서비스(남성이 술을 마시는 도중 매춘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춘남성의 대부분이 젊다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멤버는 매춘여성을 고용할 때 나이트클럽 특성상 키가 큰 여성을 선호한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은 멤버가 없는 대신 마담이 멤버의 역할을 한다.

품싸롱의 경우도 업소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와 마담이나 웨이터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부분에서 나이트클럽의 운영방식과 비슷하다.

품이라는 일정한 공간에 갇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매춘 남성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야 하며 육체적 피로움을 당하며 많은 술을 마시는 등 나이트클럽에 비해 힘이 들지만 매춘여성이 품싸롱을 선택하는 이유는 품싸롱에 오는 남성이 대부분 돈이 많은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기회에 따라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클럽 손님이 지켜보는 공간에서 남성에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춘여성임이 노출되지만 품싸롱의 경우 매춘여성과 매춘 남성만의 관계이다 보니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품싸롱의 경우 키가 큰 여성보다 작고 얼굴이 예쁜 여성을 선호한다.

2) 숙박업소 / 목욕업소

숙박업소로는 여관이 있고 목욕업소로는 중기목욕탕(일명 터키탕)과 안마시술소가 있다. 여관이나 여인숙(이하 여관)의 매매춘은 여관에서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보다는 보도사무실을 통한 매매춘이 더 많다. 여관을 찾는 남성은 여관비를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데 보통 5-7만원 정도이다. 매매춘 비용은 여관과 보도사무실, 여성이 나누게 된다. (숙박업소의 경우 대부분은 보도 사무실을 통한 매매춘이다. 보도 사무실은 별도로 다시 언급하겠다.)

중기목욕탕의 경우는 주로 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다는 것 외에는 매매춘 비용과 분배법은 숙박업소와 비슷하다. 중기목욕탕의 특성상 비밀이 유지되므로 자신의 매매춘을 숨기고 싶은 남성들이 주로 찾는다. 매춘여성의 경우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의 특성상 힘이 들지만 고역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빚이 많은 매춘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매춘여성이 대부분이다.

3) 매매춘 밀집지역

매매춘 밀집지역은 전국적으로 매춘남성의 유동인구가 많은 역전 근처엔 대부분 있다.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와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매매춘 밀집 지역은 많은 업소와 매춘여성이 대규모로 있다는 특성상 연령 폭이 넓고 생활형태도 매우 다양하다(매매춘의 종합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매매춘 밀집 지역의 매매춘 업소는 개별 업소에 비해 단속을 피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불법영업(미성년자 매매춘, 여성 성기를 이용한 쇼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시간은 24시간 일을 하는 곳이 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영업하는 업소가 있으며 매춘여성의 수입도 지역과 업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기본월급이 책정된 상태에서 매매춘 남성 당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 월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수입이 되지만 의상비, 숙소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이 된다. 많은 매매춘 남성을 상대하는 것에 비하여 수입은 작은 편이다. 빚에 대한 이자율은 원금의 월 10%정도가 가장 많으며 사채 업자 대신 업주가 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춘여성이 자발적으로 매매춘 밀집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남성과 특별한 관계(대화, 서비스 등) 없이 단지 매매춘을 한다는 것 때문이며, 타의적인 선택은 업주(소개소)에 의해 매매된 경우와 인쇄 매체(생활정보지, 길가에 붙어있는 전단 등)에 의해 속아서 오는 경우이다. 인쇄 매체에 의해 유입되는 여성은 대부분 가출 여성인데 숙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들은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춘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매매춘 유형보다 폭력이 잦아 존엄성 상실이 크며 매매춘 생활에 자포자기 상태로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4) 무허가 소개소(보도 사무실, 직업소개소)를 통한 매매춘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춘 형태는 과거 오래 전부터 숙박업소와 품싸롱, 나이트클럽 등에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숙박업소의 매매춘은 대부분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얼마전 마스크에서는 보도사무실 등(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을 통한 주부, 직장여성, 여학생 매매춘 문제를 신중 매매춘이라며 매매춘 문제가 예전의 타의에 의한 매매춘과는 달리 즐기기 위한, 자의에 의한 매매춘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매매춘의 심각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모순 투성이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매매춘 형태로서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춘이 성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허가 매매춘 소개소(보도 사무실, 결혼 소개소, 직업소개소 등)의 확산은 현 매매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춘은 기존의 한 업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억압이 따르는 매매춘과 자유 의사를 갖는 독립적인 거리 매매춘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성상 독립적인 매매춘보다 고정된 수익을 보장받으며 억압받지 않는 형태의 매매춘이라는 점에서 대규모로 확산되리라 생각된다.

보도 사무실은 직업소개소와 함께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직업소개소(이하 소개소)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개소는 매매춘여성을 업소(유흥집객업소, 다방 등)에 한 달을 기간으로 소개해 주고 대가로 소개비(건당 3-40만원)를 업주에게 받는다. 소개소에 속한 여성은 대부분 매매춘 구조에 따른 빚에 얽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채 많은 지역에 매매(賣買)를 당하며 소개소와 업주에 의해 많은 경제적, 육체적 착취를 당한다. 소개소 여성은 한 달을 계약으로 업소에 묶여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데 만약 여성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개비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소개비를 못 더 많은 착취를 하려는 소개소에 의해 매매춘여성은 한 달을 기준으로 자주 이동하게 된다.

본래 소개소의 목적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성의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매매춘 알선이 주 역할이 되었다. 업주들이 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매매춘여성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빚이 많은 매매춘여성의 경우 소개소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개소는 미성년자를 업소에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소개소는 위조된 보건증이나 주민증을 만들어 취업을 시키게 된다.

소개소를 전전하다 빚이 많아진 여성은 산업형 매매춘 지역에 장기적으로 넘겨지기도 한다. 매매춘 소개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더 확산되어 있다. 지방일수록 고용관계의 전통형 매매춘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도사무실(이하 보도)은 유흥집객업소(이하 업소)에 매매춘여성을 일정액의 소개비를 받고 한 남성의 파트너로 일회(소개소 한 달 기준, 보도 하루 일 회 기준) 소개해 주는 일을 한다. 따라서 보도는 구태여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서 가정집이나 작은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무선 연락으로 통하기도 한다. 지방의 경우 오래 전부터 숙박업소 등에서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는 매매춘 여성을 고용하기 힘든 단란주점 등에서 보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소규모 품싸롱이 많은 지역, 주로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 지역보다 단란주점 등이 많은 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남 지역에서도 유흥업소가 발달된 송파구, 강남구에 더 많다.)

보도는 많게는 30명 이상 매매춘여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등 업소에서 고용되어 일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는 여성(미성년자, 외모로 인해 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여성, 직장여성 등)들이 대부분이다. 보도는 가출한 여성 등 숙식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원금 딱만 원에 20만 원의 이자가 붙는 사채를 연결시켜 주어 쉽게 월세방(일수방)을 얻도록 유도해 지속적인 매매춘을 강요하고 있다.

보도의 매매춘여성 확보는 주로 보도에 속해 있는 여성이 친분이 있는 학교나 지역의 친구들을 보도에 연결시켜 주

거나 벽보 등 인쇄 유인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규모가 큰 유흥집업소는 자체적으로 여성을 고용(지정)하여 매춘여성을 통해 단골 남성 유치에 신경을 쓰지만, 보도와 연대하는 업소는 대부분 크지 않은 소규모의 업소로 소수의 고용된 매춘여성과 보도여성을 함께 유치해 단골 남성의 확보보다 일회성 매춘에 초점을 맞춘다.

보도가 확대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략 업소·매춘여성·보도사무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① 업소의 입장 : 업소는 자체적으로 매춘여성을 고용하지만 여성의 수가 부족할 때 보도를 통해 쉽게 단발적으로 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 가령 매춘남성 10명이 업소에 왔을 때 매춘여성이 7명뿐이라면 업소는 보도사무실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매춘여성이 있을 때 관리가 어려운 업소는 소수의 매춘여성만을 고용하고 필요에 따라 보도를 통해 충당하며, 보도를 통해 오는 매춘여성들이 대부분 남성들이 선호하는 미성년자라는 점 역시 업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또한 매춘여성을 업주가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는 매춘여성이 지고 있는 빚을 책임져야 하는데 보도를 이용할 경우 업주는 부담감이 없을 뿐더러 소개소를 이용했을 때 필요한 소개소 비용도 절약이 된다.

② 매춘여성의 입장 : 보도를 통한 여성은 업주에게 고용된 매춘여성에게 비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업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매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업주에게 직접적인 억압을 받지 않으며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에 비해 매춘 남성에게 많은 서비스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업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탈매춘이 가능하며 매춘여성이라는 죄의식이 약하다.

③ 보도사무실의 입장 : 보도 사무실은 매매춘 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단속에 걸릴 확률도 적고 투자되는 비용이 없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보도사무실은 산업형 매매춘 지역이 아닌 단란주점이나 작은 규모와 술집이 있는 유흥가에 많이 있다.

보도를 통한 매춘여성은 직업적으로 고용되는 기존의 매춘형태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보도를 통해 매춘을 경험한 여성은 점점 매매춘의 구조에 젖게 되고 탈매춘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타의적이고 장기적인 매매춘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도사무실의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특성에 기인한다. 미성년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보도가 기존의 소개소 운영방식으로 발전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다. 착취구조와 매춘여성의 대응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속해있는 매매춘 형태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매매춘 형태에서 두드러진 폭력은 경제적 착취이다. 경제적 착취는 매춘여성의 빚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탈매춘을 어렵게 만든다. 매매춘업소에 대한 공무원들의 금품착취 또한 매춘여성의 착취로 이어진다.

많은 경우, 경제적 착취는 매춘여성의 빚을 늘리고 빚이 늘어난 매춘여성은 업주간의 매매 대상이 된다. 업주간에 여성을 매매할 경우 갑자기 빚이 늘어나는데 이는 업주가 여러 이유로 빚을 늘려 타 업주에게 매매를 하기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일을 쉬게 하여 이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

빚이 많은 여성은 다른 매춘여성들과 서로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한 여성이 일이 힘들어 도망을 치게 되면 연대보증을 섰던 여성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도망을 쳤다가 잡히면, 업주는 찾는 데 든 비용으로 보통 하루 10만원 이상의 빚을 늘린다 (도망친 여성을 잡아 다른 업소에 매매하고도 연대보증을 섰던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씌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 착취와 함께 매춘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매춘 남성들의 폭력이다. 매춘남성은 여성을 돈으로 샀다는 이유로 일정시간 동안은 여성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남성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과 매춘여성을 노예화시키는 비정상적인 성 채워는 매춘여성에게 심한 자멸감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며, 매춘남성의 남근에 삽입된 이물질은 매춘여성에게 심각한 육체적 고통과 손상을 가져온다.

이밖에 물리적 폭력도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업주와 마담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은 매춘여성의 몸과 마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파괴시켜 탈매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매매춘 지역에는 많은 종류의 폭력이 존재하지만, 매춘여성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춘여성이 직접적으로 폭력에 대응을 할 경우 생계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매춘여성은 폭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매매춘 유형별 폭력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룸싸롱 / 나이트클럽

경제적인 착취가 두드러진다. 같은 업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성간에는 많은 수입의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멤버, 마담, 웨이티(이하 멤버)와의 관계 때문이다. 멤버가 매춘남성과 협상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춘여성과 멤버의 관계가 원만해야 경제력이 있고 매너가 좋은 상대 남성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멤버가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매춘여성의 수입은 없게 된다. 때문에 매춘여성은 보통 월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멤버비를 30만원 이상

상납하게 된다. 그리고 팀도 멤버와 자주 분배를 하고 의류 등의 선물을 상납하게 된다. 또 멤버는 고액의 의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해서, 상인으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쟁기며 매춘여성을 착취한다. 멤버비가 없는 룸싸롱의 경우도 형태만 다를 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멤버들의 착취를 매춘여성 스스로 해결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 외 다양한 경제적 착취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집대라는 명목의 매춘이다. 집대란 멤버의 명령으로 멤버가 지정하는 남성과 무조건 대가없이 매춘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불응하면 멤버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매춘여성은 심한 수치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응하게 된다. 그 외의 물리적 폭력도 많이 존재한다.

2) 매매춘 밀집지역

매매춘 밀집지역의 경우 하루에 많은 남성과 매매춘을 하고 정확히 책정된 매매춘 가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춘여성 역시 정확한 자신의 수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한 업주들은 거짓 장부를 만들어 매춘여성의 수입을 착취하게 된다. 그리고 매춘여성이 정확히 자신의 수입을 알려도 업주는 숙박비, 치료비, 약값 등 많은 이유를 대며 수입을 주지 않거나 속여서 착취를 한다. 다른 매춘 형태보다 언어적, 육체적 폭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라. 매춘여성의 의식 : 순결관과 결혼관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갖는다. 그들은 언제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구체적으로 돈을 모아 어느 곳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지 못한다. 흔히 매춘여성들은 돈이 조금 모이면 작은 카페나 옷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여성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매춘여성 스스로 느끼는 매춘유입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하면 결국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아진다. 매춘여성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여성'은 좋은 남성 즉 경제력이 있고 가정적인 남성에게 선택되어 결혼해 가정을 만든 여성이다. 그리고 좋은 남성에게 선택될 수 있는 여성은 '순결하고 많이 배우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예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상종적 가치를 이미 내면화한 매춘여성은 결혼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은 매매춘 지역의 착취로 인해 생각만으로 남아버리고, 자립을 포기한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끊임없이 남성을 찾아다니게 된다.

매춘여성은 끊임없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좋은 남성에게 선택되는 꿈을 꾸다. 그리고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을 소유한 기혼여성을 나름대로 규정지어(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성,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모르는 한심한 여성 등) 자신보다 불행한 여성이라고 자위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장에서는 매춘여성의 순결관과 결혼관을 중심으로 매춘여성이 갖고 있는 태도와 의식을 살펴본다.

1) 매춘여성의 순결관

매춘여성들은 순결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순결에 대한 강박증이 강하며 매춘에 대한 죄의식이 심하다.

룸싸롱이나 나이트클럽 등의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은 성 관계만을 위한 매매춘 업소의 여성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데 이유는 순결에 대한 강박증이다. 자신들은 처음 보는 남성손님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하여 성을 팔지만 성관계만을 위한 매매춘 업소의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성을 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더럽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하루 몇 명의 남성과 매매춘을 했는가도 크게 작용하는데 룸, 나이트클럽의 여성들은 자신이 하루 평균 1명의 남성과 상대하는 것에 비해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 매매춘 지역의 여성을 더 더럽다고 생각한다.

매춘여성은 매춘남성과의 입맞춤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매춘여성의 순결관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매춘여성들은 남성에게 입술을 허락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순결하다고 위안을 받는다.

즉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매춘여성의 성 의식 역시 우리사회의 강한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고 있으며, 나름대로 순결의 기준과 위계를 규정해서 상대적 순결성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욕구를 보여준다.

2) 매춘여성의 결혼관

매춘여성은 결혼을 거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을 원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이 결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더럽혀졌고 더럽혀진 여성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는 매춘여성은 대부분 동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매춘여성의 동거는 매춘여성의 결혼관을 보여준다.

첫 번째 유형의 동거는 건달과의 동거이다. 위계질서가 심한 건달조직에서 매춘여성은 건달과의 동거로 인해 새로운 이름(형수님, 계수씨 등)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된다. 건달과의 동거는 강한 남성에게 소속됨을 의미되며 또한 '현모양처'를 연상시킨다. 매춘여성은 동

거남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매춘을 거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의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생활비는 늘어나(동거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매춘여성이 부담한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건달 남성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매춘여성이 건달과 동거를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희생과 순종을 깨끗한 여성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와 건달과의 동거를 통해 얻어지는 매매춘 지역에서의 기득권 때문이다.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두 번째 동거 유형은 유흥업소 종사자(웨이터, DJ, 뽕끼 등)와의 동거이다. 매춘여성과 함께 업주의 억압을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남성은 매춘여성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쉽게 동거로 발전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의 동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거를 경험한 매춘여성은 반복적인 동거를 원하게 된다. 이 유형은 다른 동거관계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건달과의 동거와 마찬가지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유부남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과의 동거 등 많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동거 유형은 건달이나 유흥업종사자 남성과의 동거이다.

정치적, 경제적, 인격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매춘여성은 많은 남성에게 소유되면서 자신을 잃어간다. 동거는 이러한 잃어가는 것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많은 남성에 의한 소유를 거부하고 그 대신 동거의 공간 안에서 최소한의 인격적 만족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3. 탈매춘을 위한 제언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탈매춘을 원하고 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독립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탈매춘 동기를 갖지 못하는 매춘여성들에게 매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마음뿐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탈매춘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매춘 후 다시 매매춘 지역으로 유입되는 여성이 흔히 보이며, 그들은 어려운 일을 싫어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즐기는 나쁜 여성이라고 비난받지만 대안이 없는 탈매춘은 장기적일 수 없다. 소수의 경우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탈매춘을 하지만 결혼 후 여성의 매춘의 경험은 여성자신의 죄의식과 남성의 폭력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탈매춘 역시 실패할 요소가 많다. 부모에 의한 탈매춘의 경우 역시 매춘의 동기가 되었던 가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다시 매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자의적인 탈매춘을 위해서는 업주와 채무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빚을 만드는 매매춘의 구조로 인해 탈매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돈을 벌어서 탈매춘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탈매춘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번째는 매춘여성 스스로 유입동기를 찾아내고 탈매춘의 강한 동기를 갖는 것이다.

매매춘 문제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은 매춘여성의 유입 동기로 여성억압(강간, 가정폭력, 가부장제도 등)을 설명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매춘여성에게 유입동기를 물어보면 "어쩌다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매춘여성의 경우, 자신의 명확한 유입 동기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매춘의 동기 또한 갖지 못한다. 여성운동가들이 매춘은 매춘여성의 잘못이 아니라고, 매춘여성은 가부장제도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도 매춘여성들은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매춘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강간을 당한 것도, 임마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것도, 매춘을 선택한 것도 모두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춘여성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혹은 그런 일을 겪더라도 잘 참으며 인내를 했어야 했다고, 그것이 좋은 여자라고 후회한다.

구체적이지 않은 매춘여성의 유입동기가 구체적인 유입 동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려

<2> 매매춘 지역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간접적 매춘 유입동기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는 대부분 매춘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매춘여성 공통적인 과거 이야기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 많은 경우 아동기 성폭력(근친강간 등)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결혼시장에서의 상품적 가치인 순결을 상실한 여성은 매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된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모두 매춘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매춘으로 유입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

- 많은 여성들이 아버지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를 보고 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에서 여성의 열등하고 수동적인 위치를 내면화시키고 남성의 폭력에 취약하게 만든다.

- 이중적인 성교육과 성차별적인 학교 교육, 즉 정복심과 소유력을 강조하는 남성의 교육에 비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순결을 강조하는 여성의 교육은 여성을 성의 대상화에 취약하게 한다.

- 성차별 구조 안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점차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매춘유입의 중요한 간접 동기로 작용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간접적 유입동기를 가진 여성들이 직접적 유입동기를 갖게 되면 매매춘 구조에 쉽게 유입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주고 여성 개개인이 얼마나 심각한 억압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매춘을 '선택했다'는 생각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명확한 유입 동기를 알게 된 매춘여성은 탈매춘의 동기를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탈매춘이 가능한 매매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탈매춘의 동기를 갖게 된 여성이 탈매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매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매매춘 구조에서는 매춘여성이 탈매춘을 원해도 가능하지 않다. 매매춘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매춘여성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위한 움직임과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매매춘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탈매춘 후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탈매춘 후 대안이 없다면 매춘으로 재유입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탈매춘 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 매춘여성이 탈매춘 후 일시적으로 기거하며 자신의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과 선택한 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타의적 탈매춘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춘여성을 획일화시켜 집단화 프로그램으로 탈매춘을 유도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위해서는 매춘여성의 개인성을 살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IMF이후 산업형 매매춘에 진입한 여성 사례

황정임 (한 국여성개발원 연구원)

본 사례는 4월 12일~21일의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면접을 시도하여 면접에 성공한 내용이다. 면접은 조사대상의 근무 시간을 피해서 이루어졌고, 면접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IMF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서 혹은 가정의 경제적 이유로 향락산업에 진입한 여성을 찾아

했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간다는 강남 등의 고급 유흥가보다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유흥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업소의 사장에게 조사자의 신분과 면접 목적, 내용을 밝혀 양해를 얻은 후 면접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사장이 소개했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면접 내용 즉 IMF이후에 향락 산업에 진입하게 된 과정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설명하고 나면 면접에 응하기를 거절하거나 응답하기를 주저하였다.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서 거절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1. 연령 : 24세
2. 출신지 : 서울
3. 학력 : 상업고등학교 졸업
4. 가족사항 : 미혼이며, 아버지와 오빠 1명이 있다. 아버지는 부천에, 오빠는 수원에 살고 있다. 독립해서 살기 시작한지 3년째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1. 근무조건

- 일요일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가게를 열지 않는다. 일요일 폐고는 거의 매일 나온다. 아프거나 나오기 싫으면 2~3일 정도 쉬기도 한다. 매일 나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오면 돈을 못버니까 나만 손해다. 월급을 주는 데는 안 나오면 월급에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우린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와도 공치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안 나오면 자기만 돈을 못버는 거다.
- 못나오는 날은 미리 전화해서 마담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예약 손님이 있어서 특별히 찾는 경우가 아니면 안나올 수 있다.
- 일주일 중에 3일 일한다고 보면 된다. 일요일 쉬고, 토요일은 손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금요일에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월요일에 손님이 많은 것 같다.

- 아가씨들은 마담이 관리한다. 우리업소는 마담이 한 명이다. 파당은 방에 아가씨들을 넣어 주고, 술값, TC나 2차 비용을 계산한다. 마담은 손님들 취향을 봐서 아가씨들을 테이블에 넣는데 아가씨들 수입을 고려해서 끌고 두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업소에 나온 아가씨는 아가씨를 소개한다. 는 차원에서 자주 들어 보내기도 한다.

2. 근무여건

- 다른 사람들하고는 주야가 바뀐 생활을 하지만 나는 밤에 활동하는데 더 잘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다. 도리어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보통 저녁 7시에 출근한다. 손님은 8~9시부터 들어오기도 하지만 10시 정도는 되어야 많아진다. 심야영업이 금지되었던 때에는 1~2시 정도까지 근무했었는데 심야영업이 허용된 다음부터는 3시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다.

- 하루에 1~2 table 정도의 손님을 받는다. 대개 한 테이블당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있게 되는데 술마시고 노래부르고 노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른다.

3.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 우리 업소에는 12명의 아가씨가 있다. 이 중에서 10명 정도가 출근한다. 적어도 6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다.

- 1~2년 정도 된 사람들도 있고, 나같이 얼마 되지 않은 신참들도 있다.

- 민자(고등학생)들은 없고,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이다. 미혼도 있고, 가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은 안해도 대부분 예인도 있는 것 같다. 나처럼 직장을 갖고 있다가 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 돈이 급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돈이 급한 사람들은 정말 1~2만원이 없어서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 일은 매일 현금을 손에 쥌 수 있으니까 돈이 급한 사람이 시작하기가 쉽다. 나도 그랬다.

4. 손님

- 연령대나 직업도 다양하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가 많고, 나이든 할아버지들도 있다. 회사원, 교사도 있고, 노가다 아저씨들도 있다.

- 여기 있으면 남자를 못 믿게 된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다.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 어린 여자들을 찾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전방 질책하게 논다. 가슴도 만지고, 팬티에 손도 넣고 할 건 다한다. 못하게 하거나 싫어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낸다.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할 때가 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올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하다. 우리가 자기네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사실 심하게 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5.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 지금은 별로 IMF를 타지 않는 것 같다. 이 업소에 온

지 얼마 안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작년 초에는 좀 어려웠다가 하반기 부터는 나아졌다고 한다. 요즘은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손님 이 적어서 수입이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6. 여가생활이나 휴가, 월차

- 일요일이나 손님이 없는 토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똑같이 술을 마시는 거지만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 혼자 살기 때문에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한다.

<유입과 이동과 관련하여>

1. 처음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

- 돈이 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2살에 처음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다. 1~2달 있어 보니 모르는 남자들과 술 마시고 그런다는게 싫었고, 회의를 들었다. 예인까지 있는 내가 왜 이리하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대리점 판매원으로 취직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일하던 대리점이 부도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한동안은 쉬면서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돈 1~2만원이 없었다. 돈이 당장 급한데 돈을 벌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단란주점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업소는 세 번째 업소이다. 단란주점에서 돈을 벌면 중간에 잠깐씩 쉬기도 했다. 다른 직장을 구해 보려고도 했지만 자리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사무직원으로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란주점에서 일하면 사무직원 한달 월급보다 많이 버는데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았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만 두었다가도 다시 이 일을 찾게 되는 것 같다.

- 처음엔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멋모르고 시작했다. 다시 시작한 것도 당장 돈이 급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돈을 모으기 위해 하고 있는 거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전세로 옮길 거고, 결혼 자금도 마련할 거다.

- 단란주점에서 일하기 전에 몸싸움도 생각했었다. 노래부르고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몸싸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싸움이 단란주점보다 더 질린다고, 술도 더 많이 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단란주점에서 일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았다.

- 한때는 보도(한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는 업소에 가서 일하고 돈을 받음)로 간 생각도 했었는데 가지 않았다. 보도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말은 들었다. 업소

에서 일하게 되면 공치는 날도 있지만 보도에 있으면 연락이 오는 업소에 가서 일을 하니까 공치는 날도 별로 없고, 잘되는 날은 하루에도 몇 탕씩 될 수 있다. 돈은 더 많이 벌지는 몰라도 업소에서 일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이 힘들고, 모르는 업소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업소에서 일하기로 했다.

2. 유입경로

- 당구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단란주점 주인을 통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업소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 업소에서 일하다 보면 업소에 대해, 손님이 잘 모이는 곳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러면 그런 소문을 듣고 옮기는 거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서 옮긴다. 같이 일하는 언니 중에는 벼룩시장 같은 신문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 온 사람도 있다.

3. 이직의사와 이유

- 지난번 업소는 손님도 별로 없고, 가게도 작고, 손님도 꾸짖혔다. 지금 업소는 괜찮은 것 같다.

- 다른 업소로 갈 생각은 없다. 돈은 어디 가서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똑같이 번다면 분위기가 좋은 업소에서 근무하려고 한다. 이 업소는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 있을 생각이다.

- 이왕 일을 시작했으니 이번에는 돈을 벌어서 나간 생각이야. 계획한 것을 이루고 나면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4. 지속 이유

- 카드 빚도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생각이다. 처음에는 돈을 쓰기 위해서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결혼도 해야 했고, 집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적금도 넣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옮길 생각이다. 사무직으로 한 달에 40~50만원 받고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는 사무직 같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1년 정도는 일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

5. 이동경로

- 업소를 이동할 때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이나 정보를 갖고 업소를 옮기게 된다. 나도 지난번

에 있던 업소에서 소문을 듣고 여기에 왔다.

- 어느 정도 한 업소에서 일을 하면 단골 손님도 생겨서 좋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질려하기 때문에 찾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업주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업소를 옮기곤 한다. 단란주점에서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단란주점에 있다가 카페에 갔다가 다시 단란주점에 오기도 하고, 잘은 모르지만 비슷한 업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6. 신체적 위협

- 손님들한테 신체적 위협을 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손님들 때문에 언짢고 서럽고 속상할 때가 많다. 원하지도 않는데 강요할 때가 있다. 자꾸 주물럭거리고 추근덕거리면 싫다고 해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손님에 따라 다르지만 반말하고, 무시하고, 알보기도 한다. 술마시기 싫어도 거절하면 안된다. 하지만 내색할 수가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들 비위를 잘 맞춰야 한다.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 힘들어도 누가 직장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7. 강제 이동·매매

- 마담이나 사장한테 돈을 끌어다 써서 빚을 지게 되거나 그 빚 때문에 업소를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른 업소에서는 터러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업소나 내가 일했던 업소들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8. 매춘(2차)에 대해서

- 예인이 있으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예인이 없는데 예인을 만들어서 예인과 성관계를 하느니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성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인과의 성관계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험은 돈을 벌 수 있는 손님과의 2차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고 생각됨).

- 돈을 벌려면 2차를 나가야 한다. 2차를 나가게 되면 그냥 테이블에 들어가서 놀아주는 것보다 몸도 힘들고, 지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나 갈 수도 없다. 지난달에는 2차를 나가서 돈을 좀 벌었는데 이번 달에는 아직 한번도 나가지 않아서 돈을 모으지 못했다.

- 손님이 원하면 2차를 나간다. 손님이 2차를 나가자고 하면 마담한테 이야기를 하게 한다. 그러면 마담이 아가씨한테 손님이 2차를 원하니 나가자고 물어보고, 아가씨가 원하면 2차를 나간다. 사장에 따라 손님이 원하면 무조건 2차를 나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2차를 나가

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2차를 나가게 되면 사장에게도 돈이 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손님이 원해도 손님이 정말 싫으면 생리중이라고 하고 나가 지 않는다.

- 2차는 멘정신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고 나가 게 된다. 손님이 많으면 하루에 2번 나가기도 하는데 초저녁에 나갔다가 (초 저녁에 2차 갔다가 다시 업소로 들어옴) 새벽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2시 반 정도까지는 2차를 나간다 (바로 퇴근함).

- 손님들 중에 낮에도 만나자고, 예인 사이 하자며 연락처를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2차는 나가지만 그런 것은 안한다.

9. 이전 직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1년 일했다. 1년간 일을 하다 보니 판매원 일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월급도 많지 않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8시까지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힘도 들고, 진급하기도 힘들다 는 생각이 들었다. 진급을 해도 반장 (일반 판매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고작이고, 그나마도 판매코너에서 5년은 일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면서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당구장에서 일했고, 잠시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다. 다시 대리점 판매원 일을 했는데 IMF로 대리점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다.

10. 친구와 가족

- 가족들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줄 알고 있고,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식구나 친구들에게 뭣뭣하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다. 돈 버는 것 빼고는 힘은 힘대로 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 28살 정도에 결혼할 생각이 다. 이런 업소에서 일했다는 것 이 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속이면 된다. 속이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도리어 남자를 알기 때문에 바람을 피더라 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득과 지출에 관련하여>

1. 개인소득과 소득분배

- 한 테이블에 들어가면 TC (Table Charge)로 6만원을 받는다. 정가는 6만원 으로 되어 있지만 손님에 따라 6만원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몇몇 그런 편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주는 대로 받는다. 어떤 경우는 팁을 더

주는 경우도 있다. TC는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데 보통 그날 번 TC는 당일 일에 가져간다. 현금일 경우는 당일에 가져갈 수 있고, 외상일 경우에는 그 외상을 갖는 날 갖고 갈 수 있다.

- 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벌지만 단골 손님이 나 지명손님 (손님이 특정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지정하는 경우)이 많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번다. 우리는 월급제가 아니고 Table에 들어간 만큼 돈을 벌 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다. 한 테이블도 들어가지 못해 공치는 날에는 돈을 못벌게 되는 거다.

- 2차를 뛰게 되면 돈이 2~3배씩 달라지기도 한다. 많이 벌 때는 200~300만 원도 버는 것 같다. 2차 비용은 20만원이다. 20만원은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데 사장과 나누어 갖는다. 현금일 때는 18만원을 아가씨가, 2만원을 사장이 갖고, 카드로 계산했을 때는 17만원을 아가씨가 갖고, 3만원을 사장이 갖는다.

2. 지출처

- 주로 식생활비나 월세비용,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사용한다 (정확한 액수는 질문했으나 알려주지 않음. 아마도 한달 월급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월급이 드러나면 한 달에 2차를 어느 정도 가는 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지난 달에는 100만원 정도 저축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적금 넣는 통장과 여유 돈을 넣는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많이 할 예정이다. 하루하루 돈을 받기 때문에 저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출근하기 전에 은행에 넣기 때문에 편하다.

<건강에 관련하여>

1. 건강검진여부

-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모두 갖고 있는데, 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한다. 따로 개인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이 일은 오래하면 매일 술을 마시는 일이라서 몸이 나빠진다. 보통 하루에 맥주 10병, 양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섞어 마시면 안좋다. 술을 마시기 싫어도 손님이 주는 술은 거절할 수가 없다. 매상 문제도 있고 손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마실 수밖에 없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은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 몸이 안좋고, 술을 못마실 것 같은 날은 아예 쉬어서 회복한 다음에 다음날 출근한다.

3. 임신이나 기타 병에 대해

- 2차를 나가게 되면 임신이나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콘돔을 사용하 기도 하고 임신이 되지 않도록 몸안에 넣기도 하는데 나는 콘돔을 사용한 다. 콘돔을 항상 갖고 다니지는 않고 여관에 들어갈 때 콘돔을 갖고 오라고 해서 임신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IMF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 과정, 중소기업의 잇단 부도,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여성은 그 우선순위에 있었다. 집안의 가장인 남성도 직장을 잃는 마당에 여성들을 위한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경제가 호황일 때에도 여성은 (재)취업하기가 남성에게 비해 힘드는데 경제 불황시기에는 더욱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실업률이 8%에 이르고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의 가장인 남성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이 해고되어야 했던 것처럼 구직을 기다리는 남성들에 때문에 여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구인하는 회사보다 구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실업률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던 일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고,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하던 일을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학력, 직업능력이나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한 여성은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IMF 2년제인데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6개월, 공공근로를 한다고 해도 3개월 정도이니 실직자 혹은 그 가정의 생계 문제의 심각성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돈을 더 많이, 더 쉽게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가장이 실직하거나 본인이 졸업 후 취업기회가 없거나 혹은 실직으로 재취업 기회를 갖지 못해, 당장 생활을 해야하는데 일정한 수입도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향락업소는 학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곳이다.

향락업소라고 불황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손님을 접대하고 술시중을 드는 것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고, 매매춘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본 사례도 IMF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돈은 다 써가는데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단란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생계수단으로 향락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 업소를 찾게 된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향락업소에서는 현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도 돈 1~2만원이 없어서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

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 의사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해서 이를 자발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광고를 보고 혹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기회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했다면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향락업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상품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항상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게 마련이고 수시로 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일할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유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자발적 선택을 가장한 비자발성은 향락업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향락업소에서는 2차 서비스로 매매춘을 한다. 1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본인이 원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락업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성적 노리개로 희롱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더구나 2차로 매매춘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2차로 매매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향락업소는 본인이 옮기고 싶을 때 업소를 옮길 수 있다. 이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잘되는 업소를 찾아 이동할 수 있다. 업주와의 금전적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지만 그외의 경우는 유입과 이동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의 의사라기 보다는 한 곳에 머물 경우에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소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업소의 생리에 따라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다니게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한번 향락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금을 벌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날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혹은 생활비로 버는 대로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돈을 벌기는 하지만 돈을 모을 수 없다. 대부분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지만 구조적으로 돈을 벌기 어렵고 결국에는 이 곳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여성이 향락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자발적 선택을 가장한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향락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입도 없고,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 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환경 등은 여성들을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해 제한적인 취업기회나 교육기회, 여성들이 술시중을 들고 이런 여성들과 매매춘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 여성에 의한 집단이 허용되지 않는 업소에서도 바깥이 집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위험수당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구조 등은 돈을 벌기 위해 여

성들이 이곳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춘여성의 탈매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과 어려움

정연순 (변호사,

열린 전화 자문위원)

1. 들어가는 말

매춘여성들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중의 하나는 매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매매춘 시장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의심과 편견이다. 매춘은 가장 존엄하게 취급하여야 할 자신의 육체를 직접적인 생존수단으로 내놓으며 상대방의 처분에 완전히 내맡긴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철저히 억압당한다는 점에서, 가장 하급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이다. 여성이라면, 매춘 행위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시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의심과 편견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70년대와 달리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 뒤에 고도의 소비사회로 정착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믿는 사람들과 언론에 의하여 이러한 의심과 편견은 도를 더하고 있다. 또한 매매춘의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매춘여성들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는 매춘여성들의 탈매춘과 자립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① 본 발제는 매춘여성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서 특히 업주와의 착취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의 청산과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률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②

<3>4) 원미례, "한국사회의 매춘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0-41.

<4>매춘여성의 자립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러한 고용관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상담에서 매춘을 시작하게 된 동기, 고용관계, 원인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적으로 시작하였다면 그 과정에서의 차용금의 반환 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고발이나 고소를 한다든가, 손해배상금을 구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반면 프리랜서형의 매춘여성의 경우 과연 차용금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지(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2. 매춘 여성의 실태와 법적 지위

현재 우리 나라의 매춘산업은 유형과 형태를 달리하여 다양하고도 거대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일대일로 매춘행위를 맺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이 매춘여성이 포주집에서부터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나 남성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서나 보도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매춘여성이 생활하는 나이나 경력, 미모, 강제성에 따라 그 고용관계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감금형식에서 숙식하는 형, 출퇴근하는 형,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형 등 다양하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업소에서 인신매매나 감금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현재 형법상으로 매매춘행위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관련법규들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비롯하여 형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10여 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매매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대개의 법률들이 금지조항 또는 처벌경력이 있는 자의 특정사업활동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매매춘행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이다. 동법은 매매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③과 매춘여성에 대한 선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매춘여성의 탈매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매춘여성은 고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고수입을 능가하는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매춘여성의 자립을 막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빚과 고율의 이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매춘여성이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는 원인들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벌금제

벌금제의 전형인, 티켓다방의 형식을 보면, 다방에 고용

<5>동법 제2조 : 윤락행위와 합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윤락행위 2.윤락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3.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정하는 행위

된 여성들이 계약된 기간동안 쉬거나 기타 사유로 다방의 자리를 비울 때면 티켓을 끊도록 되어 있다. 여성과 업주는 한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이 기간동안 여성이 하루 결근을 하면 벌금으로 15~20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 여성이 업주와 계약된 내용으로 하면 30일간의 노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며칠은 쉬기 마련이어서 결국 60~80만원 가량이 다시 벌금으로 회수되게 된다. 룸싸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휴업을 하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상 며칠은 쉬어야만 하는 구조에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도 벌금을 내게 된다.

2) 높은 이자

매춘여성은 대부분 돈이 없다. 매춘을 하게 된 동기도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화장품, 옷 등의 구입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다시 돈이 쪼들리게 되고 포주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고리의 이자를 물게 되고, 이를 다시 갚지 못하면 또 돈을 빌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 빚에 묶인 뒤부터는 완전히 주인에게 매여 사는 신세가 된다.

3) 연대보증

매춘여성이 빚을 지게 되면 다른 매춘여성이 서로 연대보증을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중의 한 여성이 힘들어 도망치게 되면 연대보증한 다른 여성이 이를 모두 책임지게 된다. 도망쳤다가 다시 잡히면 업주는 찾는데 드는 비용(하루 10만원)을 다시 매춘여성에게 물린다.

4) 경제적 무감각

매춘여성이 경제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과대한 의상비, 화장품비를 지출하는 것도 매춘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한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매춘여성이 업주와 결탁한 의상업자의 옷을 구입하면서 의상비로 많은 돈을 쓴다고 한다. 하루의 팁으로 상당한 돈을 받아도 현금으로 돈을 쉽게 만지는 데다가 이미 빚도 상당히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전망을 수립할 의욕과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해프게 돈을 사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해프 씬 씬이 매춘여성의 빚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매춘여성이 일반 사회로 돌아왔다가도 이를 잊지 못하고 다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으로 매매춘시장에 오래 있는 여성

일수록 빚을 더 많이 지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업주는 매춘여성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고 매춘여성은 매매춘시장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4. 매춘여성과 업주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검토

1) 계약무효의 범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성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도덕률을 뜻한다. 이에 따라 축첩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계약, 매매춘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는 계약, 도박자금을 대어주는 계약은 모두 무효인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 제103조의 규정만으로 해석할 경우 직접적인 화대의 불법성은 명백하나 화장품, 식대, 차용금 등의 실비나 관련비용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법리상으로 주 계약이 무효인 계약이라면 부수 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도 실비용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매춘여성이 자신이 포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무효가 되어 받지 못하는 반면 포주로부터 제공받은 숙식비, 옷값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면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포주가 매춘여성에게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은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나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무효가 되는 채권은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범위에는 매춘여성이 윤락업무에 종사하면서 업주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즉 벌금, 화장품값, 옷값, 숙식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6>이영준(1987), <민법총칙>, 박영사, p.229.

<7>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가 조사되고 있지 아니하다. 실제로 매춘여성에게는 법보다 주머니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강박들을 풀어 끝까지 추적하고 감금하는 상황하에서는 법의 보호기능은 무력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매춘여성이 쏜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업주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리게 된 경위가 윤락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윤락행위가 관련없이 쏜 돈이라면 업주와 매춘여성이 매춘계약의 관계에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여성이 100만원의 선금을 받고 일하던 중, 동생이 아파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300만원의 돈을 업주로부터 꾸었으나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갔다면, 그 경우에도 업주는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 정의관념에 위배 되는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주는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업주가 돈을 쥐주면서 변제의 방법으로 윤락행위를 요청하였거나 묵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채권이 '윤락행위와 관련된 채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 사채업자에게 쏜 돈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사채업자가 동조의 '이에 협력하는 자'에 해당하며, 이 채무가 윤락행위와 관련성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2) 구체적인 문제

가. 업주가 실비용이나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을 두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주가 매춘여성에게 이미 지급한 월급이나 기타 화장품 비용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⁷⁾

매춘여성이 자신이 지급한 빚 값은 돈의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예도 없을 것이며, 이 역시 같은 법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 취업사기의 경우

매춘을 해 줄 것처럼 약속하고 선금을 받아 도망간 경우에도 역시 계약이 선종양속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주는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라. 고율의 이자

이전에는 이자제한법이 존재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8>만일 구체적인 소송에서 문제된다면 업주가 자신의 채권이 윤락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매춘여성이 자신이 갚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라 할 지라도 연2할5분의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였다. 그러나 IMF가 오고나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2할5분 이상의 고리도 가능한 셈이다.

마.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별도의 합의서를 쓰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업주가 합의서나 각서를 가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시의 채권무효의 사유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51조) 역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이음을 써주면 별도의 약속이음채권이 발생하고 이는 무인(無因)채권이기에 때문에 어음을 소지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바. 실제 소송과정

실제로 업주가 매춘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그 채권의 발생이 매춘 계약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러하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마치 다방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일반 종업원의 관계에서 돈을 차용해 준 것처럼 위장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사채업자)를 내세우는 방법 또는 차용증의 형식으로 무색투명하게 만들어 제기하거나, 가족들을 구슬려 새로운 형태의 합의서를 받아내거나 연대보증하는 방법 등으로 변형시킨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이용, 매춘과 관련한 채권이라는 성질을 지워버리려 할 것이다. 제3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일반 대여금처럼 위장한다면 그 실채관계를 밝히지 않는 한 매춘여성이 그 점을 벗기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사채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춘여성으로서의 그 사채업자가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이에 협력하는 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구하는 방법, 실제의 거래관행을 입증하는 방법).

5. 형사법적 제문제

1) 업주의 형사고소

업주들이 매춘여성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의 혐의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외전상 관계없이 보이는 제3자를 내세워 대여금 사기 동인 것처럼 위장하여 고소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취업사기는 일정기간 일하기로 해놓고 선금을 받은 후 그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에서이고, 차용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약속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시에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즉, 처음부터 돈을 때어 먹으려고 작정하였다는 고의)가 밝혀져야 한다. 매춘여성이 도망가게 된 경우, 근로관계, 돈을 갚지 못한 이유 등을 엄밀히 따져서 애초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났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금원을 빚졌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고소를 당하여 소환문자를 받게 되면, 현재 윤락행위방지법이 쌍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나가 자신의 처지를 적극 변호하기보다는 이리하면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앞서고 더구나 자신이 매춘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별도로 처벌받을까를 두려워하게 된다.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업주에게 빚을 일부 갚고 합의를 보라고 종용도 당하게 된다. 그 빚의 형성과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성으로서의 이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으레히 고소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종용하기는 하나, 합의를 안보았다고 해서 무죄가 될 사건을 유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건에서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며 무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업주가 폭력배를 고용하여 해걸을 도모하거나 감금시켜 다른 곳으로

인신매매하는 경우

이것은 모두 체포, 감금, 폭행 등의 별도의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율된다. 따라서 매춘시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들은 좀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매춘여성이 이러한 것을 들어 고소를 하여도 경찰관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거나 과거를 캐묻는 등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받게 되고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 과거의 매춘행위로 처벌받기도 할 것이다. 현행법규로는 윤락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1년이다. 이러한 엄벌주의적 통제방식이 매춘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6. 맺음말

매춘여성을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와 사회의 지원이다. 매매춘행위를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우리 법제는 강한 처벌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매춘, 강제 매춘 등의 더욱 악랄한 범죄와 일반 매춘행위가 혼재하고 있으며, 처벌일변주의의 정책은 매춘여성을 범죄자화하여 매춘여성이 탈매춘을 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매춘여성은 자기에게 가해진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힘들며, 국가나 사회 또한 매춘여성을 탈매춘하도록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업주와 단속기관의 유착관계, 수사기관의 남성주의적 편견, 수사방식 등이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정부의 엄벌주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9> 조사보고에 따르면 매춘여성 중에서 23.8%가 빚을 지고 있으며, 매매춘에 종사한지 1년 미만인 집단에서 18.7%, 1~3년 미만에서 21.6%, 3~5년 집단은 27.1%, 5년 이상된 집단에서는 27.5%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박정은,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한국어성개발원, p.63.

머리말

남한에서 자란 어린 시절, 나는 '좋은' 한국 여성과 '나쁜' 한국 여성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다. 아마도 내가 네다섯 살 때였을 것이다. 나는 희생적인 어머니이면서 신의 있는 아내이기도 한 나의 할머니처럼, 존경받고 칭송받으며 본보기가 되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 결혼질당한 채 결코 거론조차 되지 않는 여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짙은 아이라이너를 결코 따라 해서 안 되었고 군복 입은 외국인과 나란히 걷는 그들의 걸음걸이도 흉내내서는 안 되었다. 그 외국인들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 병사(GI)였고, 여성들은 기지촌 매춘 여성이었다.

한국전쟁(1950~1953)과 1955년 미군이 한국에 항구적으로 주둔한 이래, 한국인과 미국인에 의한 성매매는 한·미 관계를 결속시키는 매개가 되어 왔다. 1950년대 이후 많은 미국 남성들이 군사 전략과 한국의 GNP 수치보다 한국의 기지촌 매매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쟁 때문에 백만 명이 넘는 한국 여성들이 미군에게 성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수백만의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전투에서 함께 피를 흘리고 섹스를 통해 피를 섞어 아메라시언(Amerasian, 미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말—옮긴이) 자손을 가짐으로써 특

별한 유대감을 나누었다.

한국 내 미군을 중심으로 한 매매춘은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 거리를 다니며 미군들을 호객하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미군을 통해) 두 정부에 의해 후원되고 규제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미군과 한국 정부는 그러한 여성들을 '바 걸' (bar girl), '호스티스', '특수 엔터테이너', '비즈니스 우먼', '위안부'라고 불러 왔다. 또 한국인들은 이 여성들을 '양갈보'와 '양공주'라는 매우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렀다. 이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한·미 정부는 그러한 매매춘을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진전시키고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미군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²⁰

군대 기지촌에서 매춘 여성으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의 삶은 1950년대 초부터 미군의 활동과 복지에 밀접한 연관을 맺어 왔다. 주한 미군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 '특수 엔터테이너들'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해 왔다. 1970년대 초반 미국과 한국은 그러한 공동 관리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 책은 한·미 관계에 대한 다음의 두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한다. 첫째, 기지촌에서의 사람 대 사람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 서울과 워싱턴간의 국가 대 국가 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외교 관계를 짚은 정장을 입은 엘리트 남성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일련의 정책들로, 개인의 삶,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층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계층에 속한 기지촌 여성은 사실상 1970년대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간의 긴장과 협상에 매우 불가결한 부분이었음에도 보이지 않고 침묵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나는 이 두 부분을 함께 묶음으로써, 사람 사이의 사적인 관계와 정부간 외교 관계가 어떻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여성들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맥락에서 미군의 한국 내 대규모 주둔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욕망을 상징하고 미군 주둔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외교 정책의 변화로 한국에서 2만 명의 미군이 감군되었다.(3장) 간단히 말해 이 책의 초점은 두 정부 쌍방의 안보 이해(利害) 증진에서 이 여성들이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있다.

이 책을 쓰면서 가진 또 다른 희망은, 기지촌 여성들의 존재를 가리고 있는 커튼을 걷도록 돕고 그들의 목소리를 위한 통로로서 이 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동안(1991~1992) 나를 만나서 가르침을 준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은 침묵과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한국 정부, 미군, 미국 생활, 서로의 자녀 양육 습관, GI 손님과의 관계 그리고 화장한 모습에 대한 비평들을 자주 하곤 했다. 그들은 성격, 나이, 성을 파는 이유, 기지촌 생활에의 적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폭넓게 화제로 삼았다. 그들은 어떤 공통점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1950~1970년대에 매춘 여성들의 거의 대다수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그 여성들 사이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²¹ 특히 초기 세대(1950~1970) 매춘 여성의 대부분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를 잃었거나 많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수 없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었다. 초기 매춘 여성들은 한국전쟁 동안 군부대를 따라 기지를 쫓아다녔다. 그들은 세탁과 요리를 하고 군인들의 성적 요구에 응했다. 어떤 이들은 전쟁 때문에 과부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포탄과 수류탄을 피해 피난하다 고아가 되거나 가족을 잃었다. 기지촌 매춘 여성 중 많은 이들이 매춘에 들어서기 전부터 스스로를 '타락한 여성'이라고 여겼는데, 이혼, 강간, 혼외 섹스 그리고/또는 그로 인한 임신으로 사회적 지위와 자기 존중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에게 기지촌은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방하는 장소로 여겨졌다.

이 여성들 중 거의 대다수는 한국의 주류 사회로부터 비난과 낙인의 고통을 공통으로 경험했다. 이 여성들은 (가족/교육 수준 중심의) 계급주의적 구별과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의 쓰레기로 취급당해 왔고 사실 지금도 그러하다. 수천 년 동안 인종적·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에서, 외국인(양놈)과 살과 피를 섞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사회에서 따돌림당하게 만들었으며 한국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불명예가 되어 몸도 영혼도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였다. 한국의 성리학적 도덕주의는 여성의 순결과 강한 인종주의적 외식으로 이 여성들을 '불순한' 존재로 이중적인 오명을 씌웠다. 여성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주변화되는 낙인을 견뎌야 한다. 그들은 기지촌을 나와 더 큰 사회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며, 스스로를 비정상'으로, 기지촌 바깥 세계를 '정상'으로 표현한다. 일단 기지촌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해 버린다. 그들이 스스로 '정상적인' 한국 사회로 재통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방의 여인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김양향은 기지촌에서 잠시 일한 후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때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내쫓았는지를 회상한다. 사촌 중 한 명은 그녀에게 "우리 근처에는 일선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²²

고향에서 쫓겨난 결과로, 여성들은(매우 나쁜 여성들을 제외하고) 미군과의 결혼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된다. 그들의 희망은 한국에서 경험한 가난, 수치, 소외를 뒤로한 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미군의 합법적인 아내로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한국 여성으로서 그들 자신에게 기대했던, 그러나 기지촌 매춘 여성이기 때문에 거부되었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꿈과 도리를 그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한다.

1990년 겨울, 한국에서 기초 조사를 하는 동안 서울 북쪽에 있는 의정부 송산에서 '존스톤의 엄마'를 만났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 연합회가 운영하며 대학생들과 젊은 활동가들이 스테프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회 서비스 및 상담 센터인 두레방에서 활동가들이 그녀를 나에게 소개했다. 골목 안쪽에 허물어져 가는 한 시멘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다시 회색의 시멘트 벽 안에 몇 개의 냄비들과 팬, 취사 시설이 있는 작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다. 20대 후반인 존스톤의 엄마는 침대에 앉아, 수천 개의 하얀 칫솔 갈아 보이는 것들을 커다란 판지 상자 속에 바쁘게 싸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자 싸는 속도도 늦추지 않은 채 인사를 했다.

존스톤의 엄마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갑고 비좁은 시멘트 집에서 두 아들, '존스톤'과 '조이'와 함께 몇 달째 살고 있었다. 두 소년은 모두 아메리시언인데 아버지가 달랐다. 존스톤은 여섯 살쯤 되었고 조이는 두 살이었다. 최근까지 한 미군 병사가 함께 거주하면서, 그녀가 제공한 섹스의 대가로 세 모자를 부양했다. 이 두 남녀는 기지촌에서는 일상적인 '계약' 관계였는데, 이것은 군인과 매춘 여성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활을 하는 여성은 기지촌 매춘 여성의 서열에서 최상층에 속했는데, 그 상황이 결혼 상황과 매우 유사한데다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거나 클럽에서 호스티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두레방의 간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존스톤의 엄마와 미군은 아이들이 있는 같은 방—갈 만한 다른 곳이 없었으므로—에서 일상적으로 섹스를 했다. 그때 존스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한국인 아이들이 그가 다르게 생겼다고, 그리고 몇몇 애들은 그의 어머니가 GI를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이란 것을 알고 그를 놀려댔다. 두 소년은 추운 한국의 겨울 날씨 속에서 마땅한 옷 한 벌 없이 내 앞에서 뛰어놀며 길

쥘대고 핑퐁었다.

존스톤의 엄마는 '계약 연인' 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버림을 받은 탓에, 아이들 생계를 위해 한 달에 15만 원이란 돈을 벌려고 상자에 칫솔을 채워 넣어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육체적 쾌락을 바라는 신화상의 요부나 유혹하는 능력에 정통한 수지 웡(Suzy Wong)이 아닌 수척하고 초췌한 나이는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무뚝뚝한 말투에 끝잘 흥분하곤 했다. 목소리나 말에는 가식이 없었으며 형식도 없었다. 반면 유머 감각은 뛰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기계적으로 상자에 칫솔들을 채워 넣었다.

빵가게 아줌마는 존스톤의 엄마와는 달리 아이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그녀는 두레방과 가까운, 송산의 한 셋방에서 혼자 살았다. 1991년 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센터에서 세운 작은 빵가게에서 약 일 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 빵가게는 오븐 하나와 빵 굽는 양철 그릇들, 그리고 재료를 섞기 위한 그릇 몇 개를 갖추고 있었는데, 탈매춘을 원하는 여성과 나이에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1990년에 세워진 것이었다. 처음 빵가게 아줌마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많은 나이에 젊고 잘 가꾼 외모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새까만 머리에, 열개 분을 바르고, 너무 길어 가짜임이 뻔한 속눈썹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죽히 예순은 넘어 보였다. 나는 곧 두레방 간사로부터 그녀를 절대 할머니라 불러서는 안 되며, 속눈썹이 가짜인지 물어봐서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의 타오르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그녀에게 영원한 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후 나는 빵가게 아줌마에 관하여, 67년의 삶 대부분을 군대 매춘 여성으로 일하면서 살아왔고 젊음과 여성미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이 없다면 그녀는 자신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GI들에게 자신의 인

생을 혈값에 제공하면서 무려 65세가 되도록 기지촌 거리에서 호객을 해왔다. 두레방 사람들은 깊은 동정심으로 그녀를 설득하여 센터를 방문하게 하고, 결국 그녀가 거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빵가게 아줌마는 두레방에서 간사들과 다른 기지촌 여성들로부터 관심과 우정어린 사랑을 받았지만, 계속 신경질적이고 불신감을 품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포주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아온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고, 사람들과 동등하게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녀는 두레방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6개월이나 걸렸다. 먹느라고 일할 시간을 낭비한다고 고향 지르던 포주를 피해 숨어서 혼자 먹던 습관 때문이었다. 두레방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다른 여성들과 평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조차도 진공 청소기 같은 속도로 밥을 먹어치운 뒤 갑작스럽게 식탁에서 일어나 혼자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나이 들어 아무도 자신을 돌봐 줄 사람 없이 혼자 죽어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1920년대 초에 태어났다는 어떤 여성은 공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남들에게 전해 줄 지식과 지혜가 많았다. 한 번은 두레방을 찾은 내게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부자가 되었고 이와 똑같이 남한도 베트남전쟁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했다. 또 한 번은 왜 미국이 걸프전에서 이라크와 싸웠는지 아느냐고 내게 물었다. 말해 달라고 하자, 그녀는 그것이 전쟁을 원하는 미국의 군수 산업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미국은 너무 많은 가공할 무기들을 모아 두고 있어서 다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끝내 나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치만 내가 뭘 알겠어? 머리가 나쁜데, 나는 배우지 못했거든"이라고 말했다.

'소냐 엄마'는 캠프 험프리와 가까운 안정리에서 1992년 봄에 만났는

데, 가족 중 세 여성이 기지촌에서 매춘 여성으로 일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여동생과 달리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1950~1960년대에 흑인 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GI 매춘 여성이었다. 소냐 엄마를 만났을 때 그녀는 35세였고 그녀의 여동생은 30세였는데 둘 다 기지촌 바에서 일했다. 소냐 엄마에게는 네 아이가 있었는데, 모두 한국인·아프리카인·미국인 자손으로 각기 아버지가 달랐다. 소냐 엄마와 여동생은 말·행동·관습에 있어 완전히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작은 기지촌 이외에 자신을 받아 줄 한국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피부와 인종적 특징들로 인한 한국 사회로부터의 주변화는 아주 심각했다. 기지촌 매춘과 기지촌 생활의 분명한 신체적 연관성은 그들의 친척들에게조차 결코 얘기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문제였다. 사촌 중 한 명은 인종적으로 완전히 한국인이었는데, 마침 안정리 가족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 와 있었다. 내가 방문객들이 있는 가운데 소냐 엄마와 여동생에게 기지촌 생활에 관해 이것저것 물었는데, 이것이 허약한 할머니를 화나게 만들었다. 소냐 엄마가 나를 옆으로 데리고 가 자기 어머니는 그런 말이 방문한 친척들에게 가족의 부끄러운 역사가 드러나게 할까봐 두려워한다고 일러 줬다.

기지촌 여성들의 천민 같은 지위는 그들이 살고 있는 기지촌의 독특한 인구학적·문화적 구성 때문에, 한국인이 인종·계급·서구의 영향에 대해 갖는 특정한 편견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국에서 미군 기지와 접해 있는 기지촌, 특히 큰 규모의 육군 기지촌들은 대개 북한과 미국/남한의 부대와 병기 대부분이 몰려 있는 비무장 지대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군들과 한국인 성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에 살았다. 1977년에는 3만 6,924명의 등록된 매춘 여성 중 1만 8,551명이 경기도에서 일했다.⁶ 기지촌 마을들은 혼성 마을로서 미국인

과 한국인이 함께 거주하며, 영어와 한국어 간판이 함께 세워 있고, 한복을 입은 인형과 미군의 슬로건이나 로고가 나란히 놓여 있다. 그러나 기지촌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곳이며, 거리와 나이트클럽과 바에서 콩글리시가 돌리는 곳이며, 아메리시언 아이들이 인종간의 혼합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가 되는 곳이다. 어떤 의미에서 기지촌은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위한 무대 세트이며, 럭키 클럽, 탐진, 킹 클럽 같은 이름을 뽐내며 네온을 밝힌 바들로 감싸여 있는, 칙칙한 불빛의 뒷골목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 골목은 시끄러운 컨트라-웨스턴 음악이나 디스코 음악, 술취한 이들의 말다툼, 질게 화장한 채 치친 미군들 곁에 붙어 엉덩이에 손을 얹고 걸어가는 한국 여성들로 요동친다.

이 지역들의 풍기문란과 함께 야기되는 것이 사회적 무질서, 폭력 그리고 범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빈민가의 정착과 함께 가난한 여성들과 전쟁 고아뿐 아니라 미국 달러로 운명을 개척해 보려는 사업가와 범죄자, 그리고 법을 피해 온 정체 불명의 사람까지도 이곳에 유입되었다. 한국인 대다수에게 동두천, 오산, 군산과 같은 도시의 이름은 매매춘·술취한 미군·사회적 일탈·부도덕과 동의어가 되었다. 1992년 봄, 동두천 지역의 성병⁷ 진료소에서 일하는 한 의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 지역은 이곳에 거주하는 매춘 여성이 아닌 소녀들이나 젊은 여성들에게조차 자신들과 결혼할 마땅한 한국 남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범죄와 일탈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고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한국에 머물며 기지촌을 자주 찾아 조사를 하는 동안 알아낸 것이 있다. 서울에 사는 나의 한국인 친척 중 몇몇은 기지촌을 방문하지 말라며 끔찍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춘 여성들과 함께 밥도 나누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를 강하게 설득했다. 다른 이들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 연구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의 도덕적 자질과 가족 배경

에 대해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천한 지위와 사회적 주변화는 내가 여성들의 '첨단'(cusp, 매우 다른 두 가지 사이의 경계선-옮김) 지위라고 부르는 것을 한국 사회가 경멸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특히 기지촌 매춘 초기에, 매춘 여성들의 서구식 의상·머리·화장 스타일의 모방, 시끄러운 쿵글리시 발음, 과도한 음주와 흡연, '양놈'과의 친밀한 관계와 성 관계는 전통과 서구식 근대성 사이에 붙들려 있던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했다. 대중적으로 찬사를 받은 한국 소설/영화 「온마는 오지 않는다」에서 '유엔 레이디'인 영희의 캐릭터는, 양갈보 같은 외모와 행동으로 금산리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비난을 퍼붓게 만든 이런 종류의 첨단 지위를 적절하게 구현한다. 주요 등장 인물 중 한 명인 만식은 이 여성들의 기이한 외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장단지 맨살뿐만 아니라 영희의 둥근 형태를 그대로 노출시킨 짧은 블루-블랙 치마, 어깨에 있는 우두 주사의 흉터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낸 소매 없는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 그들의 독특한 파마 머리는 종을 거꾸로 얹어놓은 모양이며, 그가 이제껏 보아 왔던 세련된 꽃무늬 문양의 우아한 흰색이나 청록색의 운동화와는 달리 호미날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광택 나는 가죽신을 모두 신고 있었다."

영희의 등장은 금산리의 쇠락, 즉 가족이 붕괴하고 전쟁통에 집을 잃은 피난민처럼 마을 주민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을 수장인 황 노인은 이 여성들을 "마을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부도덕하고 죄 많은 사람"으로 보았다. 어떤 의미에서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한국전쟁 이후 경제 개발기 동안 남한 사회에서 볼 수 있던 혼란스럽고 불안한 중간

상태(limbo-status)를 재현해 왔다.

왜 이 여성들이 한국인의 의식 밖으로 추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그들 주변에 잠재해 있는 전쟁 그리고 새로 발견된 부와 국제 권력에 내재한 불안이 상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지촌 여성들은 파괴·가난·전쟁의 살육·전쟁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상징이다. 그들은 남북한의 지리적·정치적 분단과 남한 군대의 불안, 그리고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종속의 살아 있는 증언들이다. 수만 명의 한국 여성들에 대한 '양키 외국인'의 성적 지배는, 사회적으로는 불명예이지만 국가 안보라는 목적 아래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서 참아야만 한다고 믿는 '필요악'이다. 그러한 굴욕감은 '형'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맹 속에서 '아우'가 지불한 대가이다.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초가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처지에 관해 대중적 관심이 새롭게 일어났던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미주의가 확산되고 강렬해지던 시기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사회 활동가들과 반정부 저항 운동가들은 기지촌 매춘이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재현하며, 미군 기지의 지속적인 존재는 미국에 대한 남한의 신식민주의적 지위의 영속을 재현한다고 지적했다.¹¹⁾ 미군 기지 반대 활동가들에게,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의 독립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의 철수와 GI의 성적 지배로부터 기지촌 여성의 해방을 의미한다.

기지촌 매춘 여성들에 대한 비가시적이며 주변적인 비하는 학계와 운동 진영에도 분명히 있었다. 최근까지도, 1950년대 이후 한국 여성과 사회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는 한국의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기에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¹²⁾ 1990년대 초반에 와서야 기지촌 매춘에 관한 중요한 학문적 연구가 생겨났다.

이 주제에 관해 학문적 관심이 부족한 까닭은 이 문제를 경시하는 한국 사회 활동가들 자신의 탓이기도 하다. 나는 1991~1992년 한국에 머물며 조사를 하는 동안, 1960~1970년대의 기지촌 매춘 문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을 찾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확실한 조언자'로 추천해 준 한 여성은 오랫동안 사회 활동가들이 기지촌 매춘이라는 문제를 간과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녀는 공장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1970년대 일본인 섹스 관광(1장)을 반대하는 데 조직적인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했다고 들려 주었다. 기지촌 매춘이라는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한 번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동료들이 기지촌 매춘 여성들을 한 번도 착취나 억압의 틀로 보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개의 활동가들이 이 여성들을 자신들과 너무 다르다고 여긴다고 고백했다.

너무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한국인 활동가와 학자,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여성들을 대변하는 이들조차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매춘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와 클럽에서 일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음을 의례적인 방식으로 말해 주고 있다. 기지촌 매춘 여성에 대한 이런 식의 학문적·사회 운동적 무관심은 이 여성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갖는 편견에 한 기능을 한다. 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이며, 주류 사회의 규범과 가치로부터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두레방을 만든 문혜림은 "학생들은 종종 반미주의자가 되어 시위할 때면 '양키 고 홈'을 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미국' 기지촌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억압에 관해 알지 못한다"¹³⁾고 적고 있다. 학생들은 1990년이 되어서야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기지촌 매춘 여성들에게까지 연대를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¹⁴⁾

그러나 진보적인 한국의 활동가들과 학자들에게조차 이 여성들이 비가시적이었던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전쟁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북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속에 살았던 남한 사람들은 미군 주둔을 의문의 여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성 출신의 대통령인 박정희(1961~1979), 전두환(1980~1987), 노태우(1987~1992) 정권은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대중적 비판을 독재적 수단으로 저지하였다. 반공주의와 국가 안보의 수사학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사회의 지원을 결집시키는 데 일상적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견·저항·대안적 해석을 위한 연구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다. 국가 안보의 공백 아래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일과 삶은 남한 사회가 성장·변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미군들의 일과 삶에 불가피하게 끌어들이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처지를 조사하고 미국 기지촌 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기본과 미군의 필요성 및 역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처음으로 정치적 연구 주제로, 특히 군의 이데올로기와 생활 양식에 대한 비판으로 군대 매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군의 유지 바로 그 자체가 여성성과 남성성, 낙약함과 강함, 피정복자와 정복자라는 성별화된 개념들의 조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비판은 군의 능력과 남성의 성적 능력간의 연계가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종속,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초임을 지적한다. 전쟁 전리품과 노예로서의 여성은 여성과 전쟁간의 관계에 대한 예들이다.¹⁵⁾ 보스니아전쟁에서의 강간과 일본군 '위안부'로서 강제 매춘 피해 여성들은 전쟁에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학대의 최근 사례들이다.

특히 인로는 군대 매매춘을 단순히 여성 문제나 사회 문제, 혹은 질병 관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제 정치학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그 성격을 정의한 선구자였다. 젠더와 국제 관계에 관한 그녀의 최근 저서 세 권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성 관계처럼 사적 행위로 보이는 것들도 공적 권위에 의한 조직화와 제도화를 통해 국제 정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 정치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성 우월적 군대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제도들— 군사 동맹, 양자 동맹, 외국군 원조 프로그램— 중 어느 것도 남성을 군국화하려는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군 기지는 단순히 울타리 쳐진 영토 내에 공격적인 침략을 위한 폭격기, 전투기, 항공모함, 또는 미사일 발사대를 지원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군 기지는 또한 남성 군인들의 성적 요구, 지역 사회의 성적 요구와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자원들에 관한 가정 덩어리이다. 필리핀에 있는 거대한 미 해군 기지 수빅 만(Subic Bay)에 배를 댈 부두가 필수적이듯이 안마소 또한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성별화된 기준과 제도를 통해 이미 국제 정치 과정에 연루되었다면, 외교 정책의 변화는 단지 정부들간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어떤 외국 군대의 해외 기지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남성 군인들 혹은 선원들의 여성에 대한 성적 유용성의 요구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미 국방부의 변화하는 아시아 전략은 '여성 문제'이다.”

치의 시급하고도 고정적인 초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1~1976년의 SOFA¹⁾ 합동위원회 회의록과 민군 관계 특별소위원회의 회의록으로부터 이번 연구를 위한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제공받았으며, 그러한 조치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얻었다. 5년간의 평화 노력은 닉슨 독트린하에 시행된 미군 철수를 막고, 남한 안보에 대한 워싱턴의 약속을 재확인하려는 서울 정부의 필사적인 시도와 동시에 일어났다. 한국의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평화 운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 군대의 약속을 확보하려는 서울 정부와 주한 미군의 노력에 불가피한 부분이 되었다.

1장에서는 한·미 기지촌 매매춘의 발달과 미 군대, 한국 정부, 대중, 그리고 매춘 여성들의 관점에서 기지촌 매매춘의 중요성을 개관함으로써 개인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을 시작한다. 여기에서 나는 해외 군대 매매춘을 분석한 다른 접근들을 고려하는데, 특히 다음의 질문들에 관심을 두었다. 즉 어떤 요소들이 그것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도록 돕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 그 목적은 관련된 다른 요소들과 부합하는가 혹은 갈등하는가? 사적인 성 관계와 국가들간의 정치적 경계가 어떻게 고정되는가? 어떻게 매매춘이 정치적인가?

2장은 국가간 관계와 여성에 관한 논의의 구성을 돕기 위해 국제 관계에서 관련 학문의 관점에 관해 간결한 논의를 제공한다. 비록 권력 불균형이 정부들간의 관계 및 그들과 여성과의 관계보다 더 큰 틀을 형성하지만, 매춘 여성들을 비롯한 다른 정치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 이해와 제휴 형성의 역학이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장은 닉슨 독트린과 주한 미군 군축의 결과로서 기지촌 평화 운동을 둘러싼 정책과 정치학을 기술한다. 이 장은 특히 한·미 관계를 지역 수준에서 조직화하고 촉진함에 있어 평화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4장은 한·미 정부 공동 관리의 주된 대상인 기지촌 매춘 여성들에게

군대 매매춘이 군대 내 남성 중심적 기준과 관행의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성별 관점' (gender lens)만으로는 국제 제도들— 동맹, 군 원조 프로그램, 해외 군 기지—이 그들의 '군국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과 성별 구성물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다. 군대 매매춘의 제도화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외 군대 매매춘은 외국 정부들간 그리고 정부와 지역 집단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책이 도전하는 바는 인로 자신이 페미니스트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던 부분, 즉 "주둔 마을의 영향력 있는 민간인과 지역 군사령관간에 어떻게 거래가 형성되는지"를 결정하는 국가간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점을 두는 양 정부 사이의 특수한 맥락은 닉슨 독트린의 적용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 갈등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1970년대 초 미국과 한국의 권력 불균형(불평등한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이다. 한·미 기지촌 매매춘에 관한 이 연구는 언제, 어떻게, 왜 정부가 여성을 단지 성별화된 이데올로기가 아닌 외교 정책의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는지, 이런 특수한 이용이 여성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의 참여가 여성들의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정치화시키는지를 물음으로써 외교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을 강화하고 세밀화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권력의 성별화된 구도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통해 국제 정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루되고, 여성과 외국 군인들과의 관계는 정부간 관계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그 관계를 인격화시키고 정의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비록 우리는 여성들을 외교 정책의 행위자로, 매매춘을 외교 정책의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다음 장들은 한국의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생존과 성매매가 1970년대 초반 '기지촌 평화 운동'을 통해 한·미 합동 조

초점을 맞춘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여성들이 '민간 외교관'이 되어 GI와의 성 관계를 통해 한·미 민군 관계 개선의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여성들이 미군의 이해를 수용하려는 서울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여성들에게 혹은 사병들에 대한 비차별적인 행동과 엄격한 성병 관리를 조성하려는 주한 미군의 시도를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이 여성들을 '나쁜 외교관'에서 '좋은 외교관'으로 바꾸고자 했다.

5장은 기지촌 평화 운동을 한·미 안보 관계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아, 그 운동을 시행한 주한 미군과 서울 정부 양측의 동기를 검토한다. 닉슨 독트린은 주한 미군 사령관과 한국 정부가 서로 손을 잡게 했고, 그로 인해 미군의 한국 내 대규모 주둔 유지에 대한 그들의 공동 약속을 강화하고, 그러한 약속의 증거로서 매춘 여성들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다. 또한 주한 미군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지촌 매춘 여성들에 대한 정규적인 통제를 확대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서울과 워싱턴간의 정치적·군사적·외교력에서의 불균형을 조명한다.

6장은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서 두 측면, 즉 그들의 노동 환경(바/클럽 생활)과 그들의 몸,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성 노동에 대한 신체적 이동성과 자율성에 미친 평화 운동의 몇 가지 결과들을 설명한다. 이 장은 주한 미군, 한국 정부, 지역 기지촌 권력자들이 대개 매춘 여성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주한 미군에게 평화 운동은 기지촌 정치학에서 이제까지 시끄럽고 다루기 어려웠던 기지촌 여성들을 침묵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더욱이 평화 운동은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자 기지촌 매춘 여성들이 벌였던 소란하고 파괴적인 저항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전직 매춘 여성을 찾고 만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였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죽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나 한때 그들을 알았던 기지촌 주민들에게서 잊혀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지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상당수는 수년 동안 신체적 학대, 약물과 알코올 섭취,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억 상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여성들은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종종 기지촌 경험들에 관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 기지촌에서 생존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소개받은 몇몇 여성들은 해줄 말이 없거나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 나 또한 한국의 다양한 기지촌(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오산, 군산)을 여행하는 동안 친구가 된 몇 명의 전직 매춘 여성들을 인터뷰할 기회를 포기해야 했는데, 그들을 연구 주제로 인터뷰하는 것이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진정어린 우정과 신뢰를 깨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 그들과 나누었던 생각과 경험 등은 내가 사고하고 글을 쓰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되었다.

25년 동안 기지촌 매춘 여성으로 살았던 김연자 씨는 현재 전도사 겸 활동가로서 기지촌 생활과 기지촌 내 아메리시언 아이들의 처지에 관해 거라김없이 이야기해주는 등 내게 정보와 영감의 주요 공급원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매춘 여성으로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기지촌 여성과 그들의 아메리시언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것들을 고발하는 것이 자신의 기독교적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가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인터뷰들이 회의 후나 식사 후, 그리고 다른 기지촌 매춘 여성과 상담 센터에서 일하는 간사들과의 동석에서 일어났다. 또한 나는 두레방에서 영어 강의를 하면서 다른 여성들을 알게 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이 든 세대의 기지촌 여성들은 두 사람의 낯선

이들이 특정 화제에 관해 질문하고 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조사 인터뷰(research interview)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여성들은 '교육받은 사람들'과 자신들이 가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조차 종종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무식해"라고 변명하며 스스로 이야기를 중단하곤 했다. 나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들의 생애사가 한국과 미국의 젊은 여성들이 듣고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고, 형식적이고 학문적이며 그들과 동떨어져 보이는 분위기와 형식을 피했다. 전직 매춘 여성들과의 인터뷰는 내가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의 통계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성들의 삶이 기지촌 차원에서 한·미 관계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뢰를 주고,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결코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한·미 기지촌 매매춘은 아시아(남한뿐 아니라 베트남, 타이, 오키나와, 필리핀)에 매매춘을 번성시켜 온 해외 기지촌이라는 미 군대 체인의 일부분이다. 이 기지촌 매매춘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미국에 보여 왔던 고도의 군사적 종속—부대, 무기, 협약 그리고 군사 원조 물량의 측면에서—이다. 그러한 종속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전히 남쪽과 전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이다. 한·미 동맹은 국제 정치학에서 피보호자-보호자 관계로 자주 인용되는 사례이며,³⁶ 이것은 국가간 권력 불균형과 군대 매매춘의 관계에 관한 질문들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그 맥락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남한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정치·경제·사회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안보 이해가 결정 지었던 국가의 일레로서, 국가의 군사 안보 목적 추구를 위해 어느 정

도까지 인적·사회적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외국 중심의 군대 매매춘이라는 한국 사례는, 특히 한국의 역사적 선례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약 50년 전에 대략 20만 명의 한국 여성이 일본군의 성 노예 혹은 '위안부'로 일했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관련된 권력과 당국자—이 연구에서는 합법적 주권자인 남한 정부와 남한 정부의 주요 군사 동맹국이며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의 '구원자'인 미국—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군사 이해라는 이름의 권력 확대를 발견하는 데 또다시 50년을 기다리는 동안 여성들의 몸과 존엄성은 크게 희생당하고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그들의 개인사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그들이 한 역할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구성하거나 듣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나의 희망은 한국 내 많은 미군 기지촌에 살아 있는 한국인 위안부—미군들에게 성적으로 서비스해 왔고,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의 목소리들이 드러나고, 또 다른 50년이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묻혀 버리기 전에 그들의 개인사와 한·미 관계의 역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밝히는 것이다.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 기지촌여성운동사, 1986~98

정희진*

1. 들어가며

1958년 한 일간 신문은 당시 우리나라의 매춘여성이 30여만 명이라고 보도하였다. 그 중 내국인을 상대하는 매춘여성이 40.9%, 유엔군을 고객으로 하는 소위 '양공주'가 59.1%를 차지하고 있다(《경향신문》 1958. 8. 11). 현재 시점에서 보면, 외국군 상대 매춘여성의 비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주둔한 지 50년이 넘는 지금 기지촌은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기지촌여성과 기지촌여성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방 이후 가족법 개정 투쟁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전체' 민족민주운동과 차별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성별적(gender)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체들이 1980년대 초, 중반에 창립되었다(1983년 여성

* 이 책의 기획, 편집자로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여성외전화에서 5년간 일하였다. 현재는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기지촌여성공동체 새움터 운영위원, 여성파인런연구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사, 폭력, 여성상담론, 여성학 방법론에 관심이 많다.

외전화/여성평우회, 1984년 또 하나의 문화 창립) 한국 사회에서, 전체 사회운동의 구도 속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은 이제까지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분열·혹은 기껏해야 전체 운동의 부분이며, 부차적인 사회 문제, 여성운동은 중산층 부르주아 운동'이라는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게다가 민주화운동(사회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과, 전체 운동도 하고 여성 운동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은 여성운동가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춘여성운동은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주변적이다. 그간 한국의 여성운동은 매춘 문제에 대한 관심, 여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춘여성운동은 '주변부의 주변부'로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이 책 제4장 민경자의 매춘여성운동사 참조). 어느 여성운동가의 고백대로,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면서 직장 여성, 이혼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일 수는 있어도 매춘여성일 수는 없었다."¹⁾

이 글에서 기지촌여성이란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 중 매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말하며(뒤에 상술), 기지촌여성운동이란 현장출신 여성운동가들을 포함하여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기지촌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매매춘 산업 중에서도 가장 천시되어 맨 나중에 하게 되는 매춘이라는 뜻인 '막창 인생'의 기지촌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반(국내) 매춘여성들조차 우월감(?)을 갖는다. 외국 군대에 몸을 파는 '양갈보'로서, 우리 사회의 성원권(成員權)을 가질 수 없었던 기지촌여성의 삶은 그래서 더욱 오랜 기간 정치화, 사회운동화되지 못했다. 사실 기지촌에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매춘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해결의 어려움, 외국군의 주둔, 분단, 군축, 인종, 지역, 계급 문제, 사회운동권의 무관심이라

1)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내의 연구 동아리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소식지 창간호(1996. 여름).

는 겹겹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기지촌은 군사주의와 매매춘, 외국 군대의 주둔과 분단의 핵심 코드이다. 분단 상황은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부장적 성별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1998년 추경(追更)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3%(96년에는 22%)였다. 국가 예산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성관련(부녀)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92년)~0.02%(93~95년)에 불과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군사주의, 전쟁과 중오, 분단은 여성 억압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다. 군사주의는 폭력적인 남성성을 미화하며 성적인 이미지(sexual image)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지촌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모순과 억압을 응축한 공간이다. 기지촌여성운동은 인권과 평화라는 새로운 세기의 화두를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여성인권에 대한 성찰 없이 인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일깨워준다.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이 대부분 남성들의 주도, 지도로 이루어진 반면, 기지촌(지역) 운동의 경우는 애초부터 여성들의 주도로 시작되어 기지촌여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났다. 기지촌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두레방이 개원한 1986년으로 본다면, 전두환 정권시절인 86년 당시 우리 사회에서 반미나 미군기지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 남성중심적인 반미운동은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지촌운동은 여성운동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지촌운동은 곧 기지촌여성운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기지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매매춘 지역이라는 성차별적(gender)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기지촌 지역운동을 하는 남성운동가들은 대체로 자신을 기지촌 활동가라기보다는 반미운동가, 지역운동가라고 정체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매매춘(국내 매춘) 현장 중에서 가장 열악한 기지촌에서 매춘여성운

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소위 민족민주운동과 맺는 관계를 설명해준다(뒤에 윤금이 사건에서 상술). 남녀를 불문하고 기지촌여성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기지촌 문제를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반미 문제로서 인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지촌여성운동이 조직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1986년부터, 현재(1999년 4월)까지의 운동사이다. 미간행 원고를 제외하면,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에 관한 글은 주로 윤금이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남성 시민운동가 이교정(1995), 재미(在美) 페미니스트 김현숙(1998)과 문형선(캐더린 문, 1998)의 연구가 있다. 기지촌여성을 소재로 한 소설로는 안일순의 『땃별』(1995)이 있다. 안일순은 1992년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여성주의 작가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시, 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고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안일순은 기지촌여성운동가 김연자와 함께 군사주의와 여성, 군대와 매매춘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교정은 한국과 같이 사회적 억압이 심한 사회에서는 시민운동조차 민족민주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예로 윤금이 사건을 동두천시 시민운동과 같이 언급했다. 김현숙은 기지촌여성운동에서 기지촌여성, 중산층 페미니스트, 남성 민족주의자의 정치학이 같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기지촌여성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지촌여성운동가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으로서, 현장(매춘여성) 출신 운동가들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1986년부터 기지촌에서 활동해온 여성운동가들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로서 현장에 투신한 경우이다. 이 글은 이들 여성운동가의 관점에서, 이들의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때문에 기지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매춘여성 출신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거의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이 글은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가능했다. 그들은 인터뷰, 논평, 필자와 회의, 토론, 엠티, 아이디어와 자료제공, 수 차례에 걸친 워크숍 등으로 이 글이 완성되는 데 전적으로 기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공동창작이며 필자는 대표 집필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현장 운동가들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유영남(두레방 원장), 윤영애(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전 한소리회 회장, 서울여대 생활관장), 김현선(전 두레방 사무국장, 새움터 대표), 정유진(전 두레방 간사,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진아(전 참사랑 쉼터 간사, 새움터 전문상담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부장), 정선영(전 두레방 간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서민옥(전 새움터 간사), 엄상미(전 두레방, 새움터 간사, 한소리회 간사), 이지영(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시온성교회 담임 전도사), 남종자(전 한국여성의전화 홍보부 차장), 최희섭(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의 부장, 경희대 연구원), 새움터 상근자 여러분(김주영, 김미숙, 강옥경, 정강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소모임 피스 메이킹(Peace making), 이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여성과인권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진, 유인물, 해외인쇄물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공해주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의 정유진 사무국장과 수 차례에 걸친 인터뷰에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응해주 새움터 김현선 대표, 훌륭한 아이디어와 의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준 박진아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2. 기지촌,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어느 곳에 몇 개인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힘들다. 19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

위원회'가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와, '우리 땅 미군 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조차 미군기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부나 주한미군 관계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8년 현재 이남의 미군 기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와 충남 당진의 망일산, 경기도 화악산, 제주도 송악산 등 총 96여 곳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은 지속적인 감군(減軍)으로 지금은 36,450명의 미군이 근무하고 있고 미군 기지와 기지 시설 면적은 총 8,034만 평에 이른다(정유진·김동심, 1997). 이는 1997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가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것이다. 1990년 동아일보 특별취재반의 자료로는, 남한의 미군기지 면적은 약 1억만 평으로서 이는 임야, 전답을 제외한 대지 면적으로만 보면 전체 남한 땅의 17.7%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한국인의 주거 면적(1억 2,800만 평)에 버금가는 땅을 한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 아래 미군이 무상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부산민족민주연합 외, 1991). 1960년대부터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 미국 내 반전운동, 소련 핵 전력의 증강,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등의 영향으로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돌았다. 1969년 7월 25일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팜 독트린'(닉슨 독트린)을 발표, 박정희 정권을 불안에 몰아넣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말로 압축되는 팜 독트린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에 약 6만 2천 명이던 주한미군은 71년 3월, 2만여 명이 철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군과 보강(1980년대 레이건 정권 때)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강성철, 1988).

어느 시대, 사회에나 매매춘과 매매춘 집결지는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매매춘이 구조화, 정책적으로 번창하게 된 것은 일제 시대의 식민지 정책과 한국 전쟁, 미군의 주둔 때문이다. 외국 군대의 주둔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매매춘 지역을 만들고 관리하게 되는

게기가 된다. 근대 한국 매매촌의 역사적 뿌리와 대중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공창(公娼) 정책이다. 일본은 조선을 침입하면서 자국의 매춘여성을 데려와 조선사회에 유곽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시켰다. 이에 국가는 1910년 '유곽법 창기 취제 규정'이라는 매매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공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16년 일제는 경무총감부령으로 '유곽법 창기 단속 규정'을 실시하였다(장영수, 1988). 일본의 대(對)조선 공창제도의 핵심은, 매춘업 국가허가(公許)제와 매춘여성에 대한 성병검사제도 실시이다. 일제는 자국 내와 조선 내 일본인 거주지에는 따로 유곽을 설치했지만, 조선에는 주먹가에 산재한 매춘업소를 공인함으로써 결국 조선사회 전반에 매매촌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아마시다 영애, 1992).

공창제도 확립과정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가 일관되게 중요시된 것은 성병 예방이나 매춘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성적 도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현재 기지촌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성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병 검사를 하지 않고 파는 사람에게만 점진을 의무화, 강제하는 것은 실제 성병을 전혀 예방할 수 없다. 이같은 성병 정책의 이중성은 미군의 AIDS 예방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기지촌여성들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매춘(買春)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성병 검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가 기지촌여성의 에이즈 검사를 확인하듯이, 기지촌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점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방 후 미군이 새로운 점령군으로 주둔하면서 기지촌에는 미군과 기지촌여성,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어우러져 상권을 형성하였다. 외국인 전용 술집,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을 거래하는 블랙마켓(black market), 암달러상, 포주, 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양품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결혼 중개업 사무소, 번역소 등을 무대로 기지촌 문화가 정착하였다(김현선 외, 1997).

부산의 서면 일대의 소위 '히야리아 부대'(Camp Hialeah)와 해운대의 탄약부대, 범일동의 미 55보급창, 초량동 지역과 군산의 아메리카 타운,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현재는 시), 부평 등은 대표적인 후방의 기지촌 도시였다. 포천, 동두천, 의정부의 땃벌, 파주의 용주골, 문산의 선유리, 서울 용산의 미 8군 기지, 이태원, 후암동 등도 기지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땃벌은 기지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땃벌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스탠리 부대(Camp Stanley) 주변의 기지촌 매매촌 집결지를 말한다. 땃벌은 의정부 시내버스를 타면 정거장 이름으로도 표지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도 공식화된 지명이다. 현재 지방의 옛 기지촌들은 단속이 심한 서울을 피해 내려간 국내 매매촌 업주들이 정착하면서 국내 매매촌 집결지로 유명해졌다. 매매촌 업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포주들은 매춘여성을 감시·통제하기 쉽고 행정당국은 단속하기 쉽기 때문이다. 매매촌 집결지는 다른 사회와 구분되어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기지촌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의 통제는 1950, 60년대보다 70, 80년대가 더 심했다고 한다. 50, 60년대 한국 정부는 기지 내 매매촌 문제를 일차적으로 미국의 문제로 보았다. 70년대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전후의 극심한 가난은 한국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춘여성을 비난했지만 일정 정도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60년대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미국은 주한미군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Moon, 1998).

그러나 베트남과 아시아의 전쟁상황으로부터 미국의 이탈을 의미하는 닉슨 독트린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감소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주한미군의 감군은 곧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위기를 의미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기지촌의 환경개선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

게 되었다. 미군간의 흑백 갈등, 미군과 한국인 간의 인종적 갈등, 미군 병사들에게 만연한 성병, 기지촌 시설의 비위생적인 상태, 밀수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 '군기지 평화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71년 여름 미군들끼리 인종차별로 인해 싸움이 났을 때, 미군 당국이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기지촌 여자들이 매우 더럽다. 우리는 한국을 구하러온 VIP들인데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지촌여성들을 관리하게 된다.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소를 만들고 매주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였다. 기지촌여성에게는 보건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기지촌 매매촌을 직접 관리, 단속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지촌여성을 대상으로 '민들레회'와 같은 판제 자치기구를 조직한다(김현선, 1998).

정부가 매매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군의 건강을 위해 기지촌여성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매매촌에 대한 이중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기지촌여성들을 '가장 더러운 여자들'로 낙인찍으면서도 동시에 '외화를 버는 애국자들', 심지어 '민간 외교관'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기지촌 매춘 여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지촌 매춘 여성 중 클럽에서 일하는 성년 여성들만 성병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만 공식 통계에 포착된다. 일명 '뜨내기'(국내 매매촌을 겸하는 유동적인 매춘 여성), '전화발이'(여관 등에 대기하다가 전화로 호출받고 매매하는 여성), 미성년 매춘여성, '히야리아'(나이 들어 매매업소에 고용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잡아 매매하거나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미군과 계약 동거하는 여성의 숫자를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다. 해방 후 기지촌 매춘 여성의 총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김현선, 1998). 현재는 보건소에 등록된 여성들의 경우 최소 5,000여 명에서 최대 18,000명으로 추정하며 그 외 약 9,000명의 여성들이 클럽 바깥에서 매매촌을 하고 있다고 본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Margo, 1997; Sturdevant & Stoltzfus, 1995;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sia Pacific의 연도별명 자료)

3. '현장' 출신 기지촌여성운동가들

조직적 차원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6년 3월 17일 의정부시 가동동에 '두레방'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기지촌여성운동은 1970년대부터 송탄과 군산 기지촌에서 활동해온 김연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김연자는 1964년부터 89년까지 25년간을 기지촌 매춘 여성으로 살아온 소위 '현장' 출신의 여성운동가이자,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기지촌여성운동가이다. 그동안 각종 여성인권대회, 학술대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을 증언하였다. 그녀는 그동안 한 번도 가시화되지 않았던 기지촌 매매촌의 실태와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세상에 알렸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기지촌여성관련 증언과 생애사(life history)는 김연자의 증언과 두레방 활동에서 채록된 상담기록에 의한 것이다. 정신대 문제의 최초의 증언자가 고(故)김학순이었다면 '현대판 정신대'라는 기지촌에 있어서는 그녀가 최초의 증언자이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은 '증언자'적 존재를 넘어선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이 다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기지촌여성을 '인간 이하'로 보는 것, 동정하는 것, 반미의 상징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큰 희생자로 보는 것에 모두 반대한다. 오히려 그녀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가부장제와 계급 문제를 비판한다. 사회운동권과 여성운동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고자 하고 기지촌여성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기지촌에서 25년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여성운동가)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와보지 않고 어떻게 여성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어요 여성운동.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주변은 여성운동가고 조연, 엑스트라는 현장여성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임상실험용 개구리나 자료거리가 아니에요. 기지촌여성들을 연구 자료에 쓰려고만 하지 정작 중요한 개선책에는 얼마나 노력해주었나요?²⁾

그녀는 우연히 기지촌여성들에게도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지촌여성 자치회가 실제 기지촌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합법적인 착취기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치회를 개조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다. 자치회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직선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포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자금 지원하에 운영되어 지역 유지와 포주들이 기지촌여성들을 용이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조직구성원의 성격,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기지촌여성들의 진정한 자치기구가 될 수도 있었다. 70년대 동두천 지역의 자치회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조직화하기도 했고 기지촌여성자치회 전국회의가 열리기도 했다.³⁾

1971년 송탄에서 미군들이 화대와 기지촌 물가가 비싸다며 신발과 쇼트 타임(short time) 화대를 5볼로, 롱 타임(long time) 화대를 10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미군들의 화대 매먹기와 화대 인하요구에 대항하였다. 천 명이 넘는 동료 매춘여성들을 조직하여 '우리는 신발이 아니라 인간이다(We are not shoes! We are human beings!)'를 외치며 미군부대 앞에서 데모를 벌였다. 살벌했던 유신시절, 기지촌여성들의 작은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조차 '북한과의 연계'로 몰려 그녀는 경찰서에 끌려갔다. 이때 당한 협박, 구타, 고문의 경험은 그녀에게 더욱 큰 좌절과 울분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포주와 미군들의 잔인한 폭력, 살인사건

2) 안일순, 「기지촌 생활 25년 김연자 씨의 본적 증언: 내가 겪은 양공주, 미군 범죄의 세계」, <달> 1993. 12.

3) 이 내용은 기지촌여성운동가인 엄상미의 증언이다.

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1976년부터 그녀는 군산의 아메리카 타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군산은 송탄이나 동두천의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여성에 대한 통제가 심했던 곳이었다. 민간인과 기지촌여성이 한 동네에 살았던 다른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여성들을 방 번호가 붙은 소위 '닭장 집'에 집단 수용해 놓고 집 근처에는 높은 담을 치고 경비가 지켰다. 일명 '실버 타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정부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50%를 지원하고 포주가 50%를 투자한 실제 주식회사 형태의 '여자 파는 회사'였다. 그녀는 그때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그녀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운금'들이었다.

1977년 6월 12일 동료 이복순(당시 25세)은 목에 안테나 줄이 감긴 상태에서 불에 타 숨졌으며, 한달 뒤 열방에 살던 이영순(당시 28세)이 칼에 찔려 숨졌다. 당시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연자는 이복순이 죽었을 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인을 못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영순의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때까지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범인은 미 공군 스티븐 워렌 타워맨(Steven Warren Towerman, 당시 20세) 일병으로 이복순과 이영순을 연이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은 이영순 살해만 인정하고 이복순 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였다. 그는 주한미군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타운 안의 여자들이 불에 타죽고,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불에 타죽는 등 열 명 이상이 연달아 죽음을 맞이하였다.

동료들의 줄이은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던드날과 맥주병으로 자해를 일삼던 홍순택(가명, 당시 24세)과 함께 있는 돈을 모두 털어 타운 근처 공터에 천막을 치고 일종의 쉼터를 만들었다. 그녀는 천막 안에 '백합선교회'를 만들어 매일 밤 기지촌여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었다. 마을주민들이 여자들의 통곡소리가 시끄럽다

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천막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끝까지 버텼다. 이후 그녀는 전복신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 1989년, 송탄에 '참사랑 선교원'이라는 기지촌여성 쉼터를 마련한다. 혼혈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어머니 영어교실과 한글교실, 선교 활동 등을 준비하다가, 92년 8월 학생운동가와 두레방 자원 활동가 출신들과 결합하여 '참사랑 쉼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원하게 된다. 김연자는 앞으로도 기지촌여성과 혼혈아동을 위해 여생을 보내고자 하며 지금도 강연과 증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의정부 뱃별 지역의 S클럽에서 일하던 서정아(가명, 당시 20대 후반)의 활동은 기지촌여성들의 주체성과 능동성, 기지촌여성에 의한 기지촌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S클럽은 의정부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주로 학력이 낮고 청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다른 클럽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주면서 이중 장부를 만들어 착취하였다. 서정아는 포주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동료들을 설득하여 이중 장부에 대해 포주에게 항의하였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빚갚기 계를 조직하였다(기지촌여성들이 탈매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빚과 건강 문제이다). 자신은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돈을 모아 10명이 넘는 여성들의 빚을 갚아주었다. 이후 여성들이 전업(轉業)하거나 결혼할 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도와주었다(김현선 외, 1997).

일부에서는 김연자나 서정아의 활동을 기지촌여성들의 '자생적' 투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자생적인 투쟁을 '목적의식적인' 투쟁과 대립·분리시키거나 혹은 목적의식적 투쟁의 전(前) 단계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1980년대 한국 사회운동 일부에서는 사회운동을 자생적 투쟁과 목적의식적 투쟁으로 분리하여 목적의식적 투쟁의 우월성,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여성주의는 이러한 사회변혁 모델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의 참여를 봉쇄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관점이라고 비판해왔다.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운동이론은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주변인의 일상적 투쟁을 운동의 주요 영역에서 배제시켜왔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 중에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면서 자신의 매춘환경에 대해 일상적인 저항을 해가고 있는 제2, 제3의 김연자, 서정아가 많이 있다. 이들의 투쟁을 기존의 '주류' 여성운동권이 어떻게 평가, 연대, 지원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4. 두레방의 시작

1986년 3월 17일, 두레방은 문혜림과 유복남에 의해 개원했다. 두레방은 '종앗이, 두레'할 때의 두레로 여성들이 서로 돕는 곳, 쉼터라는 의미이다(영어 명칭은 My Sister's Place). 문혜림은 원래 미국인으로 미국에 유학 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게 된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민중신학자 문동환 박사)이 민주화운동판련으로 구속되자, 아르바이트로 미 8군에서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상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레방을 열게 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여성으로서, 여성운동가로서 기지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외국교회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문혜림은 91년 12월 미국에 돌아가서도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여성들을 위해 일하였고 송중순 사건(이 글 제8절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 송중순 사건' 참조) 때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종교인(기독교인)으로서의 품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 기지촌여성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문혜림은 같이 일할 상근자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사람을 알아보았다. 주위에서 모범생 스타일의 여성들을 추천했으나 문혜림은 이를 모두 물리치고 현장 여성들과 친화력이 뛰어난 유복남을 선택하였다. 유복남은 한신대 출신으로 70년대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활동가이자 뛰어난 여성운동가였다. 두 사람의 상근자를 갖춘 두레방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

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산하의 특수선교센터로 출발하게 된다.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교회여성들의 투쟁과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교회 여성들은 70년대부터 정신대, 매매춘, 여성노동운동, 빈민운동, 반전·반핵 운동, 통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정신대, 매매춘 문제는 교회여성들의 선구적 노력에 의해 확산된 경우다.⁴⁾ 두레방 역시 교회여성운동의 힘으로 시작된 단체이다. 두레방은 기지촌 매춘여성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스스로를 해방하며, 하나님 주신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하였다(회지 창간호에서 인용). 초기 후원자들은 거의가 교회여성들이었다. 개별 교회, 지방 여신도회 회원들과 이우정, 이희호, 김경희, 박순금, 박용길 등 당시 교회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였다.

여러 교단 중 특히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민중신학의 근거지로서 진보적 교단으로 유명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매춘여성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한 교회는 없었다. 기지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매춘여성을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의식과 열등감을 설교하였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매춘여성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므로 가장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며 가난한 매춘여성들에게 십일조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두레방을 의정부 지역에 세운 것은 의정부와 동두천이 대표적인 기지촌으로 기지촌여성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레방은 처음부터 선교적 사명과 동시에 매춘여성운동, 제3세계 인권운동,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4) 교회여성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1992)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 회망: 한국 여인 10년사』(1998), 중 권미경·김신아·심미영의 『교회여성운동』과 한명숙의 『통일·평화운동』을 참조.

가 막연하거나 식사를 제때 못하는 기지촌여성들과 함께 식사 준비와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혼혈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놀이방 운영과 대학생들의 기지촌 활동, 전업 프로그램으로서 두레방 팻 사업, 기지촌여성의 삶을 알리는 각종 강연과 회지 발간 등이 있었다.

5. 기지촌여성의 이야기

두레방은 상담을 통해 기지촌여성의 삶을 구술하거나 수기를 회지에 실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어느 날 포주가 잠만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빗 때문에 포주에게 꿈꾸듯하고 있던 나는 포주를 따라 포항으로 내려갔다. 한 겨울이었는데 언덕배기에 천막을 친 가건물에 들어가 하루 20~30명을 상대했다. 옛날 큰 혼란(덱스피리트)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미군들의 혼란장소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했다. 나는 그 와중에 임신을 하고 자연유산해서 심하게 하혈을 했지만 매춘을 계속했다. 그때 몸을 많이 망쳤다(김현선 외, 1997: 61-62).

내 어렸을 때의 첫번째 기억은 절레를 짜서 먹던 일이에요. 나를 낳자마자 우리 친부모는 나를 고아원에 보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보모들이 물을 안주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밤에 오줌을 싸다나오 내가 여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한 일은 갓난 젖먹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었어요. 보모들이 우유통을 주고 나가면 아기들이 물고 있던 우유꼭지를 열면 해서 내 입에 넣었지요. 나는 항상 배가 고파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전라도의 어느 교감 선생님 집으로 입양되었는데 오빠들만 넷인 집이었어요. 내가 그 집에 가자마자 일하던 가정부와 머슴을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을 내게 시켰어요. 학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되었어요. 고아원 때 다닌 국민학교 3학년 1학기가 지금까지 내 학력의 전부예요. 남의 집 일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야 우리 집 일을 할 때 이웃집 일손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뽕나무 껍질로 수없이 맛았어요. 나는 스물 일곱 먹은 지금까지 몸을 새우처럼 꾸부리고 차요. 방이 많은 집이었는데 나에게는 방이 없었어요. 지금도 반듯하게 누우면 불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나는 (양아버지에게 강간당했어요. 엄마가 눈치를 쬔 것 같

기지촌여성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여성의 문제 ... 우리나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성들도 손잡고 노력해야 ... 한국과 미국의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3세계 인권 문제, 특히 매춘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제3세계의 운동가들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공동 대처하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도 현장출신의 실무자 양성을 위해 애씁니다.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 의식화된 여성 실무자야말로 이 일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두레방 회지 1호 중에서).

두레방의 주요 사업은 상담, 영어교실, 공동식사, 탁아, 탈매춘을 위한 전업(轉業) 사업, 기지촌 활동이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을 만한 대화 상대자가 없었다. 이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처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기지촌 여성들이 무시와 천대, 감시, 주눅, 자기 학대, 자포자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여유와 공간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레방 활동 초기에는 두레방을 찾아오는 기지촌여성들을 포주들이 가두어 놓고 때리거나 협박했기 때문에 기지촌여성들은 길거리에서 두레방 활동가를 만나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기도 하였다.

두레방의 프로그램 중 특히 상담은 기지촌여성들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을 통해 인간적인 관계와 교류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했다. 자신의 한 담고 기구한 인생이 순전히 자신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은 자기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단 자기도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두레방의 회원들은 일반 여성운동단체처럼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이 아니라 두레방과 연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는 여성들이다.

영어교실은 영어를 몰라 미군들에게 화대물 때이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남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미군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시도했으나 호응이 없었다. 공동식은 생계

온데 저만 죽일 년 잡듯이 죽이는 바람에 서울로 와서 잠바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월급이 오빠가 제 월급에서 2,000원만 빼고 다 가져갔어요. 나는 20살이 되어서야 월급을 했어요. 2,000원은 생리대 값이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한푼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나를 기뻐하게 보아 자기 운전수랑 결혼시켜 줬서 그때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핵하면 저를 두들겨 때고 뜨거운 국물을 얼굴에 붓고 ... 저는 잘 곳이 없어 옮기만 했어요. 남편은 왜 돈을 벌어요지 모르며 성화여서 임신한 몸으로 약을 먹으며 공장일을 했어요. 전업에 철야를 하니 너무 잠이 와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정박아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편의 태는 더욱 심해지고 병신 아이를 낳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두 달 동안 집에서 부업한 돈 10만 원을 아기 옆에 두고 무작정 울며 집을 나섰어요. 여성 월간지에서 본 광고에 잠도 재워주고 월급도 후하게 다기에 연락하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저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더군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문산, 기지촌이었어요(두레방 회지 3호, '빌리 엄마 힘내시다' 중 발췌).

원래 그녀는 방송대까지 다녔고 영어도 브로큰이 아니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클럽에서 미군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가솔을 반복했던 사고 동치 친오빠가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그녀를 강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다가 기지촌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지촌에 와서는 클럽보다도 두레방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냈고 직접적인 매춘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군 병사를 만나 사랑에 빠져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군은 부대를 그냥 나와서 불법 채류자 비슷하게 되었고, 돈도 벌지 않고 늘 그녀 없이는 못산다고 매일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서울로 나와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아무것도 생략력이 강했던 그녀는 이러다가는 평생 그 미군을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궁암에 걸렸다고 거짓말로 아들을 설득해 귀국하도록 했어요. 그녀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살아 없고 엄마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아파트 분양금, 빚이 많아서 집안행편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더니 돈을 벌어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차피 너는 그런 몸 아니냐'며 다방을 나가든지, 술집에 가라곤 했어요. 그녀는 그날로 집을 나와 다시 기지촌으로 돌아와 매춘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미군 유부남을 만나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연애를 했는데 물론 그 미군은 이혼하겠다고 늘 그녀를 안심시켰지요. 그녀는 미군들 사이에서 누구의 여자로 찍히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기지촌 활동가와 인터뷰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피임이다. 한 번은 8개월째에 낙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아팠다. 나는 낙태를 열여섯 번 정도 했다. 하지만 낙태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임신중에는 물론이고 낙태한 다음 날에도 다시 매춘을 하는 일이다(김현선 정리, 「나의 살아온 이야기」,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정유진·유평희 공편, 미간행, 1995).

기지촌여성들의 낙태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877명) 기지촌여성 중 인공 임신중절 경험이 없는 경우는 23.5%, 1회가 40.9%, 2회가 29.1%, 3~4회가 20.5%, 5~10회가 7.6%, 10회 이상이 1.9%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어떤 여성은 무려 25회의 낙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취기'(기지촌에서는 혼혈아동을 'half-person'이라 부른다)를 이 세상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Margo, 1997).

혼혈아의 엄마인 김신자 씨(가명, 38세)는 동두천의 D클럽에서 18만 원의 월급을 받아 10만 원은 택이소에 내고 8만 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매춘여성이다. 그녀는 1994년 5월 29일 4시에 미군 지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몇 분간 기절했는데 운전원 하던 미군은 그녀가 깨어나자 손에 약 30불(2만 원)을 쥐어주고 그냥 가버렸다. 그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그녀는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가해 미군 찾는 것을 포기했다. 두레방은 사고 낸 미군을 찾고자 했으나 그녀는 거부하였다. 그동안 기지촌에서는 클럽의 매춘여성들이 미군 범죄를 신고하면, 미군들이 신고한 여성들을 칼로 찌르거나 구타, 강간하고 클럽의 장사가 안 되도록 보복해왔다. 여성들이 당해도 포주들은 여성들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망친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다른 기지촌에 팔아 버렸다. 김신자 씨는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두레방 회지〉 13호, 「교통사고도 신고할 수 없다니...」 중 발췌).

20대 초반에 가출한 후 클럽에서 일했다. 같은 클럽의 여성들과 미군 손님들 서로 뺏고 뺏기는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 하다가, 술에 취한 포주에게 구타당한 다음날 도망쳤다. 빚 때문에 다른 섬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상담자(기지촌 활동가)와 함께 여관을 전전했다. 이후 제과점 등에서 일했으나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지금은 한국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 힘든 노동을 무척 두려워 한다. 상담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힘든 일 하지 않고도 놀면서 사는데 나는 왜 그럴 수 없느냐'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매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춘을 통해 관제하는 미군들과 연인관계로 믿고 싶어 했다. 미군들은 이런 심리를 알고 화대를 자복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그녀를 이용했다. 끊임없이 상담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린다. '대학을 졸업했다, 부모가 부자였다' 등의 거짓말로 자신을 다른 기지촌여성들과 구별하고자 한다(1997년도 새움터 사업평가자료(미간행) 중에서).

그들의 인생 역정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억압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순의 총집약이었다. 그들의 삶은 기지촌여성운동이 여성운동이자 매매춘근절운동, 성폭력 반대운동, 지역운동, 빈민운동, 타아운동, 노동운동, 군축, 반미, 통일운동, 혼혈인의 인권운동이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여성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고정된 여성의 역할(gender)과 이중적인 성(sexuality)윤리가 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착취와 고통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6. '기활': 기지촌여성운동과 학생운동

기지촌여성운동의 기활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적·조직적 도움을 주었던 세력이 교회여성운동이라면, 사안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여)학생운동과의 연대가 큰 역할을 했다. 두레방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기지촌 활동(이하 기활)과 탈매춘을 위한 전업(轉業) 사업이다. 기활은 농활(농촌 활동), 빈활(빈민 활동), 공활(공장 활동)처럼 대학생들이 직접 기지촌을 방문, 기지촌여성단체(두레방, 새움터)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운동의 연대 사업을 말한다. 기활은 1990년 여름 이하

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여, 92년부터는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서여대협)에서 '반미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참가하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으로 확산되어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 동안 남녀학생 연인원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⁵⁾

기활은 기지촌 문제를 대학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기지촌여성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가시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두레방에는 대학생 상대의 원고 요청이나 강연 요청이 물밀듯 들어왔다. 기활을 통해 기지촌여성운동은 두레방 팻 판매장과 자원 활동가, 후원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기지촌여성운동가들도 대부분 기활을 통해 기지촌여성운동을 결심하게 된 경우이다.

문혜림, 유복남에 이어 90년부터 기지촌여성운동을 해오고 있는 김현선(새움터 대표, 전 두레방 사무국장)은 87학번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전형적인 세대에 속하면서도 기존 학생운동권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4학년 때 저는 학생운동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5학년, 6학년 운동(클럽) 후에도 학생운동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거나 서충현, 전대협 등 상층 학생회에서 일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4학년 시작하자마자 활동을 그만두니 굉장히 욕먹었죠 저는 선배들이 졸업 후에 말과 행동을 달리하면서 사는 데 많이 실망했어요 (노동)현장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금방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아무래도 여대 다니다 보니, 여성운동이 어떨까 싶었어요 4학년 봄에 우연히 <한겨레신문>에서 김미경 기자가 쓴 두레방에 관한 기사를 보았고, 억압받는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데 너무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두레방에 찾아가서 자원활동을 했고 그 해 여름에 학생회 라인을 이용해서 복남 언니랑 의논해 5주 동안 기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대인데도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성운동은)시시하다. 왜 노동운동을

5) 두레방과 새움터의 기활을 합친 수치이다.

해야지 그런 걸 하나는 거죠 학생운동하면서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애들, 운동권은 아니지만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려는 애들이 주로 참가했고 호응이 대단했어요

기활에 참가하게 된 학생들의 동기와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대학의 소재 지역, 각 대학 기활의 역사, 여성의식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기활에 참가하기 전에 학생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은 전반적으로 반미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다. '술가락이 부러져도 미국 때문'이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자료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학생 운동가인 반면에 실제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소위 일반 학우들인 경우가 많다.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반미를 고민하는 학생운동가들 자체도 극소수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시에 학생들은 반미의 차원에서 기활에 참여한다. 때문에 학생들은 같은 매매춘운동단체인 '한소리회'에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하지만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은 주류 학생운동권이 아닌 상대적으로 착하고 순한 '여성적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이다. 이들은 반미 문제 외에는 기지촌 매매춘 현장에 접근할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활에 참가하는 이유를 제대로 정식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자대학교 기활 경험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기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것, 여성 문제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90년대 초반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농활에 비해 기간은 짧지만 기활은 참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제까지 창피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성(sexuality)이 기지촌에서는

적나라한 일상이 되고 공론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남녀 학생 모두 기지촌여성들 앞에서 위선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성폭력(피해, 가해) 경험 등 이제까지 성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기지촌여성들에 도움을 주려고 혹은 교육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배우고 여성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일종의 여성 의식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기활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중운동이 되었다. 기활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활은 대학생활 중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반미운동, 민족주의운동에서 기지촌이라는 현장은 별로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다. 미군 범죄에 대한 관심조차 '거시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80~90년대 대학가에서 그토록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반미운동, 통일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의 성과가 기지촌여성운동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사실 1980년대 학생운동세력은 두레방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래서 기지촌여성운동의 현장은 반미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에도, 소위 '여성운동이 났다'는 90년대에도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관점은 여대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90년대 초 중반 들어 여학생운동을 학생운동이라기보다는 대학 내 '여성'운동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이지는 못하다.

여학생운동은 부분 계열 운동 ... 45년 이후 미제가 남한을 강점하면서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할 통치를 고안했고 이 중 하나가 여성을 구실로 하여 순종적이게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 여학생들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양키 피폐문화의 부산물인 인신매매, 성폭행의 위협에 노출되어...⁶⁾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가 미국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좌지우지 당하는 식민지임을 잊게 되지만 기지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지촌 사람

6) 필자미상,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충청지역총여일꾼수련회자료집(미간행), 1998.

민족 모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통일이 되면 이 여성들(기지촌매춘여성)이 혜택을 보겠느냐, 매춘이 없어지겠느냐입니다. 반미에만 초점을 맞춘(남자)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도움받은 것도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지촌여성운동이 '매춘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촌매춘과 국내 매춘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미군기지반환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지가 없어진 대신 더 큰 향락산업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군이 철수한다고 이 여성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70년대 미군 철수 반대 데모를 기지촌여성들이 벌인 것도 당장에 이 여성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생존의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기지촌여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매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기지촌여성운동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김연자) 반미 주장에 기지촌여성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대할 때 흥분한다. '미군은 나쁘고 양공주는 불쌍하다' 그러한 단세포적 시각으로 미군 범죄를 보면 논리의 비약을 가져온다. ... 공녀로, 대이신파이로, 닥지로, 아이코로, 티나로 여자들을 이민족에게 바치는 동안 조선의 사대부들은 안방에서 처침을 거느리고 아내를 때리지 않았는가? 자신들은 군대가기 전에 딱지 떼고 사창가로 물러가면서 첫날밤 신부의 처녀막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영계나, 최춘에 몸보신에 극성인 남자들, 딸이고 처제고 어린이고 가리지 않고 집달하는 그들의 정력 ... 조금 잘살게 되었다고 태국으로 팔로로 국제매춘의 대열에 선 남자들 ... 기지촌을 배태시킨 구조적인 문제에 앞서, 케네스 마를(윤금이 살해범)에게 물을 던지기에 앞서 나는 이 나라 남자들이 먼저 눈 뜨기 바란다.⁷⁾

7. 땅과 허브: 탈매춘전업사업

두레방은 1989년 10월부터 기지촌여성들의 탈매춘을 위한 전업사업으로 땅 사업을 시작한다. 매춘여성운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매춘여성이 매춘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매춘업(賣春業) 자체를 적악시하고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면서

7) 안일순, 「기지촌 생활 25년 김연자 씨의 본격 증언: 내가 겪은 양공주, 미군 범죄의 세계」, <말> 1993, 12.

에 대한 애정어린 눈길에서 출발해 민족사랑의 마음을 배워 오고 주한미군들의 악랄한 만행을 통해 미국놈들의 본질과 반미가 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인지를 배워옵시다(전남대·조선대기지촌탈방단준비위원회, 1996: 3).

이들처럼 아직도 일부 학생운동세력은 (여성학이 대학 내에서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90년대 후반에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인신매매, 성폭력이 '미 제국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92년 윤금이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첨예하게 드러났다.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저명한 한국학자 브루스 커밍즈(Bruce Cumings)는 1967년 평화봉사단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 남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한국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권유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그런 상황을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던 경험을 기술하였다(Cumings, 1995). 호텔에 투숙할 때, 영어강사 할 때, 미군 부대를 방문할 때, 연구를 위해 현지조사 갈 때 등등 가는 곳마다 "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자를 불러다 주겠다"는 한국인, 미군들의 강권을 받았다. 그는 유교적 형식주의(Confucian formalism)가 강한 한국에서 왜 그토록 향락·외설 문화가 번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종속관계를 남녀의 성적 종속관계에 비유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며 '언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한국 여성(available women)'을 놓고 미국과 일본의 남자들이 더 많은 화대를 지불하겠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았다. 강대국은 남성이고 약소국은 여성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평등해진다면 매매춘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동양, 제3세계, 약소국을 여성화(feminize)하는 이같은 견해는 진보적 남성들이 기지촌매춘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그러나 기지촌여성운동가, 기지촌여성들의 증언은 위와 같은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여성들을 강제수용하는 기존의 정책은 탈매춘정책이 아니라 매춘여성 처벌정책이었다.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 제목은 우리 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매춘업(賣春業)을 윤락(淪落)으로 표현, 도덕적 기준으로 가치평가하면서 탈매춘을 사회복귀로 보고 있다. 매춘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는 이미 매매춘 지역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춘 지역은 사회가 아닌 것이다. 매매춘 지역을 우리 사회로부터 단절하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여성)들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매매춘 지역에서는 아무리 끔찍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도 '사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그 여성들은 그런 걸 각오하고 사는 게 아니냐', '거기는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탈매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비판한다. 두레방은 땅 프로그램에 당시 40대 후반의 기지촌여성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이후 현장여성 3명을 더 고용했다. 순우리말로 만든 무방부제 땅과 파자를 교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우리 사회 최초의 매춘여성 전업(轉業) 프로그램이었다. 상근 실무자들은 공동식사, 상담, 공부방, 놀이방 등 일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접 땅을 들고 수요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판매망을 개척했다. 주로 교회에 판매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었다.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매춘여성들이 만든 땅이니가 더럽다고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두레방은 노태우 정권의 사찰과 상근자들에 대한 구속위협, 야간수색 등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땅공장이 불법(식종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땅 만드는 현장출신 여성에게 금품을 주어 정보를 캐내는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시켰다. 경찰은 '두레방 실무자들이 통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가'를 묻고, '대학생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가는가'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이 여성은 두레방 상근자들과 신뢰가 생기면서 프락치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이같은 사찰은 김영삼 정부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기지촌에서 매춘을 해온 여성들이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기지촌 밖에서 이 여성들은 사회적 성원권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기지촌여성운동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다른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이 남자들에게 구타당할 때 아무리 기지촌여성단체의 공간이 좁아도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의 쉼터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1998년 여름 경기도 북부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도 이 여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난가지 못하고 15평 공간의 새움터 사무실에서 20명이 함께 지냈다. 매춘여성이 탈매춘하는 데 어려움은 빛과 포주로부터 쫓김(폭력, 협박), 사회적 낙인, 경제적 자립기반 없음, 건강 문제 등이다. 혼혈 아들이 있을 때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혼이나 전직 등으로 탈매춘에 성공했을 경우라도 기지촌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과거의 '손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국내 매춘여성들의 공포라면, 기지촌여성들은 자신이 기지촌에 있었다는 것, 자신의 매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 한다. '기지촌' 자체가 너무나 큰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매춘 이후에도 늘 조마조마하게 지내게 된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남자와 결혼생활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비록 많은 수의 현장 여성들을 고용하지는 못했지만 두레방의 전업사업은 매춘여성정책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의 감시와 탄압까지 받아가면서 민간 여성운동단체가 매춘여성 전업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1995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방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이제까지 국가의 매춘여성정책은 강제수용, 처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두레방의 팜 프로그램은 매춘여성들에게 대안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탈매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어느 기지촌여성운동가의 표현대로 '만일 10년을 매춘했다면 그 경험을 극복하는 데에는 30년이 걸릴 정도'로 매춘 특히 기

지촌매춘은 극단적으로 소외된 노동이다. 그 만큼 탈매춘의 과정은 지날 수밖에 없다.

팜 프로그램은 최초의 전업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매춘여성운동과 국가의 매춘정책에 훌륭한 모델을 제공했다. 그러나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매춘여성에 대한 낙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단체의 전업사업은 상징적 의미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전업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여성운동의 힘만으로 풀어가기는 어려움이 많았다.

두레방은 외정부에 이어 1990년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무실을 내고 두 곳을 운영했으나 95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두천 두레방은 폐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레방의 활동 주체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여성 출신과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갈등을 빚게 된다. 이는 운동 노선상의 갈등을 포함하여 지도력 부재, 개별 활동가들의 경험과 개성, 사업 방식, 정서적 차이 때문이다. 크지 않은 조직에서 개인의 문제는 종종 조직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학생운동 출신의 젊은 실무자들은 더 이상 두레방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5년 12월부터 새로운 기지촌여성운동체 '새움터'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새움터는 두레방 활동가 중의 딸의 이름인 '새움'이를 딴 것인데, '새움(새싹)'이 돋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새움터는 동두천에 사무실을 두고 몇 가지 운영원칙을 정했다. 기존의 일부 여성운동조직처럼 명망가나 소위 '어른'을 이름만 빌려 대표로 하지 않는다. 실제 일하는 활동가를 대표로 두어 일하는 사람과 이름내는(?)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또 운영비를 확실히 내고 현장 여성운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일부 단체처럼 운영위원이 사업의 지원자이기보다는 실무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결과 당시 29세의 김현선을 대표로 하고, 참사랑 쉼터, 두레방, 여성의전화 등 일선에서 일했던 젊은 활동가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새움터는 1996년 가을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약 15평 정도의 가정집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밤 보육과 전업 프로그램인 허브(herb) 사업이다. 다른 취업여성들과 달리 기지촌 여성들은 주로 밤에 일하기 때문에 자녀(주로 혼혈아)가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아이를 클럽에 데리고 가거나, 문을 잠가놓고 가두거나, 아이를 옆에 재워두고 혹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매춘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밤 보육 프로그램은 기지촌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으나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현재는 잠시 운영을 멈춘 상태이다. 상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움터 상근자들은 급여는 월 20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체불이 많아서 새움터 근무를 하면서 서울과 동두천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바이트와 일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밤 보육을 지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력의 한계를 가져왔다.

새움터는 1998년 '시민운동지원기금'(500만 원)과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탈매춘을 위한 전업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금(900만 원)을 받아 98년 9월 26일 동두천에 허브 가공 가게를 열고 현장출신 여성 1명을 고용하였다. 이 가게는 지역에서 '여성센터'라고 하는데 허브 화분, 종이꽃, 향기나는 주머니 등을 직접 만들어 팔고, 전시한다. 이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로부터 '기지촌 지역 실직여성 다시 서기 일 공동체'라는 프로젝트로 기금(61,462,500원)을 지원 받아 현장 여성 10명(상근 5명, 반상근 5명)을 고용하였다. 물론 위의 지원금은 새움터 활동가들의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허브 가게를 지속적으로 꾸려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러나 어쨌든 새움터의 전업 프로그램이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지원 액수 1위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몇 년 전 정부로부터 사찰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기지촌여성운동단체를 '반미 단체'보다는 '불우여성 복지시설'로 인식하고 지원금을 주거나, 여성특별위원회의 달

당사무관이 '수해 피해는 없었느냐'고 안부전화를 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 정부나 학계는 기지촌여성,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전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여성운동의 성과를 배우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매춘여성에 대한 정책 자체가 기존의 처벌 위주에서 전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지촌여성운동에서 해왔던 전업사업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서울에 비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으며, 기지촌여성운동단체는 여전히 지역 유지(주로 포주들)와 긴장 관계에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부가 인정한 단체라는 이미지는 지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새움터는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담은 기록영화 <이방의 여인들>(감독: 박해정·J.T.다카키/1995년 제작, 60분)과 <캠프 아리랑>(감독: 이윤경·다이나나 리/1995년 제작 완성, 25분)을 제작하는 데 같이 참여했고 현재 한국 상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방의 여인들>은 1996년 미국 공영 TV PBS로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고 1996년 제1회 서울인권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캠프 아리랑>은 1995년 마가렛 미드 다큐멘터리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새움터는 흑인 혼혈 여성마비 시인 이영철의 시집 '나는 바보가 좋다'(개마서원, 1997)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새움터는 기지촌여성들의 삶의 기록과 활동 내역을 자료화하고 출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레방으로서는 그간 중심이 되어 일해왔던 젊은 활동가들이 그만두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합을 통해 확보되었던 자원 활동가와 학생운동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각종 활동 프로그램의 노하우가 활동가의 이동과 함께 모두 새움터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레방은 문혜림, 이성혜 원장에 이어 유복남의 언니 유영남이 수고하고 있다.

8.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 송중순 사건

1992년은 송중순 사건과 윤금이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기지촌여성 운동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해이다.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덜(?)하고, 존재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미국으로(미군과 결혼하여) 가는 것은 많은 기지촌여성들의 꿈이자,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그러나 매춘여성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처벌이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은 국제결혼한 기지촌여성들의 삶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기지촌여성이 이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게다가 미군이었던 남편이 마약중독이거나 생활무능력자, 구타자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연결망이 전혀 없는 아내의 약점을 잘 아는 미국인 남편들의 학대와 매춘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강요는 다시 여성들을 매춘으로 몰아넣는다.⁸⁾ 대부분 기지촌여성의 국제결혼은 이혼으로 결말을 맺고 미국에서 이혼당한 한국여성들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송중순 사건은 기지촌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송중순은 어려서 부모가 잇달아 사망하자, 오빠의 생계를 맡아주고 오빠와 동생들을 위해 기지촌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는 영국군과 결혼하여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영국군은 아이만 데리고 돌아갔다. 그후 평택 기지촌에서 만난 미군을 따라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미군과는 미국에 온 지 2년만에 이혼당했다. 이후 다른 미국인과 결혼하여 모세, 에스더라는 이름의 두 남매를 낳았는데, 미국의 사회제도와 영어를 몰라서 아들을 뗀 경험은 했던 그녀는 아이를 집에서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1987년 남편의 구타와 가난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8) <국민일보> 'NYT지 보도: 미국 안마사술소 한인(韓人)여성고용 반대영원', 1995. 5. 30; <한국일보>, '한국여성 뉴욕에서 매춘 생활: 상당수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주한미군부인', 1995. 5. 30.

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북부 캐롤라이나의 잭슨빌(Jacksonville)이라는 마을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두 아이를 맡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여관방에 아이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 소리를 못 들도록 TV를 크게 틀어놓고 출근하곤 했다. 그러기를 두 달여,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한 송중순은 세 살 짜리 아들 모세가 TV가 넘어져 깔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과 보도진이 여관에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질문공세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된 그녀는, "내가 자식을 죽인 에이미입니다. 모두 내 탓이요(my fault!)"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한국의 회생적인 어머니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재판정에서 그 말은 '살인에 대한 자백'으로 처리되었다. 이국 땅에서 통역도 없이 5일 동안 속성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북부 캐롤라이나 탈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1990년부터 교포사회에 알려지면서 탈리 시와 뉴욕 시를 중심으로 후원회와 석방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던 두레방 창립자 문혜림과 여금현 목사, 민경숙, 박혜정, 김혜선, 유춘자 등은 거의 결사적으로 석방운동에 참가하였다. 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의 억울함을 알릴 기회를 얻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차례 찾아가 상황을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92년 두레방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송중순 씨에게 편지 보내기, 성금모금(5천 달러를 모금하여 송금), 주지사에게 편지 보내기, 한국후원회 조직,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언론홍보 등 구명운동을 펴게 된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당시 한창 인기 있었던 TV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였다.⁹⁾ 그녀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도중 자신을 학대한 남편에게 "그 분이 저를 때리셨어요"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송중순(만 31세) 92년 12월 31일 오후 2시 수감된 지 6년만에 석방

9)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최후의 항소-재미교포 송중순 여인 아들 살인 사건"(1992년 9. 13 방영).

되었다. 무죄 사면 운동을 벌였으나 가석방 조치로 풀려났다. 대책위가 뉴욕 시에 있는 여금현 목사¹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한 한인 여성들의 쉼터 '무지개의 집' 보호 아래 2년 동안 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죄책감, 불안과 공포, 지역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통역판도 없이 진행된 재판은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수없이 많았지만, 송중순 사건은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의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이후 김분임 사건¹¹⁾ 처리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9. 윤금이를 둘러싼 정치학

1) 처참한 죽음

일반인들도 기지촌여성 문제하면 윤금이를 떠올릴 정도로 윤금이 사건은 '회생자로서 기지촌여성',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서 윤금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 대중화시켰다. 윤금이는 자신의 죽음으로 '주한미군 범죄

죄사의 전태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방 후 거의 최초로 한국의 사회운동세력이 미군 범죄를 문제화·정치화한 사건이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유엔에 제출한 1998년 1월 26일자 '무력 갈등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보고서에서 아이티, 보스니아, 티벳, 르완다 등의 사례와 함께 윤금이 사건을 다루었다.¹²⁾ '두레방'과 '새움터',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는 여성인권관련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윤금이 사건을 소개하고 연대를 호소하였다.¹³⁾

그러나 윤금이 사건이 기지촌여성 문제, 매춘여성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와 미군 범죄의 문제로 일반화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

12) 아래는 보고서의 원문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ase of Yoon Keum E.(미국 윤금이 사건)

36. Kenneth Markle, a private in the United States Army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battered Yoon Keum E. to death with a coke bottle and then stuffed it into her vagina, and shoved an umbrella into her anus. In order to eliminate evidence of her murder, he spread soap power over her body. Lastly he stuffed matches her mouth.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은 윤금이를 코카콜라 병으로 구타하여 살해한 후 플라병을 그녀의 질 속에 쑤셔넣고, 항문에는 우산을 밀어넣었다. 살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의 몸 위에는 세제 가루를 뿌렸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에 성냥을 꽂아놓았다)

37.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Private Markle to 15 years' imprisonment. Abuses committed by foreign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have raised some important issues. Questions arises as to which courts should try them and whether humanitarian law applies. There is a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this issue in a more systematic manner, especially if there continues to be a need for international peacekeepers. (한국의 대법원은 마클 이병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포함하여 외국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은 그 간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각국의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인도주의적 법 적용 여부가 문제점이다. 특히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좀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13) <동아일보> "아시아주둔 미군 성범죄 동경서 청문회 열려", 1994. 3. 14; <조선일보> "아시아주둔 미군 성범죄 동경서 청문회 열려", 1994. 3. 14; <한겨레신문> "미군 해외 기지 성범죄 경악", 1994. 3. 25.

10) 여금현 목사의 활동은 <한겨레신문> '동포여성 명문 가슴 사랑으로 달립니다', (1996. 10. 25) 참조

11) 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이민 간 김분임과 그녀의 두 남매가 1994년 6월 13일 오후 2시 20분경, 미국 플로리다 주 포트 월튼 소재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김씨의 시신은 생선피처럼 난파되어 있었고 3구의 시체는 선혈이 남지 않아 육체에 처박혀 있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18년간의 근무 중 보아온 사건현장 중 가장 참혹하다고 표현했다. 집안에서는 범행도구라고 짐작되는 60센티 미터가 넘는 칼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김 씨의 남편 에드워드 자크레브스키 공군중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196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 씨는 진주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영어를 배우면서 어울렸던 미군과 결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으로 간 직후 바로 이혼하였고 자크레브스키를 만나 재혼하였다. 자크레브스키는 술과 마약중독자였으나 김 씨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마치고 김 씨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정유진·김동심 공편,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주한미군 범죄 자료집', (미간행), 1997. 9-10쪽.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이 사건은 민족민주운동중심의 사회운동에서 여성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와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맺는 관계, 사회운동 내부의 가부장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92년 10월 11일, 자신의 생일 전날 윤금이는 동두천시 보산동 431-50번지 16호 김성출 씨 집으로 찾아와 셋방을 얻었다. 월세 4만 원을 선불로 내고 2평 남짓한, 비슷한 처지의 '양식시' 14명이 함께 사는 '별집'이었다. 그로부터 17일 후인 28일 윤금이는 바로 이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1966년 전북 순창에서 5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7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 봉제공장에 취직했으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미군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평택의 안정리 기지촌까지 흘러들게 되었다. 기지촌을 전전하다 동두천 보산동으로 온 그녀는 사건 발생 2년 전 동거하던 미군에게 버림받은 후 죽음상태에서 각성제를 복용하고 울면서 자주 행패를 부렸다. 그로 인해 미군 상대 클럽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곳 장사(최하층의 히파리들이 하는 장사로서 연인처럼 보이는 매매춘 남녀에게 밤에 길거리에서 한 송이씩 꽃을 파는 것), 구걸, 히파리로 생계를 이어갔다.

10월 27일 저녁 7시부터 클럽을 술에 취해 전전하다 미군 한 명과 철길을 따라 미 2사단 쪽으로 걸었다. 그는 미 2사단 제20보병연대 5대대 소속의 마를 케네스 리(Markle Kenneth Lee, 1972년 생, 당시 20세) 이 병이었다.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미군 제이슨 램버트(21세) 상병과 실랑이를 벌였다(램버트의 공범 여부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진상규명 의의가 없었고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램버트는 전날 밤 윤금이와 잤는데 그날 다른 기지촌여성들과 가격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젯밤 여자'가 다른 미군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왔다. 새벽 1시 30분 계속 귀찮게 하는 램버트와 한바탕 싸운 마를은 윤금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마를은 클라병으로 금이의 이마를 여러 차례 힘껏 후려쳤다(외정부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발생사실확인서'에는 4회 가격하였다고 나와 있다).

마를의 왼 반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도 경비 헌병은 마를을 들여보내고 그녀를 막았다. 덩치가 컸던 그녀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마를의 목살을 잡고 나와 경찰에 넘겼다. 그녀는 전날 윤금이와 마를이 싸우는 것을 직접 보았고, 마를이 범인이라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감찰은 행방불명되고 만다. 경찰에서 '입다무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포주와 연결된 장패들이 죽었다는 등 소문은 무성했는데 어쨌든 이후로 동두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집에는 쓰던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연락을 두절시킨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2) 18개월간의 투쟁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은 투쟁 주체들이 '자유란 영원한 감시의 대가'라는 말을 그대로 체험한 기간이었다.¹⁶⁾ 케네스 마를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94년 5월 17일 한국 정부가 마를의 신병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인도 받아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하여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 18개월 동안 싸우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마다 '주한미군의 윤금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윤금이 공대위)는 매회 300~1,000명의 방청객을 조직하였다. '살해 미군 구속 처벌과 공정한 재판권 행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사건발생 후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집회를 가졌고, 사건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 한국 정부, 한국 검찰에 항의 편지 보내기, 전화, 단식 농성, 배상금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두천민주시민회를 중심으로 동두천시 택시기사들이 '미군 승차거부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이다.

16) 사건의 자세한 전개과정은 정유진·조재학 공편, 『주한미군의 윤금 씨 살해 사건 자료집』(미간행), 1994를 참조

이마에서 피가 솟구치고 윤금이의 반항이 멈추자 마를은 방안에 있던 우산을 윤금이의 함문으로 쏘서 넣어 직장 안으로 27cm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그녀의 몸에 뿌려진 세제는 '스파크'였다. 알몸 상태로 피살된 그녀의 온몸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자궁 속에는 맥주병 2개가, 질 밖으로는 클라병이 1개 박혀 있었다. 사체 부검 때 맥주병에서 발견된 지문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윤금이의 사인(死因)은 '전두부(前頭部) 열창(裂傷)에 의한 실혈(失血)'로 밝혀졌다. 사망 시간은 28일 새벽 2시로 판정되었고 10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주인 김성출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윤금이의 시신을 가족입회하여 10월 31일 화장하였으며 미 2사단 연대장은 위로금으로 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윤금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고 범인을 검거한 것은 동료 기지촌여성이었다. 김성출 씨 외에 최초의 발견자는 김운자(가명, 당시 30대 초반) 씨로 윤금이가 사는 '별집'에 놀러왔다가 경찰들이 물려와서 사건을 찍고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동두천의 기지촌여성, 아동들의 쉼터인 '다비타의 집' 전우섭 목사에게 알렸다. 사건 발생 1주일 후에야 이 사실이 '동두천민주시민회'에 알려졌고 '동두천민주시민회'는 두레방으로 연락하였다. 경찰에 접수한 사건신고서에는 신고자가 집주인 김성출 씨로 되어있으나 실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감찰'이라는 50대 초반의 기지촌여성이었다. 자신이 '뭣뭣지 못한' 기지촌여성이기 때문에 집주인 이름을 빌려 신고한 것이다.

기지촌여성자치회 '민들레회'의 말단 직책을 모두 감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성씨와 합쳐 '○감찰'로 불렀다. 그녀는 오랜 기지촌 생활을 통해 매춘여성이 미군에게 죽어도, 수사를 하거나 미군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 2사단¹⁷⁾ 앞에서 마를을 기다렸다.

14) 이 글에서 그녀의 생(姓)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15)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인 미 2사단은 미군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대이다. 미 2사단의 표어는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운동, 상인들이 '미군 손님 안 받기 운동'을 벌였으며 11월 7일 윤금이 공대위 주최로 시민규탄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2,000여 명의 동두천 시민¹⁷⁾이 모인 가운데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지촌여성, 전달, 혼혈아동 등 가릴 것 없이 참석한 이 시위는 동두천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날이었고 오후 4시에 시작된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대중적인 호응과 분노가 큰 이유를 '너무 참혹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한국 경찰의 비굴한 태도가 주원인'이라고 보도하였다. 사건 관할처였던 외정부경찰서는 피의자신문 조서도 받지 않은 채 마를을 미군범죄수사대(CID)로 인도하였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재판 종결 이전까지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미군 당국의 관할하에 두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 피의자를 체포하면 한국 경찰이 먼저 피의자신문 조서작성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미군에게 범인의 신병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 경찰은 이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미군에 마를을 넘겨준 것이다.

당시의 신문보도들은 모두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¹⁸⁾ 특히 1991년 부분적으로나마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외무부의 공식 명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으

17) 1990년도 11월 1일 당시 동두천시의 전체 인구는 71,448명이었다.

18) <국민일보> '미병사 한국여성 잔혹살해 파문: 동두천 시민 분노 물결', '철저 수사: 재판권 행사 요구, 경찰조서도 안 받고 미군 측에 넘기자 발단', 1992. 11. 5; <한겨레신문> '미군 범죄 왜 수사 못하냐', (1992. 11. 6); '개정 행정협정 뒷받침 의지 보여야 동두천 미군병사의 잔혹범죄에 대한 정부 책임', (1992. 11. 7); '한겨레 논단: 피지도 못하고 갔구나', (최일남, 1992. 11. 7); <국민일보> '살해미군, 법정구속되나 안되나', (1993. 2. 15); <조선일보> '윤금이사건공대위, 공개재판 요구', (1993. 2. 15); <한겨레신문> '범죄 잔혹성 여부 핵심 쟁점: 공대위, 민족 자존심 걸렸다 공정판결 촉구', (1993. 2. 17); <중앙일보> '잔혹 행위 증거 확보가 열쇠', (1993. 3. 25); <국민일보> '마를 일병 오늘 대법원선고: 형량정면 '한국' 수감', (1994. 4. 29); <중앙일보> '한국에 신병 넘겨주지 말라: 마를 이병 미 대법에 청원, 재판과정에서 생명위협 느낀다고', (1994. 5. 15).

로 한국 정부가 미군 범죄에 대해 초동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미군의 눈치를 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였다는 것이다. 사건발생에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18개월 동안 핵심적인 쟁점은 '공정한 수사'였고 이는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제3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갈등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같은 사태는 1993년 7월 1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절정에 달했는데, 윤금이 사건과 미국의 쌀개방 압력이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났다.¹⁹⁾ 그러나 윤금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기지촌여성들이(이기순, 강운경, 차혜선, 허주연, 정종자, 전지나, 박순녀(환전상), 신차금 씨 등) 미군에 의해 강간, 살해되었다.²⁰⁾

3) 윤금이, 양공주에서 민족의 상징으로

윤금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반미운동으로서의 민족담론이 여성운동을 압도하여 여성 문제를 왜곡·왜곡·왜곡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지촌여성운동의 성과를 강조하는 시각이다. 즉 이제까지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의 성과로 인해 윤금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기존의 추상적인 반미운동을 '현장'으로 끌어내렸고, 남성 반미운동가들을 미군의 주둔으로 가장 고통받는 구체적인 인생들의-기지촌여성-삶에 직면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운동가들은 일반시민과 재야운동가들에게 기지촌여성운동과 기지촌여성의 존재를 알렸고, 재야운동가들이 기지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켰다. 또한 윤금이 투쟁 때 학생들이 갑자기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활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기지촌여성운

19) <한겨레신문>(1993. 7. 11); <중앙일보>(1993. 7. 10).

20) 이 중 박순녀, 신차금 씨의 경우는 범인이 미군인지 한국 남성인지 밝혀지지 않은 미해결 사건이다.

동이 학생운동을 전인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윤금이 사건은 기지촌여성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군 범죄, 민족 자존심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윤금이 사건에 참여한 운동주체들이 강조한 것은 매춘여성 인권유린 문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이 중요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우리(민족)을 억압하는 미군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의미였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기지촌여성의 존재와 그들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간주되어 왔는가가 아니라, 해방 이후 발생한 미군 범죄가 약 10만여 건이었다는 점,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1차 재판권 행사율이 0.7%에 불과(필리핀은 21%, 일본 32%, NATO는 52%)했다는 점이었다. 즉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결국 윤금이 투쟁은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미군기지 문제를 주권이나 영토침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그 안에서 여성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비가시화시킨다. 이러한 접근에서 여성은 민족의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Enloe, 1989). 기본적으로 기지촌은 성차별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공간이다. 군대와 기지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반한 성의 정치가 필수적이다. 기지촌에 우연히 매매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매매춘 자체가 기지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에게 기지촌매매춘은 민족주권의 상실을 상징한다. 외국군에게 몸을 파는 여성들의 존재는, 그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지켜야 할 재산으로 간주하는 남성들의 정체성에 상처를 준다.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기지촌 문제를 매매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기지촌 매매춘의 가부장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다. 기지촌매매춘의 문제가 윤금이 사건에서는 '기지촌'에만 방점이 찍히므로서 매춘여성의 인권유린 현실이 조명되거나, 이 사건이 여성인

권운동으로 인식될 여지는 매우 적었다. '화대'지불이라는 명목으로 기지촌여성들이 '남성 손님', 포주, 지역 깡패, 경찰, 클럽 주인 등 한국 남성들로부터 당하는 강간과 폭력은 전혀 문제화되지 않았다.

(절대로) 여성운동을 팔파서가 아니라 솔직히 이 사건을 여성중심으로 들고 갔다면 그렇게 크게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민족 문제니까 그나마 그렇게 대중화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운동단체 일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 사건처럼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 사건이 여성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질'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민족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것이 구체화된 '현상'이 윤금이를 통해 나타난 거죠. 거시적인 문제가 미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성운동가들하고 일한 것은 처음인데 배운 게 많아요. 나는 그 여성들이 그렇게 사는지 정말 몰랐거든요(당시 '윤금이 공대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재야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민족 문제가 '본질'이고 여성 문제는 그 본질이 외화되는 형태일 뿐이라는 생각,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분리하는 이 활동가의 사고방식은 당시 윤금이 사건에 참가했던 거의 모든 활동가들의 의식이었다. 몇몇 여성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성운동이 언제나 전체 운동의 부분 운동으로 취급되는 분단국가에서, 민족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자신의 정치학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원래 우리는 이 사건 실무자를 꾸릴 때 재야나 학생운동 애들을 부르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사무실로 먼저 찾아 왔더라구. 한마디로 '전수' 잡았다 이거지. 나는 경험상 학생운동출신 남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 왜 알잖아. 아침에 늦게 나오면서 어깨 힘들어 간 거. 그런데 개네들이 실제 사람들을 다뤘고 '병력'이 되기 때문에. 근 2년 동안 전대협(1992년까지 전대협, 1993년부터 한총련-필자 주)에서 동원은 다했으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 없으면 불가능이지. 우리(여성운동가)는 (동원)의량이 안되고 일단 사람들이 '우리 나라 여자가 이렇게 당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윤금이 공대위)에 파견된 여성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청년학생의 경우 반미 투쟁의 촉발점으로(그것도 총학생회중심, 총학생회는 1992년 말 대통령 선거투쟁에 주력), 종교계는 인권, 민족주권의 문제로, 시민운동세력은 반미, 민족주권의 문제로 여성계는 여성인권, 성폭력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물론 공통적인 것은 잔인한 살해에 대한 분노였다. 한편 공무원, 경찰, 보수적인 일부 시민들은 '양공주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왜 이리 시끄럽냐, 하찮은 여자 죽음으로 한미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 없다, 그런 여자는 어느 정도 자오하고 사는 것 아니냐, 창피한 일이므로 떠벌려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²¹⁾

사회운동권의 민족자주의 시각과 '여자 하나 때문에 우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내용상으로는 상반되지만, (여성)이 이 사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논리이다. 그렇수록 윤금이는 '순결한 희생자'로 자리매김되어야 했다. 이에 대해 한 기지촌여성운동가는 매우 분개하면서, '그때까지 기지촌여성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사람들(재야운동가와 일반시민)이 평소 양공주라고 천시하던 기지촌여성을 민족의 딸이라고 서슴없이 호명하는 데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지촌여성은 민족과는 상관없는, 도저히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이 글의 제목대로 기지촌여성은 '양키'에게 살해당해야만, 죽어야만 비로소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있었다. 기지촌여성은 살아서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못했고 우리 사회가 부정하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부정된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민족주권의 상실로 상징화하려는 세력에 의해 생전과는 반대로 민족의 정수(精髓, essence)가 되었다. 죽어야만 사는 여성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애국 ○○ 시민여러분! 우리의 딸이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미군

21) '여성과인권연구회'(대표 김은실, 김성애, 김현미)주최 여성인권 세미나에서 정유진의 발표문('미군 범죄와 여성')에서 발췌(1994. 5. 15).

병사입니다(○○지역총학생회연합,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유인물 제목).

우리의 딸, 금이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유인물).

누이의 주검이 민족의 가슴에 던지고 간 한과 분노의 씨앗은 ... 윤금이 누이의 한이 너무도 깊은 탓이라. ... 50년 전 우리 누이들이 왜놈들에게 당한 수모를 잊을 수 없듯이 윤금이 누이를 이대로 눈감게 할 수는 없다(○○대 유인물).

윤금이에 대한 '누이, 딸'이라는 호명은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현재는 불황 때문에 내국인을 받는 기지촌유흥업소(클럽)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클럽 출입문에는 '내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다.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내국인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국적을 할례(割禮)당한' 여성들이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시민이 아니었던 기지촌여성 윤금이는 갑자기 순결한 딸, 강대국에 뺨박당하는 '조국의 온 산천', 우리 민족의 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번 재판에서 한국 당국이 '공정성'의 잣대를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의 자주권'에 맞추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복수를 다짐하는 민족 ○○대의 선풍적 태도(○○대 유인물에서).

윤금이를! 김국혜씨! 그들은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조국의 자궁에는 미국 문화 플라방이 깊숙이 꽃혔고 조국의 머리는 ...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으며 ...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의 온 산천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 최후의 세제가 뿌려져 있습니다(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유인물).

피해자 윤금이의 사진은 너무도 끔찍했는데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공대위 내부에서 대립하였다.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 사건은 말로 설명해서는 공감할 수 없으며,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꼭 사진이 필요하다. 이철규(1989

년 조선대생 납치고문치사 사건)때도 사진이 없었으면 안 될 싸움이었'다는 의견이었다.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은 '유가족도 살아 있는데 곤란하다. 그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너무 끔찍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공개 안 해도 사안이 워낙 심각해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다. 결국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으나, 공개하자는 입장 안에서 고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까봐 우려했다. 남성운동가들에게 윤금이의 시신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여성의 벗은 몸, 살해당한 몸은 민족의 상처, 수치였기 때문이다. 자국 여성에 대한 외국 군대의 강간과 매매춘은 남성의 민족주의적 동기를 부추기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지촌여성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되어야 했다.

윤금이 사건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다. 윤금이 투쟁에서 기지촌여성들은 실질적인 주체, 적극적인 참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체로 사고되기보다는 '피해자'로 간주되었다. 어떤 공동체가 외부의 침략에 노출되었을 때, 공동체 내부의 여성에 대한 압축적 가정들이 있다. 그것은 ① 여성은 공동체나 민족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며, ② 전체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수단이며, ③ 공동체의 미래 세대의 재생산자이고, ④ 억압적인 외부 통치자에 의한 폭행과 착취에 상처받기 쉬운 구성원이며, ⑤ 외부 세력에 흡수, 동화(同化)되기 쉬운 집단이라는 것이다(Enloe, 1989). 이같은 생각은 필연적으로 여성이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운동의 대상인 여성은 운동 주체의 의지대로 통제되어야 했다. 남성은 민족의 주체이지만 여성은 민족의 성원이 아니라, 단지 민족수난을 상징하는 표식이다. 여성이 특정 집단의 성원이 아니라 그 집단의 재산,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일들은 주변에 무수하다. 정신대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의 일부 남성들의 "우리도 당했으니 이제 일본여자들을 강간해야 한다"는 반응이나 윤금이 3주기 추모제 때 모 대학 교정에 걸렸던 플

래카드 "주한미군 여러분, 범죄는 모국에서"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침해당한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간의 폭력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그 개인이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다르다. 남성과 남성 간의 폭력은 갈등이고 투쟁이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은 연애나 성적인(sexual) 문제가 되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어쨌든 개인의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단적 폭력은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복자, 침략자는 남성성을 과시하여 영웅이 되고 그가 속한 집단의 자부심이 된다. 그러한 폭력은 '사람에 의한' 폭력이라기보다 집단에 의한 폭력으로 인식되고 책임은 분산되거나 없어진다. 무리에 의한 폭력은 익명성을 띠기 때문이다. 개인도 이기적이지만 집단은 더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기심보다 더 쉽게 합리화된다. 어느 사회에나 집단을 대표하는 논리는 언제나 남성중심적이다. 국가나 민족집단 내부의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은 드러나지 않고, 여성의 권리는 남성중심적으로 개념화된 '전체' 국가 이해(利害)라는 이름으로 남성들에게 포괄, 전유(占有)된다.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채 여성인권침해가 집단간의 힘겨룸으로 인식될 때 여성은 이중의 피해자가 된다. 인권은 사람(개인, 인간)의 권리이지 민족이나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녀가 속한 집단의 명예나 도덕에 관련된다면 피해자는 집단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 또 집단간의 보복에서 여성은 언제나 일차적인 희생자가 되기 쉽다. 여성을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집단의 권력 겨룸을 매개하는 일종의 교환물, 재산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현재 보스니아, 르완다, 동티모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Van Boven, 1998).

이같은 관점에서 여성 문제는 언제나 민족모순으로 환원되고, 우리 사회 내부의 성차별과 성폭력은 문제화되기 힘들다. 이 문제를 매춘여성

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이 운동에 참가한 가부장적인 남성들에게 자기 분열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윤금이 공대위'보다 학생운동권에서 발행한 유인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4) 윤금이 투쟁의 성별 분업

당시 윤금이 공대위를 구성한 단체²²⁾는 모두 50여 개였고 민자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3개 정당의 여성위원회가 결합하였다. 이들은 크게 동두천시 대책위원회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학생운동, 노동운동단체로 나눌 수 있다. 여성단체는 총 23단체(정당까지 합하면 26개)로 전체 구성의 50%를 넘었다. 사무실은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두었고 초기 공대위 실무자는 거의 여성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지영 간사, 한국여성의전화 남충지 간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성특위) 박계현 간사였다. 당시 여연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던 중이어서 성특위 간사를 실무자로 파견하였다. 여연 측 실무자는 1차 공판이 끝나면서 공대위가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로 전환하자 참가단체에서

22) 가톨릭여성복지위원회, 가톨릭여성신학연구소, 메리노수녀회여성분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자주통일위원회/ 인권위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여성교회, 이화여대민주동우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여대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여성위원회/ 인권위원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민자당여성대책위원회, 민주당여성특별위원회, 통일국민당여성위원회, 동두천대책위원회(동두천민주시민회, 동두천시대학생회, 전교조동두천양주지회, 덕계노동자사랑방, 전국택시노련경기북부동두천지회), 한겨레신문동두천지국북부노조, 동두천평안동청년회, 민주연합청년동지회동두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북부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가정여성회, 광주여성회, 기독교여성회, 경제정의불교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회, 한소리회(두레방, 다비타의집, 양지공동체, 향유선교회).

탈퇴하였다.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실무진에 재야·학생운동세력으로 전국연합 최희섭 부장, 여대협 대표로 당시 서울대 총여학생회장 이정희와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장 이승아, 전대협 투쟁국장 강대오(가명), 서총련 반미특위장 조재학이 결합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윤금이 투쟁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최초 여성단체들의 주장대로 여성인권 문제로 조명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 처음 이 사건이 두레방에 알려지고 두레방은 이를 한소리회(매춘운동 활동가들의 모임)에 알렸다. 한소리회에 참가하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당시 같은 건물(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던 여성운동단체들을 모아 첫 모임을 가졌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NCC여성위원회).

당시는 여성운동단체조차 매춘여성 문제, 더구나 기지촌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에 "매춘 문제를 들고 일어나도 괜찮을까?", "혹시 그 여자가(윤금이)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가 아니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등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배와 대중성, 탄압에 대한 걱정과 회의가 많았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매춘운동은 주변적이어서 처음에 어느 정도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운동 내의 갈등은 크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운동 내부의 성별 분업이었다. 이는 여성운동, 매춘여성운동의 열악한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정당화되었고 운동이 대중화,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을 합리화했다. 왜 두레방이 공대위 활동에서 주도적이지 못했는가는 질문에 당시 두레방 상근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그런 회의에는 어른이 가서 좀 말받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부터도 그런 연대회의 같은 데 나가서 일하기보다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서면 욕먹는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윤금이 공대위 활동으로 이후 두레방 일을 9개월 정도 쉬었어요.

다. '현장'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그것이 정치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을 때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남자들의 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윤금이 공대위 활동에서 빠지게 되었다.

사실, 윤금이 사건에 대한 당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관심은 '매춘여성의 인권을 옹호하자, 기지촌여성의 현실을 알리자'에 있지 않았다. 당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제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여성들처럼 이 사건이 묻혀버리는 것이었다. 기지촌여성들이 당하는 폭력과 죽음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은, 이후에도 계속 미군들에게 살인 면허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사건을 드러내는 것 자체, 반드시 미군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투쟁 목표였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나 매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힘은 너무 약했고, 윤금이 운동에 남성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제할 수 없었다.

윤금이 투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교회운동세력이다. 당시 교회운동세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은 윤금이 유가족이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중요한 대의 협상력을 발휘했다. 1993년 8월 미국 정부는 윤금이 씨 유족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 자체는 미군 범죄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교회운동세력은 '과격'한 재야, 학생운동에 대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과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김경남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운영에 총무가 특히 애를 썼다. 언론 중에서도 기독교계인 《국민일보》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윤금이 사건을 기사화하였다.

윤금이 죽은 지 1주기가 되는 1993년 10월 26일, 이지영, 조재학 등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회계, 재야지도자의 주도로, '윤금이 공대위'는 미군 범죄에 대처할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로 전환하게 된다.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기지촌여성운동 출신의 여성 실무자와 학생

그 때 일로 파로로 쓰러졌거든요. 아침에 두레방 가서 밥하고 땀 주운 받고 언니들(기지촌여성)하고 애(상담)하고 오후에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내려와서(공대위)사람들이랑 회의하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서고 택스킹 타고 경찰과 협상하고, 원봉(원천봉쇄)하고 그런 일은 남자들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물론 그 사람들이 여성의식은 없었지만 어차피 윤금이 일이 여성화시킨 것이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 (미군)범죄 자체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없으면 힘든 투쟁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 없고 그런 일만 하면 되니까. (직업운동가 같은 거요) 일종의 그릇조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편지 공대위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했고, 여대협에서 학생들이 오긴 했는데 남자와 똑같았어요.

윤금이 사건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기지촌여성 살인사건이 나서 우리가 가면 경찰서에서 '아, 고운 아가씨들이 왜 이러시냐?',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시지, 이런 힘든 데는 올 곳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줘요. 농담 따먹기나 할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서면 이슈화가 안되니까요. 사건이 묻힌단 말이 어요(현재 기지촌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와의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운동은 여성들이 하고 그것을 사건으로 사회문제화하는 일,은 남성들이 해야 한다는 성별 분업논리는 노동현장, 가족, 지식생산 현장²³⁾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에도 있었다. 여성운동가가 외부회의나 연대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임금노동에 진출한 기존 취업여성처럼 이중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협소한 매춘여성운동의 입지와 기지촌운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여성운동가 스스로 뒷바라지하는 일에 익숙하고 지도자가 되거나 '나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도 문제였

23) 남성 지식인은 전체 문제만 연구해도 되지만, 여성 지식인은 여성 문제도 연구하고 전체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성별 분업과 여성의 이중부담을 말한다. 조순경(1992) 참조

운동 출신의 남성 실무자가 같이 일하게 되었다. 미군기지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운동본부' 활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운동본부' 산하에 여성인권위원회를 두는 문제와 사업의 방향을 미군기지 반환, 한미행협 개정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겪게 된다. 여성에 대한 미군의 폭력을 둘러싼 성별적(性別的)인 갈등은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와 미군기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오키나와 현은 일본 전국토의 0.6%밖에 안되지만 일본 내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1995년 3명의 미군이 오키나와 소녀를 강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분노하자, 남성들은 '이 사건을 여성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 이 사건은 일본과 미국의 문제'라고 야유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이 사건은 여성인권 문제인 동시에 안보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들에게는 정치의 문제나, 여성인권의 문제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여성 문제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다케시타 사요코, 1998).

10. 기지촌여성운동의 미래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대부분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장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거리가 소위 민족해방계열(NL)의 학생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족해방 계열이 반미와 분단 문제를 주요 이슈로 했기 때문에 기지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이다. 반미운동을 하려고, 학생운동관련으로 수배생활 중에 읽은 두레방 회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성운동을 '현장'에서 가장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보다 더 최악인 여성들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등 기지촌여성운동에 진입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대학 재학중

경험했던 기질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의 가장 전진기지'인 기지촌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반미운동이 남성중심적이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지촌여성운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1~2명을 빼고 대부분 현장에서 2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나의 인권과 그 여성들의 인권이 대립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걸 모두 눌러야 하고... ○○언니가 계속 버티는 이유는 그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2년 근무 현장 활동가).

맨 처음 외국은 대단했지만 너무 외롭고 누구랑 의논할 사람도 없고(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생각... 같이 지내는 사람과 문화가 틀리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심했어요. 우리 집이 ○○동이었는데 동두천까지 왔다갔다 6시간 걸렸어요. 매일같이 월급은 차비로 다나가고... (1년 9개월 근무 활동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운동인가 싶었어요. 신문 볼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하는 게 설거지, 식사 준비, 공동 식사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운동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1~2년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운동의 본질이 이런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1년 6개월 근무 활동가).

학생운동 출신이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모델은 '일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역동성을 보이는 변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사회운동론이 정의한 보편적인 사회운동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지촌에 들어와서, 기지촌여성의 삶은 다른 사회운동과 같은 경로를 밟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상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 아니 일상을 견디는 것 자체가 힘겨운 운동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기지촌여성운동

은 기존 사회운동의 틀에서 보았을 때는 운동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운동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운동처럼 운동을 계속하여 조직이 확대되고 '명망가'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본적인 급여와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저임금 장시간 노동), 자기 승진이 안 되는 소모전과 파로, 무보상, 일상노동의 지겨움은 '나'(활동가)와 '언니들'(기지촌여성)의 인권이 대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갈등에 빠지게 한다.

다른 여성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일치한다. 나를 위한 여성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기지촌여성운동은 아무리 누구를 위한 운동은 아니라 해도, 기지촌 활동가가 기지촌매춘여성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9년째 기지촌 현장 활동을 해오고 있는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 일반적인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방법, 목표, 마인드를 가지고 기지촌여성운동을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이 운동이 아니라 종교사업 같다고 해요. 우리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이미지-정체성 모니터하고 이슈 화이팅 하는 것-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기지촌여성들을 '도와준다'와 '같이 한다' 사이에 끝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들과 신뢰를 쌓는 것 자체에 실패하기가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지촌은 변하고 있다. 기지촌매춘과 일반 매춘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생계형 매춘에서 전화발이, 맛사지 걸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을 겸업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미군과 즐기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제발로' 기지촌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²⁴⁾ 지속적인 감군과 범죄예방, 달려와 하락으로 인해 88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해외기지에 여군을 배치하고 가족과 동반하여 거주하게 하는 등 미군 주둔 환

24) <경향신문> '송탄 미군 클럽 여대생 물결: 술값 싸고 이국 분위기 만끽', 1995. 2. 10; <조선일보> '동두천 기지촌이라 부르지 마세요', (1998. 7. 28), <한겨레신문> '조해일의 아메리카: 치욕 상흔 양공주 그늘진 삶 조명', '소설 무대' 동두천: 예전할기 흔적 없어, (1996. 8. 31)

경 자체가 변모했다.

최근 기지촌의 가장 큰 변화는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 매춘여성들의 등장이다.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거나 '한국복수관광업협회' 주도로 동남아 등지에서 여성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여성보다 대체로 더 젊고(어리고) 영어가 유창하며 무엇보다 봉제가 쉽다.

1998년 2월 초 군산 아메리카 타운의 한국 기지촌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군산대학교 학생과 택시 기사들에게 직접 배포하면서 집단적인 '데모'를 벌였다.

학생여러분! 이 글을 쓴 우리는 바로 학생들 뒤편에 상주하며 외국인을 상대하는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펜을 든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일이 있어 학생여러분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업주들은 알뜰한 상술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한 분이라도 벌어들여야 할 외화를 외국여성에게 선불로 주며 우리 내국여성에게는 선불 이자를 받는 파렴치한들입니다. (달러를 벌어) 애국하겠다는 우리에게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외화를 발송하는 업주들의 행태는 애국입니까? 애국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여성들 때문에 애국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요. 만납시다. 부탁드립니다.²⁵⁾

외국인 매춘여성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애국'의 차원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는 이들을 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성주의는 이제까지 매매춘은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악이라고 반대해왔다. 매매춘에 대한 이러한 기본 입장과 매춘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까? 이 문제에 관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 견해는 앞으로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중요한 전망을 시사한다.

저는 그들의 논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25) 오연호, '충격 잡입 인터뷰: 주한미군 기지촌에 수입된 필리핀 여성들', <말> 1998. 5월호; <한겨레신문> '미군 기지촌여성들의 딱한 호소', 1998. 2. 21.

봐요. 그들의 생존권을 옹호한다는 것과 매춘을 옹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들 스스로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매춘 폐지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매춘여성의 자기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우습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했다고 할까요? 두레방이랑 새우터가 해왔던 기지촌여성운동은 전체 기지촌여성운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촌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그룹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토론하고 충돌하기를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후 기지촌여성운동의 전망일 것이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춘여성운동의 중요한 모델이다. 그간 기지촌여성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매춘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 점, 철저하게 현장 여성을 중심으로 한 운동방식, 전업사업 프로그램 제시, 군대와 매춘 문제 등 우리 사회 운동의 소중한 이슈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기지촌여성운동은 이들이 실제 이룩한 성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되거나 드러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탈매춘을 위한 전업 프로그램과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의 전문성은 정부, 학계, 다른 매춘운동 세력이 그들로부터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은 새로운 세기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절실한 가치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여성운동은 이 화두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일지도 모른다. 기지촌여성운동은 매매춘 자체의 근절과 함께 군축, 통일, 평화, 반미 문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요구한다. 이제까지 평화는 전통적으로 전쟁 개념과 함께 존재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거나 평화는 전쟁 전후(前後)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평화는 정적(靜的)이고 고정화된 상태로 이미지화되어 왔다. 전쟁이 능동적, 영웅적, 남성적인 이미지라면 평화는 이런 자극적인 것들의 부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난다. 여성주의자들에게 평화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Enloe, 1993).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와 같다.

참고문헌

- 강성철. 1988, 『주한미군』, 일송정.
 강영수. 1988, 『한국 사회의 매매춘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은실. 1994, 『민족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0집.
 —. 1996, 『시민 사회와 여성운동』, 한국학술단체협의회 주최 심포지엄 발표문(미간행).
 김현선. 1998, 『기지촌 매매춘의 분석과 가능한 정책적 대안』,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석순> 14호.
 김현선 외. 1997, 『기지촌, 기지촌여성, 혼혈 아동 실태와 사례』, (미간행).
 다케시타 사요코. 1998,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인권』,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미간행).
 동아일보 특별취재반. 1990, 『철저 해부 주한 미군: 90년 한국기자상 수상작』, 동아일보사.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1996, <매매춘 소식> 1호(미간행).
 박석분·박은봉. 1994, 『윤금야: 현대판 '정신대'로 지다』, 『인물여성사: 한국 편』, 새날.
 박종성. 1994,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반 보넌. 1998,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 한국여성의전화 외, 『아시아의 여성인권: 무력 갈등과 성폭력』(미간행).
 백제희·정금나. 1997,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본 국가정책의 여성억압적 성격: 경기도 동두천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매매춘 소식> 2호,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매매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미간행).
 부산민족민주연합 외. 1991, 『너희가 물러나야 우리가 산다』, 힘.
 야마시다 영애. 1992,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 1989, 『외세의 성 침탈과 매춘』(미간행).
 안일순. 1997. 3, 『기지촌 문제, 한국은 왜 침묵하나. 프론트라인 페미니즘 여

- 성대회 참관기』, <말>.
 —. 1995, 『뱀벌』, 공간미디어.
 —. 1996, 『몸값 10달러짜리 여자의 인권』, <여성의 눈으로> 7호, 한국여성의전화.
 5기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기지촌활동추진위원회. 1996, 『5기 기지촌 활동 자료집』(미간행).
 오연호. 1990,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라』, 백산서당.
 —. 1989, 『식민지의 아들에게』, 백산서당.
 유복남(연도 미상), 『기지촌 매춘여성: 본단 조국의 속죄양』.
 유영남. 1998,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여신도회> 104호.
 유춘자. 1993, 『송중순 씨의 석방과 그를 위해 활동한 대책위원들의 고백』, <한국여성신학> 제13호,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유철인.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32호.
 윤영애. 1996, 『한소리회와 매매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함께 가는 교회여성』.
 원미혜. 1997, 『한국 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교정. 1995, 『진보적 시민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동두천 민주시민회의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이상성. 1998,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한길사.
 —. 1992,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국 안보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이석우. 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이현숙. 199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장필화·조형. 1992,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8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전남대·조선대기지촌방방단준비위원회. 1996, 『기지촌 방방단 자료집: 너희가 물러나야 우리가 산다!』(미간행).
 정유진. 1998, 『미군 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10주년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민변 펴냄.
 정유진·조재학 공편. 1994,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자료집』(미간행).

4장 성의 산업화

1970년 이래로 매매춘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매매춘이 산업화되고 정상화 되었으며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매매춘은 여성, 특히 신흥 개발 경제 안의 여성들에게 밀려들었다. 현재 매매춘의 규모는 타이에 200만, 한국에 150만, 필리핀에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성의 산업화는 국내와 해외의 고도로 조직화된 여성 매매와 널리 퍼져 있는 비공식적인 알선 방식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지구적인 여성 시장을 형성한다.

산업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위해 제조된 상품과 서비스의 대량 생산을 의미한다. 나는 이 글에서 '성의 산업화'를 상품의 생산, 즉 섹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래 섹스화되거나 매매될 수 없는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오고 또 그 안에 있는, 원래 시장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상품으로 만든다. 성의 산업화는 대규모 상품 생산이다.

매매춘의 산업화는 ① 전쟁이나 외국 점령 시기의 군대 매매를 위한 대규모 여성 배치, ② 경제 발전을 위해 외화 소득을 올리는 관광 산업의 발전, ③ 특히 지역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면제된 수출 자유 지역의 여성 노동력 착취를 통해 여성을 주변화하는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에 뒤이어 일어난다.

매매춘의 산업화는 각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첫째, 성 산업은 경제가 산업화되기 이전에도 외국 군대나 사업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번성했다. 군대 매춘과 섹스 관광은 산업화의 결과(의도했든 하지 않았든)라기보다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 선행해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매매춘과 이와 관련된 성 산업들, 즉 거대한 국제 호텔 체인점, 항공사, 술집, 섹스클럽, 마사지업소, 매춘업소, 매춘 알선업자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여성(때때로 어린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은 상품이고, 산업은 이들을 통해 섹스를 판다.

둘째, 호텔, 항공사, 관광 산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라는 전통적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포주, 알선업자, 조직 범죄와 같은 대규모의 지하 경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성 산업은 여성의 몸을 사용해 남성에게 섹스를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얻는다. 국가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 성 산업은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5장에서 설명할 것이다)에 있는 여성을 철저히 착취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여성이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 산업은 노동 시장이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 매춘에서 벌 수 있던 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으로 여성들을 사게 된다. 개발 경제의 국가적·개인적 산업 통제와 산업화 이전에 이미 가족 내에서 형성된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 때문에, 매춘은 일부 가난한 여성들에게 유일한 경제적 가능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전체 사회의 물질주의적 수준 향상을 가속화시킬수록 매춘은 여성들이 산업화의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훨씬 그럴듯한 수단이 된다(여성들은 정상화된 성 산업의 맥락 속에서 물질적인 소득을 위해 매춘을 시작한다).

그러나 매매춘 시장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굴러간다. 산업 경제 이전과 초기 산업 경제에서는 남성이 군 복무나 사업을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의 수요가 가장 컸다. 전쟁은 주로 여성

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난민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재배치를 야기한다. 전쟁중의 대규모 강간은 그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들을 성 산업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강간당한 여성과 소녀들은 포주와 조직 범죄단의 그물망에 특히 잘 걸려든다.

1992년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이 감행한 대량 학살에서 인종 청소의 일환으로 자행된 대규모 여성 강간은 마을과 거리에서뿐 아니라 수용소에서 일어났고, 일부 여성은 그러한 목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유럽공동체에서 파견한 진상 조사단은 분쟁이 시작된 후 약 2만 명의 이슬람교도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추정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인권 기관에서 파견한 또 다른 진상 조사팀들도 이슬람교도 여성에 대한 대규모의 강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이 1993년 보스니아에서 발생했던 강간을 조사하면서 그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3년 말까지 유엔은 신원이 확인된 800명의 희생자를 포함해서 3천 건의 보고를 받았다.

도움이 필요했던 보스니아의 여성들은 국제적인 여성 운동 덕분에 이러한 범죄에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단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식 집계와 추정 건수 사이의 지속적인 불일치는 더 이상 여성에게 저질러지는 잔혹 행위를 묻어 버릴 핑계가 되지 못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중에 발생한 여성에 대한 대규모 강간은 전쟁의 보이지 않는 결과였다. 1993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보스니아 인종 학살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강간을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었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적(남성)을 모욕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알려져 왔으나, 강간과 포르노그래피, 거기에서 파생한 매매춘은 휴식과 오락(R & R)의 일종이었고 평화유지군도 분명 예외가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발생한 강간이 포르노그래피 영화로 만들어져 왔다는 보고 이후, 수용소의 군인들은 매매춘

을 위해 이러한 여성들을 이용했다. 1993년 12월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s-Ghali)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 말 소냐스(Sonjas)에서 이슬람교도 크로아티아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세르비아 군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라예보의 재판에서 드러났던 혐의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사라예보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소냐스에는 레스토랑, 병커, 수용소 등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곳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1993년 11월 1일 뉴욕에서 있었던 재판에 대한 『뉴스데이』(Newsday)지의 보도에 따르면, 세르비아인들이 매춘을 위해 여자들을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동안 몇 명의 여성들이 유엔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장교 한 명이 전했다. 강간과 매춘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는 세르비아인이 평화유지군에게 여성을 성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엘살바도르 시민 전쟁 이후 수도 산살바도르의 매춘 여성 수는 군대의 대규모 수요로 1991년에 1만 9천 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¹⁾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국가 테러리즘에서 이루어진 정치·군사적 탄압에는 성 착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 학대는 국가 테러리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할 수 없다. “어떠한 저항의 행위라도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모든 지원의 길이 막혀 있다. 이 때문에 단지 끔찍한 경험으로 시작된 일이 마지막에는 끝나지 않는 재앙이 되어 간다. 파괴적인 경험, 자아의 말살은 모두 테러를 유발하는 보다 큰 그림 안의 하나의 세부적인 일부분으로서 존재한다.²⁾

여기에는 매매춘이 포함된다.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중층적인 고문과 억압의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다. “젊은 여성들이 전체 군대의 공용 재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명의 군인에게 자신의 몸을 사유 재산으로 주는 관행이 엘살바도르 전쟁 지역에서 목격되었다.”³⁾

매매춘은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상관없이 전쟁과 정치적 억압과 고문의 시기에 일어나는 성 학대의 한 형태이자 결과이다. 결국 매매춘은 아드리안느 아론과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확인된 군대 성 학대의 공식에 잘 들어맞는다.

확인할 수 있는 성적 학대의 형태는 그것이 다음 중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에 따라 잘 구분된다. ① 한 여성이 구금되어 있을 때 군대의 관리 운용 절차(SOP, standard operation system, 예를 들면 고문의 구성 요소로서의 강간) ② 여성이 지역 사회에 거주할 때 관리 운용 절차(예를 들어 군대와 연결로 성적 학대를 허용받은 군인에 의한 악의적인 착취) ③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학대.⁴⁾

제3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성적 수요는, 사업가들이나 R & R 휴가 중인 군인들이 구매하는 여성들로 가득한 시장을 형성해 왔다. 매춘 알선업자들은 대도시의 버스 정류장과 기차 역에서뿐 아니라, 제3세계의 가난에 찌든 시골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손에 넣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군인과 사업가의 대규모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매매춘의 섹스서비스를 위한 여성의 대규모 산업화와 함께 많은 여성 인구가 매춘화되었다. 필리핀이나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촌들이 모두 매춘 관광지로 변했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휴양지와

1)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El Salvador, 1989-91," Children's rights International, 1991, p. 26.
2) Adrienne Aron, Shawn Corne, Arches Funland, Barbara Zelwer, "The Gender-specific terror of El Salvador and Guatemal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General American Refugee Wome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4, Nos. 1-2, p. 41.

3) Ibid., p. 40.

4) Ibid., p. 38.

군사 전략 기지가 된 인접 필리핀과 타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매매춘은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내와 매춘부로 매매되었다. 남성들은 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타이완에서 섹스 관광을 온다. 이러한 섹스 관광은 이 나라들의 주요한 외화 수입 원천이다.

군대를 위한 매춘 시장: 한국

전쟁중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섹스 시장에서의 여성 판매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 발전 이전부터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의 일부 지역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다. 전쟁중에 일본 군대는 10~2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여성에게 일본군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도록 강요했다. 1944년 4월 일본 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야마구치 사령관이 발표한 동원령에는 전쟁을 위한 노동력 동원에 "황군들에게 봉사할 자원대로 100명의 한국 여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⁵⁾ 1991년 12월 도쿄지방법원에 세 명의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은 이 '자원대'가 여성을 납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성 노예로 모집한 여성을 위한 한국위원회의 증언자들은 "이들 중 절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납치되었거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길을 가다가 경찰서로 호송되어 강제로 모집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⁶⁾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소'(미군 R & R의 일본판)에 배치

5) From Peti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sexual Service by Japan, p. 16.
6) Ibid., p. 14.

되었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⁷⁾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낸 고소장은 모집된 여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군 위안소는 중국,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제도, 일본 등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었다. 전황이 악화되어 일본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을 때 군 위안부들 중 일부는 버려졌고, 일부는 일본군과 함께 명예롭게 죽도록 강요당했으며, 나머지는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군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소모품으로 취급되었다.⁸⁾

이들 군 위안부의 약 80퍼센트가 한국 출신이며, 나머지는 일본, 버마, 필리핀,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의 한국·중국 여성들이 섹스 감옥 안에서 죽어갔다.

위안소의 이용은 오직 군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고 '세카이칸'은 군사적 용명을 떨치고 있던 6연대와 9연대가 이용했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들어가기 위해 표를 사야 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이름표'를 집어들고 돈을 내고는 표와 휴지, 콘돔을 받았다. 표에는 위안부의 이름과 방 번호가 써져 있었다. 대개 군인들은 여자를 지명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배당된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계급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낮에는 사병들에게, 초저녁에는 하급 장교들에게, 그리고 늦은 밤에는 고급 장교들에게 시간이 배당되었다. 규칙을 어기는 군인들은 수감되었다. 한마디로 군 위안소 이용 규칙은 군대 규율의 일부였다. 실제로 현병은 이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7) Speech of President of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8) Ibid., p. 23.

는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했다. 그러나 어떻게 군복을 입지 않은 나머지 민간 베트남인과 이들 노랑이를 구별했는가? 신경이나 썼는가? 여성은 그냥 창녀였을까 아니면 '노랑이 창녀'였을까? 전쟁, 특히 베트남전쟁에 인종 차별주의는 군인들에게 이국적인 성을 팔기 위해 성 산업이 채택한 전략의 일부였다. 처음에는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다음에는 미군 등 침입자들과 인종이 달랐던 베트남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침입자들의 적이었으며 동시에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섹스였다.

베트남에서 매매춘은 전쟁중에 벌어졌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중 하나였을 뿐이다. 전쟁중에 남성들은 대규모 강간을 통해서 그들의 적을 모욕했다. 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대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리 라이 헤이슬립은 전쟁중에 베트남 중부의 한 농촌 마을에 살고 있던 십대 소녀였다. 처음에는 베트남 공이, 그 다음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공화국 군이 매일 마을에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그녀는 양면 군인들 모두에게서 강간을 당했다. 베트남전쟁에는 강간당한 여성들이 특히 불명예스럽게 여겨졌다. 그들이 강간당한 것은 가문과 마을, 지역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다. 매춘은 헤이슬립과 같이 '결혼할 가망이 없는' 여성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었다.⁹⁾ 전시의 성 산업은 성폭력과 강간이라는 군사 전략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강간당한 여성은 군사 전략의 피해자였지만 매매춘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했다.¹⁰⁾ 외국이 많은 군인을 베트남에 쏟아 붓자 매매춘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남성이 돈을 주고 매춘 여성을 살 때, 자신의 부인에게는 비밀이라는 점, 종교가 이를 금지한다는 점, 그리고 불법이라는 점이 남성들을 유혹한다. 군대 매춘의 또 다른 재미는 의심할 바 없이 마을과 가족을 강탈당한 다른 인종의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시키는 것에 있다. 성 산업은 인종 차별적 편협함으로

13) Le Ly Hayslip, with Jay Wams, *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s* (New York: Doubleday, 1989), p. 224.

시장을 형성한다. 그들은 다른 인종 여성의 몸을 섹스 시장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손님의 인종 차별적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인종·민족·문화적 차이는 금지되어 있던 성 상품화의 일부이다. 구매자가 여성의 몸을 살 때, 다른 인종의 여성들은 흥분을 고조시키며 또 하나의 경계를 형성한다.

〈여성 매매는 구매자에게 여성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문화를 갖고 있는 '유색'의 몸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의 인종 차별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미군이 그들의 적을 노랑이라고 부르면서 대상화할 때 베트남 여성들은 성이 실제로 구매되든 그렇지 않은 창녀로 전락하였다. 베트남에서 미국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위협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절프전에 참여한 여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또한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위협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눈에 보이는 미국 여성들의 존재는 처음부터 창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요원, 군인의 부인 또는 관광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종 차별주의는 피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강간이나 매춘을 통해서 성 착취를 받는 대상으로 선택될 때 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백인, 미국 여성)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해 주는(보호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기능을 한다. 〈인종주의는 성 착취에서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의 분리를 유지시킨다.〉그러나 1992년 미 해군의 테일훅 회담(Tailhook Convention)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들이 드러났듯이, 특별히 인종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나 미국 여성이 임무를 수행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섹스를 위한 몸뚱이로서의 위치를 다시 갖게 된다.

다음은 〈민족 해방 운동과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군과 남베트남공화국 군과는 반대로 베트남 민족 해방군은 지역 여성에 대한 강간과 매춘을 금지하는 엄격한 윤리 강령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이 항상 현실은 아니다. 특히 남성 주도적인 해방 운동에서 모든 군대가 여성 성 착취에 개입하고

순찰했다. 군인이 위안소에서 소란을 피울 때는 헌병에게 보고되었다.⁹⁾

한국과 일본의 여성 단체들이 수년 동안 계속 압력을 넣은 뒤인 1992년 초, 일본은 마침내 “여성들을 강제로 군인과 성 관계 하도록 하는 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고 인정했다.¹⁰⁾ 얼마 후 네 명의 중국 여성이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한국 여성과 함께 매춘을 강요당한 수많은 중국 여성의 일원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¹¹⁾ 일본 정부는 문서를 통해, 군대의 관행으로 허용되는 전시 강간이 일본에 대한 점령지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군인들이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을 막고자 매춘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국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했던 일본군은 그 후 미군 점령기에 미군이 한국 여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인 기자 야요리 마츠이는 매춘이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를 위해 준비된 조달품의 하나였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여성을 미 점령군의 위안부로 제공했다. 일본이 항복한 날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8월 21일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당시의 무임소장관인 고노에 후미마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는 섹스에 굶주린 미군으로부터 우리의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일 후에 시정국장은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우리는 4천만의 꽃과 같은 일본 여성

9) “Story of Song Sun Do, Korean Former ‘Comfort Women’ Resident in Japan,” statement prepared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10) New York Times, January 14, 1992.

11) New York Times, August 9, 1992.

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이 미군을 위한 ‘위안’ 시설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5천만 엔(현재의 환율로 대략 5백만 달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특수위락시설설립협회’(Association for the Creation of Special Recreation Facilities, 후에 유흥오락협회[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RAA]로 불린다)의 설립을 공표하는 행사가 8월 28일 미 점령군의 첫 번째 연대가 도착하는 때에 맞춰 왕궁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곧이어 RAA가 지원하는 최초의 군대 매춘업소인 고마치 가든이 도쿄의 오모리가에서 개업했다. 8월 30일 전직 매춘부였거나 “신 일본 여성 모집, 숙식·의복 제공”이라는 광고에 속은 약 100명의 여성들이 미군에게 몸을 바쳐야만 했다. 일본의 군 사창가는 문자 그대로 공습으로 불타 버린 도쿄의 폐허 더미에서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25곳으로 늘어났다. 한창때는 7만 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¹²⁾

처음에는 일본군, 나중에는 미 점령군을 위해 조성된 한국의 매춘은 후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군대 매춘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인 사업가들을 위한 섹스 관광으로 발전했다.

베트남과 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남베트남공화국 군과 연합해서 싸웠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패배했다. 그들의 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군대를 갖고 있던 베트남 공산주의자였다. 미군은 베트남의 적군을 조롱하고 대상화하여 ‘노랑이’(gooks, 아시아 인종을 비하하는 속어—웁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마도 이들을 손쉽게 죽일 수 있도록 하려던 것 같다. 미군들에게 군복을 입은 ‘노랑이’

12) Yayoi Matsui, “Sexual Slavery in Korea,” *Frontiers: A Journal of Women's Studies* 2, no. 1 (Spring 1977), pp. 27-28.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중에 미국과 남쪽의 공화국 군 치하의 사이공에는 매매춘이 번성하고 있었던 반면, 북쪽 호치민의 민족 해방군이 통치하는 하노이에는 매매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타이와 필리핀이 미군의 R & R 휴양지가 되었던 것처럼, 군대 매춘이 섹스 관광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베트남전쟁 동안 되풀이되었고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남전쟁에 그리고 그 후에 베트남, 타이, 필리핀 여성의 매춘이 미군을 위해 단계별로 동원되었다. 방콕의 팻퐁 거리는 성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팻퐁: 방콕의 큰 골목’(Patpong: Bangkok's Big Little Street)이라는 책에서 전직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기사는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팻퐁 거리가 지금과 같은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이 가능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떠올려대고 있다.¹⁴⁾

1965년 남베트남에서 군대 매춘을 위한 모집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문제거리가 되었다. 1965년 아워드 박사가 실시한 유엔 노예 조사는 라오스에서 여성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매춘부 모집은 남베트남에서부터 타이, 라오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⁵⁾ 처음에는 술집 여성, 그 다음에는 다낭의 해군을 위한 마사지업소들, 그 뒤에는 “빈민 사창가와 마사지업소, 도그패치(Dogpatch)로 알려진 마약 거래자가 차례로 기지 주변에 생겨났다.”

1966년 중앙 고지대 안케(An Khe)의 제1기병대, 사이공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라이케(Lai Khe)의 제1보병대, 그리고 프레이쿠(Pleiku)의 제4보병대는 기지 안에 공식적으로 군대 매춘업소를 설립했다.……

전쟁중에 집과 가족을 잃은 난민과 이전에 사이공 술집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주로 매춘업소를 만들었다.……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매춘부의 알선과 가격 조정을 떠넘기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던 미군이 직접 건강과 안전

을 통제하고 관리했다.¹⁶⁾

결국 매춘부들은 ‘현지 내국인 방문객’으로서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기지의 공식적 환영을 받았다. 사이공 근처의 롱빈(Longbinh)에서는 군인들이 군 기지 밖에서 기다리는 50~60명의 소녀들 중 아무나 현지 내국인 방문객 자격으로 기지 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군대 사창가는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들 이외에서도 출입 통제 매춘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남쪽의 공화국 정부는 이 지역의 매춘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30퍼센트를 가져갔다고 알려져 있다.¹⁷⁾

사이공의 거리들, 쿨롱의 군사 기지와 미군 주거 지역 주변 그리고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은 술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술집들은 거의 전적으로 미군 남성들에게만 유흥을 제공해 주었고, 어떤 때에는 각 술집마다 고객들과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게 부추기는 호스텔스들을 5명에서 20명까지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술집들이 비엔호아(Bien Hoa), 농타우(Nung Tau), 나트랑(Nha Trang), 다낭(Danang)에 있었고,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작은 규모를 이루며 나타났다.¹⁸⁾ 필리핀을 비롯하여 군대 매춘이 번성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매춘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으로 사별한 여성이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아니면 강간의 피해자들이었다. 매춘 여성들은 가족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여성들이었다.〈봉건 제도하에서의 떠돌이 여성의 지위는 전시에 전쟁으로 인한 사회 변동으로 더욱 악화된다.〉

종전이 되고 남베트남에서 철군할 때 많은 미군은 베트남인이 주도하는

14) Alan Dawson, *Patpong: Bangkok's Big Little Street* (Bangkok: Thai Watana Parick Press, 1988), p. 39.

15) Mohamed Anwar, *Report on Slavery* (New York: United Nations, 1966), p. 198.

16)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5), pp. 93-95.

17) Roland-Pierre Paringaux, “Vietnam, Consequence de la guerre,” *Le Monde*, June 2, 1977.

18) Neil Jamieson, *Understanding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333.

통일을 위해 밀고 들어오는 북베트남 군으로부터 남베트남의 매춘 여성들을 '구해' 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다시 매춘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젊은 미국인들은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술집과 매춘업소를 돌면서 매춘 여성들을 끌어모아 베트남 밖으로 탈출시켜 주었다. 어떤 남자는 사이공에 네 번이나 갔다 왔으며, 그때마다 다른 '아내'와 몇 명의 '처제나 처형'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함께 떠나기를 거부했던 한 매춘 여성은 그녀의 자칭 '남편'이 호놀룰루에서 베트남인들만 구성된 매춘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CIA에서 일했다고 말했다.¹⁹⁾

리 라이 헤이슬립은 자서전 『하늘과 땅이 바뀔 때』(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s)에서 부패한 베트남인의 압력으로 베트남 주둔 미군에게 팔리고 있는 노예 매매와 군대 매춘을 설명하고 있다. 마치 선택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듯이, 매춘은 전쟁중에 여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로 당연시되었다. 반대로 소녀들이 매매되면 인신 매매는 노예제로 간주되었다. 헤이슬립의 자서전은 그녀 자신을 비롯하여 거리에서 눈에 띄는 여성들을 누구나 매춘부라고 여기는 군인들에 맞서서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헤이슬립은 대부분의 경우 매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끈질기게 거부해야만 했다. 그녀가 거리에 나설 때마다 군인들이 그녀를 매춘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과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물건을 팔러 거리로 나섰을 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녀는 베트남 여성이었기 때문에 매춘부로 여겨졌고, 심지어 아무리 강하게 거절해도 자신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미군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한 번은 누군가 400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 자신과 어머니가 1년간 먹고살

19) Alan Dawson, *Fifty-five D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p. 267.

수 있는 돈이어서 그녀는 매춘을 승낙하기로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냥 누워서 이 두 명의 미군을 남자가 되게 해주는 거야. 아직 겪어 보지 않았던 일을 그들이 내게 하는 것뿐이야"라고 말하면서, 애써 매춘을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²⁰⁾ 베트남에서의 노예 매매에 대한 헤이슬립의 묘사는 자발적 매춘과 강요된 매춘 사이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상기시켜 준다.

이 소녀들은 매춘부가 아니라 시골에서 벌어지는 전부를 피해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온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일부는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았다. 이 소녀들은 나처럼 농촌에서의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였으며, 좀더 안전하고 나은 생활을 하라고 친척들이 도시로 보낸 아이들이었다. 한 대의 피난민 버스가 도착했을 때 아주 잘 생긴 젊은 남자 두 명을 동반한 젊은 여자가 버스에 탄 사람 중에서 가정부나 보모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 왔다. 이러한 일들은 소녀들이 도시로 가면 찾아보라고 들어 왔던 직업이었고, 잘 생긴 남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귀여운 어린 소녀들은 그 주변에 재빨리 모여들었다. 그 여자는 좋은 가정에 편찬은 임금으로 일할 가정부 자리를 약속하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며칠간 자기가 사는 집으로 데려가 일하게 했다. 새로운 무리의 소녀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자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 설명한다. 때때로 소녀들을 목욕시킨 후 그녀가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첨부되기도 한다. 그녀의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부패한 관료이거나 이상한 성적 취미를 가진 부자들이었다. 일부는 타이, 싱가포르, 심지어는 멀리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구매자들에게 이 소녀들을 넘기기도 했다.²¹⁾

20) Haylip, *op. cit.*, p. 224.

21) *Ibid.*, pp. 223-224.

전쟁의 악랄함 속에서, 억압은 전쟁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차이에 대한 구분과 통찰을 준다. (헤이슬립은 "정기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은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했다"고 설명한다.²²⁾ 매춘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절망적 차이에서 나온다.) 매춘의 세계에서 "군사 시설 근처에 있는 가장 싼 매춘업소는 집 주인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현지 소녀들에게 세를 준 작은 집이다." 거래는 때때로 숲속이나 트럭, 탱크, 골목길에서도 이루어진다.²³⁾ "소녀들 중에 많은 경우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나처럼 강간을 당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다."²⁴⁾ 그 다음 계층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는 매춘부인데, 그들은 마담과 매춘을 위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는 매춘업소의 마담은 매춘사다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전쟁 피해자로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에게 "문제될 게 뭐야? 안 될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서 적군의 매춘 요구에 응해 살아남은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

1972년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1975년 남과 북이 통일을 했을 때 약 50만 명의 베트남 매춘 여성들이 있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매춘 여성들을 미국을 등에 업은 남베트남 '괴뢰' 정권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질서의 피해자로 간주하였고, 전쟁의 종결과 함께 베트남 새 정부가 국가 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병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부 관리들은 강력한 캠페인으로도 성병을 다스리는 데 6~8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²⁵⁾ 매춘 여성의 54퍼센트가 성병에 걸려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의료 검진과 치료를 포함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지방 출신 매춘 여성

22) *Ibid.*, p. 224.

23) *Ibid.*

24) *Ibid.*

25) *Le Monde*, June 2, 1997.

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했으며, 가능한 경우 가족과 재결합했다. 원래부터 도시에 살던 여성과 소녀들은 기숙 학교인 여성재활학교(School to Rehabilitate Women's Dignity)에 보내져서 장사를 배우고, 직업 훈련을 받고, 정치 강좌를 듣고,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비용은 각 도시의 혁명 정부가 냈다.²⁶⁾ 1970년대 말 베트남이 통일되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되자 서구의 일부 인권 단체들은 정치범들, 즉 남쪽에서 미군의 후원을 받던 패망한 공화국 정부의 동조자들에 대한 처형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매춘 여성들과 함께 재교육 센터로 보내졌다. 매춘 여성을 위한 재교육 센터가 실제로 투옥된 정치범을 위한 센터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1979년 비정부 기구인 휴메니타스(Humanitas)의 조사관들에 의해서 매춘 여성들이 정치범처럼 대우받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나는 1991년 1월과 1993년 1월에 베트남을 방문해 전쟁 후의 매매춘 통제와 감소 노력의 성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 호치민 시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 과장인 부이 티 킴 퀴(Bui Thi Kim Quy) 교수의 말에 의하면 종전과 더불어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전시에 매춘을 했던 여성의 3분의 2가 전통 사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난에 직면해 있던 전후 베트남에서 많은 수가 다시 매매춘으로 유입되었다.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주의 정부의 금지령은 매매춘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하에서 포르노 그라피가 사라지고 포주 행위가 통제되었으며 매매춘이 감소했지만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수요를 생산해 냈다.

1986년 '도이모이'(개혁, 베트남식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자유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매매춘은 즉시 증가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경제 상황이 향상되고 소비가 증가하자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몸을 사는

26) "La réhabilitation des anciennes prostituées au Sud Vietnam," *Femmes et Mondes*, no. 36 (Clichy, France, 1997).

데 여유 돈을 썼다. 도이모이 전에 사이공의 매춘 여성은 1만 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내가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나는 그렇게 낮았던 수치가 3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1993년 하노이 여성연구센터의 레 티 퀴(Le Thi Quy) 교수의 연구는, 베트남에 1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이 호치민 시에 있다고 추정했다. 사이공의 매춘부들은 1987년 1만 명에서 1991년 3만 명으로 증가했고, 1993년 현재 5만 명으로 증가했다. 매매춘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매춘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레 티 퀴 교수가 매춘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여성의 75퍼센트가 매춘을 자신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²⁷⁾

1991년 매춘을 위해 베트남 여성을 타이에 팔아넘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인신 매매는 대개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여성이 캄보디아에서도 매춘을 하게 되었다. 1993년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1만 명의 베트남 매춘 여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유엔 평화유지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고 있었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이 전후 몇 년 동안 베트남을 강타한 데다, 미국의 통상 금지 정책으로 더욱 기층을 부린 질병들 때문에 매매춘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지도층은 매매춘을 조장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일을 버리고 다른 이슈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쟁 전이나 전쟁중에도 사회주의 지도층은 여성 운동을 반역적인 일로 간주하였다. 여성을 위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여성 조직으로 여성연맹(Women's Union)이 있지만 당 지도부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에는 시장이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 착취는 금지되었다. 이제 1990년대 베트남

27) Le Thi Quy, "Social Policy on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 Vietnam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에서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 발전 과정에서 여성이 주변화되고 있으며 매매춘도 부활되고 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여성이 도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적 성 산업이 이런 여성들을 사기 위해 노리고 있다. 1993년에 베트남 여성들의 의식 향상은 매춘의 급격한 증가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냈다.(9장 참조)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정부는 여성들을 보호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매매춘을 1993년의 10대 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섹스 관광: 군대에서 비즈니스 시장으로

산업화된 대규모 매매춘은 몇몇 아시아 국가에 주둔했던 외국 군대에 의해 시작되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 온 사업가와 남성 관광객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섹스 관광과 우편 주문 신부 사업은 군대 매춘을 바탕으로 형성된 두 가지 주요 성 산업이다. 남성을 위한 섹스 관광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두 개의 힘, 즉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미국의 아시아 전역에 걸친 대규모 군사적 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제2차 세계대전중과 그 후의 군대 매춘에 이어, 일본 시장에서 매춘 섹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 일본의 섹스 관광은 처음에는 타이완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으로 옮겨갔다. 베트남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미국의 대규모 군사 매춘에 이어,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의 매매춘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생겨났다. 이후로 섹스 관광 사업은 특히 타이와 필리핀에서 발달하고 있다. 1970년 말엽부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섹스 관광 시장은,

28) Walden Bello, "From American Lake to a People's Pacific," in Sandra Pollock Scudervane and Brenda Seolizius, *Let the Good Times Roll: Prostitution and the U.S. Military in Asia* (New York: New Press, 1992), pp. 14-21.

일본인들이 미국인, 유럽인, 오스트레일리아인들과 함께 필리핀과 타이의 섹스 관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이 지역에서 매춘이 형성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여성들의 이농 현상에 있다. 이 여성들은 매춘으로 매매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춘에 눈을 돌린다. 이 문제는 5장에서 다룰 것이다.)

한국

사업가들과 남성 관광객을 위한 섹스 관광이 1970년대 아시아에서 급증했다. 1980년대 타이완의 관광객들은 주로 남성이었다. 1984년 타이완에 여행 온 일본인 관광객의 81.8퍼센트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70퍼센트가 사업가, 세일즈맨, 사무직 노동자였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의 주요 매매춘 시장은, 후아시(Hua Hsi)가의 룡산(Lungshan) 사원 주변에 노점상들이 뿔뿔이 들어선 50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구역이다. 이곳에서 뱀의 피와 술개즙이 남성들에게 정력제로 팔리고 있다. 타이완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 매매에 대항하면서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는 '타이완 무지개 프로젝트'는 1980년에 이 지역 매춘 여성의 40퍼센트 이상이 산악 부족에서 팔려 온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라고 보고했다.

1970년대 초기에 일본 남성들의 섹스 관광 수요는 한국 기생 관광으로 확대되었다.²⁹⁾ 1972년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 사업가들은 타이완 매춘 관광을 남한의 기생 매춘으로 바꾸었다.

현재 한국에는 대략 1만 8천 명의 매춘 여성들이 27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4만 3천 명의 미군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술집과 클럽이

있는 소규모 성 산업 도시들이 다른 지역들에서처럼 군 기지를 둘러싸고 발달한다.

군대 매춘과 이후 섹스 관광에 종사하던 한국 여성의 매춘은 1970년대 말엽과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 범죄 조직이 미국의 마사지업소 매춘을 위해 한국 여성의 인신 매매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1990년에 미국 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미국 범죄 조직(US Syndicates)에 팔아넘길 목적으로 이들과 결혼한 군인들에게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결혼 중개인들을 수사하였다. 미군들은 더러는 속아서 결혼한 경우도 있고, 더러는 본국으로 송환될 때 돈벌이를 위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사기 사업을 벌인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여성들은 이혼당하고 마사지업소에 팔려간다.³¹⁾ 1980년대 중반 맨해튼에서 매춘 단속이 실시된 후 뉴욕의 한국 마사지업소 매춘은 1992년에 맨해튼에서 윈즈로 옮겨갔다.

서구의 사업가와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인을 위한 섹스 관광은 기생 매춘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기생'은 원래 춤추고 노래하거나 손님들 애인처럼 대해주는 독립적인 여성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이제 기생은 매춘 여성이나 회사가 경비를 지원하기도 하는 일본인 사업가와 관광객을 남한으로 끌어들이는 매춘업소 투어를 지칭하게 되었다. "2박 3일간의 공식 여행 비용이 섹스를 포함해서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

야요리 마츠이에 의하면, 1984년 남한에는 8천 명 이상의 기생들이 매춘을 하고 있으며, 2천 명이 등록되어 한 달에 두 번씩 성병 검진을 받고 있고, 서울에만 30개 이상의 기생집이 있다.³²⁾ 야요리는 매춘에 대한 소비자/시장

29) Yayoi Matsui, "Trafficking in Women and Prostitution in Japan," Japan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30) "Trafficking in Women: Prostitution and Sexual Violence: The Situation of Sexual Exploitation in Korea," Korean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3.

31) "Organized Crime in Pennsylvania: A Decade of Change, 1990 Report" (Harrisburg: Pennsylvania Crime Commission, 1990), p. 304.

32) Yayoi Matsui, "Why I Oppose Kisaeng Tours," in Kathleen Barry, Charlotte Bunch, and Shirley Csatley, eds., *International Feminist Networking against Female Sexual Slavery* (New York, 1984), p. 67. Report of the Global Feminist

수요 논리를 통해 자신의 매춘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사무직 노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 "남한에는 여성들이 자신을 남성에게 완전히 바치고자 하는 정신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들의 철저한 서비스를 물리치기 어렵다."³³⁾

김혜원은 기생 관광을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의 사진을 제공했다. 판매의 주력점은 입구를 지키는 제주도의 수호신 돌하르방에서 시작하는 밀을 만하고 이국적인 경험이다. 밀을 만하고 이국적인 것이라면 음식과 술에서부터 숙소와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까지 무엇이든지 팔린다. 여성들은 밤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4시에 도착하여 고객들이 부를 때까지 지하에서 채비를 한다. 20명의 여성들이 자신을 지목해 밤을 같이 보내게 될 10명의 일본 남성들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저녁 식사 때 기생들은 자신을 선택한 일본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 준다. 저녁 식사에는 한국의 전통 춤과 노래가 곁들여진다. 이후 남성들은 여성들을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가라오케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여성들은 다음날 7시 경에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다.³⁴⁾

1973년에 아시아여성연합(Asian Women's Association)은 기생 관광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크리스마스 날 여성 시위대는 "단체 섹스 관광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옥에나 가라. 섹스 짐승들!"이라고 외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남자 관광객들에 맞섰다.³⁵⁾ 그러나 섹스 관광이나 다른 성 산업은 일단 한 지역에서 노출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 당시에 매춘 알선업자들이 상품을 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정부가 관광객들의 달러를 통해 외화 벌이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섹스 관광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여성들과 연대한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그 지역 전체의

Conference, Rotterdam, Netherlands, April 6-15, 1983.

33) Ibid., p. 66.

34) Kim Hae Won, "The Realities of Kisaeng Tourism in Cheju Island," in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Its Causes and Effects* (New Delhi, India: Vahwa Yuvak Kendra, 1988), pp. 147-149.

35) Matsui, "Why I Oppose Kisaeng Tours," p. 71.

지나간 후에 넘쳐나는 매춘 여성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나섰다. 성 산업의 피해자였던 타이 매춘 여성들은 다시 급격한 성 산업 몰락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좀더 장사가 되고 이익이 될 만한 지역으로 거대되기 위한 담보물이 되었다.

경제적 조건과 자유 매춘법으로 인해 독일은 타이 여성 매매의 그럴듯한 표적이 되었다. 후에 네덜란드가 매춘을 합법화하자 필리핀이나 타이,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네덜란드로 여성 매매를 확대시켰다. 1977년의 한 보고서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집단이 타이 소녀들을 1인당 1천 달러에 구입하고, 한 달 빌려주는 데 2,200달러씩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³⁸⁾ 일부는 아무런 계약이나 위장을 통하지 않고 타이에서 독일 매춘업소로 직접 보내졌다. 1977년, 독일 거리에 버려져 있는 젊은 여성을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곳에 갔던 타이의 한 사회 복지사는 당시 1천 명 이상의 타이 여성들이 그곳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고 추정했다.³⁹⁾

1972년에 베트남에서 미군 부대가 철수한 이후, '해외 복무 편사'(Chronicle Foreign Service)를 쓰고 있던 저널리스트 톰 웨버는 타이로 방문해 매춘 지역인 '심야 소녀들의 마을'(Village of Night Girls)에 남겨진 일부 매춘 여성들을 발견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미화 300달러에 농촌 출신의 젊은 처녀"를 제공하겠다는 포주들로 득실거렸다. 암시장의 운영자들은 대부분 미군의 자녀들인 버려진 고아들을 이용해 큰 사업을 벌였다. 고아들은 입양 기관을 통해 팔렸다. 웨버는 방콕의 전형적인 마사지업소에 데리고 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갔던 곳은 1990년대의 마사지업소와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결모습은 전체적으로 화려해 보였다. 입구 안쪽에는 백화점처럼 커다란 진열장

38) Lloyd Shearer, "Intelligence Report," *Parade*, November 11, 1977, p. 12.

39) Brian Eads, "Package Tour That Provide a Wife," reprinted from *London Observer* in *San Francisco Chronicle*, June 9, 1977.

섹스 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고객들을 공개한다는 공식적인 반대와 위협이 있는 후에, 1981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일본 남성의 수는 급격히 감소해 전년도에 비해 3월에는 1만 4,699명에서 1만 1,988명으로, 4월에는 19.7퍼센트, 5월에는 24.6퍼센트 감소했다."⁴⁰⁾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도쿄와 마닐라 간의 운항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운동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이 나라들에서 관광은 여전히 일본과 서구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성 매매는 계속해서 점점 더 수지가 맞는 시장으로 산업을 옮겨갔다.

타이

타이에서 매춘 규모는 강간 사건 추정 건수의 패턴을 따른다. 1993년 현재 타이에는 매춘 여성이 공식적으로 2백만 명 정도 있으며, 경제 발전은 관광으로 벌어들인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매매춘은 매일 매춘 여성을 찾는 45만 명의 타이 남성들과 해마다 섹스 관광을 위해 타이를 방문하는 540만 명의 관광객을 위한 가장 큰 상품이다. 섹스 관광은 타이 관광 산업에서 외화 벌이의 주된 원천이다. 경찰은 1974년에 타이에 약 4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 여성들은 베트남전쟁 동안 휴양(R & R) 중인 미군을 위해 주로 조달되었다. 그러나 섹스 관광과 매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 보건국(Thai Public Health Ministry)은 1992년에 전국적으로 단지 7만 6,863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집계하였다.⁴¹⁾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군대가 철수하기 전까지 성 산업은 타이에서 가장 큰 사업의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판매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었던 타이에서 알선업자들은 미군에 의해서, 미군을 위해서 형성된 성 산업의 붐이

36) *Deftness*, September 17, 1981.

37) *Boston Globe*, November 25, 1991; Lillian S. Robinson, "Touring Thailand's Sex Industry," *Nation*, November 1, 1993, p. 494.

이 있다. 벽에는 붉은 벨벳이 쳐 있었다. 30개의 번쩍거리는 스포트라이트가 상품을 비춘다. 상품이란 거의 200명쯤 되는 소녀들이다. 모두 예쁘게 화장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톱글 신발을 신고 있다. 그들은 한 줄로 의자에 앉아 있어서 소녀 합창단처럼 보였다. 내가 그들 중 누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 명이 지적되었다.

그가 여자를 선택하고 10달러 정도를 지불하자, 어린 여성이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목욕을 한 후 옷을 벗었다. 나는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치앙마이(Chiang Mai) 북동쪽의 농촌에서 자랐다. 그녀가 16살 때, 한 미국인이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선물로 돈을 준 후 그녀를 미군 기지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딸이 태어난 후 '남편'은 미국으로 귀환했고, 떠나기 직전에 그녀를 자신의 친구에게 '줘 버렸다.' 그녀는 그 후 계속해서 여러 남자를 전전했다. 지금은 더 이상 '결혼'할 미국인이 없으며, '심야 소녀들의 마을'에서 살고 있다.⁴⁰⁾

베트남전쟁중에 "방콕에 있던 조직적인 미국 R & R 사무소는 여행사를 경영하는 타이의 장군과 결탁하여 하룻밤에 5달러 이하의 호텔을 알선해 주었다." 이 호텔들은 "새로 조성된 페치버리(Petchburi)가의 마사지업소와 대형 술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⁴¹⁾ 휴가를

40) Tom Weber, *San Francisco Chronicle*, April 20, 1976.

41) Dawson, *Papung: Bangkok's Big Little Street*, p. 40.

받은 군인들이 그 거리를 벗어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지역인 팻퐁에서는 건설 노동자, 기사, 사업가 등이 전쟁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술을 마시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좀더 비싸고 수준 높은 남성들의 주무대였던 팻퐁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나서 매춘과 섹스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9년 팻퐁에서 처음 고고 바가 문을 열었다. 그 후 "1973~79년 사이에 팻퐁의 모든 상점과 사무실이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변했다."⁴²⁾ 성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고 바는 실제 섹스 공연으로 변했고 작은 술집들은 대형 술집으로 확장되었다.

방콕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 저급한 마사지업소에는 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소녀 들은 유리창이나 새장 안에 전시되었다.

소녀들은 인공 조명이 비추고 있는 새장 안에 앉아 있었다. 반대편 바깥쪽에는 의자가 쭉 늘어져 있어서 남자들이 앉아서 선택을 위해 고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떤 곳에는 소녀들이 고객을 볼 수 없게 만든 유리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으나, 가격이 더 싼 곳에서는 어둠만으로도 충분했다. 고객은 블라우스에 꽃혀 있는 번호를 보고 소녀를 선택하여 새장 한 편에 있는 계산대에 정해진 돈을 낸다.⁴³⁾

타이 북쪽에 있는 인구 25만의 도시 치앙마이에는 1991년에 약 3천 명의 매춘 여성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춘업소에서 여성들은 새장 속에 한 줄로 앉아서 선택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색깔별로 정해진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노란색은 4달러, 파란색 8달러, 붉은 색은 12달러, 투명한 것은

42) Ibid., p. 68.

43) Pasuk Phongpaichit, *From Prisoner Girls to Bangkok Masse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82), p. 9.

1993년 초반에 이러한 단속이 실시된 곳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인 남성들이 매춘 관광을 오는 타이의 남부 지방이었다. 1993년 현재 "매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2~3년 전에 비해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 사업을 유지하고 번창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연결을 갖추게 된…… 남부 지역의 매춘업소들은 약 50명의 회원으로 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각자 조합장에게 회비와 매춘부 1명당 250바트에서 700바트 정도의 돈을 낸다. 이렇게 걷힌 돈은 관련자들에게 분배된다. 북부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여성들은 매일 경찰에게 30바트의 벌금을 낸다."⁴⁸⁾ "뇌물을 받지 말자"는 타이의 캠페인은 북부 지방에 있는 노라티바츠 송기 콜롯(Norathiwat's Sungi Kolot) 매춘업소를 급습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는 18세 미만의 고원 부족 매춘 소녀들과 함께 경찰에 준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다.⁴⁹⁾ 이 단속이 있은 후 1992년 12월에 국회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나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과 섹스를 하는 구매자는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⁵⁰⁾

그러나 타이에서 매춘의 86퍼센트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매춘 여성의 2.1퍼센트만이 강제로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다.⁵¹⁾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이에서도 강제 매춘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성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전반적인 매매춘 정상화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힘이 작용한다. ① 여성 매매와 강제 매춘, 그리고 어린이 매매는 성 산업화와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은 성 산업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② 매춘과 성 산업이 타이의 경제 기반을 크게

48) EMPOWER, "The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for Prostitution," Thai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4.

49) *Nation* (Bangkok), January 18, 1993.

50) *Bangkok Post*, December 31, 1992.

51) Joint stud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Population Institute of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Post*, January 3, p. 93.

20달러."⁴⁴⁾

1980년대 초반에 타이의 섹스 산업은 불경기였다. 1981년에는 성병에 대한 두려움과 남자 혼자 가는 여행에 대한 유럽의 비판 여론 때문에 정부는 매매춘을 잠깐 단속했다.⁴⁵⁾ 신시아 엔로에 의하면 "1986년까지 타이는 쌀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의 경제 활동보다 관광을 통해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였다."⁴⁶⁾ 1990년까지 52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이를 방문했다. 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매우 불균형하게도 대개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은 1992년을 여성 관광객 유치의 해로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남성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유인책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방콕에서 열림으로써 좌절됐다. 타이의 여성 단체인 EMPOWER에 의하면, 1993년에 매일 밤 약 50만 명의 남성들이 타이에서 섹스를 샀다.

또한 타이에는 군대 매춘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걸프전이 시작되자 미군 7함대는 타이의 관광지인 수빅과 파타야에 정박했다. 파타야의 경제는 걸프전 동안은 침체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휴가를 받은 군인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되자, 한 술집 주인의 말 그대로 "앞으로 4일 동안 지난 3개월의 침체를 벌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⁴⁷⁾ 소득은 대부분 타이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에 타이에서 에이즈가 크게 증가(7장에서 논의할 것임)하게 되자 버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의 매매가 증가하는 한편, 매매춘에 정부와 경찰이 연루되면서 나타난 부정 부패로 결국 어린이와 '강제적' 매매춘을 단속하게 되었다.

44) Steven Erlanger, "A Plague Awakes," *New York Times Magazine*, July 14, 1991.

45) Linda K. Richter, *The Politics of Tourism in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p. 99.

46) Cynthia Enloe,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anana, Beach, and Bureau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 37.

47) *New York Times*, March 25, 1991.

확장시켜 온 반면, 매매되어 온 외국 여성들로 인해 지역 매매춘은 위협받았는데, 이 외국 여성들은 낮은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 성 산업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 현상은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여성 몸의 시장 판매에서 경쟁을 위해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사온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필리핀

미군의 필리핀 지배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군 지배가 공식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의 군사 기지 협정을 통해서이다. 1992년 피나부투 화산 폭발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잿더미를 쏟아 부었고 수빅만 해군 기지의 일부를 파괴하여, 주저해 왔던 필리핀에서의 미군 철수를 마무리짓게 하였다.

화산 폭발 전에 앙겔레스시는 클라크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2만 5,550명의 미군들에게 유흥을 제공해 주던 술집 거리였다. 1990년 당시 앙겔레스 시에는 1,567개의 술집, 마사지업소, 매춘업소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5,642명의 엔터테이너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미등록된 여자들이 수천 명 있었다. 수빅만의 해군 기지에는 5천 명의 군 요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함대가 보수와 정비를 위해 정박할 경우, 550대의 항공기와 90척의 함선에서 쏟아져 나온 7만 명의 군인들은 올롱가포 시로 몰려들곤 했다. 1989년 올롱가포 시에는 1만 1,600명의 매춘 여성들이 엔터테이너로 등록되어 있었고, 6천여 명의 술집 여자와 허가받지 않은 1만 4천 명의 거리 매춘 여성들과, 5백 개의 고고 바, 마사지업소, 매춘업소들(이 중 10퍼센트의 소유주는 퇴역한 미군이다)이 있었다.⁵²⁾ 신시아 엔로에 "매년 필리핀 여자와 미군 사이에서 태어나는 3만여

52) Virginia Miralao, Celia Carlos, and Aida Fulleros Santos, *Women Entertainers in Angeles and Olongapo: A Survey Report* (Manila: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and KALAYAAN, 1990).

명의 어린이들 중에 1만여 명이 거리의 아이가 되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을 가진 미군들에게 매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낸 바 있다.⁵³⁾ 미군의 필리핀 철수로 술집 여자들은 그들이 낳은 혼혈 자녀들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의료 혜택과 교육 및 양육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올롱가포 시는 오로라 드디오스가 말한 것처럼 "전시에는 번영을 누리고 평화시에는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관광 센터로서만 존재한다."⁵⁴⁾ 매년 2백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올롱가포 시에서 6,600만 달러의 휴가비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 드디오스는 미 해군 함대가 올롱가포 시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 여성들이 매춘부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걸프전이 발발하기 직전, 전쟁 태세를 갖춘 32척의 군함이 2개월간 올롱가포 시에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었다.⁵⁵⁾ 전쟁이 끝나고, 1991년 3월에 5척의 전함을 따라 선원과 해병을 태운 배 6척이 걸프전에서 돌아왔다.⁵⁶⁾ 한꺼번에 7천 명의 미군들이 도착하자, 그곳에 있는 4백 명의 부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⁵⁷⁾

1992년 11월 24일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했고, 이제 그 기지들은 필리핀 관리하에 있다. 거대한 성 산업이 주춤하고 있지만, 군인 구매자들을 사업가로 대체하는 관광 경제의 발전을 통해 성 산업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군사 기지로 전환되면서 "수빅만 기지는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또 다른 수출 가공 지역을 만듦으로써 제2의 홍콩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올롱가포 시의 몇몇 매춘업소들은 "가라오케 술집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타이완인과 일본인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쓰고 있다."⁵⁸⁾

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매매춘은 정상화되었다. 매매춘은 '유흥'(entertainment)으로 여겨지며, 매매춘이 국가 경제를 위해 외화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매매춘을 조장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제7장 법 부분 참조) 1970년대에 필리핀은 외화를 끌어들이는 관광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 조건을 자유화시켰다. 1976~86년 사이에 여행사는 300개에서 491개로 증가했으며, 관광 안내원과 영업 사원들이 1,550명에서 8,120명으로 늘어났다. 마닐라의 '엔터테인먼트'들에게 발급된 건강 증명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1980년에 1,699개의 증명서가 발급된 데 비해, 1986년에는 7,033개가 발급되었다. 관광청에서 관광 인구의 증가를 보고했다. 관광객의 67퍼센트가 미국,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에서 온 남성들이다. 이들 중 72퍼센트는 휴일을 보내려고 필리핀에 온다.⁵⁹⁾

현재 필리핀에는 30만에서 5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⁶⁰⁾ 필리핀 정부는 미군 철수 후 수빅만과 클라크 공군 기지의 전환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성 교육·발전·생산성 연구기구(WEDPRO,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의 1992년 6월 보고서를 무시하여 매춘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거부했다.⁶¹⁾ 전환 계획은 자유 무역 지대와 관광 개발을 요청했다. 술집 여자들은 그 다음에 있을 외국인들의 물결(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나는 양겔

p. 35.

53) Enloe, *op cit.*, p. 87.

54) Aurora Javate DeDios, "Struggl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 Philippine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rotecting Women's Human Rights from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State College, Pennsylvania, April 8-10, 1991, p. 4.

55) Ibid.

56) *Daily Globe* (Manila), 1991.

57) *New York Times*, March 25, 1991.

58) Letter to Kathleen Barry from Aurora DeDios, October 22, 1992.

59) Philippines Development Plan for Women, 1989-92, p. 139.

60) Aurora Javate DeDios,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in a Crisis Situation: The Philippine Case,"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rotecting Women's Human Rights from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State College, Pennsylvania, April 8-10, 1991, p. 5.

61) Lyn Lee, "Alternative Employment, Economic Livelihood,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port by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WEDPRO), Manila, June 1992.

190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4장 성의 산업화 191

레스시의 섹스장사지역 한가운데서 필리핀 관리와 전환 계획에 대해 토론하면서, 양겔레스시가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의 설명을 들었다. 양겔레스시가 해안 도시가 아니어서 해변도 없고 다른 관광 자원도 없음을 알고, 나는 무엇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커다란 카지노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들이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미의 각지에서 단순히 카지노를 위해 찾아오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카지노가 매매춘이나 '유흥업'을 계속하기 위한 은밀한 유인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에야 올롱가포 시와 양겔레스시 당국은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대 매춘 마을이었던 곳의 '자유방임적인' 접근과 모순되게도, 마닐라의 시장은 매춘 '관광 지대'와 마약 거래, 여타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닐라 내의 모든 매춘업소와 섹스 관광 시설의 폐쇄령을 내렸다.⁶²⁾ 시장은 마닐라의 매춘 지역인 에르미타(Ermita)를 사업 지구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마사지업소, 나이트클럽, 술집들, 기타 매춘업소들은 폐쇄되었고, 창문과 문은 판자로 막혔다.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돕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마닐라 시는 여자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들을 위한 아무런 사회적 지원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많은 것을 아우르는 개혁은 술집 여자들의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그들을 사는 남성들뿐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는 사업을 금지시키는 정부, 양쪽 모두에게서 착취당한다.

1992~93년 사이의 필리핀의 매춘 개혁이란 마닐라와 같이 몇몇 지역에서 성 산업을 폐쇄시켜 다른 지역에서 이를 재개발시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매춘 여성들의 복지와 미래, 합법적인 경제적 발전에 대한 철저히 무시는

매매춘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필리핀에서 여자들은 외국인들에게 '갈색 피부를 가진 작은 섹스 기계'라고 선전된다. WEDPRO의 1990년 연구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에는 3등급의 매매춘이 있다. 최하위 계층은 대체로 필리핀의 빈곤한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인 카사(casa)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식품 취급자로 등록되었다. 이들은 매춘업소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을 떠날 수 없고 구매자가 오면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음은 술집 여자로 이들은 정식으로 술집의 종업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월급은 받지 못한다. 이들은 술집에서 살며 남성들에게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그 다음은 거리의 여자로 이들은 포주의 관리를 받는다. 그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매춘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포주에 의존해 살면서 술집 여자들이나 카사 노동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손님을 덜 받거나 더 많은 수당을 포주에게서 받는 등 다소의 이익을 얻는다.⁶³⁾

술과 마약은 매춘의 영향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필리핀의 매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유흥업에 만들어진 술과 마약의 사용으로 응답자의 85퍼센트가 자신들과 같은 여성 접대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73퍼센트는 마약 중독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⁶⁴⁾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 버지니아 미랄라오(Virginia Miralao)와 셀리아 카를로스(Celia Carlos), 아이다 풀러로스 산토스(Aida Fulleros Santos)가 올롱가포 시에서 실시한 조사는, 이곳 매춘 여성들의 43퍼센트가 겨우 10대를 넘었고 3분의 1이 21~25세 사이이며 23퍼센트가 25세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롱가포에서는 매춘의 최하급인 카사(casa)의 89퍼센트가 지방에서 온 이주자들인 반면, 술집과 거리의 여자들은 도시 지역 출신이다. 대다수(70퍼센트)가 6명 이상

62) *Manila Bulletin*, March 31, 1993.

63) Miralao, Carlos, and Santos, *op cit.*, p. 35.

64) Ibid.

192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4장 성의 산업화 193

대가족의 중간 아이들이다. 그들은 가족 부양의 짐을 덜고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 조사는 전형적인 율롱가포의 젊은 매춘 여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대가족의 셋째 아이인 그녀는 가난한 비자얀(Visayan)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이고 어머니는 주부였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있던 그녀는 달콤한 말로 결혼과 가족 문제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는 남자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17살에 결혼, 즉 동거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사악한 '남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아무런 경제 지원도 없고 최소한의 정규 교육 외에는 아무런 직업 훈련도 받지 못한 그녀는 직업을 찾았다. 그러나 직업을 구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녀는 직업을 구하는 동안 아이를 가족에게 맡기기로 했다.⁶⁵⁾

미군 기지 철수 5개월 후인 1993년에 율롱가포 시와 앙겔레스 시를 찾아가 술집 여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여자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인 미군들이 돌아와 그들을 아내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리라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이었다. 시골에서 율롱가포나 앙겔레스로 온 많은 여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군과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춘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다. '술집 요금'을 내고 여자들을 수일간 혹은 수주일간 데려간 미군들은 이들을 여자친구처럼 대했고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했다. 그러나 미군 철수 후 단지 몇 명의 아버지들만이 엽서라도 보냈다. 몇몇은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개는 회신 주소가

65) Ibid.

없어서 그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미국에서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다. 매춘 여성들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춘의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매춘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또 다른 성 산업인 우편 주문 신부의 기반이 된다.

여성 매매: 우편 주문 신부

결혼은 매매춘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매춘 여성은 대개 버림받았거나, 과부이거나, 아내 구타를 피해 다니고 있거나, 리사 매택처럼 가난한 시골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여성들은 결혼, 특히 부유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가난과 매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베트남전쟁 중 "베트남인과 서양인 사이의 결혼이 1965년에는 126쌍, 1968년에는 402쌍, 1971년에는 559쌍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베트남인들끼리의 결혼은 1965년에 96퍼센트에서 1970년에 81퍼센트로 감소하였다."⁶⁶⁾

경제 개발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빈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많은 전통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중매혼과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서양 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의 중매 결혼을 주선해 줌으로써 돈을 벌고 있다.

시리폰 스크로바네크(Siriporn Skrobaneck)는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우편 주문 신부는 부분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매춘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⁶⁷⁾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춘을 계속하기

66) Jamison, *op cit.*, p. 339.

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⁶⁸⁾ 차이는 별로 없다. 우편 주문 신부 산업과 여성 매매는 모두 매춘 여성과 가난한 여성,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 외국인과 결혼할 길을 찾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매매춘의 결과이자 중매혼의 또 다른 형태인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의 산업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수십 년 전에도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여성 매매의 한 부분이었으며, 종종 '위장된 매매'로 불렸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이후부터는 중요한 성 산업이 되었다.

수많은 대행사들은 타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신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수퍼 섹시 관광'에 관한 광고를 유럽의 신문에 실는다. 섹시 관광에서 첫 주는(원한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원하는 여자를 고르면서 보낸다. 둘째 주에는 "관광과 아자수가 둘러싸여 있는 낭만적 해변에서 밀어를 즐기며 최종 선택이 이루어진다. 타이식 권투 시합을 보고, 타이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춤을 본다. 셋째 주에는 관광 진행자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소유물을 출국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할 것이다." 가격은 1,500~3,000달러이다.⁶⁹⁾

다른 보고서는 일부 대행사들이 돈을 받고도 상품을 배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의 한 신문 광고에는 3주간의 타이 여행과 신부를 3천 달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관광 진행자는 돈을 챙기고 결혼식을 준비해 놓고는, '신부'를 나중에 보내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 이와 비슷하게 1975년에 홍콩에서 100명 이상의 남성들이 타이 출신 신부를 샀는데(어떤 이들은 1천 달러를 지불했다) 여자들이 결혼식을 한 후에 사라져 버렸다고 당국에

호소했다.⁷⁰⁾

타이의 섹스-결혼 관광은 유럽의 남성 잡지에 광고된다. 1979년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인 크나이트 프라이덴룬드(Knyr Frydenlund)는 타이 정부에 이런 관광을 중단하라는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 외무부 장관은 매매춘과 그 중개 행위, 그리고 노예 매매는 인권과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국제대회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⁷¹⁾ 1987년에 섹스 관광 대행사가 여성주의 조직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법적 소송이 벌어졌을 때, 타이의 시리폰 스크로바네크는 노르웨이 여성전선과 연대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매춘을 여성 착취와 여성 억압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여성 억압이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산업화된 서구 산업 국가의 거대한 관광 산업에 의해 유지될 때, 불림없이 인종 차별적 요소가 성 차별주의에 더해진다.⁷²⁾

독일의 한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의 안내 책자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들은 일상적이고 판에 박힌 독일인의 회색과 달리 검고 매끄러운 머릿결과 말레이 반도의 매혹적인 아몬드형의 눈을 가진 눈에 띄게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어 먹이가 되어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민속학자와 여행가, 사진 작가, 패션디자이너들은 우아하고 늘씬하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자태와 거무스레한 얼굴을 한 필리핀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탐나는 여자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그런 피조물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67) Siriporn Skrobaneck, "In Pursuit of an Illusion: Thai Women in Europe," *South East Asia Chronicle* 96, pp. 7-13.

68) Thanh-Dam Truong,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Asia* (London: Zed, 1990), p. 187.

69) Ibid., *op cit.*

70) *San Francisco Chronicle*, December 8, 1975.

71) *New Women's Times*, January 5-18, 1979.

72) Siriporn Skrobaneck, "Voices of Thai Women," April 1990.

외모가 지속되는 한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이 독일 남성들을 유혹하지 못할 경우에 안내 책자는 계속해서 "필리핀 여성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며, 사랑에 빠지면 침대에서나 식탁에서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1993년까지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어떤 대행사는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다른 대행사들은 필리핀, 타이, 그리고 최근에는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로도 신부가 매매되어 2만 건의 필리핀 여성과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의 결혼이 성사되었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의 84퍼센트, 타이에서 온 사람들의 83퍼센트가 여성이었다.⁷³⁾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제공된다. 이 남성들의 성 차별적 꿈은 인종 차별적이다. 아시아 여자를 신부로 사들임으로써 '해방된' 서구 여성들을 대신할 대안을 갖게 된다는 믿음이다. 이 산업은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할 뿐 아니라, 여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독립적인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남성들을 존속시킨다. 신부를 사는 남성들의 시장이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성을 사는 남성은 단지 가련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1984년에 미국 남성들은 "직업 갖기를 원치 않고, 바깥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술모 있고, 내 주위에서만 맴돌며 사는 그런 신부를 원해요 그리고 참, 그녀는 처녀여야 하죠"라는 말로 필리핀 신부를 사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6천 달러를 지불했다.⁷⁴⁾ 1970년대 중반~

73) Chae Garcia, "A Report on Australia," Australian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5.

1980년대 중반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체는 12개 남짓에서 5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로 그 숫자는 추정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은 가사 노동자와 엔터테이너로 일하기 위한 여성들의 이민이 포함되어 있는 이민/위장 매매의 한 형태이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의 비율은 4,043건에서 7,759건으로 94퍼센트 증가하였다.⁷⁵⁾ 1989년에 우편 주문을 통해 7,759명의 여성들이 필리핀을 떠났으며, 1988년 이후 94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민 당국은 편의상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한 이러한 관행을 모르는 채한다. 편의상 이러한 관행을 쉽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이민국은 약혼 비자를 제공한다. 약혼 비자는 남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안에 미래의 신부를 만났던 경우면 발급된다. 약혼 비자가 발급되려면 적게는 3달이 걸리고, 한 번 발급되면 여성은 약혼자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나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으면 90일이 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제도는 남성들에게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혼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여자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 상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그들의 고객에게 여자를 그녀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도 다른 약혼 비자로 다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바쁘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 내가 전국여성협회(NOW)의 마리 호세 레갑과 함께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와 그 구매자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던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한 남자는 네 명의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자랑하였다.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간단히 여자를 내쫓았다.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여성 매매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가사

74)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5, 1984.

75) DeDion, "Struggl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 Philippine Perspective," p. 125.

노동과 성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성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매매춘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우편 주문 신부 중 적지 않은 사례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매춘부가 되었다. 걸프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하렘에 있음을 발견한다. 1984년에 필리핀의 한 전문직 여성은 캘리포니아의 발치로사의 아내로 미국에 도착한 후,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1년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남성은 이미 자신이 사들인 필리핀 신부가 있는데도 타이 신부를 또 얻고 나서 중혼죄로 조사를 받았다. 우편 주문 신부 구입으로 초래된 마치 하렘과 같은 상황은 타이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구매자(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다고 고소함으로써 드러났다.⁷⁶⁾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러시아와 그 외의 국가들로 해체되자마자,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를 통한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의 매매가 시작되어 급증했다. 1993년 북미의 남성과 라틴아메리카의 여성들을 연결하는 일을 4년 반 이상 했던 라틴유로 소개사(LatinEuro Introduction)는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으로 눈을 돌렸다.

스칸나(Scanna)는 러시아 여성 2만 명의 명단을 광고하는 대행사를 통해 5천 명의 미국 남성들이 러시아 신부를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러 중매사(American Russian Matchmaking)는 열성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미국의 대행사이다. 이 대행사는 1992년 35달러를 받고 남성 구매자들에게 12명의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제공하였다. 여성들은 프로필에 올라가기 위해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인 80달러를 내야 한다. 이 프로필에는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몸매 치수(가슴, 허리, 엉덩이)와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들어 있다.⁷⁷⁾ 구매자는 3명의 여성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4천~5

76) Bangkok Post, January 2, 1991.

77) Washington Post, January 2, 1991.

천 달러가 드는 2주간의 러시아 여행을 떠난다. 대행사는 그가 최종 선택한 한 명의 여자를 위해 비자를 준비한다. 결혼이 48시간 내에 성사되면 결혼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2년 유효의 조건부 비자가 발급된다. 결혼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녀는 추방당한다. 이것은 자신을 산 '남편'을 안 지 며칠 되지 않은 여성이 구매된 신부로서 남편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국여성협회의 국제부장인 마리 호세 레갑은, 결혼 시장에서의 외국인 배우자, 결혼 매매의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상 조건부 노예의 지위를 완화하는 미국 법이 최근 통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결혼을 파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가면 법원은 그녀의 비자에서 그 '조건'을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결혼 대행사를 통해 모집되고 즉석에서 이루어진 매매 결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1993년 여성폭력방지법'은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이민 자격을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들을 비자가 필요없는 네덜란드로 매매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다. 로테르담의 경찰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여성의 몸을 새롭게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 수요에서의 변화, 즉 전에는 가질 수 없던 것들을 사고자 하는 남성의 욕구 변화 때문에 아시아 여성 신부나 매춘 여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⁷⁸⁾

우편 주문 신부 판매를 구매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이 관행은 여성을 부모의 법적 소유물로 간주하며, 처분할 수 있고 남편의 법적 소유물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중매혼 관행(오늘날 세계의 여러 사회에 있는 관행이며 19세기 서구에 만연되어 있던 관행)에 토대를 두고 있다.

78) Guido de Bruin, Interpress service feature, appearing on Women's Studies List, BITNET, June 20, 1992.

우편 주문 신부를 구입한 남성은 인간을 사는 것이다. 결혼이나 약혼은 국경을 넘은 여성 매매를 보다 쉽게 만들 뿐이다. 여성은 심한 향수병에 시달리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많은 경우 '결혼'에 실망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만족한 구입자 한 명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 "그녀는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붓고 내 손톱을 정리해 주고, 매일 샤워를 시켜 주고, 밤마다 마사지를 해주고, 구두를 닦아 주고 옷을 벗기자마자 걸어 놓죠. 그녀는 대행사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돈을 지불한 만한 가치가 있어요" 79)

일부 '남성의 권리' 운동들은 독립적인 서구 여성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남성권리연대의 뉴스 잡지(Men's Rights Unity News Magazine)인 『해방자』(Liberator)가 1991년 발행한 소식지는 "미국 여자들여,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우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젊고 순진한 온두라스의 소녀들"을 광고하고 있다. 80) 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아시아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행들을 폭로하는 아시아 여성주의 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에 관해 좀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이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극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민 압력이 강하고,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일부 아시아 조직들은 소수의 여성들이나 위업을 감수하면 삶이 향상될 수도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형태의 여성 매매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소수의 여성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적·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상황으로 팔려가고 매춘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에 의해 상쇄된다. 결국 결혼을 위해서든 매춘을 위해서든 둘 다를 위해서든, 인간 매매는 근본적인 인권 파괴 행위이다. 이러한 맥락을 놓치고 성 착취를 정상화할 때, 여성을 소유물로 양도하는

것은 비공식적 '개발'이라는 접근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가정에 기반한다. 그 가정이란 ① 여성의 독립에 대한 남성의 반대와 ② 여성을 판매할 수 있는 재화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매매가 바로 우편 주문 신부라고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필리핀에서 시행된 새로운 법에 의해서였다.

법령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우편 주문을 통해 결혼을 중매하는 관행과 브로셔, 전단, 기타 선전 문건의 광고, 출판, 배포를 포함하는 유사한 관행들을 위법으로 공표하고 벌금을 부과한다.(저자 강조)

이 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성들이 아내로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법의 시행은 물론이고 이민국의 감독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강력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는 비난이 필리핀 여성 단체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범죄(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범죄이다)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관행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사회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리핀 여성들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착취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81)

79) John Krich, "The blossoming Business of Imported Love: Here Come the Brides," *Ms. Magazine* (Feb.-March 1986), p. 37.

80) *Liberator*, November 1991, 5.

81)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ection 1, Republic Act. No. 6955.

서구 성 산업의 전개

선진 산업 국가에서 성 산업은 발전했으며, 패키지화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 가능하게 된 새로운 시장을 준비했다. 내가 썼다시피,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고수하는 동안 시장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섹스 관광 업체들과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베트남 정부가 시장 세력화를 향한 산업화 노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자,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베트남을 들락날락하면서 조만간 개방될 이 새로운 시장(베트남)을 착취할 태세를 갖추었다.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었던 성 산업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동유럽의 공산 정권 붕괴로 만들어진 시장을 인수하였다. 구 소련에서 소비에트 마피아는 방문 사업가들에게 밤에 매춘부를 제공하는 호텔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를 세내었다고 한다. 82)

폴란드는 심지어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이전부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폴란드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8년이었으며, 이는 공산당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가 운영하는 통신사에 의해 배포되었다. 83) 부다페스트에서는 1990년 6월에 처음으로 스트립쇼가 공연되었다. 1989년에 검열법이 폐지되어 하드코어 포르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구로부터 수입되던 포르노그래피가 거의 즉각적으로 국내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한편 낙태를 제한하려는 계획은 추진중에 있었다. 84)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은 어린이를 착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했다. 기민당의 한

관리는 "포르노그래피는 민주주의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85) 헝가리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9년에 헝가리에서 실시되었던 여론 조사에서 75퍼센트가 매춘의 합법화에 찬성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정부의 허가 아래 성 산업이 운영되고 있던 서독으로부터 여성 매매업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독에서 매춘은 서양 방문객(이들은 때때로 첩보의 원천이었다)을 위해 운영되던 국영 호텔 몇 군데만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었다. 86) 라이프치히(Leipzig)는 시장 개방을 위해 서독에서 몰려든 사업가들에게 매춘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 주택 구역을 세운 서독의 포르노그래피업자와 알선업자로 넘겨졌다. 87)

성 산업과 조직 범죄, 서유럽의 알선업자들이 동유럽의 여성과 소녀들의 가난 위에서 번성할 때, 서구의 방송 매체는 구 공산주의 국가에서 매춘의 확산을 흔히 금지주의 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자 사치품 소비가 불균형적으로 증가했다. 만일 수입이 x만큼 증가했다면, 매춘과 같은 품목에 대한 지출은 불균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처음에는 사치품을 사는 데 소득을 쓰고 그 다음에는 재빠르게 개인적 만족과 권력을 위해 여성을 사는 데 돈을 쓴다.

산업화된 성 착취

역사적으로 매춘의 확대는 급격한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

82) *Los Angeles Times*, November 12, 1991.

83) *San Francisco Chronicle*, July 2, 1988.

84) *Atlanta Journal Constitution*, July 12, 1990.

85) *New York Times*, May 12, 1990.

86) *New York Times*, June 13, 1991.

87) *New York Times*, May 12, 1990.

있다. 산업화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 경제로 밀려들어 시장의 변동을 만들어 내는 노동력의 파잉 공급과 함께 전형적으로 대규모의 이농 현상을 야기시킨다.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시장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임금 노동으로부터 주변화된다. 일부 여성들이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노동력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때, 그들 대부분은 저임금의 하층은 직업에 배치되며 그 결과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된다. <산업 노동력은 전(前)산업 사회의 여성 격리(노동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과 가족의 사적 영역에의 귀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는 빈곤의 성별 구조를 영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EFZ)은 외국 기업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 내에 만들어진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주최국은 저비용으로 집중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원료와 자본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기료와 주택 임대료, 세금 삭감 혜택도 받는다.⁸⁸⁾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주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출 자유 지역은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력이 싸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모집한다. 수출 자유 지역은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라진다.

이농 과정에서 소녀와 여성들은 수출 자유 지역의 생산을 위해 모집되며, 이들의 노동력은 생산과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과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 지역이 여성들에게 시골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웬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을 주지는 않는다. 알선업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매매춘의 정상화는 타이에서 내국인 구매자들

88) Katherine Matton, *Multinationals,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1986), p. 42.

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했다. 약 75퍼센트의 타이 남성들이 매춘 여성과 섹스를 한 적이 있다.⁸⁹⁾ 타이의 성 산업은 충분히 발전하여 제조업 임금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여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을 사들여 매춘에 종사하게 만들 수 있다. 1990년에 하루에 8~12시간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40~80달러인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마사지업소의 매춘 여성은 한 달에 200~320달러를 번다. 비숙련 고용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하루에 12~18시간 일하는 가사 노동자는 한 달에 12~20달러를 버는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삼류 매춘 여성은 한 달에 40~80달러를 번다.⁹⁰⁾

매춘 여성에 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는 매춘이 어느 정도로 경제 발전의 수단이 되는가가 드러났다.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고향인 타이 북서 지방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계 부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모든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집에 돈을 부쳤다. 약 25퍼센트가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족에게 말했다고 한다.⁹¹⁾ "소녀들 중 8명이 이미 부모를 위해 고향에 집을 지어 드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소녀들은 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 소녀는 집을 두 채 지었다. 하나는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2년 안에 은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상실을 열기 위해 여전히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린다."⁹²⁾

<전통적으로 매매춘은 우선적으로 남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89) Hein Hsin Pyne, "AIDS and Prostitution in Thailand: Case Study of Burmese Prostitution in Ranong," *Their* May 1992.

90) Marnaimojdara Rattin, "Prostitu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in Thailand: A Case Study of Alternatives in A Chiangmai Village in Northern Thailand,"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of Women in Development Conference, Washington, D.C., November 1989, p. 3.

91) Phongpaichit, *op. cit.*, p. 22.

92) *Ibid.*, p. 24.

개발 계획에 의해 산업화가 시작된 후에 확산된다>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여성이 더 나은 직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매매춘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타이와 같은 신흥 개발도상 국가에서 매매춘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⁹³⁾ 다시 말하면 매매춘은 산업화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매매춘도 산업화된다. 다국적 성 산업 기업은 자율적인 경제 세력이 되었다.

전형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설명, 즉 '남성 구매자'(the customer john), '그 짓'(trick)과 같은 말은 여성의 몸 위에 세워진 것이다. 수세대에 걸쳐서(수백 년이 아니라면) 매매춘의 원인과 결과는 여성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없는 매매춘은 있을 수 없듯이, 상품에 대한 소비가 없는 성의 산업화란 있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매매춘 시장은 외국 남성들(기지에 주문해 있거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 군대 매춘이 번성할 때와 그 이후에 섹스 관광을 지속시키는 사업가들, 섹스 관광을 즐기러 오는 남성 관광객)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성에 대한 성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내국인 남성들에 의해 다국적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군대 매춘과 섹스 관광, 대규모 지역 매매춘의 증가와 함께 성 산업, 다국적 기업은 국제 시장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섹스를 위해 여성의 몸을 매매하는 국제 매춘 시장은 조직 범죄에 의해 영속화되고, 여행사, 호텔 체인점, 항공사, 국제적 매매업자를 통해 작동한다. 매매춘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매매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익을 만들어 내는 물적 기반을 확립해 가면서 매매춘은 결국 개발도상국의 내국인 남성에 의해 유지된다>

93) Bangkok Post, January 1991.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이농 현상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전환과 함께 국가, 지역 사회, 가족 경제는 섹스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발 경제의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춘 산업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매매춘의 합법화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 매매춘과 성 산업이 합법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서구, 특히 유럽 국가의 모델들은 합법화를 조장하는 데 기여한다. <합법화는 문자 그대로 비참한 환경에 놓인 여성을 매춘에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다. 여성이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식적 영역에서 사회적 실체, 즉 법적 실체로 드러나야 한다. 매매춘은 여성을 경제적·법적 계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매매춘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산업 노동력 사이에서 여성들을 싸게 팔아치우는 토대이다.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덜고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매매춘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춘을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안에서 여성은 주변화되고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그러나 매매춘의 사회적 생산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여성은 (선택하건 않건) 주변화되고 매춘에 귀속된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계급으로서의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조건을 보장받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엄한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매매춘이 여성의 인권을 저당잡고 있다.

경제가 국제화되고 여성 종속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세
슈얼리티 매춘화의 근본이 되는 만큼, 성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은 전지구
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지배가 절망을 만들어 낼 때 자유를 위한
투쟁은 희망의 행동이 된다. 희망은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산산이 부서
뜨리는데, 성 착취와 특히 그 중에서도 매매춘에 관한 확신을 산산조각 낸다.
내가 이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던(심지어 어떤 때는 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데도)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지배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
고 그 신념에 따라 여성 종속의 실재를 정치적 투쟁과 여성들을 위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 의한) 개인적 치료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내 낙관주의의 근원이다. 성 착취의 잔혹한 현실을
초월하는 희망의 근원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지는 여성들의 활동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 희망은 몇몇 지역에서 성 착취를 폭행이라고 말하기를 거부
하면서 이것을 영속시키는 사람들의 강력한 절망의 장벽을 부수는 단결된
페미니스트 집단의 하나된 목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망의 목소리는 다양
하다. 하지만 그들은 단일한 소리만을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전지구
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 착취를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들

경제가 국제화되고 여성 종속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세
슈얼리티 매춘화의 근본이 되는 만큼, 성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은 전지구
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지배가 절망을 만들어 낼 때 자유를 위한
투쟁은 희망의 행동이 된다. 희망은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산산이 부서
뜨리는데, 성 착취와 특히 그 중에서도 매매춘에 관한 확신을 산산조각 낸다.
내가 이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던(심지어 어떤 때는 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데도)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지배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
고 그 신념에 따라 여성 종속의 실재를 정치적 투쟁과 여성들을 위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 의한) 개인적 치료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내 낙관주의의 근원이다. 성 착취의 잔혹한 현실을
초월하는 희망의 근원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지는 여성들의 활동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 희망은 몇몇 지역에서 성 착취를 폭행이라고 말하기를 거부
하면서 이것을 영속시키는 사람들의 강력한 절망의 장벽을 부수는 단결된
페미니스트 집단의 하나된 목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망의 목소리는 다양
하다. 하지만 그들은 단일한 소리만을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전지구
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 착취를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들

9장 인권과 전지구적인 여성주의 행동

경제가 국제화되고 여성 종속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세
슈얼리티 매춘화의 근본이 되는 만큼, 성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은 전지구
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지배가 절망을 만들어 낼 때 자유를 위한
투쟁은 희망의 행동이 된다. 희망은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산산이 부서
뜨리는데, 성 착취와 특히 그 중에서도 매매춘에 관한 확신을 산산조각 낸다.
내가 이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던(심지어 어떤 때는 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데도)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지배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
고 그 신념에 따라 여성 종속의 실재를 정치적 투쟁과 여성들을 위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 의한) 개인적 치료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내 낙관주의의 근원이다. 성 착취의 잔혹한 현실을
초월하는 희망의 근원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지는 여성들의 활동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 희망은 몇몇 지역에서 성 착취를 폭행이라고 말하기를 거부
하면서 이것을 영속시키는 사람들의 강력한 절망의 장벽을 부수는 단결된
페미니스트 집단의 하나된 목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망의 목소리는 다양
하다. 하지만 그들은 단일한 소리만을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전지구
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 착취를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들

의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 이들은 매매춘에서 시작하여 성 착취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전세제가 성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꿈 같은 인식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전지구적 페미니즘의 기본 토대이다.

서구와 제3세계 여성들은 때로 임시적인 방식으로나마 남성들이 지배를 위해 여성들이 서로 싸우도록 대립시킨 가부장적 분리를 초월하여 공동 투쟁의 기초를 찾는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과 문화 그리고 각 나라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종속에 대항하는 투쟁과 지배를 이해할 때, 성 착취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여성주의 행동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진정한 국제적 투쟁이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 착취에 대항하는 집단적 행동을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고, 듣고, 배우고, 연대를 만드는 것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의무이다.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성적·경제적 해계모니를 통한 국제적인 여성의 산업화에 대항하기 위해 전지구적인 투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서구의 지배는 남성 군인, 관광객, 사업가, 외교관 그리고 정부 관료에 의해 수행되고 여성에 대한 성 착취, 특히 매춘에서 성 착취를 영속시킨다.

국제적 페미니즘은 이제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전지구적 억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고 그것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저지당하는 곳, 특히 여성이 성 착취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데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곳에서, 전지구적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억압에 의해 매장될 수도 있는 이슈들에 국제적으로 존재성을 부여하고 있다.

망각의 침묵

페미니즘이 섹스에 대해서 말하고, 여성을 비인간화하는 섹스의 사회 정치

적 구조에 대해 말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잇따른 전문가 모임과 회의에서 나는 섹스 그 자체가 착취적이고 해롭고 파괴적일 때 섹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이 문제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직면해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 1991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섹슈얼리티의 정치학'이라는 회의를 조직하였을 때, 나는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섹스 그 자체가 토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폭력으로서의 섹스는 토론되었다. 하지만 섹스 그 자체, 즉 여성성 안에서 체화되는 동시에 성 경험에서 일어나는 여성 종속의 조건은 심지어 이것을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데 가장 공헌하고 있다는 여성주의적인 맥락에서조차 침묵당하고 있었다. 섹스에 폭력을 덧붙이는 것은 성 착취를 말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은 성 착취의 조건을 생산하는 성적 권력 관계, 즉 성적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사실상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조직화에 힘쓴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매춘에서 항상 전제되는 것처럼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섹스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과 언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그녀의 저서 『성교』(Intercourse)에서 이 영역의 기본 토대를 부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¹⁾

섹스 그 자체가 착취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침묵은 결혼 내의 섹스라는 개인화된 조건에서 시작하여 매매춘의 공식적 정상화로 확대되는데, 특히 서구에서 이런 경향을 보인다. 매매춘의 정상화는 여성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자아가, 몸이,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팽창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입힌 어떤 행동이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포르노그래피의 조장과 매매춘의 합법화는 여성의

1) 성 착취로서의 섹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Andrea Dworkin, Intercourse (New York: Free Press, 1987)를 보라. (한국어판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여자』, 문학관, 1990. — 옮김.)

망각을 유지시키고 성적 권력 관계를 정치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들이 미처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기도 전에 그들의 '보호자'인 남성 어른들에 의해 성애화된,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인간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 속에 담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근친 성 학대의 피해자인 여성 인구를 생각해 보자. 만약에 아무도 그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어느 누구도, 어떤 소녀도 이런 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성애화된 사회 속에 묻혀 있는 그 기억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포르노그래피를 조장하고 매매춘을 옹호하거나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섹스를 착취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이 여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삼촌, 아버지, 양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성애화되었던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아마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상화된 섹스를 추구하고, 반대적인 섹스를 조장하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여성의, 하지만 드물게는 자신 스스로의) 매춘을 장려하고, 포르노그래피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여성들이 있기도 하다. 권력의 가부장적 관계라는 조건하에서, 그들이 마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들이 그들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 작업이 학계의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점열당해 왔는지 더 이상 셀 수조차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감히 그들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중에 내게 개인적으로 드러냈지만 결코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또는 결혼 내에서도 애인에게서 겪은 성 학대의 경험은 침묵되고, 감히 이러한 침묵을 깨는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점열을 부추긴다.

여성들의 성 착취 사실은 억압자들의 잘 알려진 전략인 '분리와 정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개인적인, 침묵되고 이야기되지 않은, 때로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때로는 분열된 성적 경험 속에서 소녀들과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요구에 속박되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그들의 이름 없는 억압자, 확인되지 않은 폭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적대적이 되게 한다.

몇몇 아주 소수의(병산의 일각일 뿐인) 여성들은 기억하기 시작한다. 보다 적은 수이지만 몇몇은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폭로하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살려 내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폭력의 지옥을 통과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이 때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하는 용기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과거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이러한 기억하기와 투쟁, 기억 속에서 섹스를 성 착취로 명명한 결과로 우리 여성주의 운동은 거대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성적 권력 관계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적 권력 관계는 여성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 침해를 영속화시키는 억압이다.

성 착취는 우리 몸 안에서 그리고 몸 위에서 일어나고, 이것의 가혹함은 사물화를 통해 인간의 통합성을 축소시키고 인간 기억에조차 남아 있지 못할 정도로 '몸을 벗어난' 경험을 만들면서 자아를 파편화시킨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폭력에 목소리와 말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배의 개별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정신적 충격의 결과 그 이상이다. 이름 붙이지 못한다는 것, 때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종속된 채 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며 결과적으로 비인간화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섹스를 인간 경험의 일부에서 억압적 성 정치학의 초석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전이에서 중요한 점은 일회용 계급의 여성들, 즉 착취적인 섹스를 하고 이러한 섹스의 정당화로 상징되는 매춘 여성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형태의 성 착취에도 폭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다. 하지만 폭력은 오직 억압의 한 측면일 뿐이며, 폭력 하나만을 반대하는 것은 해방 운동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폭력은 페미니즘을 재편성된 성 착취 안에 머무르게 하고, 매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사고를 유지시킨다. 성 착취를 폭력으로 만드는 조건으로서 힘을 강조하는 것은 성적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제를 통하지 않고 매춘에 유입되어 깊은 상처를 입은 수백만의 여성들을 침묵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성 착취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성 착취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 착취 희생자들을 침묵시킨다.

기억하기, 치료하기, 의식화

만약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여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여성들은 반드시 충분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의 인권 향유를 방해하는 성 상품화와 여타의 성 착취가 개인들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폭로되어야 하며 맞서서 극복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중후군과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개인적 치료와 집단적 투쟁에서 여성주의 의식화의 효과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성적 박탈로부터 여성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이다. 여성주의 의식은 비판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투쟁 모두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지배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저항을 유지시키고, 혁명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을 창조한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착취를 넘어서 삶의 가능성을 알아 가는 열쇠이다.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화에 기반한 개인 치료는 성 착취,

특히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반대와 함께 시작된다. 수년에 걸친 성적 테러뿐 아니라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여성의 조건과 난민 여성의 경험처럼 폭력이 다층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의식이 성적 권력의 자각을 지연시키며 정치적 고문으로부터 안전의 추구는 안전이 성적/신체적으로 통합된 개인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인식에 앞선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인 여성이 성 착취를 겪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그들은 자신이 성적 종속과 타협하는 것보다 자녀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착취당하면서 가장 나중에 치료받는 존재이다.

개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몇몇 여성들을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로 이끌 수 있을지라도, 나는 '의식화'처럼 성적 종속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개인적 치료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를 통해 부과된 고립을 깨면서 집단적인 투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해악을 낳는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해 먼저 '알지' 못한다면, 성 착취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을 단지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성 권력에 대해 아는 것은 성 착취를 거부하고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항하고, 남성 지배의 근원에 도전하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투쟁의 외부에서 기억하고 아는 것은 여성을 가해자에게서 보호자에게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여성은 결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은 개인적 치료와 정치적 투쟁 둘 다에서 중요하다. 아는 것은 올바른 정치적 분석을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분한 지식은 상처에 직면하고 고통의 근원에 맞서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배의 유산은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거나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다른 여성에게 적대감이나 화를 돌리거나 원초적인 해악에서 발생한 자기 혐오를 계속하는 형태로 다른 인간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성주의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그것이 직면하는 한계를 입증하기 위해 나는 스웨덴의 매매춘운동집단(Prostitution Group), 미국의 매춘대안협회, 필리핀의 부클로드(Buklod)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 부클로드는 '유대'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필리핀의 술집 여성들이 그들을 함께 모이게 했던 세미나에 붙인 이름이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자아를 주장하고, 여성을 치료하기 위한 토대를 의식화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약 50만 명 규모의 도시인 스웨덴의 괴테부르크(Göteborg)에 있는 매매춘운동집단은 4명의 사회 복지사(2명은 여성, 2명은 남성)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매일 저녁 매춘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함께 마시거나 자신들의 활동에 참여하라고 매춘 여성들을 초대한다. 이곳의 사회 복지사들은 1만 5천~2만 5천 명의 매춘 구매자가 있는 도시에서 1년에 350~500명의 매춘 여성들을 만난다. 1982년에 이 계획이 시작된 이래 줄곧 일해 왔던 엘리자벳 페터슨(Elisabet Pettersson)이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과 함께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이에요 착하기도 하구요 너무나 착해서 그들은 손님들에게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한 여성이 거리를 떠나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여성은 특정한 사회 복지사와 작업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여성들을 돌보겠다는 특별한 감정을 가진 집단의 일원이다. 매매춘운동집단은 사회 복지사가 매춘 여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 복지사는 상담은 물론 직업 훈련과 사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활동에 관여한다.

미성년 소녀들은(스웨덴에서는 20세 미만)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매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매매춘운동집단은 소녀들을 매춘에서 떼내오기 위해 이 권위를 이용하는데, 심지어 처음에 소녀들이 떠나기를 주저할 때도 이들은 강제를 사용한다. 엘리자벳이 보고하였듯이, 매매춘운동집단에서 나온 사람은 그 십대 소녀들에게 '안 돼'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 소녀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던 가족이나 어느 누구도 "안 돼, 넌 그걸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던 곳 출신인 경우가 많다.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보살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이 소녀들을 매춘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울롱가포의 부클로드 세미나는 술집에 나가는 여성들을 위해 열린다. 세미나는 술집 주인이나 '파파상'(papa-sans)이 그들의 존재 조건을 지시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여성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부클로드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술집 여성과 전직 매춘부들은 내게 자신들이 처음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술집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에 그저 "네"라고만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미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그들은 조금씩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기 시작했고, 술집에서 그들이 기꺼이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가난이 허용하는 객관적인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이 모임의 코디네이터인 에멜라 카바용(Emela Cabayon)이 설명했듯이, 부클로드 세미나는 기억하기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의 '인생의 강'을 만들도록 항상 요구하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술집에서 일하다가 부클로드에 온 펄린(Pearline)은 세미나에 나오면 "당신은 술집에서 일하던 과거를 단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이 세미나에서 그들의 삶을

2)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의 회원이자 필리핀에 5년 이상 살면서 울롱가포의 술집 여성들과 함께 활동해 온 브렌다 스콜루프스(Brenda Scollup)가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조직하였다.

함께 탐구할 때,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들에 대해 기억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술집에서 일하기 전의 시절을 되돌아보며 많은 눈물을 흘린다. 어릴 적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근친 성 학대의 공포스러운 얘기도 나오게 된다. 필린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왜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과거를 연결시키고, 기억하고, 얘기하고, 울고, 농담하는 것은 모두 동시에 이뤄지며 그와 함께 치료가 시작된다. "치료는 과정 안에 있다"고 에멜라는 말한다. 왜냐하면 필린이 말했듯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세미나가 있고, 50~75명 정도의 여성들이 각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부는 새로운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계속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종의 공동체 조직화가 그곳에서 이뤄지며, 여성들이 긴장을 풀고 농담하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술집에서 그들의 상호 관계는 변하기 시작한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치료 과정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부클로드 모임에서 술집으로 돌아간다. 부클로드는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작업들은 아직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부클로드 세미나 참석 후 무언가가 변화한다. 의식화는 무언가를 취재어 놓고, 여성들은 매춘을 넘어서는 관계와 삶, 시간 속에 역사를 가진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해 술집 생활에서의 대상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들은 매춘이 만들어 낸 모습이 그들 모습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록 비참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가끔 몇몇 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싫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파파상이 나한테 바닥을 닦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죠?' 하고 대답했죠."

파파상은 나한테 무척 화를 냈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 한 여성은 새해 전날 술집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날은 쉬어야 하는 날이라구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는, 즉 자신이 '휴식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때는 일어날 수조차 없던 결정이자 선택이며 자기 지향적 행동이다.

술집 지배인들은 여자들의 그러한 사나움에 익숙하지 않다. "전에 나와 린다는 항상 미국 남자들하고 나갔어요"라고 필린은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후 그들은 그러기를 중단하였다. "최소한 당신은 지배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성들은 이제 손님과 나가는 대신에 술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술집에 남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할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여성들은 지친다. 이러한 구분들은 여성들이 다시 주장하는 자아의 고양으로부터 추론되고 섬세하게 조절된다.

스웨덴의 매매춘운동집단과 달리, "우리는 여성들에게 매춘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 없어요"라고 에멜라는 설명했다. 왜냐하면 부클로드는 그 여성들에게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존재가 파괴되고 해체되고 탈인격화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을 여성에게 주고 있다. 이들에게 매춘의 딜레마는 복잡하게 다층화되어 있다. 그들은 끔찍한 가난에서부터 급속한 산업화 속에 생겨나는 새로운 물질적 이익의 한가운데로 들어온다. 그들은 어릴 적에 성 학대를 당했거나 십대에 결혼해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버려진 사람들이다. 저개발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자신의 유일한 가능성이라 여기며, 떠돌아다니게 되면 성 산업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결혼과 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불가피성은 부클로드의 소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개별 여성들에게 매춘을 떠나도록 강요하거나 돕는 것은 문제를

다루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술집에서 떠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자포자기는 성 산업이 기대하는 것이며, 매춘 옹호 운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복지 혹은 사회적 지원원 어떤가? 많은 여성들은 "정부는 우리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아요"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올롱가포 지역이 산업 발전을 위해 재형성되는 동안 여성들은 미군 기지와 미군을 위해 존재했던 매매춘 지역의 용도 변경 계획 속에서 자신들이 거부되고 무시되고 비가시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다른 매매춘 지역에서처럼 남성 여행객들이 군인을 대신한다면, 여성들은 계속해서 성적 서비스에 징발될 것이다.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술집 여성과 살기 위해 '술집에 요금을 내고' 여성을 데리고 나간 미군 병사를 아버지로 둔 아이들을 위해서는 식량과 집, 그리고 어떠한 복지 제도도 없다. 술집의 요금 체계에서, 미군은 술집 여성을 데리고 나가는 시간만큼 술집에 요금을 계산한다. 술집은 주별, 월별 등으로 할인 비율을 정한다. 이 제도는 인간의 삶을 성적 자산으로 변화시킨다. 술집에 돈을 내고 생활하는 남성들은 항상 이 여성을 여자친구로 취급한다. 이 여성들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다.

내가 1993년 그곳을 방문했을 때 미군은 이미 철수한 후였다. 아무도 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 매달려 있었다. 매매춘 안에서 성 착취의 불가피성은 결혼의 불가피함 그리고 여성 종속의 영속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군 기지가 주둔한 이래로 여성들에게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한 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군에게 필리핀 여성들은 단순히 그들이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나는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그는 나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지 않아요", "나는 가끔 엽서를 받아요 아마도 6개월에 한 번....."이라는 말을 들었다. '운이 좋은 여성들은' 도움이 되는 약간의 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이 편지도 없는 빈 봉투에 들어 있는 돈만 받는 것은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성들은 현실을 알리고 애쓰지 않는다. 술집 체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긴장 상태는 여성들이 독립적인 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고, 미군의 아내로서 미국에 가는 꿈을 계속 꾸도록 한다. 올롱가포의 술집 여성들 사이에서 "사랑은 다 헛소리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³⁾

부클로드 이외에도, 여성 착취에 대항하는 제3세계 운동(the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men)의 지도자인 솔레드 페르피난 수녀(Sister Soledad Perpignan)에 의해 조직된 몇 개의 센터가 있다. 그녀는 수빅과 마닐라, 앙헬레스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드롭인(drop-in) 센터(식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교육,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있는 센터—옹긴이), 쉼터 등을 세웠는데 이 시설들은 이전의 클라크 공군 기지에 인접해 있다. 센터들은 쉼터, 장기간의 생활 준비, 직업 재훈련, 재봉, 타이핑, 비누 만들기 등의 자립 자활 훈련을 제공한다. 솔 수녀(Sister Sol)가 최근 마닐라에 문을 연 새로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집의 스페인식 안뜰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곳에 양초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작은 활동들 속에서 매춘 여성들은 매춘에서 벌던 것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들 스스로의 자아를 갖게 될 것이란 것을 깨닫는다. 여성들이 가난한 시골을 떠나 새로운 공장 체제의 착취받는 노동자가 되고 결국에는 매춘으로 보다 많은 돈을 벌 때, 각각의

3) Brenda Stoltzfus, Kasia Bowlin, and Sarah Williams, "Hospitality-What Price? The U.S. Navy at Subic Bay...and the Women's Response," pamphlet (Olongapo, Philippines: Evan and Sochet, 1989).

단계에서 그들은 권리와 함께 그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그들이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런 작은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보다 큰 활동들이 개발될 것이다. 필요한 작업은 벌써 계획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부족한 오직 한 가지는 경제적 지원이다. 현재 매춘 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콘돔 배포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전략이기는 해도 매매춘을 계속 영속화시킨다. 매춘이 불가피한 것, 자연스러운 것, 여성의 선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만 여성들은 협동 산업과 같이 일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선택을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매춘을 단지 노동의 또 다른 형태라고 취급하는 것은, 노예 제 역시 노예가 아닌 노예 주인과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체제에서는 노동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당신은 결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학대를 받을 만했던 적이 없다." 이 말은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에 있는 매춘대안협회가 내세운 최초의 그리고 가장 일관된 메시지이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수잔 헌터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매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춘의 문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너무나 학대에 관대한 나머지 스스로를 그것에 맞추기 때문이다."

매춘대안협회의 프로그램은 의식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매춘을 재구성하기 위해, 여성들이 "그들 삶의 모든 측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는 매춘대안협회의 상황은 부클로드와 비교해 볼 때는 부유한 편이지만, 미국의 생활 수준에 비교해서는 열악한 편에 속한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을 떠난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15~20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부양 아동 원조 기금(Aid to Dependent Children)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독신 매춘 여성들이 사용한다.

매춘대안협회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복지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들이 최초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복지 기관에서 매춘을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라 직업의 하나로 대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복지 제도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 수당의 지급을 삭감할 수도 있고 매춘에서의 수입을 근거로 연금 지급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필리핀의 필린과 에멜라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수잔 헌터는 "만약에 보다 많은 서비스가 이 여성들에게 제공된다면 그들은 때지어 매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부클로드가 여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보장 자원에 의지할 수 없는 반면, 매춘대안협회는 이 단체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들어온 여성들에게 항상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매춘의 세계와 단절 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의 안과 밖을 계속 오가는 여성들과 작업하는 동시에, 영구적으로 매춘을 떠날 준비가 된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동의할 계약서를 작성한다.

나에게 정신적, 육체적 또는 성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알코올/마약 중독 문제가 있다면, 알코올/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계획을 만들고 나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⁴⁾

의식화는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직업 생활과 사회 생활을 재구성하기 시작할 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 계속된다.

4)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Participation Agreement and Grievance Procedure, Portland, Oregon.

지난 5년 동안 매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전세계에 확산되어 왔다. 브라질 북부에 있는 벨렌드파라의 매춘여성그룹(Women Prostitutes of Belen de Para) 대표인 마리아 로데스 바레토는 "우리는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자율성과 토론할 권리와 그들의 문제를 풀 권리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⁵⁾ 그녀는 현재 매춘 여성들의 시민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에서 매춘 여성들로부터 발전된 비판적 페미니스트 의식화는 에블리나 기요브가 WHISPER라는 조직을 창립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WHISPER는 현재 미네소타에 근거지를 두고 매매춘에 대한 교육 포럼과 매춘 여성들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십 년간 이뤄진 쉼터와 직업 재훈련을 통해 매춘 여성이 매춘을 떠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매춘 반대 행동 모임(Equipe d'Action Contre le Prostitution)과 동지(Le Nid) 그리고 외침(Le Cri)은 개별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매매춘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전제 하에 매매춘에 대항하는 운동체인 국제폐지주의연합(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의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제3세계에서는 여성들이 매춘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타이의 EMPOWER와 페루의 엘 포소(El Pozo)가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여름 레누 레이반다리(Renu Bejbhandari) 박사는 네팔의 카부만두에서 전직 매춘부 여성들을 대나무 기능공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레누 박사가 조직한 여성재활 센터(Women's Rehabilitation Centre)에서는 여성들에게 AIDS와 성병에 대한 교육

을 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도 가르쳤다. 45일간의 훈련 후에, "그들 중 몇몇은 시커벤시(Shukerbensi)의 월급 수준으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몇몇은 훈련 센터에서 다른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⁶⁾

지난 십 년간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들에 의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을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작업을 하는 양심적인 남성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행동을 위해 기초를 닦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EMERGE는 남성들에 의해 조직된 보스턴 지역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남성의 여성 구타를 막기 위해 활동한다. Common Purpose는 주로 보스턴 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남성들과 함께 작업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안전한 행동 계획'(Safe Behavior plan)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구타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사회 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둔 성 차별에 반대하는 남성들을 위한 전국 조직의 남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Ending Men's Violence Task Group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Men Against Sexism)는 "친페미니스트(pro-feminist) 프로젝트들과 남성의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하는 남성들과 함께 하는 개인들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남성 구타자, 강간범, 포르노그래피를 사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브루클린에 본부를 둔 포르노그래피를 반대하는 남성들(Men Against Pornography)은 "포르노그래피와 매매춘 옹호론을 반대하는 친페미니스트 시각을 가진 남성 활동"의 책임을 제기하여 왔다. 야요리 마츠이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남성들은 일본인 남성들의 섹스 착취자 이미지, 특히 섹스 관광에서의 그러한 이미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아시아의 매매춘에 반대하는 남성 조직'(Men's Group Against Prostitution in Asia)은 남성들의 의식화를 위해

5) Maria Lourdes Barreto, "Everybody Shuts Up, We Speak Up," in *Women: Watched and Punished* (Lima, Peru: Latin American Committee for the Defense of Women's Rights, 1993), p. 285.

6) *Independent* (Kathmandu, Nepal), September 2, 1992.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회보를 발간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시아의 매매춘과 일본인 남성'에 대한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다. 1991년 남성해방연구집단(Men's Lib Study Group)이 오사카에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매매춘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두었다.⁷⁾

이러한 남성들의 연대망은 지난 십 년간 발전하고 확장되었으며, 비록 작은 수지만 이 모임들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성 착취에서 남성들이 개인적·집단적으로 얻는 권력을 의식적으로 기꺼이 버리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다.

심리 치료: 개인적 접근

페미니즘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폭력과 학대로부터 여성들을 위한 탈출과 출구와 대안을 주장하는 해방을 향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운동이다. 25년 동안 페미니즘은 두 가지 상호 의존적인 프로젝트(변화를 지향하는 사회 행동에 대한 개인적/정치적 참여라는 의미에서), 즉 의식화와 안전 공간의 확보를 선도해 왔다. 의식화는 개인을 개별적 고립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정치적으로 각성하도록 그리고 억압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안전 공간은 위기 프로그램이나 쉼터, 그 밖에 여성들이 학대에서 피할 수 있거나 또는 단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탐구하고 가부장적 지배가 여성의 삶에 야기시켰던 고통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의식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집단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한다. 나아가 의식화와 안전 공간은 여성을 가장 직접적인 억압 경험의 밖에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위한 다른 가능성들을 개인적·집단적으로 고려

7) Yayoi Matsui, "Trafficking in Women and Prostitution in Japan," Japan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6.

기간 동안 전체주의적 통제와 지배"에 종속되는 상황을 포함시키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개념을 확장시켰다. 복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그녀의 확인은 여성들이 결혼, 가족, 매춘에서 직면하고 있는 조건들에 이름을 붙인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허만에 의해 확인된 안전함, 기억과 애도, 재연결이라는 회복의 세 단계에서 분명해진다. 그녀의 작업은 다중 인격 장애가, 특히 그것이 근친 성 학대의 산물인 경우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19세기의 히스테리 회복의 단계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전쟁 충격에 대한 보다 최근의 작업, 그리고 복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점증으로 발전되었다.⁸⁾

첫 단계, 안전함은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안전한 곳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억과 애도의 단계에서 "생존자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 경험을 심도 깊고 세부적으로 완전하게 말한다. 재구성 작업은 충격적인 기억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그럼으로써 이것은 생존자의 삶으로 통합될 수 있다."⁹⁾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안전하고 위협이 없으며 지지받는 맥락의 언어로 진술·표현하는 것은 "충격적인 기억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정 안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¹⁰⁾ 수많은 근친 성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이것은 인간의 기억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실제로 기억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허만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단지 정신적인 활동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생존자는 사고의 훈련만으로 의미에 대한 의식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치료는 역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생존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¹¹⁾

8)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1992), p. 156.

9) *Ibid.*, p. 175.

10) *Ibid.*, p. 183.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구축한다.

의식화와 안전 공간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 프로젝트들은, 특별히 성 착취가 여성에게 미친 해악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심리 치료로 개별화되고 있다. 근친 강간 피해자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와 치료, 사회 행동은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의식화와 상담에서 보다 공식적이고 치료적이며 개별화된 접근이다. 이러한 이중적 여성주의 프로젝트는 쉽게 의식화에서 개인적 치료로 전락할 수 있고 사회 서비스가 억압의 조건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서구 사회 여성들, 특히 개인주의를 강하게 강조하는 미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중후군'의 증식과 다양한 12단계 프로그램들은, 비록 이것들이 비가시적이었던 상태에 이름을 붙이는 데는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그 변화가 가해자, 즉 여성의 성 착취를 영속시키는 개인들과 제도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피해자 비난하기'의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착취 경험을 중후군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비난하기는 궁극적으로 착취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귀속시킨다. 의식화와 안전 공간이 탈정치화될 때, 그 목표와 효과는 여성의 자율성과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를 발달시키는 것에서 여성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만약 거기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의 개발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분노를 다른 여성들에게 돌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물정치적인 치료가 어떻게 성 식민지화에 의해 야기된 여성간의 분리를 영속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주디스 허만(Judith Herman)은 페미니스트 의식화와 안전 공간 확보 작업에 토대를 둔 치료법 개발로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연결을 유지시키고 있는 여성주의 심리학자이다. 허만의 작업은 개인적 치료가 성 정치 의식화에서부터 형성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여성들이 "오랜

허만의 세 번째 단계에서 "생존자는 그녀 자신의 세계를 다시 주장한다."¹²⁾ 근친 강간의 생존자에게 있어 이것은 가족 관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힘을 얻는 것을 배운다. 그녀의 욕구와 창의력이 활동하기 시작한다.¹³⁾ 그녀는 근친 성 학대나 다른 성 착취에 종속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근친 성 학대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와 치료는 성 착취가 여성에게 야기시키는 해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여성들이 성 착취의 피해자화가 자신들의 삶에 설정해 놓은 한계를 뛰어넘어 자율성을 획득하고, 실제 개인적인 욕망을 느끼고 진정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능하게 한 선도적인 접근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근친 강간 피해자의 생존에서 배운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매춘 여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보다 분명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매매춘은 성 착취의 가부장적 모델이라는 전제하에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성 착취의 광범위한 해악을 폭로한다. 매춘을 떠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는 매춘을 하었다고 그녀를 비난하거나 매춘을 노동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녀가 성 착취로 인한 충격을 충격으로서 직면할 수 있겠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춘 여성들은 사회가 인정하기를 거부해 온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반드시 매매춘 그 자체가 학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매춘대안협회는 "장기간의 안정화와 여성들이 매매춘을 학대의 경험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배우는 재

11) *Ibid.*, p. 178.

12) *Ibid.*, p. 196.

13) *Ibid.*, p. 202.

교육, 그리고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에게 관여해 왔다.¹⁴⁾ 매춘 여성에게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경험과 그녀가 매춘 세계에서 알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완전히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근친 강간 피해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기타 친밀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것과 달리, 매춘 여성은 그녀가 다시 매춘으로 돌아가지 않을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사회 세계와의 모든 유대를 끊어야 한다. 더구나 아무런 수입원도 없이 매춘을 그만두는 여성은 매매춘이 불법인 국가에서 아마도 매춘 그 자체에 대한 형사상의 고소 또는/그리고 매매춘과의 관계에 대한 고소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주택과 지지 집단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고소에 대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향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⁵⁾ 매춘을 그만두려는 여성들은, 법원과 사회 복지사 앞에 서서, 자비를 회구하는 범죄자로서나 합법화를 추구하는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정의(Justice)를 요구해야 한다.

심리 치료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개인 내부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경향을 반영한다. 페미니즘은 정치적 행동이 심원한 개인적·개별적 변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왔다.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개별적인 것에서 사회로, 개인적 변화에서 정치적 행동으로 접근한다.

여성주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사회 운동은 치료 과정의 최고 단계이며 개인적·소그룹 상담보다 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존자들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토대로서 자신의 비극을 다룸으로써 개인적 비극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허만은 지적한다. "사회 운동은

그녀 자신의 창의력과 힘, 자원의 풍부함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질들을 그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확대시킨다."¹⁶⁾ 이것은 성 착취로부터의 회복에서 나아가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의 활동가나 상담가가 된 많은 여성들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사회 운동, 즉 여성주의 정치 투쟁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발견'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대감을 지속시키면서, 개별 상담으로 시작한 개인 치료가 '복잡한 거울에 비춰보기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확장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주어야 하는 축복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¹⁷⁾ 사회학적으로 사회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내부로, 사회에서 자아로의 사회학적 분석의 방향은 내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주의 분석의 기초이다. 이것은 전지구적 페미니즘과 성 착취, 특히 매매춘에서 여성의 개인적 생존을 연결한다. 전지구적인 페미니즘이 사회 운동과 함께 시작될 때,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성 착취 경험에 직면할 생각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에서 성 착취의 제도화에 직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저절로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심리 치료로 시작하는 것은 정치적 의식화와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급진적 개혁

역설적이게도 여성에게 개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성적 학대 특히 근친

14) Ibid., p. 207.

15) Ibid., p. 215.

16)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Annual Report, July 1990-June 1991, Portland, Oregon, p. 3.

17)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Handbook, Portland Oregon, p. 29.

강간으로부터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많은 것을 일궈 낸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교환에서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를 합법화시키며 매춘을 여성의 선택으로 취급하는 바로 그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낙관적이거나 전지구적인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의 정상화, 즉 집에서, 대학에서, 매춘업소에서, 거리에서 여성을 창녀로 취급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 어려움 이상이다. 매매춘의 전지구적인 정상화 속에서, 성 산업은 정부가 여성들이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가장 가혹한 영향을 끼친다.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 매매춘을 위한 거대한 여성 산업화를 볼 때, 변화는 오직 개인적 치료를 통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사회 운동을 이끌 것이라는 가정은 변화의 가능성에 불길한 기운을 드리운다. 이러한 절망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매춘 여성의 삶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성 산업이 너무나 거대하고 매매춘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매춘을 떠날 수많은 매춘 여성들뿐 아니라 인권과 여성 권리의 옹호자들도 점점 더 매춘을 '성 노동' 또는 '성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성 노동'은 매춘 그 자체가 정상적·합법적 활동으로서 수용되지 않는 한 매춘 여성이 결코 어떠한 존엄성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하여, 매춘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용어이다. 이것은 또한 매춘을 하나의 노동으로서 추구하거나 성적 학대로서의 매춘에서 회복되기 위해 개인적 심리 치료를 찾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마치 동일한 행동이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의 언어이다.

떠날 수만 있다면 매춘을 떠날 매춘 여성이 매춘을 '성 노동'이라고 지칭할

때, 그 용어는 그들의 절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성 노동'은 이 여성들이 매춘을 장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착취를 정상화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매춘 여성들의 존엄성과 존중을 인식시키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한 용어로 채택되고 있다.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이러한 희망 없음과 절망은 그 국가의 서구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서구의 헤게모니는 여성들의 빈곤을 착취하면서 매춘을 장려한다. 서구 국가들이 제3세계 여성에게 콘돔 제공을 지원하는 것은 매매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된다. 서구의 성 자유주의와 '성 노동'으로서의 매춘 합리화는, 여성들이 매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데 쓸 수 있는 기금을 오히려 여성을 매춘에 가둠으로써 매춘 여성의 성 착취를 더욱 악화시키는, 서구의 제3세계 매춘 여성 지원의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설명해 준다. 대조적으로 여성들이 자주 요청한다고 알려진, 여성들에게 보나온 노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매춘 여성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매춘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매춘 여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 나오는 기금들은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원으로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춘 말고는 여성들이 가난에 대응할 어떤 대안도 없다는 절망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에 의해 유지된다.

페미니즘은 매춘에서 개별 여성의 경험이 낡은, 그리고 거대한 성 산업화에 의해 부과되어 명백히 불가피해 보이는 매춘의 결과물인 여성들의 절망을 재구성한다. 이 새로운 여성주의 작업은 지난 십 년간 매춘 여성들이 그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의 목소리이고 새로운 운동의 근원이다. 그들은 매춘을 떠나고 삶을 재구성했음 뿐 아니라, 매춘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의 경험을 폭로하고 매춘의 착취성에 맞섰으며 다른 여성들이 매춘을 떠나도록 도왔다.

1980년 프랑스의 그레노블에서는 4명의 매춘 여성들이 17명의 포주들로 이뤄진 갱단을 해체시키는 재판에서 용감하게 포주들과 맞섰으며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프로젝트들은 매춘 여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여성들이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미국에서 에블리나 기요브는 매매춘 그 자체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WHISPER를 창설했다. 성 산업을 반대하는 전지구적 여성주의 운동의 첫걸음은 여성들과 매춘부, 자아와 타자라는 가부장적 이분법을 여성들이 해체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구 여성들의 진정한 국제적 페미니스트 투쟁은 반드시 서구에서의 여성 착취와 제3세계에서 서구에 의한 여성의 성적 식민주의 체계모니에 대응해야 한다. 서구는 매매춘을 통해 여성의 착취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할 자원을 거의 남겨 놓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자원을 약탈한다. 매매춘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성 착취는 판대히 여겨져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유지될 수 없다는 확신은 급진적 개혁의 토대이다.

1970년대 후반 여성 운동이 매매춘에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여성 성 노예제』를 쓰면서 여성의 성적 노예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전략으로서 비범죄화를 제안했다. 매매춘이 범죄화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경찰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와 매매춘에서 여성을 노예화하고 있는 포주 행위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페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러나 관리주의자들처럼 매매춘을 조장하지 않는 방향에서, 매춘 여성에게서 법을 떼어내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 당시 매매춘의 비범죄화에 대한 나의 주장은 암묵적으로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에 대한 비범죄화도 의미하였다. 비범죄화를 둘러싼 이 제안에서의 오류는 이것이 매춘 여성들뿐 아니라 매춘 구매자들, 단순히 구매자 이상인 성 착취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비범죄화하며 실질적으로 인가한다는 것이다.

1986년 유네스코가 소집한 한 회의에서 매매춘을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모델로 상정하면서 나는 매춘 여성들이 비범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구매자에 의한 성 착취의 피해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구매자가 여성의 몸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제재되고 벌금을 물고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그들이 사는 섹스는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공격의 행위로서 간주될 것이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모든 매매춘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지만, 매춘부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금지주의자의 것도 페지주의자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매매춘을 여타의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분리시키지 않는 여성주의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이다.

필요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여성주의 기준 설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착취의 경험들과 객관적 현실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춘 여성들의 수입은 감소하거나 소멸된다. 매춘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사회 복지 지원을 받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서구에서 여성들의 매춘 수입이 깎이는 것은, 사회 복지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원이 없는 국가들에서 매춘 여성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과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끔찍하게 가혹한 빈곤의 여성화 속에서 매춘은 많은 여성들에게 유일한 소득원일 것이다. 이 말은 곧 매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개발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경제적 대안 전략과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들을 법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매매춘이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구매자들을 범죄화하는 법적 제안은 반드시 사회적 서비스 건강과 상담,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만약 구매자들이 범죄자가 되면 국가는 매춘업소들을 폐쇄할 것이고 이전에 매매

춘 지역에 쏟아 부어지던 경제적 자원들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향할 것이다. 해방된 미래에 대한 상상은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1993년 1월 29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매매춘의 비참한 사회적 결과와 해로운 영향력”을 인식하여 매매춘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10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면서, 베트남에서의 매매춘 금지와 예방 결의안 5(Decision 5 on the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을 발표하였다.¹⁸⁾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매매춘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근절될 수 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위해 언론과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다.(이것은 미국의 마약 반대 언론 캠페인이나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에서 매매춘을 다루면서 성공적으로 언론 캠페인을 사용한 것과 같다.) 기금이 포주들과 인신 매매법, 그리고 “모든 종류의 매춘업소 주인들”을 처벌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정부는 특별히 “공무원들 중에서 매춘 여성을 상대한 남성은 반드시 처벌하고 그들의 이름을 관련 당국에 알리며 언론 매체에 신분을 공표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매춘 여성을 구매하는 어느 누구라도 지역 당국에 보고될 것이다.

매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식의 수단은 이제까지 정부 기관에 의해 검토되어 왔던 어떤 것보다도 획기적이었다. 매매춘 소멸 전략은 베트남 전쟁 후, 그리고 1994년에서야 비로소 해제된 미국의 통상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 19년간 매우 극심한 가난의 한가운데서 개척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전략은 소비에트 영향권 내의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명성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기꺼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끌고자 원하는 매춘부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기업이라도 민간이거나 공공 기업이거나 매춘부들에게 고용을 제안하는 기업들은 모든 구체적 사례마다 그에 맞는 기금을 할당받을 것이다.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혁 센터에는 신용 대부금을 줄 수 있다.

나이가 성병에 감염된 매춘부들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음식과 숙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생필품이 부족한 가난한 가족 출신의 매춘부들을 위해 3개월 동안 생계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¹⁹⁾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조차 모든 여성이 가난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법은 종전 후 여성들에게 유용한 ‘재교육’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의 금지나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과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춘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최소 6개월 동안 특별 개혁 센터에 수감된다.”

매매춘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과 함께 젠더 이슈들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화는 직접적으로 이 새로운 사회적 정책 개발을 이끌었다.²⁰⁾ 매매춘 근절을 위한 이 계획은 매춘 여성들의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두지 않고, 매춘 여성들의 미래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주의 정부에 두었다. 1994년 초에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 관계 정상화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18) 1993년 1월 내가 베트남 여성들과 함께 조직한 학술 세미나에서, 나는 결의안 5의 일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유엔 성 착취 반대 협약(UN Conven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19) Le Thi Quy, “Social Policy on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 Vietnam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p. 5-6.

20) A Swedish seminar in Hanoi introduced gender theory in 1991. Penn State Seminar on Women and the Family, 1993.

악속하였지만, 이와 함께 매매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5'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매춘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훈련 센터를 개설하였다. '매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만약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마련이 매매춘을 조장하는 구매자들과 성 산업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산업화 속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여 매춘 여성들에 대한 혁신적·보호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꿈꾸지 못했던 최초의 진보를 이룬 것이다.

유엔: 여성 인권의 가능성?

전지구적인 여성 성 착취에 맞서기 위해 나는 "인류의 양심에 어긋나는 야만적 행위로 야기되는 인권에 대한 멸시"를 비난한 세계인권장전(Universal Bill of Human Rights)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것은 성 착취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며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이라는 도구는 "모두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열원"이라고 여기는 "인간이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의 도래"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에 기초를 둔다. 인권의 철학은 인간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 인간의 상황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어떠한 것도 야만적 행위로 여긴다는 점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도덕적 분노와 잘 어울린다.

정의와 평등에 대한 기계적인 고수를 넘어서, 유엔 협약(UN convention)에 표현되어 있는 인권 철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조건 두 가지 모두의 비인간화에 반대하는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억압도 포함한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인권을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해 왔다. 인권이 자유주의적 개인

주의의 틀 안에서,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협소하게 해석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권은 식민주의, 인종 차별주의 아래서 그리고 전체주의 정권 내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드러내고 대항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을 자각하고 보호하는 목적은 존엄성과 자유 속에서 풍부하고 완전한 삶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²¹⁾ "인권은 인간 삶의 법적 표현이다."²²⁾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단언한다. 인권선언은 노예제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어떤 인간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5조)라고 규정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 구조와 제도적 현실, 계급적 조건과 분리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 인권은 집단적 조건과 개인의 비분리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 존재와 인간의 사회적 조건 모두에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에 남성과 여성, 큰 국가와 작은 국가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인권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국가 양쪽 모두에 있다.²³⁾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며, 특정 계급이나 집단, 타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에 특권이 주어지는 안 된다. 더욱이 인권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다른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여성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실질

21) Hector Gros Espiel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lletin of Human Rights* 91, no. 1 (New York: United Nations, 1992), p. 16.

22) Ibid.

23) Erica-Irene Dues, "Freedom of the Individual under Law: An Analysis of Article 2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United Nations, 1990), p. 3.

적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은, 가부장제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성은 인간인가?"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를 존엄성에 응용하여, 인권의 보편성은 여성의 억압이라는 공통 영역을 기반으로 한 전지구적인 페미니스트 투쟁의 토대가 된다. 인권이 분리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 존엄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인식은, 성 착취가 평등권의 위반과는 다르고 평등권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취급될 때 파괴되는 법적 평등에 대한 투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가부장적 억압, 특히 성 착취가 지배의 일반적 조건일 때 페미니즘과 인권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어울린다. 페미니즘의 실체에 기반한 여성을 위한 국제적 인권과 여성의 해방을 위한 전지구적인 운동은 국경과 계급과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는 여성 상황의 공통성 위에 세워진다. 페미니즘은 아직까지 여성이 그들의 개인성이나 인종,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성을 하나의 일반화된 존재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양도 불가능성을 지지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성 착취에서 개별 남성이 얻는 권력은 오로지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득과 출세를 취하는 계급적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만약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 개인과 집단에게 성 착취를 하지 않는다면 성 착취는 여성 개인에게는 해롭고 파괴적일 테지만 계급으로서의 여성을 종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

나의 작업은 급진적 페미니즘 정치학과 인권의 기본적 원칙들을 결합시키

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것은 전지구적으로 거대한 매매춘의 확산, 특히 여성 매매의 극적인 증가에 대항하고 이러한 성 학대가 매매춘과 포르노그라피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성 산업에 의해 영속된다는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서이다.

1991년 여성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 기구)의 대표로서, 나는 유네스코의 와실라 탐잘리와와 협력 아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1949년의 인신 매매와 매매춘에서 타인에 대한 착취 근절 협약을 분석하고 전지구적인 성 착취의 현대적 내용을 고려해 보기 위한 운동 단체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운동 단체는 전세계적인 성 착취가 매매춘, 포르노그라피,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폭력 안에서 이뤄지는 여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회의로부터 국제 인권 문서인 성 착취 반대 협약이 발전되었다.

이 회의에 이어서, 여성매매반대연맹과 유네스코는 새로운 인권 문서를 개발하고 이것을 성 착취에 반대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공표하도록 유엔 상임이사국(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에 제안하기 위해 일련의 회의를 후원하였다.(전문은 부록 참조) 여성매매반대연맹에서 도르첸 라이트홀트와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는 문서를 정교히 다듬기 위한 상담, 정보 수집, 추천, 교정을 위해 풀뿌리 여성 운동에 눈을 돌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협약이 각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회의에서 형성된 "새로운 협약의 내용"에서 성 착취가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간주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²⁴⁾ 또한 펜실베이니아 회의에서 우리는 성 착취를 "특정인(들)이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자율성, 정신적·육

24) *Penn State Report,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on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State College, Pennsylvania, April 1991), Report published by UNESCO and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p. 7.

체적 복지를 파괴하는 성적 학대를 통해 성적 만족이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출세를 얻는 행위"로 규정하였다.²⁵⁾ 영국 버킹엄 대학의 수잔 에드워드(Susan Edwards) 교수에 의해 구성된 이 개념은, 성적 권력의 토대를 경제적 이익처럼 명확하게 물질적이고 성적 만족처럼 구체적인 이득이라고 규정한다. 이 협약은 "어떤 여성에 대한 성 착취라도 이것은 모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이며, 성 착취가 여성에게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성적 테러리즘의 조건을 발생시킨다고 선언하면서 계급 조건이자 개인적 폭력으로 다룬다. 이처럼 성 착취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몇 달에 걸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 협약은 발전되었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여성 단체를 비롯한 여성주의 프로젝트와 유엔 민간 기구의 협의를 통해 정교화되었다. 전세계 풀뿌리 페미니즘의 성과로서, 이 협약은 성 착취가 어떤 식으로 현존하는 불평등의 피해를 악화시키며 때로 성적 노예제나 고문, 절단, 죽음의 형태를 띠게 되는지 밝히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안된 협약은 성 착취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아내/파부 살해, 여성 구타, 포르노그래피, 매매춘, 생식기 절단, 여성 격리, 지참금, 신부값, 성희롱, 강간, 성 학대, 고문을 비롯한 각종 가학적·훼손적 행위와 여아 살해, 여성 살인을 통해 생명을 부정하는 형태를 띠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은 모든 성 착취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민·형사상, 노동법과 행정상의 승인을 통해 잘못 처리된 피해자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참여를 요청한다. 성 착취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그것이 악화된 상황이며 가해자가 남편, 아버지, 다른 친척 또는 피해자의 고용주라고 해서 성 착취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제안된 협약은 매매춘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가치에 위배된다"고 밝힌

25) *Ibid.*

관광객의 나라와 섹스 관광이 이뤄지는 나라 모두에서 섹스 관광을 조직하는 중개인, 소개인, 포주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편 주문으로 외국에 여성을 결혼시키는 사업(우편 주문 신부 매매)과 관련되었거나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그것을 조장하는 개인과 기업을 금지해야 한다. 군 기지 안과 그 주변의 매매춘에서 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군속들은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의 매매춘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피난민 캠프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성 착취를 막기 위해 특별 감시단이 선정될 것이고, 민족간 전쟁, 내란, 외국의 침입 등을 포함한 전시 성 착취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특별 계획이 고안될 것이다.

이민 과정에는 가사 노동이나 향락업처럼 특정한 형태의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들은 성 착취에 이바지하고 여성들을 매춘으로 이끈다. 조약은 정부 당국에 매매춘과 인신 매매 피해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고, 본국 송환을 원하는 여성들을 송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민 과정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성 착취에 종속된 여성들은 대부분 탈출해도 돌아갈 집이 없거나 무국적 상태이다. 그들은 가부장제의 '방랑자들'로서 남편에 의해서도 매춘업소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으며 집도 국적도 없는 사람들로, 그들의 인권은 그들이 팔려간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하에서는, 도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갔건 불법적으로 들어갔건 모두 성 착취의 피해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서화된 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보장하고 이 계약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제안된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매춘으로 팔리거나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여행 서류들과 자신의 여권을 지닌 모든 여성들을

1949년 유엔협약의 국제인권법에 기초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제30조), "이 선언의 어떤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서 규정한 어떠한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려는 목적을 지닌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매춘부를 위한 권리'도 없다.

제안된 협약은 매매춘을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 매매춘과 '강제된' 매매춘의 구분을 거부함으로써, 매매춘이라는 행위를 매춘업소, 군대 매춘, 포르노그래피, 섹스 관광, 우편 주문 신부 시장뿐 아니라 일상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를 비롯하여 항상 돈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성의 몸을 사고 팔고 교환되는 상품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협약은 매춘 여성을 어떠한 형태로도 처벌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구매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정부들에 요청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아이, 소위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어떤 매춘이라도 합법화시키는 법과 정책, 그리고 자유 매매춘과 강제 매매춘을 구분하고 매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관리하거나 인정하는 법과 정책을 거부하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포르노그래피 산업이 성 착취에 대한 요구를 조장하고 확대시키며, 사실상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 정부는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자와 배급자를 처리할 규제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전지구적인 매매춘 산업화는 성 차별적인 경제 발전 정책의 결과이자 몇몇 지역의 비공식적 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협약은 이제까지 존재해 온 여성들의 전통적 경제 기반을 침식시키면서 여성을 성 착취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제 개발 정책과 관습들을 거부하라고 정부들에 요청한다.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은, 성 착취 특히 매매춘을 통해 경제적 발전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여성들을 바닷길한 생계 수준의 임금 노동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성들의 풍부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섹스 관광을 금지시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성 착취가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여성 건강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들은 특화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며, 자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매춘 대안 센터에 대한 기금 지원, STDs와 HIV 등性病 검진과 치료 제공, 마약 남용 재활 센터, 상담, 탁아 시설, 주택, 경제적 지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우호적인 신용 대출,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여성들이 착취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 제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매매춘을 포함한 성 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 마련을 위해 제공될 것이다.

유엔에 의해 어떤 협약이 채택될 때, 각 국가들은 그 비준을 권고받는다. 비준에는 앞으로 그들이 자국 내의 모든 법과 관행에서 이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은 성 착취 반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데, 이 위원회는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체계적인 성 착취에 대해 확실히 보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등법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을 것이다. 위원회는 성 착취 피해자로부터 개별적인 불만 사항들을 접수·검토하여 관련 국가의 주목을 끌어낼 것이다. 해당 국가는 6개월 안에 제기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여성은 인간인가?

협약은 국제 조약이다. 이번에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명백하게 여성의 권리를 다룬 최초의 유엔 협약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이 1952년에 채택되었고, 그 이전에

매매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stitution, 1949)이 토론했었다. 이들 이후에도 몇몇 협약들이 채택되었고, 결혼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유엔 선언문(1957)과 전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문(1974)이 뒤따랐다.

나아가 1960년대 중반의 국제 조약들은 유럽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제3세계의 투쟁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기결정권을 향한 인간 권리 증진 규약(advance the right of people to self-determination i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이 공포되었다. 이 두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신념,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이나 재산, 출생이나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명백하게 강압적 위치에 있는 한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식한다.

여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문화된 권리에 여성을 첨가하는 것이, 곧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권리로 보호받고 장려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여성의 권리를 성문화시키려는 길고도 힘들었지만 대부분 유엔에 의해 무시되었던 역사와 함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1979년에 채택되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되어 1980년부터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그토록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률이 간혹 여성들을 향해 돌아설 때는 무엇인가 잃는 것이 있다. 이러한 상실의 첫 번째 증거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도덕적 분노의 결여에서 볼 수 있다. 여성 몸의 오랜 성적 식민화와 성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식민화의 옹호, 성 산업에 의한 그 제도화의 결과로 많은 여성들이 성적 비인간화에 대해 우리의 권리인 분노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다. 유엔이 여성들에게 시선을 돌릴 때, 인권에 대한 강조는 협소해지고 인권의 수행은 어이없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 수행의 맥락에서 CEDAW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폐지를 다루는 강력한 국제 협약에 필적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인종 차별을 다루는 협약은 "인종적 장벽의 존재는 이상적인 인간 사회상에 모순"되며, 따라서 "인종 차별에 기반한 어떠한 정책의 우월성도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협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고, 과학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어느 곳에서도 인종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 차별주의는 "성에 기반한 구분, 배제, 제한을 의미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일 뿐이다.(제1조) 억압에 대항하는 여타의 투쟁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의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없는 이유는 성 차별주의가 억압이 아니라 불평등의 조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더욱 풍부하고 미묘하고 깊이 있는 인권의 의미는, 재조정이 필요한 법적 차별이나 기계적인 불평등으로 축소된다. 분리된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차별의 맥락이 제거될 때, 여성의 상황이나 착취에 대한 도덕적 분노는 가라앉고 개인적인 폭력의 문제로 축소된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착취가 "성에 기반한 어떤 구분, 배제, 제한"에 관한 기계적 평등의 문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범위를 넓혀 인권의 일반적 '인간'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여성들을 위해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협약은 인권의 풍부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지점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놀라울 것도 없지만, 유엔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과는 다른 위치 속에서 전혀 별개의 내용을 가진 동떨어진 영역으로 다뤄진다.

성폭력과 성 착취를 주된 이슈로 제기했던 세계 여성 운동의 흐름 속에 채택된 CEDAW에서 여성들이 잃은 것은, 이 협약이 성 착취와 관련하여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다루거나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1890년에 공포되었다면 유용했겠지만 198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 산업과 매매춘의 정상화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1949년 매매

춘에 대한 협약을 단순히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새롭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1990년대의 작업인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이끌었는데, 이 선언은 CEDAW의 제한적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를 "여성에게 신체적·성적 또는 정신적 해를 주거나 고통을 낳는,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 어떠한 행위"도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고 있다.(제1조)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억압의 맥락에서 발생하며, 성폭력은 넓은 의미에서 성 착취의 한 영역이다. 이 새로운 선언에 대한 글과 보도 중에는 남성 권력과 여성 종속에 관한 급진적인 선언이 있지만, 이것을 공식적 유엔 선언문에 포함시킬 방도는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포르노그래피와 매매춘이 포함된 광범위한 성 착취 개념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수천이 아니라 수백만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 매일 매순간 성 착취에 종속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감사해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선언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이 선언의 초고를 승인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로비 활동, 특히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의 강도 높은 로비 활동은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를 성 착취의 형태로 삽입하는 것을 방해했고, 심지어 후에 이것이 비정부 기구 단체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도 방해하였다.

이 누락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성 착취 반대 협약의 내용이 만들어진 이후에 초안된 것으로, 유엔 인권 비정부 기구(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소개되어 1993년 6월 빈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 인권 회의에서 검토하기 위해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로 미리 보내져 1991년 유네스코와 연합으로 출판되었던 것이다. 몇 달 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성 착취 반대 협약의 내용이 발표된 후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의 초안 작성을 위한 모임이 빈에서 열렸다. 유엔 여성발전국(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이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이 논의된 초기에는 유네스코 대표단도 비정부 기구 단체들도 개입하지 않았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실수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빈 회의 직후에 나는 제안되었던 협약과 선언문 초안에서 발생한 누락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빈 회의에 참여했던 몇 명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인권 기구 담당자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매매춘은 인권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매매춘이 여성 평등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매매춘과 성 착취의 정상화가 인권 침해라는 것이 잊혀진 것은 유엔 내에서 비단 여성발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미 이 기구의 매매춘과 에이즈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매매춘 옹호론자들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친매매춘 정책이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이 매매춘에서의 에이즈 문제를 콘돔의 배급을 통해서만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매매춘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새로운 유럽공동체를 위해 1991년 열린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는 네덜란드의 매매춘 옹호 정책에 호의적으로 계획된 안전을 다루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의 이러한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유엔 세계 인권 회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고 없이는 불완전하다.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인권 센터는 1993년 세계 회의에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가 최종적으로 비정부 기구 단체들과 인권 변호사들에게 세계 회의의 참가를 허가하였을 때,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이 세계 인권 회의의 결과물을 결정 짓는 데 어떤 식으로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부 대표단 회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여성들, 토착민들, 여타의 억압받는 사람들이 비정부 기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허가될 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침묵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국제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고마워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공식적인 정부 회의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은 채 안전으로조차 채택되고 있지 않다. 이런저런 유엔 세계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나는, 과거에는 유엔 자문 기관의 위치로서 정부 대표단의 회의에도 일부 참가하고 개입할 수 있었던 비정부 기구 단체들에 대한 유엔의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포착하였다. 이전과는 달리 꼭 짜여진 회의 프로그램 속에서 세계 회의의 최종 보고서 초안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완성되었다.

성 착취 반대 협약은 유엔 회의에 수차례나 제출되었고 비정부 기구 자문단은 이것을 세계 인권 회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선언에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배제되었다. 사실상 전지구적으로 여성들이 겪고 있는 학대에 대해 참가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비정부 기구의 내용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형태의 보호나 추가적인 보호가 유엔에 청원되지 않았다. 유엔이 우리의 인권 침해 현실을 폭로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허락한 것은 대대적으로 대중 매체의 보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여성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고 있다.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이 유엔의 조약에 포함되어 회원국들에게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행동과 여성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법화하려는 교육 캠페인은 유엔 여성발전국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1993년 유엔 여성발전국의 참고 자료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불법화를 바라보는 입장을 개괄하였다. 이 보고서는 가족 내에서의 폭력과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을 구분하면서 법으로써 가족 내 폭력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정부가 가족 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끼어들지 혹은 심지어 끼어들 수 있거나 한 것인지, 합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효과적인 억제책인지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²⁶⁾ 따라서

개인화된 권력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근친 강간자나 아내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공공 영역에서의 폭력과 성희롱도 다뤄진다. 공동체 내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의 처벌은 폭력의 불법성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선호하는 가운데 거부되는데, 이것은 성 학대나 성희롱의 입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건에 관련된 양자의 인식 차이는 사건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저렇게 말하는' 문제는 이쪽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악의 없는 농담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판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론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때와 똑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리보다도 이에 대한 교육과 민감성을 기르는 일이 요구된다."²⁷⁾ 마찬가지로 형법만큼이나 민법도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호의를 얻지 못한다.

1970년대 초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강간법에 대해 보다 가혹한 처벌과 이를 위한 새로운 법을 요구하였을 때나, 그리고 그 이후로 성 착취에 반대하는 개별 캠페인을 벌일 때나, 이러한 반(反)처벌주의가 미국에서 여성 운동에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매춘, 포르노그래피, 강간, 아내 구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것은 "권력을 국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는 경고가 수반된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국가의 손에 쥐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때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그들을 보호하는 데 쓰라고 국가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복되고 만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은 오랜 투쟁에서 어떻게 권력이 재정의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26) "Perspectives on Violence Against Women," background paper prepared by 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for Policy Coordin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MAV/1993/BP.1, 29 September, 1993, p. 8.

27) Ibid., p. 9.

한 가지 예로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도 국제 인권 단체들도 흑인 인종 차별 정책 또는 식민주의나 인종 차별의 피해자들에게 법원에 정의와 보호를 구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법의 손을 강제로 이끌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것이 현재 유엔이 여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다. 여성에게 적대적인 범죄에 대한 반(反)처벌주의적 접근은 타이 여성의 목소리(Voices of Thai Women)의 연합 행동,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매매춘에서 여성만을 비난하는 매매춘금지법(Prostitution Suppression Act)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도록 연합 행동을 이끈 여성재단(Foundation for Women)과 매우 대조적이다. "만약 남성 구매자들이 없다면 매춘부들이 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 매매의 지지자인 매춘업소 단골들"을 처벌하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한다. 다른 여러 보호 조치 중에서도 이것이 성 착취 반대 협약이 전지구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유엔 선언의 이면에는 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을 벌이는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남성의 권력·특권·통제'라는 호전적 수사학에 가려진 전지구적인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냉담한 무시가 있다. 최종 분석에서 수사학의 껍데기가 제거되었을 때 남는 것이라곤, 아마도 하나 내지는 몇 안 되는 국가에서 남성들에게 권력과 특권, 이득을 얻는 일을 그만두라고 교육하여 여성에 대한 구타, 강간, 성 착취를 막겠다는 시도에 불과한,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는 교육 캠페인뿐이다.

폭력과 착취에 대한 누구의 정의가 유력할지 결정하는 데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것은 서구,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여권·인권 단체들과 유엔, 특히 여성발전국 사이의 그럴듯한 공모이다. 이것은 여성들, 특히 제3세계 여성들 위에 군림하는 가장 새로운 헤게모니이다. 이 헤게모니는 세계 경제에서 자신의 지배를 위하여 전지구적 인권을 교묘히 조작하는 미국에 의해 매개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제 인권을

사용하는 것은 카터 대통령 때 시작되었지만, 레이건 시기에 그 전략이 강화되었다. 레이건은 전지구적으로 인권을 조작하면서 복지권을 후퇴시키고, 식량 배급과 적극적 조치, 시민권을 후퇴시키고, 인간 특히 미국 여성들의 빈곤함을 더욱 악화시킨 데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제 인권의 장으로 진입을 확대하며, '일할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 특별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에서 인권 강령을 축소시키기 위해 로비해 왔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들(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주장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보호조차 되지 않는 개인적 권리의 수사학으로 이루어진 교육 캠페인을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는 CEDAW를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이유이며 미국에 기반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하는 이유이다.

한편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승인·지지를 요구하면서 개인적·집단적 여성들을 대표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것이다.

참을 수 없음

매매춘이 없는 세상……

매매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1820년대에 노예제 없는 미국을 상상하는 일과 같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한창일 때,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예외자 중에서 소수는 단호하고 열렬한 노예 폐지주의자였고, 대다수는 노예제가 불가피하다는 일상에 만연한 이데올로기의 인정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들이었다. 그들은 노예제가 역사 초기부터 있어 왔다는 주장에 포섭되거나 패배하

기를 거부했다. 노예 폐지주의는 어떤 시기에는 전위적인 운동으로 여겨졌고, 또 다른 시기에는 사회의 다른 곳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괴상한 사람들과 노예제를 합리화하는 신성한 미국 헌법에 항의하는 기이한 사람들로 구성된 퇴행적인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단호한 폐지주의 핵심 그룹은 그들의 주장이 대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밀고 나갔다.

이것은 전지구적인 양식이 되어 갔다. 1927년에 노예 제도에 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Slavery Convention)은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인 노예 매매를 끝장내려는 확고한 의지"를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를 달성할 것이다"(2b조)라고 선언했다.

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모든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근절을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강간 위기 센터 활동과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단지 내가 '에비앙 해결법'이라고 부르는, 즉 가뭄으로 고통받는 시골에 에비앙 물 한 상자를 보내는 일처럼 우리의 활동을 물 한 양동이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새로운 법률은 즉각적인 활동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은 여성의 자유를 위한 기반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법적인 변화는 항상 페미니스트 요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이 지구상에서 성 착취와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행동주의는 반드시 지배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화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매매 없는 모든 여성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위협에 노출시켰으며, 공격받기 쉽게 만들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취약하다는 것은 "상처입고, 부상당하고, 다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공식적으로 성 착취를

제도화시킨다. 성 착취는 결혼에서 개인적으로 제도화된다.

요점은 성 착취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이 제도화된 사회 체제라는 것이다. 거리 두기에서 분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그들 자신을 독립적인, 독특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정체화시키는 경계를 잃는다. 대신에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분열시켜야 하고, 자신의 내부에 인간의 자아를 파괴시키는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다중 인격 장애가 발생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아라고 인식하는 인간이 취약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아 밖의 세계와 영키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여성 심리학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 무엇이 여성을 '관계적'으로 만드는데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경계가 없는 자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아무런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행동한 경험이 박탈당하고, 그 결과로서의 선택은 비인간화된 상황에서 생존을 그럭저럭 꾸려 나가기 위한 것으로 축소된다.

여성들의 취약성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 안의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의 성애화는 집단적인 것이며, 여성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성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성적으로 상처받거나 부상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여성 취약성의 사회·계급적 상징이다.

취약성은 억압의 조건, 즉 여성에 대한 성 착취로 촉진되는 여성 자아 파괴의 극단적 상태로 이용되어 왔다. 억압자들은 (다양하더라도) 결속된 하나의 계급으로서 취약성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명백하게 보호된다.

매일의 성적 관계 경험에서 '연약하다'는 것이 긍정적인 맥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말보다 훨씬 더 나쁘다. '성 혁명'과 '성적 굴복이 가진 힘'(The Power of Sexual Surrender)과 같은 1960년대의 지침서들은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서 기대되는 것인 양 만들고 있다. '약한 존재가 되기'

는 '취약성'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해로움이라는 정신을 제거해 버리고, 약한 인간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열린 의식 없이 개방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의 도전은, 여성의 약함과 공격에 대한 무방비를 유지하라고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점차 섹스가 섹시함으로 취급되는 성 착취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 안에서 섹스는 비인간화되고 섹스의 사용은 인권을 침해한다.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은 언론이 선전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시적인 성 착취 이미지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익명의 창부 이미지가 아닌 인간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페미니스트의 도전은 매매춘, 그리고 개인화된 가정·커플·결혼 안에 있다고 알려진 모든 제도화된 성 착취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만약 성적 관계의 평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성 평등인가? 개방성이 인간 경험으로서의 섹스를 이끌고 상호 작용이 성실함을 지닌 열정으로 여겨지게 하는 성적 친밀함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조건은 바로 성 평등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심도 깊은 이 지점에 여성들은 기준을 둘 것이다.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경험할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 개방될 수 있고 개방될 것이며, 그 기준을 통해 자신이 개방되어 있으며 욕망을 가진 성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내가 상상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현재의 불행한 상태를 계속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끝장내고 최후의 변화를 가할 것을 약속해 주는 마지막 혁명으로 끝날 그런 정치적 투쟁이 아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개인의 변화가 수차례 반복되면 집단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질 것이라는 거짓된 추측 속에 개인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통해 나아간다는 심리적 변화의 연속으로 그 '과정'을 축소시켜 버리는 혁명도 아니다.

나에게 있어 비타협적이며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가부장제 지배 상황을 넘어서는 현실을 상상하는 것은,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이 세계에 발을 딛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착취적이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가능성을 열두에 두면서 여성들의 (집단적) 경험 안에 존재해야 한다. 이 가능성은 전세계적인 여성주의 운동과 수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충분히 깨달은 것 이상으로는 변화의 잠재력을 획득하지 못한 가능성으로, 지배에 대항하고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페미니스트의 투쟁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또는 소녀에게 분명히 매매춘과 근친 강간, 강간, 결혼 안의 성 착취와는 다른 세상,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주택과 같이 물질적인 것과 건강 관리, 돈, 직업, 상담과 집단 의식 개발, 그리고 사랑을 제공해 주는 일들은 이미 다른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



2002 여성 기지촌 활동

기지촌 활동이란

기지촌 활동이란

'기지촌 활동'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 지역의 문제를 알아가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지촌의 성매매의 문제, 여성문제, 지역문제, 아동문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모두가 스스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지촌 여성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지촌 지역의 생생 배경,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성매매 문제, 온혈아동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는 제3세계 여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신매매 문제 등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모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 바로 기지촌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지촌 활동의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순수한 인간관계와 따뜻한 애정보다는 막연한 담 위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지주', '여성해방'과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논의에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개개인의 인권과 일상적인 삶에 스며들어 있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지촌 문제를 '민족'이나 '여성'과 같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틀에 맞춰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은 오히려 주변화되고, 당위적인 '선언'만이 권력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지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차근차근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지촌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한 명의 인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맺어진 이러한 관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 키워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지촌 문제나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화된 억압과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기지촌 활동은, 1990년 '두레방'을 알고 지내던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참여한 학교는 이화여대와 한신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이 계기가 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차츰 기지촌 여성문제가 알려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 의해 지원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지촌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지역 대학교의 여학생 조직들을 중심으로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체계와 내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촌 활동이 점점 알려지면서, 1992년에는 서울지역과 수원지역의 여학생 조직들이 각각 의정부, 동두천과 송탄에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4회 기지촌 활동은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후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기지촌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성매매 지역으로 활동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한소리회'와 연대하여, '두레방'(의정부, 동두천), '참사랑 쉼터(송탄)', '다비타의 집(동두천)', '막달레나의 집(응산)'에서 기지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성매매 문제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전장 실무자가 배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994년의 5회 기지촌 활동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으로 활동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1995년의 6회 기지촌 활동은 '동두천 두레방'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996년, 7회 기지촌 활동은 '의정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 단 두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감추어져 왔던 기지촌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키고, '의정부 두레방'의 경우 지역 민주당체와 연대하여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운동, 지역내 미군기지 실태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1996년 11월, '두레방' 등에서 활동하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새움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지촌 현장단체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던 상황에서, '새움터'의 설립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을 통해 배출된 실무자와 타 현장단체에서의 경험을 갖춘 실무자들이 종교, 정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순수한 민간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새움터'의 설립으로 인해서, 기지촌 활동 역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지촌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됨으로써, 1997년의 기지촌 활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움터'에서 준비한 기지촌 여성 탈성매매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허브(Herb)' 재배 및 판매였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으로 동두천 인근에 약간의 땅을 마련하여 허브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지촌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지촌 지역의 아동문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면서, 그 동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온 기지촌 여성의 자녀에 대한 야간 보육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1998년의 9회 기지촌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 기지촌 활동 기간 중에 동두천 지역에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수해복구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새움터'와 기지촌 활동,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8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 직업재활센터의 기지촌 여성 작품 전시회인 '동두천 아리랑'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실시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인하여 기지촌 활동의 준비가 약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동안 기지촌 활동 경험이 축적된 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가을 직업재활센터와 아등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게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의 여름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가 또 다시 수해를 겪게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나타났던 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많은 단위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무려 10주간이나 기일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와 회원들에게 무리가 되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30여개 대학교에서 기일에 참여함으로써 기지촌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참가한 각 지역 및 단위 주체의 준비 부족과 상호 논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후 평가와 지속적인 연대사업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0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99년에 있었던 이적숙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려진 '군사주의와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다 대중적으로 기지촌 문제를 알려나간다는 의미보다는, 새움터와 연대 활동을 해왔던 각 대학교 여성운동 단위들의 내부 역량을 모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새움터와 함께 활동을 해왔던 단위들이 참가하는 활동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기일이었으며, 대학생들과 새움터 회원들이 서로에 대해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여름 기지촌 활동은, 전여대협과 전학협, 그리고 각 대학 여성운동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기일에 참가했던 각 단위의 정치적 입장은 약간씩 달랐지만, 기지촌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공감대가 보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일을 계기로, 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을 가진 단위들이 연대하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활동을 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2001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성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군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

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전에 기지촌 활동에 참가했던 단위를 중심으로 '성매매'라는 하나의 주제를 택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음터의 프로그램이 약간 축소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활동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001년 여름 기지촌 활동에 앞서, 새음터는 동두천과 더불어 가장 큰 기지촌 지역인 평택(송탄)에 새로운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부근에 유리방이 밀집되어 있는 성매매 지역에도 센터를 열었고 언니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택 새음터에서는 기지를 진행할 수 있는 공부방,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기지촌 현장활동은 동두천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단위별 고양학교를 평택 새음터에서 진행하였으며, 올해 여름 기지는 동두천과 더불어 평택에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 일정

- >> 기간: 2002년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4주)
- >> 시간: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에 일정이 끝나면 간단하게 하루 평가를 하고 바로 퇴근하시면 됩니다. 최종 평가는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 >> 장소: 송탄 새음터, 동두천 새음터
- >> 인원: 1팀 4명 이내, 총 8팀
- >> 참가비: 1팀당 10만원 회비에는 식대, 자료집 등 경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4명 기준입니다. 단, 하루 기지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회비를 집행한 이후의 잔액은 언니들을 위한 상담비로 사용됩니다.
- >> 새음터에서 숙식이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양학교에 참가하는 단위가 기지촌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므로,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위에서는 꼭 고양 학교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지촌 활동의 한 팀당 인원은 최대 4명입니다. 공급하신 점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saewo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는 단위는 참가 1주일 전에 확인 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 활동 주의사항

- >> 참가 학생 서로간의 호칭은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언니들에게는 "OO언니", "OO아나나"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남학생이라면 "OO누나" 혹은 "OO누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희 실무자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는 편하게 "OO언니"나 "××선배"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동들 앞에서는 선우배 사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적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좋으며, 아동들에게도 기금적 존댓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다카기 때문에 언니들이나 아이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각자 별명을 지어서 명찰을 만들어 오는 것도 언니들과 아이들이 여러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언니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하지만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 언니들이 대학생에 대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바른 자세로 그 분들을 대한다면 서로의 거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가하는 학생들끼리의 개인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외부로 나갔을 때에는 실무자들에게 꼭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중에는 힘들더라도 항상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들을 대할 때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주세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애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칭찬과 애정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벌은 절대 안됩니다.

>> 아이들에게도 기금적 높임말을 써주세요. 자신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기질 때 아이들도 여러분을 선생님이 존중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새음터에서는 실무자, 자원활동가, 기금 참가 대학생 모두 금연입니다. 언니들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실 수 있지만, 기월에 참가하신 분들은 일과가 끝난 후에 언니들이 없는 경우에 실무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담배를 피우시기 바랍니다.

>> 언니들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실무자들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니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꼭 말씀해주세요.

>> 언니들과의 돈 거래 및 개인적인 만남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학생과 회원 사이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과 함께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새음터는 언니들을 상담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규칙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실한 모습도, 언니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1주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니 성실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실무자의 지시에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에 관한 이의나 의견이 있다면, 일과가 끝난 후에 꼭 말씀해 주세요.

>> 기지촌 활동을 마친 후, 회원들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도로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이후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언니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아이디어(캐릭터쳐 대자보, 별명 짓기 등)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고 즐거운 첫인상을 심어주며 언니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적인 기지촌 활동의 첫걸음입니다.

새움터 찾아가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카페 cafe.daum.net/saewoomi

e-mail swoom@choi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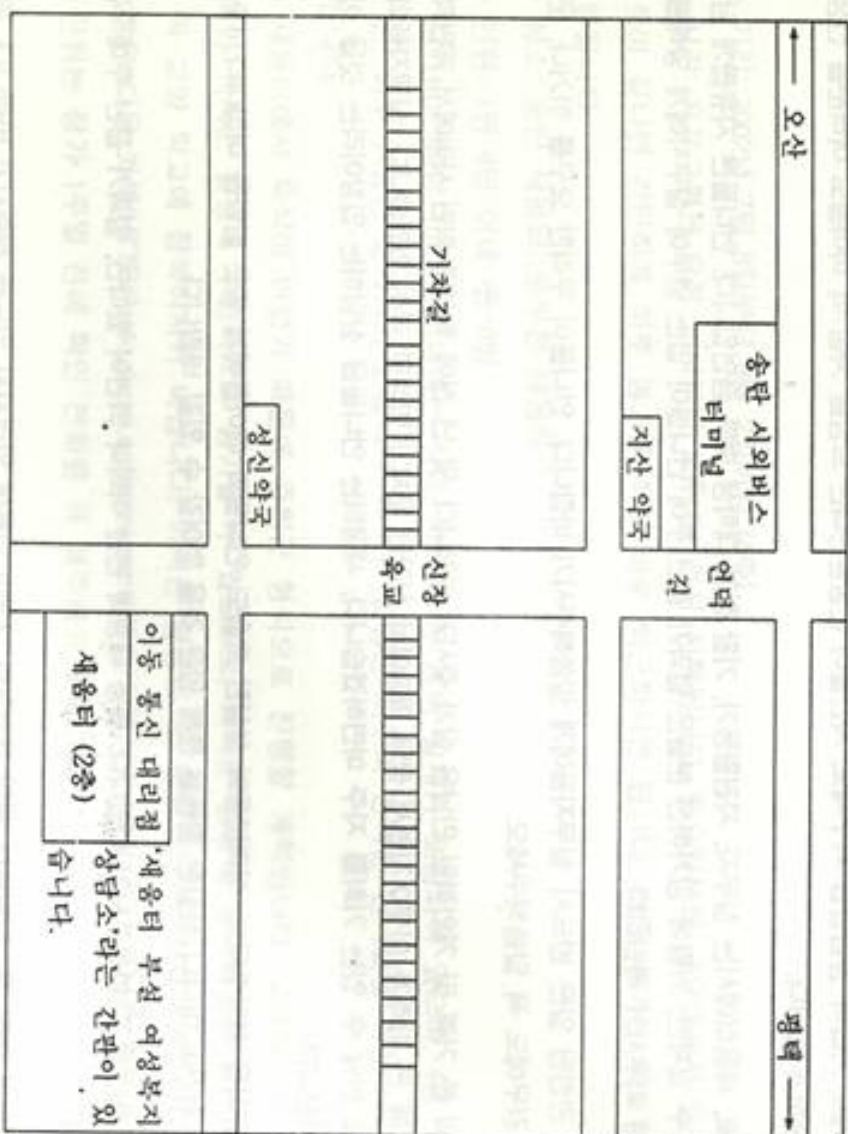
동두천새움터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동 541-39 22동 4반 3층

TEL 031-867-4655 FAX 031-867-3031

승만 새움터 경기도 평택시 신장2동 274-117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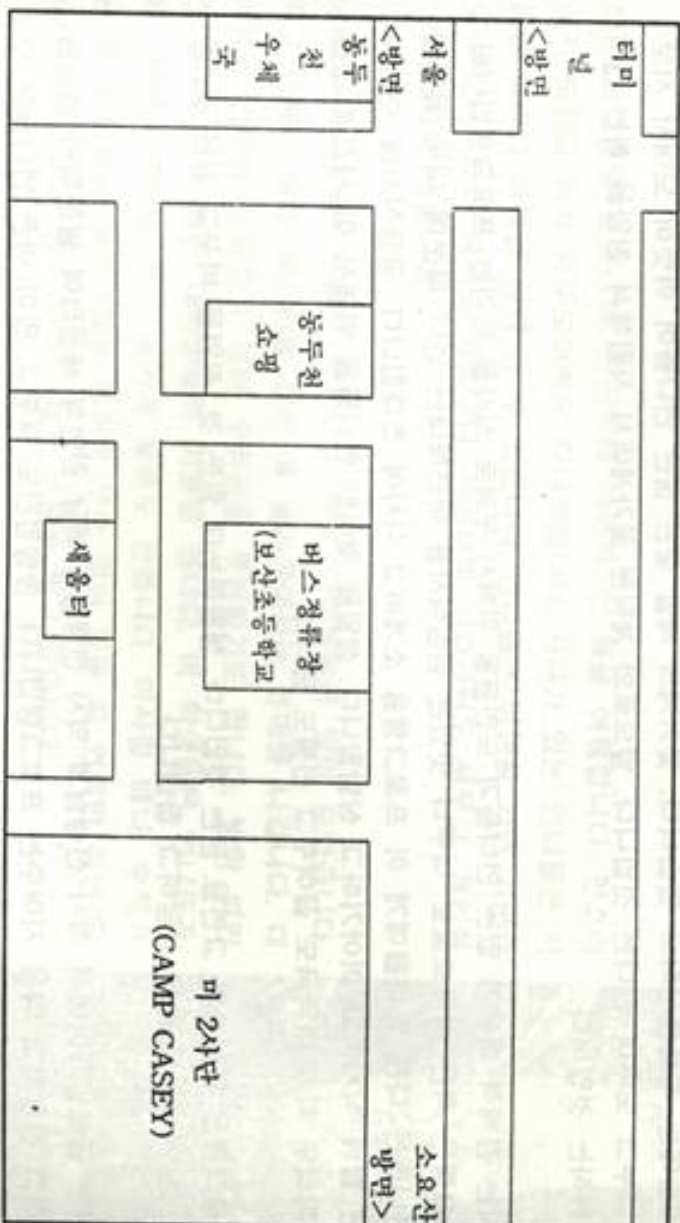
TEL 031-663-4655, 4656 FAX 031-867-4611

>> 승만 새움터 가기 (서울 남부터미널,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김포공항, 능곡 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승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면 약 1시간~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또는 기차를 타고 평택 역에 내려서 2번 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



>> 동두천 새움터 가기 (동두천은 의정부에서 기차로 약 25분, 버스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기차는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기차는 매시 20분 출발이며,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가는 기차는 매시 50분 출발입니다. 의정부역에서 신란리 방면 기차를 타서서 동두천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20분 정도 걸어오든지 택시를 타고 오셔야 합니다. 길아타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을 맞추기 힘든 기차보다는 버스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는 36, 136(좌), 39, 139(좌)를 타시면 됩니다. 모두 수유역(4호선) 근처에서 출발하여 쌍문역(4호선), 도봉역(1호선), 도봉산역(1,7호선), 의정부 북부역(1호선) 등을 거쳐 소요산까지 운행합니다. 단, 의정부역 앞으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수유역에서 버스를 타실 경우 동두천까지는 약 1시간 10분 소요되며, 의정부 북부역에서는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보산초등학교'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마지막 버스는 10시 50분 경에 있습니다. 단, 지하철을 타실 분은 기급적 10시 이전에 동두천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2002 여름 거리촌 활동
새움터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프로그램

새움터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움터 직업재활센터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동두천과 평택에 센터가 있습니다. 동두천 센터는 1996년에 문을 열었고, 평택 센터는 200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로 동두천과 평택, 군산, 파주, 의정부의 언니들을 돕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전화로 상담하는 언니들도 돕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언니들의 의견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성매매 법률 만드는 것도 언니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새움터에는 "언니"이라는 이름의 꽃가게가 있습니다. 이 꽃가게는 새움터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언니들은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판매합니다. 종이꽃과 핸드폰 고리, 포푸리, 카드, 엽서, 악세사리 등을 만듭니다. 이 수익금으로 꽃가게의 언니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1998년 12월과 2001년 2월에는 작품전시회도 했습니다. 꽃가게의 제일 좋은 점은 언니들이 여럿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꽃가게에서 자립해서 창업을 하는 언니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식사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언니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식사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으로도 너무나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련해내는 언니 때문에 더욱 유명합니다. 언니들은 다른 언니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식사에 초대합니다. 공동식사에 오시는 언니들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언니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조촐한 생일파티도 하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선물도 줍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언니들의 고민을 듣는 것입니다. 생활하는데 힘든 것, 직업을 바꾸고 싶은 것, 몸이 아픈 것, 자녀문제 등을 상담하고 돕습니다.

의료지원은 글로벌케어에서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이 매달 한번씩 새움터에 방문해서 언니들을 상담하고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합검진도 해주고, 많이 아픈 언니들은 수술이나 치료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항상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을 언니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에서는 업소에서 밀린 월급을 받는 것, 빚을 없애주는 것, 이혼하는 것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언니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군산 화재사건에서 언니들이 감금되어 있었던 방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을 때에는 비리가 있는 공무원과 포주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꽃가게에서 일하던 한 언니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범인을 찾는 유인물을 업소에 돌릴 때마다 거리에 있던 언니들이 큰 소리로 응원해주었습니다. 그 언니들은 "왜 아가씨들만 자꾸만 죽느냐?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범인을 잡지 못하느냐?"라며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근 언니들이 가장 분개했던 일은 성매매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언니들을 시설에 강제로 입소시켰다는 의견과 공장제도를 하자는 의견을 말했을 때였습니다. 언니들에게는 어디에서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언니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언니들은 절대로 이런 의견에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언니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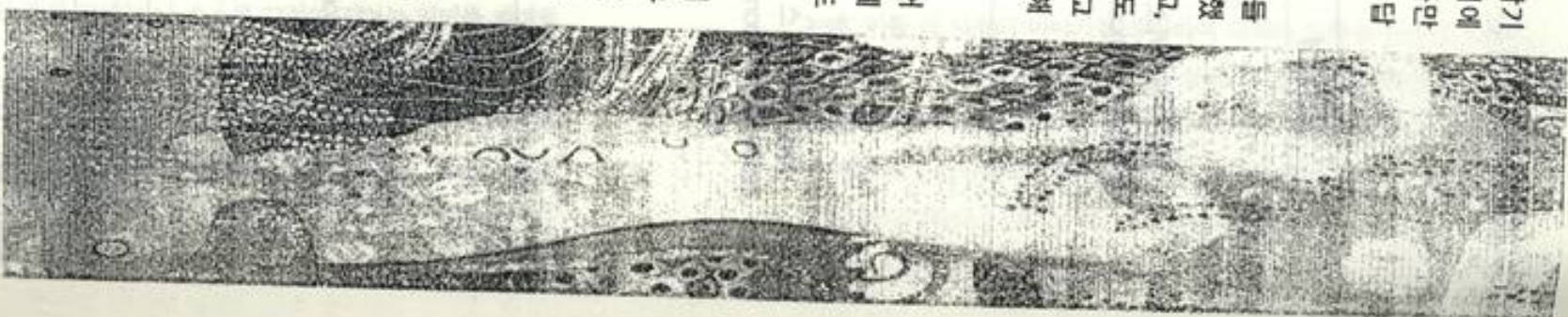
공부방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어머니들을 상담하며, 의료적 지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장학금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온천이나 바닷가, 산 등을 여행합니다. 한소리회에서 도움을 주서 제주도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자녀가 있는 언니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언니들은 여행을 가면 기분전환도 하고, 미래의 계획도 세웁니다. 새움터의 사업계획도 세우고, 개인적인 미래계획도 세웁니다.

새움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대학교 축제나 월경 페스티벌 같은 때 꽃가게에서는 판매를 나갑니다. 대학생들은 판매를 도와주고 정터 수익금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방학 때만 되면 1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기쁨을 줍니다. 이 학생들은 언니들과 함께 공동식사준비도 하고 꽃가게 물품도 만듭니다. 이시할 때나, 수해가 났을 때, 언니들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만 하면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여러 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움터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위해서 새움터 직업재활센터 언니들 다섯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글은 전문을 모두 언니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새움터에서는 언니(Sis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현장지원서비스 (Drop-in service)	▶ 물품지원 생리대, 의류, 식품 등 ▶ 정보제공 법률정보, 취업정보, 지원체제정보 등 ▶ 의료지원 의료정보제공, 치료위탁 및 치료비지원 등 ▶ 상담 탈선대응상담
긴급지원서비스 (crisis intervention service)	▶ 물품지원 생리대, 의류, 식품 등 ▶ 위기개입상담 문제해결상담, 심리치료상담 등 ▶ 의료지원 종합진단, 치료위탁 및 치료비지원 ▶ 무료법률지원 법률원인으로 인한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고소고발 상담, 소송상담 ▶ 주거지원 주거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 서비스연계 쉼터, 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지원기관 등
직업재활서비스 (self-independence service)	▶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 취업정보제공, 직업알선 등 ▶ 취업상담 ▶ 자신감회복과 표현력 향상을 위한 상담, 면접기술 익히기 등 ▶ 공동직업장 ▶ 중장기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기술교육
쉼터(shelter)	▶ 일시보호 ▶ 물품지원

어떤 역사

성매매 지역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

엄상미

개나리회를 찾아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지역의 여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자치 조직이 존재했다는 말을 들어 왔다.¹⁾ 하지만 그 조직은 사회 일반에 드러나지 않았고, 자료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남긴 예도 극히 드물다. 다만 성매매와 연관된 삶의 길이가 제법 긴 여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들만의 묻혀진 역사로 존재할 뿐이다.

오래 전부터 전국 곳곳에 존재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지 못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짧은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인연을 맺었던 여성들로부터 자치 조직에 관해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던 오래 전에는 나 스스로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는 주로 여성들 개개인의 생애사적 이야기에 비중을 두며 빈약하나마 기록으로 남겨 왔을 뿐이다. 그 동안의 작업, 여성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는 성매매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그 안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피해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여성들의 일상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다.

이 글은 서울 용산 지역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활동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이 글을 쓰기 3년 전쯤부터이다. 이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취재하기로 하고 당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한 여성 네 명을 찾고 만나서 섭외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물론 그들 중에는 마음과 달리 연이은 개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누구 하나 흔쾌히 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시절을 어떤 기억보다도 긍정적이고 당당한 시절로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작업을 함께한 네 사람은 모두 40, 50대를 살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되어 일을 시작해 개나리회 조직에 관여했으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 이 작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나리회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간략한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 말고는 어떤 자료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사진 한 장, 신문 기사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록의 대부분을 인터뷰에 응해 준 여성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들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대략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터뷰 중 서로가 살아온 내력과 최근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삶보다도 개나리회의 결성 배경과 3년 동안 진행된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인터뷰에 응해 준 여성들의 이름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 가명으로 쓴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의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

1) 미군 주둔 지역인 의정부, 군산, 송탄의 자치회와 속칭 '388'로 불리는 청량리 지역에서의 자치회 경험이 그러하다. 기지촌 평화 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기지촌 지역의 자치회는 교양 강좌와 정기적 성병 검진을 대행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전통형으로 구분되는 오래된 성매매 지역에서의 자치회도 활동 양상이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고 했던 여성들의 노력이다. 이것이 여성들 안에 존재했던,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스스로의 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껏 여러 연구와 NGO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러 대안이나 성매매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여성들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느끼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집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은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사회를 깨끗이 만든다는 의미의 '운동'이다. 하지만 사실 그 운동의 내부를 들여보면 단지 더러워 보이는 부분을 그럴싸하게 감추고 정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정권의 사회 정화 대상은 부랑인, 건달을 비롯해 성매매 지역의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일시적인 '청소'의 의미가 강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회 정화 운동의 정당성은 제대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아냈으며, 실제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축감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성매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당사자 여성이든 '기동서방' 이든 '포주' 든 간에 구분 없이 모두 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980년에는 삼청교육대 소문을 들

2) 일부 용어에 대해 작업에 참여한 여성들의 표현을 따라 쓰기로 한다. 이를테면 '포주' (업주), '기동서방', '아가씨', '봉알' (환각제) 등의 용어가 그러하다.

고 자신이 그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피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로 인한 소요는 용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1년 5월 무렵, 당시 도 성매매 밀집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던 용산 지역에서는 몇몇 유지를 주축으로 이른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것이 결성되었다. 주축이 된 유지를 대부분이 '아가씨 장사'를 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지역의 유지로 행세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자체적 움직임은 정부에 의해 행해 질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정화위원회를 결성하며 내세웠던 활동 내용은 성매매 지역의 '질서 잡기'가 사실상의 핵심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용산의 성매매 거리에서도 '사회정화위원'이라는 완장을 찬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스운 일이었지. 돈 봉투 갖다 주면 입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단속입네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정화위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내 생각에는 정화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포주들이었다구.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사생활, 태도 어느 모로 보나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지역 정화 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 가정부터 정화해야 하는 거였어." (성은아, 가명, 당시 36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성은아 씨에 의하면 사회정화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도 높았지만, 위원직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의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사회정화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역을

3) 오래된 성매매 밀집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말은 성을 파는 행위 혹은 성을 팔도록 종용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경우에 따라 업주 처지에서만 더욱 큰 이득이 되는 현실을 꼬집는 것이기도 하다.

순회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질서 잡기'를 위해 짚은 묘안이란, 여성들이 역 광장이나 큰 도로변까지 나가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영업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는 영업에 나서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배부한 표를 반드시 달도록 했으며, 그 표를 단 여성들에 한해서만 '히빠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업소당 한 명씩 교대로 히빠리를 하도록 했는데, 먼저 나가 있던 여성이 손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른 여성이 교대로 나와 호객 행위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상의 것들은 정화위원회에서 일종의 규정으로 만든 사항인데, 만일 가슴에 표를 달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면 이들이 정한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의 실제 역할이란 자체 단속이었던 것인데, 이는 경찰과 협의된 과정을 거쳐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자체 단속을 위해서는 각 업소의 모든 여성이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을 사회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해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 등록하지 않는 여성도 더러 있었다.

"나는 절대로 본명을 쓰지 않았거든.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대개 다 그랬지. 근데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내 주민등록증이며 뭐며 다 갖다 내야 할 텐데, 하기 싫은 거야. 옆에 아가씨들이나 포주들도 왜 나보고 등록 안 하나고 그러는데, 나는 내 씩 내가 파는데 지들이 무슨 상관이나 그랬지." (성은아)

여성들은 사회정화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사실상 경찰들에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 단속을 통해 경찰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지역 여성이나 업주의 처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정화위원회의 지침대로 그들이 배부한 표를 가슴에 달고 영

4) '잡아갔다'는 의미의 일본어에서 파생된 말로, 거리에서 직접 상대 남성을 호객하여 성을 파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은어이다.

업을 나가야 했다. 그 표에는 경찰들의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의미가 동시에 담겨지는 것이었다. 그 '주홍 글씨'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굴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표로 여성들이 염려하는 단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지침이 시행된 첫 날, 표를 달고 영업을 나가 히빠리를 하던 여성 중 한 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연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여성은 경찰차에 실려 연행되어 가던 중 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정화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당연히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 말만 믿고 방심하다가 생긴 사고였지. 아가씨들이야 당연했고, 특히 포주들까지 아우성을 쳤어." (성은아)

평소였다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었지만, 믿었던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성은아 씨와 주변 여성들은 그 당시 경찰의 단속은 분명 사회정화위원회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함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경찰과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규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 경찰의 큰 부수입이었을 '상납'의 빌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지역의 반응은 생각보다 거셌다. 특히 업주들은 사회정화위원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처음부터 별다른 소명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던 정화위원들은 몇 명만 남겨두고 모두 사퇴했다. 남은 정화위원 중 누군가에 의해 차라리 여성들 스스로 자체적인 정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때, 제일 먼저 아가씨 중에서는 나한테 찾아와서 의논을 했지. 조용히 벌어먹으면 단속이 없을 거 아니냐, 그거였어. 한 여자랑 나랑 둘이 쫓 유명

했는데 개는 포주니까 제외됐고 나한테 온 거지.”(고수희, 가명, 당시 38세)

1974년부터 용산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던 고수희 씨는 여성들 사이에서 ‘꿀통 짓’ 부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꿀통 짓’은 주로 업주나 경찰을 향한 것이었다. 정화위원들이 고수희 씨를 제일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여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얼마 후 그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각 골목을 대표할 만한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 자리에 불러 나간 여성들은 동네에서도 ‘한 가닥’ 한다는, ‘반만치 않은’ 부류들이었다. 이 의미는 손님에게 건 업주에게 건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성을 뜻했다. 정화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임을 주최한 의도를 얘기했다. 그들은 여성들끼리 자체적으로 ‘정화’를 위해 활동해 보라고 제안하면서, 그러려면 이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보라고 했다.

“나는 성은아를 추천했어. 나랑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개가 제일 나왔어. 그 당시 그 사람 말고 할 사람이 없었어.”(고수희)

고수희 씨가 말하는 ‘제일 나왔다’는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르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자치회 성격이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벌, 마음 씀씀이, 인정, 똑똑하고, 세고, 우선 세다는 거. 세지 않으면 못해, 건달들 있고 그런데 어떻게 버텨 내냐. 그리고 고지식하고, 거짓이 없었고, 개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끌어 나갈 것 같았어. 내 짐작이.”(고수희)

고수희 씨가 그를 처음 추천한 것은 정화위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였는데, 정작 성은아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모임에 참석했다.

“난 처음에 내가 정화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나를 부르는 건 줄 알았

어. 그래서 속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랄하려면 어디 해봐라. 어디 한번 정면으로 부딪쳐서 얘기 해보자. 그런 심산이었지.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글썄, 한 스무 명 정도가 먼저 와서 모여 있던데, 아는 아가씨 얼굴도 있고, 정화위원 하던 남자 중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로 불러내서는 부탁이 있다고, 아가씨들 권익을 위해 함께 일해 보지 않겠냐는 거야. 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나서서 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성은아)

1980년 초 삼청교육대에 소집될 것을 우려해 동료 몇 명과 인근 지역으로 도피한 경험이 있는 성은아 씨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늘상 ‘꿀통 짓’만 하던 자신의 ‘깡다구’ 때문이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변 여성들에 의하면 성은아 씨는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똑바로 내세우는 여성이었다. 더러는 업주나 펌프와 마찰도 심심찮게 일어났는데, 그런 경험이 거듭될수록 ‘함부로 전드리면 안 될 여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업주들과는 반대로 동료 여성들이 보내는 성은아 씨에 대한 신뢰는 무척 깊었다.

성은아 씨는 그날의 분위기를 “무척 진지했다”고 표현했다. 제안을 받은 자신이나 제안을 한 주변 사람들, 정화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업주와 동료 여성 모두가 그러했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자치조직을 만들자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서서 무슨 회를 맡아 이끈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성은아 씨는 거기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화위원들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말이 오가더니 누군가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회장단만큼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는 의도였다. 즉석에서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성은아 씨 외에도 다른 몇 명의 여성이 더 거명되었다. 성은아 씨는 끝끝내 거절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말거나 한다는 아가씨들 스무 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 그때 딱 여자들도 회장으로 추천됐는데 칠판에 정(正)자 씨 가면서 뽑았어.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발표도 하고, 나는 절대로 회장은 안 하겠다. 했으니까, 회장 한 명 뽑았고, 내가 다른 여자 한 명이랑 부회장을 하고, 총무 한 명, 각 구역 대표도 뽑았지.”(성은아)

그렇게 결성된 임원단은 그 자리에서 회의를 열어 자치회의 이름을 ‘개나리회’라고 짓고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다. ‘개나리회’라는 이름은 성은아 씨가 제안한 것이었다.

“개나리가 된 뜻이냐면, 겨울 지나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잖아. 그러니까 희망 이런 것도 떠올려지고,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피니까 강하기도 하고, 여자들 처지랑 비슷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희망을 가져 보자는 거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가씨들의 자치회야.”(성은아)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자치회 역시 ‘민들레회’, ‘꿀벌회’ 등 꽃과 관련된 이름이었던 게 떠올랐다. 고수희 씨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꽃! 이젠 아가씨들의 회잖아. 아가씨, 뭐, 여자, 그러면 꽃이잖아.”(고수희)

개나리회 회원의 자격은 이들이 표현한 것처럼 ‘아가씨’에게만 가능했다. 여기서 종종 표현되는 ‘아가씨’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처녀’나 젊은 여자의 높임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며 직접 성을 파는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개나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업주가 일부 있고 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펌프들도 있기는 했지만, 개나리회는 성매매 지역에

서 가장 당사자적인 여성들이 그 중심 대상이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특히 펌프와 여자 업주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물론 모든 펌프와 포주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들처럼 긴 세월 ‘아가씨’ 생활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자신들 역시 더 나이가 들면 펌프가 될 수 있으며, 펌프가 된 많은 이들 가운데는 중년의 나이를 무릅쓰고 다시 직접 몸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된다면 아가씨들을 몇몇 두면서 자신이 직접 ‘포주’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포주, 펌프=나쁜 사람’이라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악덕 포주=나쁜 사람’이라는 공식이 더 맞는 셈이었다.

개나리회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상담, 회원증 발급 등과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개나리회는 정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와 달리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는데, 그것은 업주가 아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런 배경에는 당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활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자신들만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실히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자(가명, 당시 34세) 씨는 ‘악자’인 자신들의 처지에서 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 먹고 싸우고,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다 보면 무조건 우리가 악자니까 우리만 나쁘다고 해서 수용소 같은 데 막 보내니까. 피해자는 우리인데도 일단 연행이 되면 벌금을 물든가 수용소에 가야 했잖아. 벌금도 그 당시 몇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했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었지.”(정숙자)

그 무렵 성매매 지역에서 일한 많은 여성들은 특히 단속과 수용소 경험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회상했다. 성은아 씨는 단속에 걸려서만이 아니라 '꼴통 짓'을 부리는 통에 경찰들에게 밋보여 수용소에 입소했던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부녀보호소에 입소시켜 직업 교육을 받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 수용된 경험 이 있는 여성들이 '감옥 같은 곳'이라 부를 만큼 그곳은 '재활'보다는 수용 의 기능이 더 컸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차라리, 경찰에게 돈을 주면 컷지 수용소는 절대로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상황은 1980년대 내 내 성을 파는 여성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도전

개나리회 임원진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회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갔다. 그러던 중 첫날 회장으로 선출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사퇴를 하자 부회장으로 참여하던 성은아 씨가 다시 회장 후보로 지명되었다. 결국 그는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임원 회의를 소집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만 중구난방으로 떠들 다가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제법 회의가 됐지. 그때 목적, 사업 내용 이런 걸 정했어. 내가 생각한 거 몇 가지를 적어 가서 칠판에 적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첫째가 권익 옹호를 위해 일을 해보자는 게 제일 컷어." (성 은아)

개나리회 임원들은 나름대로 회의 체계를 잡고 개나리회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했다. 거기에는 회장 성은아 씨가 제안한 내용들이 크게 중심을 이루었다.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당시 개나리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적 힌 간략한 문서를 건네받았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동 타자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누군가 드문드문 괄호를 치고 뭔가를 보충하느라 고적 거러 놓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문서를 건네받고 적잖이 놀랐다. 이 문서가 지금껏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 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 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20년 전에 그들이 자신들 자치 조직의 구성 목 적과 활동 내용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들 때문이었다. 우선, 그 내용의 전문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

목적

1. 자체 정화: 정부의 사회 정화 사업에 동참
2. 회원의 권익 보장
 - 포주, 펌프, 기동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 억압에서의 해방
3. 회원간의 친목 도모
 - 불우한 동료나 약한 자를 돕는다
4. 빠른 자립(직업 전환)
5. 건강 관리(성병, 지나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에서 오는 정신 착란증)
6. 관(정부)으로부터의 묵인(보호나 인정이 아님)

활동 사항

1. 1인 1통장 갖기 운동(자립을 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
2. 건강 관리
3. 기동서방 없애기, 펌프 손님 안 받기
4. 상습 도박 퇴치 운동

5. 지나친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안 하기
6. 고운말 쓰기, 손님에 대한 서비스 개선

개나리회 홍보 활동

1. 철도 이용객 식수 제공(식수 시설이 없다. 3등 열차이기 때문에) (오후 1시~8시까지/ 보리차)
2. 조기 청소(새벽 4시 역 광장과 7, 8통 전지역)
3. 불우 이웃 돕기

기타

불우 동료 돕기
위급 환자 병원 앞선 수술
결혼식 주선(동거 동료들)
장례식 위로(그의 동료 방문 및 위로)
정신질환자 또는 무작정 상경자 귀향, 선도
취업 알선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 감찰 8명
후원: 용산구 보건소, 서울시 부녀청소년과, 용산 지역 사회정화위원회
기타: 신상 카드 작성, 회원증 발급, 성병 검진 패스 발급

여기에 적힌 내용들은 거의 파격에 가까웠다.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지칭, 이를테면 '포주', '기동서방', '펌프' 등 의 말이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착취', '억압', '해방' 등의 표현이 거침 없이 표현되어 있었다. 그런 용어들의 차용은 분명 그에 기인하는 배경, 즉

여성들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던 문제 의식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놀랐던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내부적인, 표출되지 않았던 문제 의 식이 자치 조직 결성을 계기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그들만 의 생각, 입장, 주장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상기한다면 얼마나 큰 파격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치회를 조직할 당시에 정화위원들 외에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 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혹이 들기도 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문서 작성을 도와 준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어쩌면 여성들 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언어로 토론했을 조직 목적을 누군가가 또 다른 수준의 언어로 정리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이기도 했다.

나는 이 문서를 인터뷰에 응해 준 다른 두 명의 여성에게 보여주며 궁금 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그들은 이 문서를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정숙자 씨 는 "그래, 맞아. 이거였어"라며 이 문서가 당시에 기록된 게 맞다고 했다.

자체 정화, 회원의 권익 보장, 회원간의 친목 도모, 빠른 자립, 건강 관리, 관(정부)으로부터의 묵인 등 개나리회가 목적으로 정한 이 여섯 가지 사항 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그들 스스로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악덕 포주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기동서방을 없 애고, 펌프가 데려다 주는 손님 안 받고, 뭐 그런 운동을 벌이기로 했어. 그 리고 우리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일 년에 두 번 이상 자원 봉사 도 하자고 했고, 회의에서 그런 걸 정하고 나오는데 옛날에 느껴 보지 못한 화열 같은 거, 뿌듯하고 뭔가 충족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어. 뭐랄 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앞으로 닥칠 일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마치 내가 무슨 투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어." (성은아)

당시 감찰이라는 직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정숙자 씨는 자신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270 용강한 여성들, 녹대를 타고 달리는

와 여성, 여성과 손님, 여성과 기동서방, 여성과 지역 주민 관계에서 온갖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사창가이다. 하지만 그곳이기에 그나마 두려움을 견디며 생활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독백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직면하기에는 너무도 무모한, 여성들이 차마 직면하기를 꺼려했던 수많은 경계선들이 높고 두텁게 쳐져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는 특히 "회원의 권익 보장—업주, 펌프, 기동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였다. 더군다나 개나리회의 태생이 당시 정부의 정책에 뿌리를 두던 정화위원회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이 문구는 가히 파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도움을 준 업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로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 여성을 위한 활동 내용에 여러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치회가 이미 태생적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단지 앞선 위원회의 파행을 포장하기 위해, 정화위원회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부류, 특히 업주들에게는 이 개나리회가 품고 있던 목적과 활동 내용이 거의 도전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개나리회와 업주, 펌프, 기동서방 사이에서는 이미 적잖은 마찰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정한 개나리회는 1981년 7월 22일, 인근에 있는 용산카바레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임원들은 개나리꽃을 상징하는 샛노란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되게 많이 모였지. 그때는 업주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었으니까 자기네 아가씨들 다 동원해서 오고 그랬어." (성은아)

발족식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개나리회의 취지 등이 발표되었다. 이때, 임원단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으로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료를 도와 주자는 것이었다. 그 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연을 알고

이 그와 같은 목적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까닭을 이렇게 표현했다.

"막말로 '썸' 띄고 '썸' 띄는 현실이니까. 만약에 내가 손님에게 타임으로 만 원을 받으면 오천 원은 포주에게 줘야 돼. 포주는 집 제공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면 안 되지. 영입하려니까, 여자는 옷 사고, 집값 내고, 다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익을 찾자는 거였지." (정숙자)

정숙자 씨의 경우, 열 여덟 살에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된 이래로 전국 곳곳을 전전하다 용산에 정착한 지 1년 되던 해에 개나리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로서는 이미 십여 년 동안 성매매 체제 안에 살아온 셈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개나리회를 결성하며 남다른 호응을 보였던 배경을 업주와 경찰로부터의 불이익뿐 아니라 자신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상황에도 연결시켰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정말 이 현실이 내 현실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그게 비애였지. 우울증 환자처럼 술 안 먹으면 못 견디겠고,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이 용산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매일이 똑같은 일상인데, 달라지지도 않고, 밤에 일들 하고 낮에 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상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하니까 뭔가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 취지는, 우리가 비록 힘하게,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하루를 살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 생활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그게 취지지." (정숙자)

정숙자 씨는 자신들이 용산역을 벗어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곧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왜냐고 되묻는 내 질문에 "우리들의 온전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몰린 끝에 이른바 '사창가'에 모여든 여성들은 그곳에서 체념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함을 느낀다. 업주

어떤 역사 271

있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딱한 처지는 늘 허락을 차게 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임원단의 그 제안은 즉석에서 성금을 걸어 함께 발족식에 참여해 있던 그 여성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데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이 날의 일은 이후 개나리회 활동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이 개나리회를 구성하며 가장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업주, 경찰, 기동서방, 펌프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 여성을 돕고, 소외 계층을 위해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었다.

견제와 대항

개나리회는 발족식을 가진 사흘 뒤인 7월 25일부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사업은 용산역 광장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역 이용자들에게 얼음 넣은 시원한 보리차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 시절 용산역은 식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던 터였다. 또한 오가는 여행객들이 남긴 쓰레기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쏟아낸 흔적들로 늘상 지저분했다. 여성들은 새벽마다 용산역과 인근 거리 청소하는 일도 시작했다.

밤샘 영업을 한 여성들로서는 자신들의 수면 시간을 온전히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도 참여율이 무척 높았다. 용산역에는 개나리회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매일같이 걸렸다. 초창기 이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들에게 천 원씩 걷은 것으로 충당했다. 이 일에는 업주들도 여럿 참여했는데, 여성들에게 수고한다면서 음료수를 사 주기도 했다. 몇몇 업주의 참여는 여성들의 사기를 더 북돋워 주었다.

"다들 싱글벙글이었어. 업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우유나 요구르

272 용강한 여성들, 녹대를 타고 달리는

어떤 역사 273

트를 사 주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전달이 아니더라고. 그야말로
정화위원들다웠어. 먼저 탈퇴한 정화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개나리회를 도와 줬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성은아)

하지만 나는 좀 의아스러웠다. 일부 업주들의 참여도 그랬지만, 그들이
초창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이 왜 하필 대민 사업이었을까? 그들이 편의
를 제공하는 낯모름 사람들은 지금껏 자신들 같은 여성에게 곱지 않은 눈길
을 보내던 이들이 아닌가. 정숙자 씨와 인터뷰 도중 나는 이런 질문을 한 적
이 있었다. 잠잘 시간 줄여 가며 음료를 나눠 주고 청소를 한 것은 당신들
을 손가락질했던 사회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정작 당신들에게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었느냐고 말이다.

“글쎄. 우리들의 깨달음이었을까? 그다지 뭐 적대감일까 그런 건 별로.
평범한 일상 생활…… 축복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거지.”(정숙자)

이 의도된 질문에 정숙자 씨는 그저 나이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이 적당한 체념과 적당한 관조, 적당한 편안함이 나는 그리 싫지 않게 느껴
졌다.

이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가 속한 테두리 밖과의 단절을 ‘선택’ 한
여성들이었다. 행여나 자신을 알아보는 이가 있으면 어쩌나 염려하는 순간
들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남겨질까봐 거짓 이름을
사용했다. 그런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신조차 제 본디 이름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이렇듯 그곳에서의 세월이 하루하루 보태질수록 체념마저도
별스럽지 않은 일로 넘겨 버릴 수 있게 된 그들이 그러한 활동을 계획한 것
은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똑같은 질문을 성은아 씨에게도 던졌다.

“그렇지 않았어. 누가 알아볼까봐 모자 꼭 눌러 쓰고 했지만 그런 생각은
없었어. 우리도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지. 사람들이 얼
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용산에 가면 우리처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야. 택시 기사들도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 나눠 주면
그거 받아 마시면서 아, 정말 수고한다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현수막보
고 저 개나리회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 보면 그냥 지역 봉사회라고 얼버무리
곤 했어.”(성은아)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런 여자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가 교차하는 그들로서는 자신들
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을 가족과 지난 날 앨범을 함께 장식했던,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
까운 이들에게 향하는 심리는 낯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
지로 작동하였다. 그렇듯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바
람은 그들 모두가 거의 비슷했다. 혹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지지는 않
으려나,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어젯밤 상대했던 손님은 아닐까, 내 매무새가
‘그런 여자 티’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는 어느덧 사회 전반에 대
한 두려움이 되기도 했으며, 그 두려움의 두께만큼 사회에 대한 반감도 커
졌다. 이런 여성들이 스스로 ‘홍등가’가 아닌 또 다른 거리를 향해 나간 것
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발족식 때 어려운 처지의 동료 여성을 도왔던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자세는 발족식 이후에도 한
결같이 지속되었다.

“아픈 아가씨들 입원시키고, 집집마다 돈 건어서 도와 주고, 아가씨들 아
프면, 개나리회 회원 아니라도 아프면 다 했어. 또 아가씨 두들겨 때면 우리

가 거기 가서 막 뭐라고 하고, 업주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 누가 맞았다.
그러면 와서 얘기했어. 독한 업주들은 그래서 우리를 싫어했어. 수레 낚을
때 모금하러 다니면 돈도 안 내주고.”(고수희)

전에 없이 경조사를 챙기고, 서로간의 신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움
을 주는 것은 여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누군가 애써 준다는 인상을 심어 주
기에 충분했다. 고수희 씨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처지를 돕는 것은 동료 의
식의 가장 기본이기도 했다. 개나리회의 동료 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
되었는데, 그것은 다분히 저항적이었으며 표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회가 생기고 나서 여자들이 단속에 걸리면 우리가 다 파출소에 쳐들
어가서 쟁판을 냈어.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여자가 붙들려 갔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잘 아는 여자는 아니어도 개나리회 회원이면 무조건 가
는 거야. 가서 빨개벗기도 하고 오줌도 싸 놓고 똥도 싸 놓고, 말도 아니었
어. 그러면 경찰들이 갈구지를 못했어. 백차가 딱 오지? 우리는 그 밑에 딱
들어가 버려. 데리고 가려면 가라, 버티는 거야. 사람이 차 밑에 들어가 있
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요구 사항은 여자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질극이지. 좋게 말하면 시위고 까놓고 말하면 인질극. 그게 성공한 적이
많아. 그렇게 실제로 여자를 빼낸 경험이 여러 번 있어.”(정숙자)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썼다.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던지고 있던 편견을 모르지 않았다. 게으르며 거칠고 상소리를
잘한다는 등의 사소한 편견들. 그와 같은 인식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순간에는 오히려 그들만의 익숙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편견을 조롱이라도 하듯 그대로 내보였다. 이런 방법은 비단 경찰
들에게만 쓴 것은 아니다.

“뭉치면 힘이 되잖아. 나 역시 자부심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 경찰뿐 아니라 손님이나 펌프, 기동, 업주와의 관계에서 그런 적도
많지. 손님들 중에 나쁜 놈이 좀 많아?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남자들이 들
어오면 타임 값이 얼마나 된다고, 여자들 가지고 놀다가 자기네가 클라이맥
스가 돼서 사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다시 달래. 남자들이 막
가지고 놀고 주물러 터뜨리면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짐승도 아닌데. 그
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싸우게 된다고. 사정 못했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니까 안 싸울 수가 있니? 살인이라도 나야지. 그럼 신고가 들어
가. 만만한 게 여자들이지. 몸뚱이 다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그럼 막 쳐
들어가서 쟁판 놓은 적도 있어.”(정숙자)

이런 방법은 개나리회 동료들을 빼내 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하나이
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동안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나리회라는 이름으로 단결을 경험한 여성들의 자기 과시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래, 나는 꼴통이다!”라는 개인적 분출 외에 자신이 어
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자신이 소속된 이 모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라
는 걸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꾸준히 지속되자 주변의 견
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 물론 그들의 주된 견제 대상은 임원진이었었는데, 그
것은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 중의 하나였다. 누구보다도 회장 성은아
씨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가장 컸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업주와 경찰
로부터 던져지는 비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성매매가 집중적으
로 일어나는 ‘특별한 지역’에서 심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영업 행위’에 대
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업주와 경찰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권력을 쥐고 있는 부
류들이었다. 한데 개나리회가 집단 행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
며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경계할 만한 일이

었다.

“맨 처음에는 많이 싸웠대. 하면서도 계속 많이 싸우고, 회장이 욕을 다 먹었지. 그러면서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 건달이면 건달, 업주면 업주, 끝까지 설득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었지. 의리파니까.” (온소영, 가명, 당시 23세)

온소영 씨는 이미 개나리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 같은 업소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개나리회를 알게 된, 그의 표현에 의하면 ‘뜻’에 동조하였기에 함께 활동을 시작한 여성이었다. 그는 성은아 씨나 정숙자 씨와 달리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으며 활동 경력도 6개월로 무척 짧았다. 그저 평범한 회원으로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길에서 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었다. 온소영 씨는 업주들로부터 겪는 불편함 때문에 개나리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임원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여자들이 벌써 표정부터 싸 달라져. 벌써 피해, 도망가. 같이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 업주들이 뭐라고 하고 못하게 했으니까. 업주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아가씨들이 도망가고 숨고 그랬어. 내가 알기로는 초창기나 그후에도 거의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다고 봐. 근데 아가씨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 개나리회 잘한다고. 근데 임원들 얼굴만 보면 딱 언제 그랬냐며 안면 까. 업주들이 하도 그러니까.” (온소영)

임원들이 겪는 불이익은 심리적인 위협뿐 아니라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말도 마. 칼침 맞을 정도였어. 어지간했으면 밖에 나가는 게 다 무서웠겠어. 업주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오죽했으면 악바리라고 소문난 회장이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한 적이 있었겠어. 하지만 도움을 준 업주도 있어. 인간적인 거지. 세파에 억눌려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성격을 형성하잖아.

모순이지. 약간 모순이 아니라 상당히 모순이지. 그런 업주들도 우리를 도와줬다가도 밤에는 아가씨들 거느리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은 업주도 못해.” (정숙자)

전체의 중심 대상이었던 회장 성은아 씨는 업주들의 횡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리 분지른다. 목을 비른다. 벽돌로 뒤통수를 잔다. 수용소에 처넣겠다. 뭐 별별 협박 소리가 다 들렸어. 애들이 막 맞고 돌아오기도 했어. 울면서 들어와서 누구네 집 업주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곧바로 쫓아가지. 처음에는 똑같이 그랬지만 나중에는 나도 이게 그냥 부딪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말을 하지.” (성은아)

그와 같은 견제는 비단 업주나 기동서방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성은아 씨는 관할 구청과 파출소에 불려 가는 일도 종종 생겼다.

“윤락 여성들은 그런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며 나에게 훈계를 하더라고. 윤락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내가 우리 모임의 뜻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헌법 사건을 들춰 보이며 업포를 놓는 거야.” (성은아)

당시 구청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들춰 보던 헌법 책이 아니더라도 그 시절의 냉랭했던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는 주변의 경계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 시절에 감히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착취 방지’ 등의 문구를 내걸다니. 나는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나의 이런 생각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개나리회가 ‘빨갱이’ 처럼 보였을 것이 당연했지만 자신들 등쳐먹는 그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가 아니냐며 오히려 내게 반문했다.

만일 이 조직이, 사실상 결성 배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 사회정화위원회의 작품이라는 데 충실했다면 이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위협이나 견제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의’ 편리한 하수 관계에

놓이거나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일종의 역할 분담 내지는 하청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자치회들이 이 같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나름의 권한을 배분받았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개나리회 역시 여성들에게 인식되기를 업주나 경찰보다는 약하나 여전히 자신들에게 힘을 자랑하는 권력의 파편 조각 정도로 남았다면, 그러한 견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의 권리, 몸

개나리회에서는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개나리회 활동을 지지해 주던 당시 용산구 보건소 소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보건소 소장은 개나리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먼저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여성들의 성병 검진 실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 사이에서 성병 검진에 대한 의논이 오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병 감염 위험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의정부·동두천 등 기지촌 지역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시행한 경험이 보건소 소장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는 성병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살아야 했으니까 아주 절실했지. 그전 우선 여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처음부터 콘돔을 쓰게 했거든.” (성은아)

“보건소 소장의 힘이 컸지. 당시에는 검진이라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곧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돌기는 했지만 우리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았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는데, 어느 시기엔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보건소 소장으로 와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 거지. 검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물론 거부

반응 가진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안 가는 거고, 어쨌든 자발적이야. 다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숙자)

여성들이 먼저 성병 검진을 원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성병 검진은 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진행했으며, 검진이 있는 날이면 개나리회 임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홍보를 하고 다녔다.

“나도 그때 검진하러 다녔어. 그냥 가고 싶은 애들 가는 건데, 내 건강을 지켜 주는 거잖아. 나도 되도록 콘돔을 쓰려고 했지만 계중에 감각이 다르다고 해서 안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당시에는 콘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온소영)

보건소에서는 쿤이 발견되면 약과 주사로 처방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용산은 성병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자신이 있을 만큼 성병 발병률이 낮았다는 말을 했다. 성은아 씨의 말에 의하면 얼마 뒤 서울 한 남동에 성병검진소가 새로 개설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용산과 이태원 성매매 지역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다. 용산 지역 보건소에 있던 소장이 한 남동 성병검진소 업무를 보게 되자 자신들도 그곳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녔으며, 쿤이 발견된 여성 중 특별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성은 그곳에서 며칠씩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미군 부대 주둔지의 기지촌 클럽 종사 여성들에게는 성병 검진이 의무였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무척 깊었다. 기지촌 지역에서 의 성병 검진은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에 의한 기지촌 정화 캠페인에 그 맥을 두고 있었다. 이 캠페인은 미군들로 하여금 “기지촌과 한국에 대해 더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한” 캠페인에 지나지 않는다.⁵⁾ 기지촌 생활을 중

5) 온소영 씨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이 낙점자 수용소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성은아 씨는 낙점자 수용소는 아니었으며 보건소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6) 캐서린 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일레인 김·최정우 편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언한 여성 역시 이 캠페인에 대해 "미군에게 깨끗한 한국 여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를 격렬히 비난했다.⁷⁾ 그 시기 미군 클럽에서 일하며 정기적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던 여성의 대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던 그 제도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만일 성병 검진에서 보건자로 판명이 나면 낙점자 수송에 보내져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다.

관련 여성 단체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증언에서는 성병 검진 제도는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인권 유린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여성들 역시 의무적인 성병 검진을 "몸 파는 여성으로 별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수모"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개나리회가 자신들의 활동 내용 중 하나로 정한 성병 검진 사업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에 따르면 성병은 많은 여성이 피해 갈 수 없는 일상적인 문제 중 하나였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콘돔을 써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지간한 여자들이 아니고서는 남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으며, 설령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증상이 발견되기까지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하에 때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란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성매매 밀집 지역 세 군데를 정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적이 있다.⁸⁾ 이때 우리가 행한 아웃리치는 성매매에 대

7) 내게 처음으로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이 자서전(비출판물) 집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의견이다.

해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은 별로 없었다. 의지를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여성 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의 여성 단체나 선교 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배타적인 인식으로 인해 근접 자체가 불가능했다. 물론 이러한 배타 의식은 업주나 경찰, 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기업과 기관의 후원을 받아 성매매 밀집 지역의 여성들에게 여성용품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여성용품은 생리대와 콘돔 등이었는데,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관공서와 지역 내 업주 몇 명을 사전에 섭외하여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빚어질지도 모를 약간의 마찰과 냉소적일 수도 있는 여성들의 반응에 대해 걱정이 염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은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 중에서도 유독 콘돔에 관심을 보였다.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콘돔을 전해 주는 것이 뜨악스럽고 민망한 일이기도 했지만, 우선 콘돔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 유용성의 여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우선은 갖추어 두어야 할 물품이 아닐 수 없었다. 큰길가의 소원도에 있는 젊은 여성에서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뒷골목에서 펌프나 히뿌리를 하는 나이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콘돔을 비롯 우리가 준비해 간 물품을 거부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더 줄 수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나와 줄 수는

8) 매매촌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주최하여 1999년에 이루어졌다.

없을지를 묻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지니고 있었을 우리에 대한 배타적 심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일은 이미 차단되었다. 하지만 그 밖의 상담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를 해오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콘돔을 나눠 주는 것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단지 성매매를 인정하는가 혹은 성매매를 장려하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문턱 높은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밤에 활용할 수 있는 콘돔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현실을 여성들의 이기성으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지금껏 성을 파는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개념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나리회는 건강 관리 차원의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펼치는 한편, 손님들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지는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개나리회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눠 주며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남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건소와 공동으로 비정기적인 '교양 강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성병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금씩 언급되곤 하던 에이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성병 관리를 하는 것은 업주 처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들 표현을 빌자면 "깨끗한 냄비"를 공급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나리회의 성병 검진 활동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은 아마도 성병 검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견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제는 개나리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보건소 소장에게까지 확대

되었으며, 급기야는 성병 검진을 홍보하러 다니던 임원들에게 야유와 함께 폭행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언에서 일상으로

활동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관심은 여성의 일상 생활에서 더욱 필요한 문제들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광장과 성매매 거리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으며, 대항하고 부딪치는 것보다는 동료 의식을 키우며 서로간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갔다. 경조사 챙기기,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계산 잘해서 받기, 1인 1통장 갖기, 약 줄이기, 서비스 개선하기, 고운말 쓰기, 놀음 화투 줄이기 등의 항목은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순 강다구로 뭉친 여자들이었지만, 역전에서 보리차도 나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눈길, 이게 살아가는 이웃의 정이로구나 했지. 초상 나면 열 일을 제쳐놓고 와 주고, 무슨 날 챙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억압에 대한 대항 그런 거였지만 점점 보편적인 걸로 바뀌어 간 거야." (정숙자)

정숙자 씨의 표현처럼 개나리회 활동은 "억압에 대한 대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선언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모해 갔다는 의미이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겨 주는 일은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생일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런 여성

9)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는 '상습 도박 퇴치'로 명시되어 있다.

들에게 미역국을 대접하며 생일을 기억하게 하고 아플 때 찾아가 위로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은소영 씨는 이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활동을 주도하는 임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아가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치약, 수건, 속옷, 비누 등 생활용품들을 도매값에 떼어다가 지역 내 잡화점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여성들에게 팔았다. 이때 남은 이익은 개나리회의 재정으로 관리하며, 다시 여성들의 경조사 생기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개나리회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치약, 비누,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싸게 팔았어. 빨래비누, 세숫비누 그런 건 꼭 필요하니까. 싸니까 사기도 했지만 개나리회에서 파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도움되라고 그걸 샀지." (은소영)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사창가' 지역은 물건값이 비싸다. 그 지역의 경계는 성매매로 인해 활성화되면서도 정작 그 중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물가는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 그것은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 교류할 수 없다는 점,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주들의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현상이기도 하다. 여성들 역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런 지역에는 오래 보따리 장사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파는 물건은 '홀복'을 비롯해 속옷, 신발 등 일상에서 필요한 온갖 생활용품이다. 이 역시 여성들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는(혹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인데, 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보따리 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품목이 조금 바뀌었을지는 모

르겠으나 그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계산 잘해서 받기

개나리회는 특히 여성들이 '화대', 즉 성매매 대가로 받는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에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을 벌인 것은 손님뿐 아니라 일부 업주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손님에게 애초에 흥정된 '가격'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업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제한 뒤 셈해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다. 셈에 느리거나 자기 몫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만큼 흔했던 것이다. 여성들 중에는 개나리회에 그런 문제를 호소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겼지. 주로 주인하고 싸우고 화대 계산 안 해준 거, 그런 거 받아 주고, 회장이 해줬지. 지금은 양반이지. 지금은 애들이 똑똑하잖아.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칠폰이들만 왔지. 시골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몸뚱어리나 팔고, 밥이나 먹고, 밥도 제대로 안 해줬어. 계산 안 해주는 사람들 많았지. 그걸 어떻게 따졌겠냐? 게다가 그때는 업주가 백이 센대. 옛날에 수용소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하면 그럴 수 있냐?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가서 막 따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회장이 앞장서서 했지. 그럼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어. 우리 개나리회가 해낸 거지." (고수희)

처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해당 업주를 찾아가 담판을 지어 계산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이 점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업주랑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얼마만큼 떼어먹어도 아가씨들이 그걸 몰라. 계산 본 걸 받

아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시 업주한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업주가 딴 데로 옮겨가면 말썽 날리는 거야. 계산을 똑똑하게 하는 몇 명 애들 빼고는 많이들 그랬어. 실컷 고생해 놓고 몸은 상하지, 수중에 남는 돈도 없지. 그래서 개나리회에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계산을 보라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홍보했어. 아침마다 계산을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서도." (성은아)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자신들이 셈에 느린 경우는 개나리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으며, 처음에는 마땅찮아 하던 업주들도 점점 일 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주시기 시작했다. 이 활동은 뒤에 1인 1통장 갖기 운동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1인 1통장 갖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특히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이 활동은 "자립을 준비하고, 업주와 기동서방으로부터의 착취에 반대하자"는 그들 스스로의 취지를 살린 운동이었다. 계산 잘해서 받기와 함께 성매매 공간에서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관리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여성들이 제 통장을 개설하고, '화대'를 꼬박꼬박 저금하는 것, 당시로서는 발상을 뒤엎는 시도이기도 했다.

정숙자 씨는 개나리회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 배경은 당시 기동서방들에 의한 착취에 있었다고 말했다.

"화려하게 생활하는 여자들이 사치,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도 하고 옷도 사고 머리도 만져야 하고, 술이나 환각제로 낭비하는 돈도 많지만, 기동서방에게 주는 애들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내 상대라

면, 내가 기동이고 네가 아가씨면 이 기동은 일시적일 뿐이야. 지금은 꽃처럼 보이고 돈을 버니까 붙어 있는 거야. 영업 장소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할 때,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 남자가 지나가는데 놀다 가요, 이러면 이 씨발년이 이러면서 뿌리치고, 그러다가 이 개새끼 안 가면 안 가지 왜 때려, 대들다 여자가 물매당하고. 그런 경우에 기동이 도와주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삼위일체라고나 할까? 아가씨, 업주, 기동간의 삼위일체. 공생공존하는 거니까. 아가씨는 정말 자기네가 몸을 팔고 있을지라도 장에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씨발년아, 너 왜 이거밖에 못 벌었어, 네가 노력했으면 많이 벌었을 거 아냐' 그런 경우도 있지. 그렇게 때리다가도 아플 때는 또 기동차게 잘 해줘.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동이 모르게 자기 통장을 관리하는 거지. 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게." (정숙자)

처음에는 그다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정숙자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는 기동서방들이 경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 그들만의 대책으로 나온 안이었던 까닭이다. 자연 이 과정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시작이 꼭 업주와 기동서방으로부터의 착취를 의식해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과 더불어 이 운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생긴 여성들이 그 돈을 저금하고 계획을 세워 보는 나름대로의 훈련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통장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 극히 드물었어. 하루에 천 원이라든가, 한 달에 만 원이라든가 예금하고. 그때 통장은 활동 그만두면서 별로 안 하게 됐어. 만일 개나리회 활동을 계속 했다면 달라지기도 했겠지. 그때는 가정도 가난했으니까 내 통장 만든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집에 돈 갖다 주고, 내 동생 가르치면서 그랬으니까." (은소영)

은소영 씨 말에 의하면 성병 검진을 받기 위해 나갔다가 임원들의 제안으로 태어나 생전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아들게 되었다고 했다. 비단 은소영 씨뿐만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이 비슷한 처지였다.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주로 매주 정기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성병 검진 일을 이용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지역 내에서 개나리회가 계산 잘해서 받기와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회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개나리회는 지역 마을 금고와 협의를 통해 일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예금일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개나리회 활동에 그다지 배타적이지 않았던 당시 사회정화위원 중 한 사람이 그 마을 금고의 이사였던 것도 한몫 차지했다. 마을 금고에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개나리회 사무실로 직원을 파견했으며, 여성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금 활동을 했다. 비공개적이었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집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준비해 보자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이다.

"모이는 액수, 통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대단했지. 서로 보여줘 가면서, 1인 1통장 갖기,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 (정숙자)

그런 활동이 2001년 십대 성매매 근절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 김강자 총경(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의해 미아리 지역에서 시도된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얘기하자 정숙자 씨와 성은아 씨는 자신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했다"고 말했다.

김강자 씨가 미아리 성매매 밀집 지역 일대에서 그런 활동을 벌일 때 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이를 다루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김강자 씨는

당시 한 월간지와와의 이슈 대담에서 "봉급 통장 만들어 주게 한 후 매월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게 하고, 그게 바로 내가 주장하는 공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¹⁰⁾ 하지만 비슷한 시기, 지방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탈출한 김성희(가명, 당시 26세)¹¹⁾ 씨는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김강자 씨의 그런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자 자신이 속한 업소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서도 여성들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지만, 그 통장은 경찰들이 단속 나온 그날 단 하루만 자신들 손에 쥐어질 뿐이며 경찰들이 돌아가면 다시 업주의 손에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강자 씨가 종암경찰서를 떠난 뒤, 미아리에서의 보여주기식 통장 관리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개나리회에서 주도했던 그 활동은 미아리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그들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그들 내부에서 제기되어 시도되었으며 또한 일상 속에서 관리되었던 까닭이다.

악 줄이기 운동

환각제를 줄여 보자는 활동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여성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지역 여성들의 경우 이른바 '콩알' 혹은 '옥순이' (오타리들)로 불리는 환각제를 많이 복용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성매매 지역 내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나도 맨 처음부터 약을 먹었지. 창피해서 일을 못하니까. 그 당시 우리 집 아가씨 열 두 명이 다 약을 먹었어. 아가씨들이 맨날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 몸이 망가지니까. 저녁에 나오면 다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애들 뿐이었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었다니까. 다 약에 찼어서. 그 당시 거기는

10) 월간 『여성동아』, 2001년 8월호.

11) 인터넷 뉴스 사이트 Ohmynews 기사 관련 인터뷰 도중, 2001년 7월.

시장 있고, 양아치들도 많았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었고, 거기에 완행 기차도 있어. 완전 시장통 같았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아갔지. 채이는 게 손님이었고, 손님 한 서너명만 하고 나면 밀이 아프고 부어. 그런데도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약을 먹는 거야." (은소영)

복용하지 않는 사람 수를 손에 꼽아도 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환각제를 이용했다. 영업 나갈 용기를 얻기 위해 한 알 두 알 먹던 '콩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가 늘어갔다. 영업 준비를 위해 털어 넣고, 방금 받은 손님이 힘들게 해서 털어 넣고, 새 손님 받아야 하니까 털어 넣고, 배가 아파서 털어 넣고, 머리가 아파서 털어 넣고, 업주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털어 넣는 그런 식이었다.

"위안이 되는 거라곤 오직 콩알뿐이었지 뭐. 약에 취해 있을 때는 외로움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니까. 하루에 오십 개도 좋고 육십 개를 먹을 때도 있었어. 콩알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 술 냄새는 손님이 싫어하니까 술 대신 약을 먹는 거야. 술 먹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때는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지. 눈뜨면 손님 받고, 조금 한가하면 다시 콩알 먹고, 약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또 손님 받고." (성은아)

그렇게 털어 넣는 '콩알'이 하룻밤에도 수십 알을 넘는 날이 허다했다. 중독성이 강한 환각제를 줄여보자는 것은 실제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이는 힘들었다. 그런 까닭에 '끊자'는 제안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으며, 만일 그런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다 약쟁이들이었어. 누구였더라. 약을 하도 먹어서 누구 하나가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 정신 뭐, 그걸 일으켰어. 옛날에는 아예 주인이 그걸 먹으라고 먼저 줬어. 영업 시간마다. 영업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 집들도 있었지. 그게 무슨 진통제래.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자고, 조금이라도 덜 먹어 보자고 한 거지." (고수희)

성은아 씨는 여성들이 환각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것은 몸의 병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악머구리를 해대며 싸웠는지 몰라. 이들도 좋고 사흘도 좋은 거야. 그냥 끝장 날 때까지 싸웠다니까. 아예 머리 안 뽀뽀하려고 콜드크림을 바르든가, 날계란을 깨서 바르고 나가서 싸우기도 했을 정도니까.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렇게 싸워댔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약 깨고 술 깨고 나면 별 것도 아닌 걸로 싸운 걸 우리도 알지. 그럼 서로 파스 사다 붙여 주고 피식 웃으면 그만이었어.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걸 아동바동대며 산다는 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웠어." (성은아)

성은아 씨는 '콩알'로 인한 물리적인 손상뿐 아니라 더욱 쉽게 체념을 하게 되는 심리적 손상이 더 두려웠다고 했다. 그것은 성은아 씨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염려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라며 '발'로 시작한 활동이 점점 직접적인 판매처를 상대로 펼쳐졌다. 개나리회 임원들은 여성에게 약을 판매한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지역 내 약국마다 돌아다니며 약을 팔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그런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자 자세를 바꾸어 해당 약국에, "만일 약을 계속 판매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가히 도전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야 코방귀도 안 뀌지. 우리가 이거 불법이라고, 계속 약 팔면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겁을 먹더라구. 딱 한 군데에서만 우리 몰래 약을 팔았어." (성은아)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이미 약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나와 있는 회원들에게 몸에 해롭지 않은 엉뚱한 약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그리 효과가 높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들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 보려는 의지가 강했다.

개나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적었던 일부 업주들에게까지도 호응을 얻었던 이 활동은 다음의 방식까지도 동원되었다.

"주인들이 우리 취지를 인정했을 때, 그럼 영업은 해야 되니까,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주인이 갖고 있다가 주는 거야. 아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게 뺏아서, 먹더라도 조금만 먹으라고. 열 개 먹을 거 일곱 개만 먹게 한다든가, 일곱 개 먹을 거 다섯 개만 먹게 한다든가." (정숙자)

표면상으로는 업주들이 여성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건네 주던 것과 별 차이가 없지만, 개나리회에서 약 줄이기를 제기한 뒤의 그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개중에는 약을 찾는 여성들에게 "내가 너한테 약을 많이 주면 개나리회가 지랄한다"며 달래는 업주가 있을 정도였다.

정숙자 씨는 이 운동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변화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약 줄이기 운동은 그 지역 누구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 중 하나인 환각제 과다 복용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약에 절어 가누지 못하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개나리회는 이 밖에 놀음, 화투 줄이기를 비롯해 고운말 쓰기, 서비스 개선 등 자신들이 성을 파는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몇 가지 활동도 펼쳤다. 이런 활동은 거의 대부분 성매매에 개입되어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업주나 일을 부리는 처지에서 보아도 그리 나쁠 것 없는,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고운말 쓰기는 비단 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술과 약으로 얼룩지는 생활 속에서 쉽게 쌍소리를 내뱉는 것은 다반사였고, 급기야는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었다.

성은아 씨와 정숙자 씨는 이러한 활동이 성매매 공간에서의 직접적인 행

위들과 연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개나리회가 기획하여 벌인 이 활동은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 갖는 공통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개나리회라는 그룹의 특이성과 정통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적인 근거들인 셈이다. 이 일련의 활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부가 아닌 자신들 스스로에게서 처음 제기되고 시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녔다. 스스로와 이웃의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외출

개나리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중에서도 유독 자원 봉사의 경험에 열면 호응을 보이며 이야기했다.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서도 눈에 드러나는 움직임이던 자원 봉사 활동은 여성들에게 큰 경험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한 활동 내용 중의 하나인 놀음 화투 줄이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성은아 씨나 임원들 역시 사람들과 어울려 화투치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적이 많았는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로 인해 또다시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려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했다. 하지만 화투는 성매매 집중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취미 생활이기도 했으므로, 임원들이 "줄이자, 줄이자" 해도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웠다. 이런 놀음 화투가 줄어든 것은 개나리회가 정기적인 자원 봉사 활동을 벌이면서부터였다.

이들이 주로 자원 봉사를 했던 곳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나환자촌 등이었다. 개나리회 활동과 관련된 유일한 문서인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광장과 성매매 거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다.

사항]이라는 짧은 문서에는 자신들의 사회 봉사 활동 목록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불우 이웃 돕기

- 삶의 의욕을 잃고 자학에 빠진 회원들에게 생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도 남을 돕고 살 수 있다는 자부심 내지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한 방법
- 고아원 및 양로원 방문(연말 연시 성탄절 또는 어버이날 등: 떡, 장갑, 목도리, 양말, 고기 및 기타 선물 준비)
- 안양 성 나자로 마을 방문(겨울 땀감 만들기, 묘목 심기, 환자 가제 접기, 오락 등으로 환자 위문)
- 경기도 광주시의 산성의 집(지체장애자 공동체)(모내기, 밭 매기, 벼 베기, 김장, 빨래해 주기)
- 사랑의 선교회 위문 잔치(식사 제공)(결인, 노동자, 청소부 대상)
- 결핵 환자 돕기 일일 찻집
- 수재민 돕기 폐품 수집(이불, 헌옷, 라면 등 방송국에 전달)
- 무료 급식소 식당 봉사(김치 담그기, 식사 준비)

처음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동료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은 점차 사회적인 것으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 갔다. 애초에 연 2회로 계획되었던 자원 봉사는 그들이 흔히 알고 있듯 전형적인 노력 봉사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자원 봉사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속해 있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시도에 가까웠다. 그 두렵지 않은 경계선을 한 발짝 넘어 보는 경험은 그들에게 이전에 느껴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했다. 이런 경험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은 활동 영역을 더

욱 넓혀 갔으며, 그런 긍정적인 경험은 주변 여성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자원 봉사가 더욱 빈번해질수록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아도 여성들 스스로 인력을 동원하고 때로는 자원 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게 되었다. 몇 날 며칠 어디로 자원 봉사 갈 것을 정하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곤 했다. 예를 들어 성탄절 때 양로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면 공금으로 실을 구입해 회원 중 손재주 있는 여성들이 튼튼이 스웨터를 짜며 준비하곤 했다.

"가끔은 누가누가 더 많이 짜나 자기들끼리 내기가 붙곤 했어. 그럼 아가씨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뜨개질을 할 정도였더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꽃단장한 여자들이 빨간 불빛 아래서 온 정성을 기울여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걸 보면 여염집 주부만큼이나 얌전하고 아름다워 보였어." (성은아)

영업 시간중에는 업주들 눈치가 보이니까 잠잘 시간을 줄여 가며 일을 할 때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일삼아 벌이던 화투판도 전에 비해 눈에 띄는 만큼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숙자 씨는 자신이 했던 자원 봉사 중에서도 어느 노숙자 급식소에서의 경험을 기억해 냈다.

"거기가 무슨 급식소였는데, 가면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밥을 짓고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어. 김치도 담그고,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밥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백 원씩인가 얼마씩을 받았어.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였지. 난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 나." (정숙자)

정숙자 씨는 그때의 자원 봉사 경험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지금도 날마다 이런저런 자원 봉사 때문에 늘 바쁘다는 그를 보면 개나리회가 그에게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성은아 씨는 당시의 자원 봉사 경험이 자신들 내부의 결속을 다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가씨들이, 우리는 쓰레기다. 하지만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을 했어.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고아로 자란 아가씨는 고아원에서 옛날 자기 생각이 난다며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고, 양로원에 가서는 옛날에 나를 버린 엄마가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시울 적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시라며 두 손을 꼭 잡는 회원들 모습이 어떻게 쓰레기일 수가 있어?" (성은아)

성은아 씨는 그렇게 자원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버스 안이 온통 눈물 바다가 되곤 했다고 회상했다. 자신만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었다. 그런 여성들이 자기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 삶에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성은아 씨는 여성들이 자원 봉사를 나가서 사람들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은 '화대' 높이기 위해 애써 웃어야 했던 그런 웃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때의 웃음은 '처음으로 동거하던 남자의 호적을 되찾아서 혼인 신고할 때의 기쁨'과 달랐고, 업주가 되어서 '아가씨'들을 부리게 될 때와의 기쁨과도 다른 것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또 생각보다 '화대'를 많이 받았을 때의 알뜰한 웃음과도 달랐다. 지금껏 느껴 보지 못한 충만감 혹은 삶의 자극 같은 것이었다.

‘멤버’로 사는 것

정숙자 씨는 '문란한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당시 현실은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별 수 없이 살아가던 것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성매매가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성매매로 인해 겪는 불이익뿐 아

나라 그 체제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얻은 느슨한 생활 습관과 분노 혹은 포기과 체념이 자신들 삶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업주와 경찰과 손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싸움의 대상 혹은 분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저항의 경험이 거듭될수록 개나리회는 체제에서 고립되어 갔다. 불이익과 착취에 대한 저항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들로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선언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고민이 깃들여 있다. 되풀이하자면, 비로소 실재하는 일상을 돌아봄으로 매일같이 겪는 하루하루의 삶을 끌어 안으려는 그들 내부의 자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의 변화 과정에는 개나리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몫이 크게 작용되었다. 성은아 씨를 비롯한 임원들은 자신의 일상을 통해 회원 전체가 겪는 삶의 문제를 수용했으며 그러므로써 자신과 모두의 삶을 유기적으로 인식해 나갔다.

"내가 완장을 두르고 무슨 사고가 없나 돌아다니면, 감투 썼으니까, 언니 돌아다니기 힘들지, 오늘 손님 몇 명 받았니 어찌구 하면, 내 말 한마디로 그 아이들이 따뜻하게 위로받는다 생각하면, 그게 참 따뜻한 일이지. 애들이 정이 많아,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가게로 무조건 끌고 들어가, 그런 아주 사소한 정들." (정숙자)

정숙자 씨 말에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깃들여 있었다. 나는 정숙자 씨뿐 아니라 성은아 씨, 고수희 씨에게서도 개나리회 활동이 그들 인생에서의 첫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이들은 비록 어떤 부류에게는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동네 나갔다가 말고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그만두겠다고 안 해, 진짜 자부심이 대단했어. 개나리회라는 자부심." (성은아)

"의견 차이 같은 건 없었어. 좋은 일 하는데, 나쁜 일을 해야 그런 일이 생기지. 모이면 좋은 일이나 타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잘 이끌어졌었지. 나는 그냥 해주는 게 좋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았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 다 따르게 마련이야. 애들이 우리 보면 뭐 하나라도 사 주지 그냥 보내지 않아." (고수희)

임원들 개개인에게 이 활동 경험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비장함과 업주들이 볼 때는 짐짓 자기들을 외면해도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응원은 이들의 자존감을 튼실히 다져 주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지만 참여 대상에는 그리 큰 구분을 두지 않았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회의에 나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사업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개개인의 고민이나 생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또 그 자리에서는 임원진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제안들은 대부분 성매매 공간에서 겪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자들이 자기네 집 업주가 반찬을 영망으로 해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말까지 와서 했을 정도였어." (성은아)

회원들 편에 서는 경험이 많을수록 그들에게로 향하는 주변의 신뢰는 높아졌다. 그것이 있었기에 임원들은 바로 좀 전까지 고민했던 현실적인 어려움, 이를테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매매 체제 안에서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은 임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일, 나와 이 여자들이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다.

여기에는 회장 성은아 씨의 생각과 리더십이 큰 몫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활동 제안은 바로 그에게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임원들 역시 그 점을 인

정했으며, 회장의 리더십이 자신들의 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회장이 아주 잘했어. 통솔력도 있었고, 정이 많은 사람이야. 회장도 꼴통 부리면서 그런 사람인데 지가 먼저 술선수범을 하고 변하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끌린 거지.”(정숙자)

“사람들이 말을 잘 따랐어. 그 말이려면 껌 딱 갔으니까. 옛날에는 굉장한. 뭐 경찰서에 가서 저기 할 정도로 강패 같았대. 그런데 완전 꼴통이 아니고 의리와 꼴통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 거야. 여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정당하게 옳은 일로 옳분해서 꼴통 부리는 거니까 다 좋아했지.”(은소영)

“어유, 개니까 그만큼까지 갔던 거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 아픈 애들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지네 집 데려다 놓고 밥해 먹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좋게 하고, 모이면 재밌는 얘기 해주고, 엄청 노력했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찍었다니까. 갠 내가 발탁한 거야.”(고수희)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성은아 씨는 개나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업주나 기동서방,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개나리회 맡아서 할 때는 옛날의 내가 아니지. 구청이나 파출소에서 불러다 혼계하고 그러면 속에서는 뽕지만 꺾꺾 눌러야지. 적어도 200명 넘는 회원들을 이끌려면 뭔가 달라야 달라야지. 생각하면 그깟 화 참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활동을 중지시키려 해도 그제 우리 몇 명에서 정한 거였나? 회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고, 그거 결정하던 날 우리 나 회원들이 모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맛을 알아 버려서. 경고 몇 마디에 그만 둘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성은아)

나 역시 성은아 씨뿐만 아니라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그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개나리회가 그 술한 난관을 이겨내며 곳곳이 활동해 내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별들

개나리회의 활동이 안정되어 가고, 여성들 스스로 ‘우리들의 회’라는 인식이 커져 참여도가 높아지자 일부 언론에서 이런 개나리회의 활동을 취재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언론에 소개되는 일은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걸 버린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격려받고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는 데 대한 자긍심이 함께 교차했다.

이들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며 개나리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인, 작가, 종교인, 대학생 등이었는데, 이런 과정은 결코 유쾌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았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법 찾아왔어. 기념품 같은 거 몇 상자 갖고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누가 그걸 좋아해? 그럼 내가, 탄 애들은 절대로 그런 데 안 나설 테니까, 대신 내가 억지로 웃어 가면서 사진 찍고, 애들한테는 다 좋은 말만 전하고 그랬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자기가 무슨 전도사라며 찾아온 남자가 우리 앞에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며 막 울더라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정말 가슴스러웠지.”(성은아)

성은아 씨는 당시 자신들은 ‘약지 못했다’고 했다. 신문기자나 작가 혹은 종교인이 찾아오면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을 맞았다. 지금이야 성매매

문제가 자주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당시는 그저 특별한 화제거리에 불과했다. 그 뒤의 세월을 거치며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며 더러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는 달랐다. 그렇듯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행에 동감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또 그런 일로 소개되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특별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문기자나 작가에게는 그 여성들이 하나의 소재가 되었으며, 기독교인에게는 선교의 대상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를 못 사람들의 방문은 여성들에게 상반된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성은아 씨의 표현처럼 자신들을 죄인이라 부른 일부 기독교인에게 가슴스러움을 느꼈는가 하면, 단지 “힘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 먼 길 마다 않고 와 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 이런 과정들은 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교류하는 끈으로 작용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개나리회는 인근 지역의 어느 청년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과의 만남은 개나리회가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개네들과는 대단한 인연이었지. 우리들 개인이었다면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을까? 하여튼 참 달랐어.”(정숙자)

그 청년회도 종교적인 모임이기는 했지만, 개나리회 회원들에게 단 한 번도 선교하려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다만 개나리회 자원 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석하며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 갔을 뿐이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이 가졌다. 저마다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닌 이들이 만나 서로의 정서와 문화와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간에 갖고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엇비슷한 연배

이거나 동생뻘인 그들과 스스럼없이 교류하며 이 낯선 젊은이들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이때의 만남은 분명 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개나리회로서는 치명적인 와해의 계기가 되었다.

1983년 5월 23일, 개나리회와 청년회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장흥으로 야유회를 갔다. 개나리회 회원은 4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오랜 만에 놀러 가는 것이어서 다들 들떠 있었다. 회장 성은아 씨로서는 행여 자신들이 평소 하듯 기분에 취해 한 잔 두 잔 마신 술로 싸움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사소한 문제까지도 염려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 사이에서야 그런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자기 같은 처지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가져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행사가 다 끝나도록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사고는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겼다.

돌아올 때 기차를 이용해 모두가 함께 움직였는데, 막상 기차에 오르곤 보니 개나리회 회원 두 명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하던 차에 용산에 도착해 보니 불길한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도 놀러 간 적은 있지만 매번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하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뒤통쳐서 싸우다 돌아오곤 했어. 근데 이 날은 게임도 하고 아주 재밌었거든. 싸움도 없었고, 용산역에 도착해서 아무 일도 없어서 다 행이다 싶었는데 딱 그 소식을 들은 거야.”(성은아)

회원 두 명이 기차를 타러 가던 중 장난삼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얻어 타게 되었다. 정숙자 씨는 그것을 “술 한 잔 들어가니 화류계 기질이 발동했던 것”이라며 씩씩히 말했다. 그 오토바이로 오던 중 사고가 났는데 두 여성 중 한 명이 뇌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상태가 위독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으로 실려 간 사람은 봉사 활동 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일하던, 나이가 제일 어려 ‘막내’로 불리던 조영

숙이라는 여성이었다.

소식을 들은 성은아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챙겨 회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까지 업주와 경찰, 그리고 동료 여성 내부에서 순탄치 않은 순간은 많았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 성은아 씨는 마음속으로 '제발 죽지만 말라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 임원들은 그 여성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를 수소문해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얼마 뒤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그 여성은 수술받은 지 사흘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가족들은 개나리회에서 장례 절차를 맡아 치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정작 그 여성의 장례식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치를 수가 있었다.

"그때 장례 과정이 또 얼마나 애절했는지 알아? 좌우지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한 달인지 50일 가까이 엄청나게 걸렸어." (정숙자)

성은아 씨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사고를 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였기도 하지만 당장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어서였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측은 동대문시장에서 운반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곧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돈이 없어 여기저기 돈을 마련하러 다니며 영안실을 지켰다.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영안실은 죽은 조영숙 씨의 가족과 개나리회와 청년회 회원들로 매일같이 붐볐다.

"문상 정도가 아니라 출퇴근을 했어. 아예,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통발에 가 있으니까 업주들한테 욕을 되게 먹었지. 영업이 문제였지. 우리가 꼴통들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았어. 말하자면 의협심이랄까? 동료 의식……" (정숙자)

306 용감한 여성들, 녹대를 타고 달리는

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죽음이 없을 거야. 화려한 죽음이지." (정숙자)

"다들 부러운 듯이 말했어. 평생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살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도 누군가가 저렇게 해준다면 지금 당장 숨이 끊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때 용산에서 지켜지던 미신 하나가 깨진 거지." (성은아)

성은아 씨가 말한 용산에서의 미신이란, 시체를 본대거나 시체 가까이 가면 부정을 타 재수가 없다는, 그들 사이의 부정적 통념이었다. 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상가에도 가지는 않아 왔다. 한데 그런 여성들이 17일 동안 영안실을 지키고 앓다투어 장지까지 따라간 것이다. 성은아 씨는 그때를 "사랑이 미신을 이기는 현장" 같았다고 말했다.

장례가 끝나 용산에 돌아온 성은아 씨는 동료로부터 업주 중 한 사람이 "회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빚을 다 지느냐"며 돈을 모아 주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정말 소문난 악질 업주였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고맙기도 하고. 그 일을 치러낸 것도 스스로 대견했지만, 개나리회 한 사람이, 몸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깐." (성은아)

장례가 끝나고 여성들은 두고두고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심정보다도 그 장례를 치러낸 개나리회와 청년회의 의리에 대해, 그리고 '몸 파는 여성' 한 명의 죽음에 그렇듯 구름처럼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이 일은 개나리회가 활동을 접게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조영숙 씨의 장례 과정은 개나리회 회원들이 이전에 경험한 것 이상의 자

308 용감한 여성들, 녹대를 타고 달리는

그들은 병원 영안실을 지키는 한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지불해야 할 돈과 장례 절차에 필요한 돈을 모금했다. 그리고 그 동안 물건을 팔아 모은 개나리회의 공금도 모두 찾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그 동안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회원들 중에 어떤 애는 영안실 청소를 해주고 다른 유족들이 사용하다 남은 초하고 향을 얻어다 우리가 쓰기도 했어. 남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그런 걸로 밥해 먹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기는 했어. 하여튼 우리는 그 당시에 청년회 회원들하고 최선을 다했어." (정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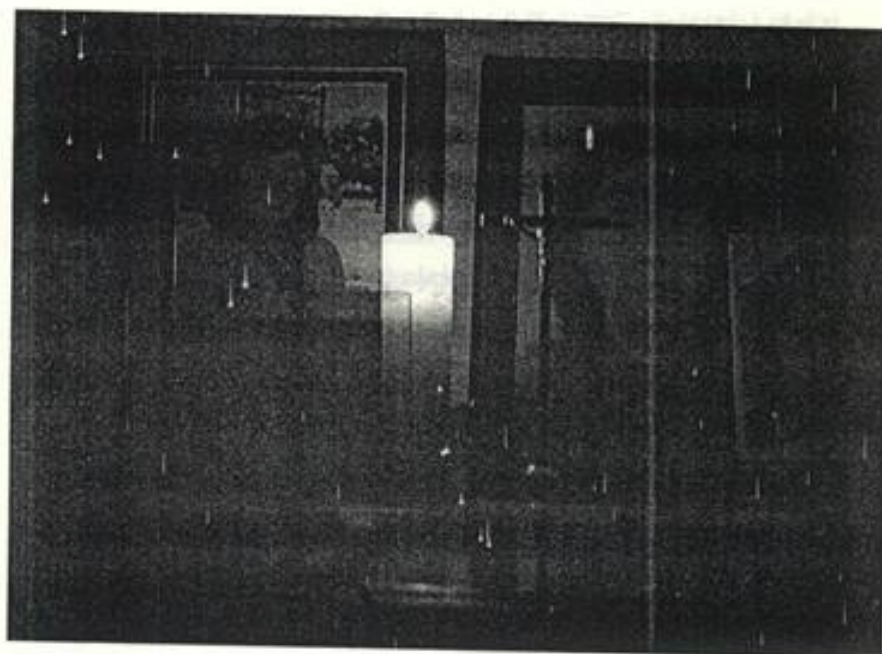
개나리회 회원들이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업주들은 아예 병원 출입을 못하게 제지했다. 그러자 여성들은 자기 돈으로 긴 밤 화대를 업주에게 지불하며 또다시 병원으로 나와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더러는 빚을 내어 자신의 긴 밤 화대만큼의 액수를 업주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회 회원들은 그들대로 회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퇴근을 했고, 아침이면 밤을 꼬박 세운 뒤 병원에서 출근을 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자 병원측에서는 시체를 실험용으로 팔겠다고 옥박질렀다. 그때의 심정을 회장 성은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었지. 짧은 인생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사랑받고 살지도 못한 아인데, 시체마저 남의 칼에 맡기면 그걸 어떻게 봐. 나는 그 동네에서 살면서 콩알 많이 먹어서 죽고, 연탄 가스 마셔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러는 거 많이 봤어. 비참하잖아. 막내 영숙이만은 그렇게 가게 할 수는 없더라고." (성은아)

그 동안의 병원비에 대해 청년회 회원 한 명과 성은아 씨가 연대 보증을 서고 나서야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각자 모은 돈들을 내놓았고, 청년회 회원들은 적금을 해약하거나 월급 봉투를 들고 오기도 했다. 그렇게 돈이 모이자 조영숙 씨가 죽은 지 거의 한 달여 만에 비로소 장

어떤 역사 307



개나리회 한 사람이, 몸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깐……

어떤 역사 309

부심과 소속감,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독려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낸 얼마 뒤부터 이들은 곧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업주들과의 문제였다. 개나리회를 도와준 업주가 있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업주들이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개나리회와 여성들의 관계를 끊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업주들이 거 보라고, 개나리회 따라다니다 그런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아예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랬어.”(성은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개나리회에게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했다. 사연을 모르는 이들이야 없었지만, 그 일이 개나리회에게 결정적인 위축감을 주었던 것이 분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개나리회가 사용하던 사무실마저 잃게 되었다. 본래 그 사무실은 초기 사회정화위원회가 사용하던 곳으로 ‘아가씨 장사’로 돈벌어 다방업을 하던 한 정화위원의 소유였다. 그것을 개나리회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변 업주들의 압력으로 별 수 없이 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개나리회 사무실이 없어지고 나서는 임원이나 회원들이 회장 성은아 씨의 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수희 씨는 거기가 자기들의 ‘진짜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성은아 씨는 그 일이 있은지 얼마 뒤 주변 사람 소개로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자신과 성매매 체제 사이에 14년 동안 존재했던 고리를 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로서는 오랫동안 이어 온 고민의 결론이었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다. 지금껏 감당해야 했던 술한 난관보다도 더욱 높은 장벽 앞에 그는 과감히 직면한 셈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점점 사회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 같아. 우선 개나리회 때문에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일단 손님받을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꼈어. 내가 냄비라는 약점이 있잖아. 따지고 보니 내가 그 약점을 떼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닌

가. 사실 내가 영업 계속하면서 다른 아가씨들한테 이러니저러니 한다는 것도 우습게 보일 것 같고, 나도 이제 좀 떳떳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성은아)

성은아 씨는 자신이 전업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14년 동안 학대만 받아 온 자신의 몸에 대한 미안함도 한몫 차지한다고 했다. 술과 약으로 거칠어진 피부, 깨진 병조각과 칼에 찢겨진 구석구석의 흔적들. 그러나 그는 미안함 한편으로 ‘동치’로 불리면서도 성매매 공간에서 버텨 내 온 자신의 작은 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말도 했다.

그의 전업은 그 지역의 대다수 여성들이 그런 성은아 씨를 보고 응원하고 자극을 주었을 만치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개나리회 자체로서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방향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개나리회의 활동은 그 뒤 서서히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었다. 임원이나 회원들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흔히 그렇듯 다른 성매매 지역을 찾아 옮겨가거나 결혼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개나리회는 종종 사람들의 화제 속에서만 존재하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절반의 동조

“어느 날 시르몽당시르몽당 다 떠나니깐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 거지. 포주하던 내 친구가 나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 줬어. 그게 하필 배꼽이 튀어나온 장애였어. 개가 그걸 키우고 마음을 잡으래.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못생겼어. 그러다 보니 그게 개라도 예뻐졌어. 개나리회는 없어지고.”(고수희)

고수희 씨는 그 시기를 무척 안타깝게 회상했다. 그는 개나리회가 해체되고 난 뒤 강아지를 키우며 위안을 삼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강아지

키우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족 하나 없는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해 두 해 지나며 옛 여자들이 사라지고 또다시 옮겨오기를 거듭하는 동안 이 인터뷰에 응해 준 여성들과 또한 그때의 경험을 간직하고 사는 몇몇을 제외하고 이제 더 이상 개나리회를 화제로 삼는 여성은 별로 없다. 성을 팔든 펌프를 하든 현재까지도 성매매와 관련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거나 모두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여전히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여성, 은소영 씨와 고수희 씨는 개나리회 같은 조직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는 성은아 씨와 정숙자 씨는 아직도 남아 있는, 또한 이어질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개나리회 같은 조직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 스스로가 내린 개나리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우리는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성은아)

“이 개나리회는 나에게 영원한 추억이야. 아주 깊은 거지. 개나리회라고 하면, 나 개인에게는 ‘소속’이었어. 소속감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 가방끈이 길어서 동창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멤버라는 자부심이 아주 컸어.”(정숙자)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식을 받고, 개나리회 회원들 중에 돈벌어서 나간 애도 많고 결혼한 애도 있고 집 사서 장사도 하고, 근데 그걸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 남자라는 게 과거 알면 그렇잖아. 지금은 잘 살아,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리회를 조직한 건 잘한 거야. 나야 이려고 살지만.”(고수희)

“난 지금도 안타까워. 나야 업주 눈치 보느라고 6개월밖에 못했지만, 지금도 그런 모임 있으면 좋지. 응? 우리 처지도 맨날 매춘, 뭐 이런 말만 들어

야 하나? 난 윤락도 그렇지만 매춘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은소영)

정숙자 씨는 그 활동 경험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특별하고 즐거웠으며 보람있는 일로 떠올랐다. 그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가진 소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긍정적 눈길을 배우게 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는 개나리회가 해체된 몇 년 뒤 결혼을 했고, 오랜 동안 마음속에 담아 둔 결심처럼 성매매에서 벗어났다. 그후에는 줄곧 자원 봉사 활동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활발히 활동하며 성실히 살고 있다. 자체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을 가장 높이 자평하는 성은아 씨는 그때를 계기로 전업에 성공했으며, 은소영 씨는 그 뒤로 몇몇 지역을 옮겨다니다가 현재는 서울의 한 성매매 지역에서 마흔이 훌쩍 넘어 버린 나이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고수희 씨는 오래 전 ‘아가씨’의 처지를 벗어나 지금은 지방의 한 소도시 성매매 지역에서 50대 중후반의 ‘늙은 언니’들에게 손님을 끌어다 주며 스스로의 표현처럼 ‘영원한 뽀뽀(펌프)’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은소영 씨와 고수희 씨는 성매매 공간을 벗어난 옛 개나리회 동료들, 그 시절 친구나 동료에 대해 특별하게 회상했다. 자신들은 여전히 오래 전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만큼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충분한 자부심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개나리회가 과연 개인의 추억과 위안으로 머무는 것 외에 더욱 뚜렷한 성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궁금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밝혔듯이¹²⁾ 자신들의 ‘빠른 자립’(직업 전환)을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자극하였으며 또 실제로 그 계기를 만들었느냐고 질문했다.

12) 주 9)의 문서.

"많이 고민했지. 그랬기 때문에 서로 많이들 자극을 주었지.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봐, 회장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여기 용산에 오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왜 용산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계가 멈추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 꼴로 있어야 될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야." (정숙자)

정숙자 씨의 답에는 이제 자신은 용산이 아니어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제 삶에 대한 자평의 의미도 숨어 있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자신들이 염두에 두었던 '빠른 자립' (직업 전환)이라는 말이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다.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성매매에서 벗어나거나 직업을 바꾸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다. 성매매 체제 안에서 쌓인 자존과 체념,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굴레로부터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편적 의미에서의 재할 혹은 전업의 의미로 국한 지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전유어저서도 안 된다. 자립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자립은 아니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흔히 요구했던 단순한 의미의 전업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는 내 질문은 우문이었던 셈이다.

나는 자신들이 했던 활동의 제목을 얘기해 줄 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했던 그들의 표현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던 터였다. 처음 그 문건을 건네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설핏 웃음을 흘리기까지 했다. 사실 그 말은 생경스러울 수 있다. 기동서방 없애기, 펌프 손님 안 받기, 고운말 쓰기,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 놀음 화투 줄이기 운동 등.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일상 곳곳에서 자립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단편적인, 그러나 절실한 근거들이었다. 만나고 얘기 들기를 무수히 되풀이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그 대단하지 않은 문구들에 왜 꼬박꼬박 운동이라는 표현을 달았는지를 말

이다. 하지만 당시 용산역에서 일하던 여성의 수가 250명, 그 중에서 임원의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여성의 수는 고작해야 십여 명이었다. 개나리회를 보람과 자긍심으로 추억해 내는 이들에게 나는 그것이 '그들만의 조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담아 보았다.

"그래, 주저앉아 무슨 고아원, 양로원엔 몰려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사회 객관적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푸근함을 느끼는 그런 거. 외출했다 돌아오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안정감 같은 거. 용산에 와서 전 철역에 딱 내리면 아, 우리 동네에 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 하여튼 제맛이었어. 우리도 정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250명이 다 함께 한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절반만 동조를 한다 해도 의미 있는 거지." (정숙자)

정숙자 씨는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용산이 개나리 회 활동을 거치며 어느덧 푸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다. 대비되는 이 말은 언뜻 모순처럼 느껴졌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일상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되뇌던 시절, 그때는 용산이 굴레였다. 하지만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일상 속에서는 푸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고향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밤마다 낯선 사내에게 몸을 내 주어야 했던 용산이 개나리회 활동을 통해 그토록 다른 의미로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유독 '절반의 동조'라는 말에 힘주던 정숙자 씨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절반에 그쳤다 해도, 자신들은 그 절반의 동조를 얻어내지 않았느냐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과 시행, 이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논쟁의 말, 그리고 몇몇 NGO로부터 시작된 여러 시도들에서 그런 동조를 얻

어떤 경험은 결국 없다. 이는 정책과 시행령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밝혀 왔고, 그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부류들조차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는데 모른다. 일상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출발하며, 일상에서 함께 꿈틀거리는 것 말이다.

그 3년에서 오늘을 보며

우리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한 경험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일상 속의 긍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을 여성들이 겪은 피해 현실과 맞먹는 의미로 여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러 연구물과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 온 이슈는 지금껏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어 왔다. 특히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 NGO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과 인권 유린 현실을 알리기 위해 주력해 왔으며, 몇몇 여성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체제 안에 편입된 그 순간부터 불평등한 관계로 인한 억압적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나는 그 동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느 면만을 들으려 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해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여성들과의 교류가 '일'이 아니라 '생활'로 다가올수록 그것은 내게 쉽게 멀쳐낼 수 없는 하나의 의문이 되어 갔다. 비참한 현실'의 또 다른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웃기고, 재미있는 일상'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갈등을 갖게 만들곤 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힘과 희망을 인정해야 한다면 공식처럼 되뇌어 왔음에도, 나는 그것의 근거가 바로 내 곁에 존재했다는 것

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몇몇 나라의 '성 노동자 노동조합'에 관한 경험과 흡사하지 않는가 하고 그 공통점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좀 단언하기 힘들다. 한국에 존재했던 자치회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여성 노조가 지니고 있는 배경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 지를 쉽사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자치 조직에 대해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를 혹은 배제했을지도 모를 정치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미처 자각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이 나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여성 자치 조직이 보여주는 공통점 하나는 그것이 자생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어떤 경우보다도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여성들은 기다리기도 했다는 듯 숨가쁘게 많은 얘기를 토해 냈다.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대부분 자신이 겪은 억압 상황과 지난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여성들 당사자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주로 들려 주었다. 아쉽게도 어떤 여성은 자신의 당시 직책마저도 기억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에 대해 확신이 없어 했지만, 활동할 때 들었던 심정이라든가 개나리회가 개입된 일화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야기했다. 특히 자신들의 집단 행동이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눈빛을 반짝이며 회고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숨과 눈물보다도 자부심과 즐거움으로 회상될 수 있는 기억을 지닌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개나리회가 활동한 3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아주 잠시 동안의 꿈처럼 짧기 그지없다. 당시 활동했던 회원들의 '배운 경력'이나 용산 성매매 지역이 존재해 온 역사에 비하더라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궁색하리만치 짧다. 하

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자치 조직의 경험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3년은 결코 짧지만은 않다. 개나리회는 '갑히' 그 시절에 자신들의 처지와 바람을 선언했고, 비참하다고 관망하기만 했던 스스로의 삶에 비로소 용기를 부려 보았으며, '함께' 자신들만의 일상을 끌어안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시도했다.

이는 비단 이 개나리회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다. 발굴되지 않은 또 다른 자치 조직과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자생적인 움직임과 목소리 내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존재했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기에 소개한 개나리회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개나리회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시도에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낯설고 생경한 이 기록이 지금껏 우리가 지니고 있던 관념들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년의 경험이 심상찮은 사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들이 용기를 부렸듯 우리도, 우리 사회도, 다시 그들 스스로도 새로운 지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 및 위원이 소개

원미혜

「한국 사회의 매춘 여성에 대한 통계와 착취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일본의 공창 제도 연구」(아시아여성학센터, 2000),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 등을 진행했다. 1998년부터 한국여성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공저로 『섹슈얼리티 강의』(동녘, 1999)가 있다. wonmadam@dreamwiz.com

엄상미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기지촌 현장 단체를 거쳐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에서 활동했다. 다큐멘터리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와 「가출 이데아: 밀리오래에서 길을 잃다」를 기획했으며, 공저 『막달레나, 막 달레나?』(개마서원, 2000) 등이 있다. 여성들의 삶(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orcha@dreamwiz.com

백재희

「외국 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성 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 조사 연구」(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 등을 진행했다. 비영리 복지 시설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bjaehee@dreamwiz.com

이효희

「십대 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십대 여성의 성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여성특별위원회, 1999),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를 진행했다. 1997년부터 청소년 쉼터 프로젝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sim252@hanbox.com